

저자 황도연
국역 구현희
해제 구현희

국역
醫宗損益附餘



ISBN 978-89-5970-493-4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서문 序	1.1
범례 凡例	1.2
강령 綱領	1.3
오색이 주관하는 것 五色所主	1.3.1
오미가 주관하는 것 五味所主	1.3.2
승강·부침의 의미 升降浮沈之義	1.3.3
약의 상하부위와 겉과 속의 구별 藥有上下內外之別	1.3.4
오미의 상극 五味相克	1.3.5
병에 금하는 다섯 가지 五病所禁	1.3.6
여러 경락 부위로 들어가는 여러 약 諸藥入諸經部分	1.3.7
여러 경락으로 이끄는 약 諸經引藥	1.3.8
약을 캐는 방법 採藥法	1.3.9
약을 말리는 법 乾藥法	1.3.10
볶거나 포제하는 방법 炒製法	1.3.11

약을 우리는 법 漬藥法	1.3.12
약을 복용하는 방법 服藥法	1.3.13
탕·산·환·단약을 만드는 법 湯散丸丹法	1.3.14
다시 달이는 법 再煎法	1.3.15
의종손익부여〈약성가〉운집 醫宗損益附餘〈藥性歌〉閔集	1.4
산초 山草	1.4.1
향초 芳草	1.4.2
습초 濕草	1.4.3
독초 毒草	1.4.4
덩굴 蔓草	1.4.5
수초 水草	1.4.6
돌풀 石草	1.4.7
이끼 苔草	1.4.8
향목 香木	1.4.9
교목 喬木	1.4.10
관목 灌木	1.4.11
나무에 기생하는 것 寓木	1.4.12
대나무 苞木	1.4.13
매운 향이 나는 채소 葷辛菜	1.4.14

잎채소 柔滑菜	1.4.15
오이과 채소 苣菜	1.4.16
버섯 芝栢	1.4.17
오과 五果	1.4.18
산과 山果	1.4.19
남만 과일 夷果	1.4.20
오이과 과일 苣果	1.4.21
수과 水果	1.4.22
깨, 보리, 벼 麻麥稻	1.4.23
기장, 조 稷粟	1.4.24
콩 菽豆	1.4.25
양조 造釀	1.4.26
난충 卵蟲	1.4.27
화충 化蟲	1.4.28
용 龍	1.4.29
뱀 蛇	1.4.30
어류 魚	1.4.31
비늘 없는 생선 無鱗魚	1.4.32
거북, 자라 龜鱉	1.4.33

조개 蚌蛤	1.4.34
물새 水禽	1.4.35
들새 原禽	1.4.36
숲새 林禽	1.4.37
가축 畜	1.4.38
들짐승 獸	1.4.39
쥐 鼠	1.4.40
인 人	1.4.41
수 水	1.4.42
토 土	1.4.43
금석 金石	1.4.44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序

서문

士之有功於世也, 得志澤及萬姓, 不得志維持風化, 若夫性命之言, 經濟之文, 抑又其次, 而亦非俗學所可僥倖而取名者也. 噫, 吾家世業舉不中, 寄跡京鄉, 常患自治之不暇, 而孤負四者之功, 亦已多矣, 然既無其功, 又無其心, 則將何以見於世乎.

선비가 세상에 공업(功業)을 이룰 때에는, 관직을 얻으면 은택이 만백성에게 미치게 하고 관직을 얻지 못하면 풍화(風化)를 유지하게 하니, 성리학(性理學)에 대한 말씀이나 경세제민(經世濟民)에 대한 문장은 오히려 그 다음이지만, 이 역시 얇은 학문으로 요행히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 우리집안은 대대로 과거를 업으로 삼았으나 급제하지 못하여 서울과 시골에서 떠돌며 늘 스스로도 돌볼 겨를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지만 홀로 이 네 가지 공업을 짚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건만 공을 이룬 것이 없는데, 그 마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세상에 드러내겠는가?

竊謂道脈之外, 能助强大之形, 政刑之外, 有俾生成之德者, 苟非醫藥之書, 亦無以洩其自盡之心矣, 是用寄意此中, 聊欲壽世, 而古書充汗難於一貫, 學者通患, 於是乎覃思累年, 哲廟丙辰撰《附方便覽》十四卷, 聖上丁卯成《醫宗損益》六卷, 今又輯《藥性》一卷, 是謂《損益附餘》, 三編既成, 巨細畢舉, 條理不紊, 庶不爲同志致誤, 而

壽世之志少可伸矣, 然此又無關於士之一功, 而特爲末技之需用者也, 余何敢居功而取名也, 《記》曰, 醫卜百工不與士齒, 又況醫公於人, 名私於己, 此又不敢當, 而不願聞於稱名者也.

가만히 생각해보니 도맥(道脈)이 아니라도 몸을 강대해지게 도울 수 있고 정치가 아니라도 낳고 기르는 덕(德)을 복돋울 수는 있으나, 의약서가 아니라면 역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쏟아내지 못할 것이었다. 이리하여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사람들을 오래 살도록 해주고자 하였으나 옛 서적이 넘치도록 많아 하나로 꿰뚫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배우는 자들이 늘 가지는 근심거리였다. 때문에 몇 년 동안 깊게 생각하여 철종 병진년(1856년)에 《부방편람(附方便覽)》 14권을 찬집하고, 고종(聖上) 정묘년(1867년)에 《의종손익(醫宗損益)》 6권을 완성하고, 을해(1868년)에는 또 《약성(藥性)》 1권을 찬집하여서는 이상을 《의종손익부여(醫宗損益附餘)》라고 이름 하였다. 이미 3편(編)이 완성되었으되 큰 것과 작은 것이 모두 들었으며 조리가 문란하지 않으니, 아마도 동지(同志)들을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여 사람들을 오래 살도록 하려는 뜻을 조금이나마 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또 선비의 한 가지 공업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말기(末技)를 쓰는 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 내 어찌 감히 공업이 있다 자처하여 명성을 취하겠는가? 《예기(禮記)》에 "의사나 점쟁이 등 온갖 기술자는 선비와 나란히 할 수 없다." 하였다. 하물며 의술은 남에게 공변된 것이요, 명성은 자기에게 샀된 것이니 이것 역시 감당하지 못하니, 허명으로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歲戊辰暮春下澣, 惠庵題.

무진년(1868년) 늦봄 하순에 혜암이 쓰다.



凡例 七則

범례 7칙

一. 集本草者, 古今無慮數百家, 而各有長短, 詳於彼者, 略於此, 略於彼者, 詳於此, 卒難歸一, 而亦難合編, 以其卷帙多, 而綱紀紊也. 是以作者苦心, 學者發歎, 詳略俱難有如此. 夫余於趨公之暇, 接賓之隙, 手抄《藥性》一卷, 以爲篋笥備忘, 編章雖約, 合之《損益》, 可發蘊奧, 是其名之爲《損益附餘》者也.

하나. 본초를 모아 놓은 것은 고금의 무려 수백 본초가(本草家)들이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저것에 대해 상세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고 저것에 대해 간략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하여 마침내는 하나로 귀결하기 어려우며, 또 합하여 엮어내기도 어려우니 그 분량이 너무 많아 기강(綱紀)이 문란해지기 때문이다. 까닭에 저자가 고심하여도 배우는 자는 탄식을 발하니 상세하든 간략하든 모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나는 공무를 보고 손님을 접대하는 틈틈이 《약성(藥性)》 1권을 직접 초(抄)하여 께짝 속의 비망록으로 삼았다. 분량이 적기는 하지만 《의종손익》과 합하면 오묘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이름하여 《손익부여》라고 하였다.

一. 本草之書, 率多汗漫, 讀者往往欲睡欲臥, 而雲林歌括, 摘要爲句, 便於強記, 今從門類, 彙成一編, 而此外合用者, 補以濟衆, 續以新增, 務令捷於簡閱而人人成誦.

하나. 본초서는 대부분 방대하여 읽는 자들을 종종 졸리거나 잠들게 하지만 운림(雲林) 공정현(龔廷賢)의 《수세보원》에 나오는 가결(歌訣)은 요점을 뽑아 구절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암기하기에 편리하다. 지금 각 문류(門類)에 따라 모아서 책 하나로 만들고, 이 외에 쓰기에 적합한 것의 경우는 《제중신편》〈약성가〉에서 보입(補入)하고 새로 증보한 것을 잇되, 간편하게 찾아보면서 모두 암송할 수 있도록 힘썼다.

一. 藥有氣味經絡功用禁忌等, 數端而歌, 是限于字句, 則亦不能無忽略之差矣. 今於未盡處, 註必詳明, 一綱一目, 類斯舉矣.

하나. 약에는 기미(氣味)、경락(經絡)、효능、금기 등이 있지만 몇 마디로 된 가결이라 자구(字句)에 제한이 있어 또한 소홀하거나 간략히 한 잘못이 없을 수 없다. 지금 미진한 부분은 반드시 주를 달아 상세히 밝혔으니 강(綱)、목(目)마다 그렇게 하였다.

一. 藥目次第, 稍從李氏綱目, 以便查閱, 而或有一二部易位者如草木之爲先, 而金石之居末, 是也., 或有一二種移入者如沙參之入蔓草, 牡丹之入灌木, 是也., 務得歸正.

하나. 약재의 목차 순서는 대체로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을 따라 조사·열람에 편리하게 하였으나 간혹 한두 부분에서는 위치를 바꾸었고〈초목류〉를 맨 앞에 두고 〈금석류〉를 맨 뒤에 둔 것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간혹 1~2종의 약재는 옮겨 넣어서 사삼(沙參)을 〈만초류(蔓草類)〉로 옮기고 모란(牡丹)을 〈관목류(灌木類)〉로 옮긴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

一. 此編歌括, 既以雲林爲主, 則一例出處, 嫌於重複, 但於濟衆與新增各書一衆一增, 以便檢閱.

하나. 이 책의 가결은 운림(雲林) 공정현(龔廷賢)의 《수세보원》을 위주로 하였으니 모두 출처가 같아 중복해서 밝히는 것을 피하였다. 다만 《제중신편》에서 인용한 것과 새로 증보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衆〕,〔增〕자를 표기하여 검색하고 열람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一. 金石砂札, 飛潛動植, 苟非一鄉一國之所產, 則東人習知, 或爲西人黠昧, 南人日用, 便作北人遐僻, 是又豈一己所見, 强加附會, 成此窺測之智也, 知者明言, 鄉藥之俗諺, 是也, 僻者別之, 他產之陰刊, 是也, 用藥者, 苟能從其性而治其病, 楚材晉用而又何害.

하나. 단사(丹砂)와 옥찰(玉札) 같은 금석이나 날고 헤엄치는 동물과 식물들은 한 고장이나 한 나라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쪽 사람이 익히 알더라도 혹 서쪽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남쪽 사람들이 날마다 쓰는 것이라 하더라도 북쪽 사람들에게는 곧 아득히 낯선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또 어찌나 한 사람의 견해로 건강부회하여 얕은 지혜가 되게 하겠는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말하였으니 향약에 한글 이름(俗諺)을 적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낯선 약재에 대해서는 구별해 두었으니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음각(陰刻)으로 표기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약을 쓰는 자들이 알맞은 약성에 따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초나라 재물을 진나라에서 쓴다고 하더라도¹ 또한 무슨 해가 되겠는가.

一. 用藥有法, 非徒臟腑經絡、浮沈升降、病候主治而已, 藥有自然之性, 病有自然之候, 理之所在, 間不容髮, 而初非一人私見, 執爲成方, 以爲定式者也. 是以主治雖同, 而或有陰陽虛實之異, 症候相似, 而亦多新久輕重之別, 苟非闡明其誼, 無以識其梗概, 略拾綱領, 發爲本草讀例. 學者, 須先從事, 一以推究, 思過半矣.

하나. 약을 쓰는 것에는 방법이 있으니, 다만 장부와 경락, 부침(浮沈)과 승강(升降), 병후(病候)와 주치(主治)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약재에는 고유의 성미가 있고 병에는 고유한 증후가 있어서 이치가 있는 곳은 터럭만큼의 틈도 허용되지 않으니, 애초부터 한 사람의 사건을 붙들고서 처방을 구성하여 정해진 법식으로 삼았던 것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주치증이 같더라도 혹은 음양·허실의 차이가 있고, 증후가 서로 비슷하더라도 역시 갖 발생한 병과 오래된 병, 경증·중증으로 구별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두지 않으면 그 대강을 알지 못할 것이니, 강령(綱領)²으로 삼을 만한 것을 간략히 모아 본초서를 읽는 예제로 삼아 두었다. 배우는 자들은 반드시 먼저 이것을 익힌 다음, 계속해서 연구해 나간다면 대부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1. 초나라 재목을 진나라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6년에 나오는 "초나라에 비록 재목이 있으나 실제로는 진나라가 그것을 쓰고 있다.(楚雖有材 晉實用之)"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 다른 곳의 인재를 등용한다는 의미로 쓰임. ←

2. 강령(綱領) : 《손익부여》 본문 맨 앞에 〈강령(綱領)〉이 있다. ←



綱領

강령



五色所主

오색이 주관하는 것

靑屬木入肝.

○赤屬火入心.

○黃屬土入脾.

○白屬金入肺.

○黑屬水入腎. 《備要》

청색은 목(木)에 속하며 간(肝)으로 들어간다.

○적색은 화(火)에 속하며 심(心)으로 들어간다.

○황색은 토(土)에 속하며 비(脾)로 들어간다.

○백색은 금(金)에 속하며 폐(肺)로 들어간다.

○흑색은 수(水)에 속하며 신(腎)으로 들어간다. 《본초비요》

五味所主

오미가 주관하는 것

酸入肝能澀收.

○苦入心能瀉燥.

○甘入脾能和緩.

○辛入肺能潤橫行.

○鹹入腎能軟堅.

○淡能利竅滲泄. 《備要》

신맛은 간(肝)에 들어가며 수렴시킨다.

쓴맛은 심(心)으로 들어가며 조(燥)를 사한다.

○단맛은 비(脾)로 들어가며 조화시키고 완화시킨다.

○매운맛은 폐(肺)로 들어가며 자윤시키고 널리 퍼지게 한다.

○짠맛은 신(腎)으로 들어가며 굳은 것을 무르게 한다.

○담담한 맛은 9규(九竅)를 잘 통하게 하고 잘 스며나가게 한다. 《본초비요》

升降浮沈之義

승강·부침의 의미

輕虛者浮而升, 重實者沈而降.

○味薄者升而生 象春, 氣薄者降而收 象秋, 氣厚者浮而長 象夏, 味厚者沈而藏 象冬,

味平者化而成. 象土

○氣味俱薄者, 浮而升, 味厚氣薄者, 沈而降, 氣味俱厚者,¹ 能浮能沈, 氣味俱薄者², 可降.

○酸鹹無升, 辛甘無降, 寒無浮, 熱無沈. 《備要》

가볍고 허(虛)한 것은 뜨게 하고 상승시킨다. 무겁고 실(實)한 것은 가라앉히고 하강시킨다.

○성미가 얇은 것은 상승시키고 생장시킨다. 봄의 형상이다. 기가 얇은 것은 하강시키고 수렴시킨다. 가을의 형상이다. 기가 두터운 것은 뜨게 하고 장려한다. 여름의 형상이다. 성미가 두터운 것은 가라앉히고 감춘다. 겨울의 형상이다. 성미가 평한 것은 조화시키고 왕성하게 한다. 토(土)의 형상이다.

○기와 성미가 모두 얇은 것은 뜨게 하고 상승시킨다. 성미가 두텁고 기가 얇은 것은 가라앉히고 하강시킨다. 성미가 박하고 기가 두터운 것은 뜨게도 하고 가라앉히기도 한다. 기와 성미가 모두 두터운 것은 하강시킨다.

○신맛과 짠맛은 상승시키는 것이 없고, 매운맛과 단맛은 하강시키는 것이 없다. 한(寒)은 뜨지 않고 열(熱)은 가라앉지 않는다. 《본초비요》

1. 氣味俱厚者, 味薄氣厚者 ※문맥상 오기이다. 이후 출간한 《방약합편》에서는 味薄氣厚者로 수정되었다. <
2. 氣味俱薄者 氣味俱厚者 ※중복으로 문맥상 오기이다. 이후 출간한 《방약합편》에서는 厚로 수정되었다. <



藥有上下內外之別

약의 상하부위와 겉과 속의 구별

根之在土中者, 半身以上, 上升, 半身以下, 下降.

- 枝者, 達四肢.
- 皮者, 達皮膚.
- 爲心爲幹者, 內行臟腑.
- 質之輕者, 上入心肺, 下入肝腎.
- 中空者, 發表.
- 內實者, 攻裏.
- 枯燥者, 入氣.
- 潤澤者, 入血. 《備要》

흙속에 있는 뿌리의 절반 윗부분은 상체에 작용하고 절반 아랫부분은 하체에 작용한다.

- 가지는 팔다리에 도달한다.
- 껍질은 피부에 도달한다.
- 심지와 줄기는 장부의 안쪽을 돌아다닌다.
- 본질이 가벼운 것은 위로는 심폐로 들어가고 아래는 간신(肝腎)에 들어간다.
- 속이 빈 것은 겉으로 발산시킨다.
- 속이 짙은 것은 속을 공략한다.
- 마른 약은 기(氣)로 들어간다. 윤택한 약은 혈로 들어간다. 《본초비요》



五味相克

오미의 상극

酸傷筋 斂則筋縮, 辛勝酸.

○苦傷氣 苦能瀉氣, 鹹勝苦.

○甘傷肉, 酸勝甘.

○辛傷皮毛 疏散腠理, 苦勝辛.

○鹹傷血 鹹能滲泄, 甘勝鹹. 《備要》

신맛은 근육을 상하게 하고 수렴하니 근육이 수축된다. 매운맛은 신맛을 이긴다.

○쓴맛은 기를 상하게 하고 쓴맛은 기를 사하여 준다. 짠맛은 쓴맛을 이긴다.

○단맛은 살을 상하게 하고 신맛은 단맛을 이긴다.

○매운맛은 피모를 상하게 하고 소통하여 주리(腠理)를 흩어준다. 쓴맛은 매운맛을 이긴다.

○짠맛은 혈을 상하게 하고 짠맛은 잘 스며나가게 한다. 단맛은 짠맛을 이긴다.

《본초비요》

五病所禁

병에 금하는 다섯 가지

酸走筋, 筋得酸拘攣.

○苦走骨, 骨得苦難舉.

○甘走肉, 肉得甘壅氣.

○辛走氣, 氣得辛益虛.

○鹹走血, 血得鹹凝滯口渴. 《備要》

신맛은 근으로 주행하니 근이 신맛을 얻으면 당기고 저린다.

○쓴맛은 뼈로 주행하니 뼈가 쓴맛을 얻으면 거동이 어려워진다.

○단맛은 살로 주행하니 살이 단맛을 얻으면 기가 막힌다.

○매운맛은 기로 주행하니 기가 매운 맛을 얻으면 더욱 허해진다.

○짠맛은 혈로 주행하니 혈이 짠맛을 얻으면 엉키고 잘 흐르지 않으며 입이 마
른다. 《본초비요》

諸藥入諸經部分

여러 경락 부위로 들어가는 여러 약

色靑味酸氣臊, 屬木者, 皆入肝經.

○色赤味苦氣焦, 屬火者, 皆入心小腸.

○色黃味甘氣香, 屬土者, 皆入脾胃.

○色白味辛氣醒, 屬金者. 皆入肺大腸.

○色黑味鹹氣腐, 屬水者, 皆入腎膀胱.

○心包三焦經無所主, 通於足厥陰少陽, 厥陰主血, 入血分者, 竝入心包, 少陽主氣, 入氣分者, 竝入三焦命門. 《備要》

청색은 성미가 시고 비린내가 난다. 목(木)에 속하며 간경(肝經)으로 들어간다.

○적색은 성미가 쓰고 탄내가 난다. 화(火)에 속하며 심경(心經)과 소장경(小腸經)으로 들어간다.

○황색은 성미가 달고 향기가 난다. 토(土)에 속하며 비경(脾經)과 위경(胃經)로 들어간다.

○백색은 성미가 맵고 각성되는 향이 난다. 금(金)에 속하며 폐경(肺經)과 대장경(大腸經)로 들어간다.

○흑색은 성미가 짜고 썩은내가 난다. 수(水)에 속하며 신경(腎經)과 방광경(膀胱經)으로 들어간다.

○심포와 삼초경은 주관하는 것이 없고 족궤음경과 족소양경에 두루 들어간다.

꺠음경은 혈을 주관하니 혈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울러 심포에도 들어간다.
소양경은 기를 주관하니 기분에 들어가는 것은 아울러 삼초와 명문에 들어간다.



諸經引藥

여러 경락으로 이끄는 약

太陽, 手羌活, 足黃芩.

○太陰, 手桔梗, 足白朮藥.

○陽明, 手白芷升麻, 足石膏.

○少陰, 手獨活, 足知母.

○少陽, 手紫胡, 足青皮.

○厥陰, 手柴胡, 足青皮. 《東垣》

수태양경으로 이끄는 약은 강활이고, 족태양경으로 이끄는 약은 황백이다.

○수태음경으로 이끄는 약은 길경이고, 족태음경으로 이끄는 약은 백작약이다.

○수양명경으로 이끄는 약은 백지·승마이고, 족양명경으로 이끄는 약은 석고이다.

○수소음경으로 이끄는 약은 독활이고, 족소음경으로 이끄는 약은 지모이다.

○수소양경으로 이끄는 약은 시호이고, 족소양경으로 이끄는 약은 청피이다.

○수궐음경으로 이끄는 약은 시호이고, 족궐음경으로 이끄는 약은 청피이다.

《동원》

採藥法

약을 캐는 방법

多以二八月採, 謂春初津潤始萌, 未充枝葉, 勢力淳濃故也. 至秋枝葉乾枯津潤, 歸流於下.

○春寧宜早, 秋寧宜晚, 花實莖葉, 各隨其成熟爾, 歲月亦有早晏, 不必都依本文也.

《本草》

약을 채취하는 시기는 2월이나 8월이다. 초봄에는 진액이 윤택해져 싹이 트기 시작하므로 아직 가지와 잎이 충분히 자라지 않아 약 기운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가을에 이르면 가지와 잎이 마르면서 진액이 윤택해지는데 약 기운이 뿌리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봄에는 캐는 시기가 이른 것이 낫고, 가을에는 늦는 것이 낫다. 꽃, 열매, 줄기, 잎은 각각 성숙하는 시기에 채취한다. 절기도 이르거나 늦게 올 때가 있으니 반드시 본문에 따를 필요는 없다. 《본초강목》

乾藥法

약을 말리는 법

暴乾者, 日中晒乾, 陰乾者, 於陰影處乾之, 今按採藥, 陰乾者, 皆多惡至, 如鹿茸雖稱陰乾, 皆悉爛令壞, 今火乾易得且良.

○八月已前採者, 皆日乾火乾, 十月已後至正月採者, 乃可陰乾. 《本草》

폭건(暴乾)은 대낮에 햇볕에 쬌어 말리는 것이고 음건(陰乾)은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다. 요즘 약을 채취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늘에 말리는 것은 모두 문제점이 많다. 녹용 같은 경우도 그늘에 말리라고 하지만 모두 다 문드러지고 썩어버린다. 요즘은 불에 말려 쉽게 좋은 것을 얻고 있다.

○8월 이전에 채취한 것은 모두 햇볕이나 불에 쬌어 말리고 10월 이후부터 1월 사이에 채취한 것은 그늘에 말려도 괜찮다. 《본초강목》

炒製法

볶거나 포제하는 방법

火製四, 煨、煨、炙、炒.

○水製三, 浸、泡、洗.

○水火共製二, 蒸、煮.

○酒製, 升提.

○薑製, 溫散.

○入鹽, 走腎而軟堅.

○用醋, 注肝而收斂.

○童便製, 除劣性而降下.

○米泔製, 去燥性而和中.

○乳製, 潤枯生血.

○蜜製, 甘緩益元.

○陳壁土製, 藉土氣補中州.

○麩煨麵製, 抑酷性.

○烏豆甘草湯, 漬竝解毒.

○羊酥猪脂塗燒, 咸滲骨容易脆斷.

○去穰者, 免脹.

○去心者, 除煩. 《備要》

○諸香, 竝不見火.

○一切角, 忌鹽. 《本草》

불로 포제하는 4가지 방법 : 달군다(煨)、젓불에 묻어 굽는다(煨)、굽는다(炙)、볶는다(炒).

○물로 포제하는 3가지 방법 : 담가둔다(浸)、우린다(泡)、씻는다(洗).

○물과 불로 함께 포제하는 2가지 방법 : 찌다(蒸)、삶는다(煮).

○술로 포제하면 약 기운이 상승한다.

○생강즙으로 포제한 것은 따뜻하게 하여 흡수한다.

○소금을 넣어 포제한 것은 신(腎)으로 달려가 굳은 것을 유연하게 한다.

○식초를 써서 포제한 것은 간(肝)으로 흘러가 수렴시킨다.

○동변으로 포제한 것은 열등한 성질이 제거되어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

○쌀뜨물로 포제한 것은 건조한 성질이 제거되어 중초를 조화롭게 한다.

○젖으로 포제한 것은 마른 것을 윤택하게 하고 혈을 생성한다.

○꿀로 포제한 것은 감미로 이완시키며 원기를 보익하게 한다.

○묵은 벽토(壁土)로 포제한 것은 토기(土氣)를 얻어 중초를 보해준다.

○밀가루를 젓불에 묻어 만든 누룩으로 포제하면 독한 성질을 눌러준다.

○오두 달인 물이나 감초 달인 물에 약을 담그면 모두 해독시킨다.

○양젖으로 만든 연유나 돼지 기름을 발라서 태우면 모두 빠로 스며들어 쉽게 끓어지게 만든다.

○과체의 속을 제거하고 쓰면 창만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심을 제거하고 쓰면 번조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초비요》¹

○여러 향풀은 모두 불을 찌지 않도록 한다.

○모든 뽕에는 소금을 쓰지 않도록 한다. 《본초강목》

1. 《본초비요》: 《주후비급방》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본문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본초비요》에 나온다. ※역자주 ←



漬藥法

약을 우리는 법

漬藥, 皆須細切, 生絹袋盛之, 乃漬密封, 春五、夏三、秋七、冬十日, 視其濃烈, 便可漉出. 《本草》

약을 우릴 때는 모두 반드시 얇게 썰어서 생견으로 만든 자루에 담아 밀봉하여서 봄에는 5일, 여름에는 3일, 가을에는 7일, 겨울에는 10일 동안 우린다. 농도가 잘 우려졌으면 걸러서 쓴다.

服藥法

약을 복용하는 방법

病在胸膈以上, 先食後服.

○病在心腹以下, 先服藥而後食.

○病在四肢血脈, 宜空腹而在早.

○病在骨髓, 宜飽滿而在夜. 《本草》

○病在上, 煎宜武, 宜清, 服宜緩飲.

○病在下, 煎宜文, 宜濃, 服宜急飲. 易老

○在上, 不厭頻而少, 少服則滋榮於上.

○在下, 不厭頓而多, 多服則峻補於下. 東垣

○大凡服藥, 寒藥熱飲, 熱藥寒飲, 中和之劑, 溫而服之. 《種杏》

○嘔吐難納者, 必徐徐一匙而下. 《入門》

○補腎之藥, 五更初, 未言語煎¹服. 《直指》

병이 흉격 위에 있으면 먼저 밥을 먹은 후에 약을 복용한다.

○병이 명치 아래에 있으면 먼저 약을 복용한 후에 밥을 먹는다.

○병이 팔다리 혈맥에 있으면 아침에 공복으로 약을 복용한다.

○병이 골수에 있으면 포만감이 있는 밤에 약을 복용한다. 《본초강목》

○병이 상초에 있으면 센 불로 맑게 달여서 천천히 마신다.

○병이 하초에 있으면 약한 불로 진하게 달여서 빨리 마신다. 易老

○상초에 병이 있으면 약을 자주 조금씩 복용해야 하니 조금씩 복용하면 상초

를 자양시킨다.

○하초에 병이 있으면 단번에 많이 복용해야 하니 많이 복용하면 하초를 크게 보해준다. **동원**

○대체로 약을 먹을 때는 성질이 찬 약은 뜨겁게 하여 마시고, 성질이 뜨거운 약은 차게 해서 마신다. 성질이 온건한 약은 따뜻하게 해서 복용한다. **《중행선방》**

○구토하여 약을 넘기지 못할 때는 반드시 천천히 한 숟가락씩 먹인다. **《의학입문》**

○신(腎)을 보하는 약은 5경 초(새벽 3시)에 말하기 전에 복용한다. **《인재직지방》**

1. 煎 煎 前 ※《동의보감》, 만병회춘》↩

湯散丸丹法

탕、산、환、단약을 만드는 법

至高之病, 加酒煎.

○去膈上病, 加蜜煎.

○散者, 細末也.

○治下, 其丸極大.

○治中, 次之.

○治上, 極小.

○稠糊丸者, 取其遲化, 直至下焦.

○或酒或醋丸者, 取其收散.

○犯半夏、南星, 或去濕者, 以薑汁糊丸, 制其毒.

○稀糊丸者, 取其易化.

○水浸炊餅爲丸, 及滴水爲丸者, 皆取其易化也.

○蜜丸者, 取其遲化, 而氣循經絡也.

○蠟丸者, 取其難化, 而旋旋取效也.

○大抵湯者蕩也, 去久病.

○散者散也, 去急病.

○丸者緩也, 取徐緩而治之. 東垣

○丹者, 丸之大者. 《入門》

병이 몸의 가장 윗부분에 있으면 술을 넣어 달인다.

○가슴 윗부분에 있는 병을 제거할 때는 꿀을 넣어 달인다.

○산제는 곱게 간다.

○하초를 치료할 때는 환을 아주 크게 만들어 쓴다.

○중초를 치료할 때는 그 다음 크기로 만들어 쓴다.

○상초를 치료할 때는 환을 아주 작게 만들어 쓴다.

○걸쭉한 풀로 반죽하여 환을 만드는 것은 서서히 녹여 바로 하초에 약 기운이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술이나 식초를 넣어 환을 만드는 것은 수렴하거나 발산시키는 성질을 취하려
는 것이다.

○반하·남성을 함께 쓸 때나 습(濕)을 제거하고자 할 때 생강즙으로 쓴 풀로 환
을 만드는 것은 그 독을 제압하려는 것이다.

○뭍은 풀로 반죽하여 환을 만드는 것은 쉽게 녹아들게 하려는 것이다.

○물에 담가두었던 떡으로 지어 환을 만드는 것과 물을 조금씩 넣어 환을 만드
는 것은 모두 쉽게 녹아들게 하려는 것이다.

○꿀로 반죽하여 환을 만드는 것은 서서히 녹여 하초에 약 기운이 경락을 따라
돌게 하려는 것이다.

○황랍으로 환을 만드는 것은 잘 녹지 않게 하여 서서히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것
이다.

○대개 탕(湯)은 씻어낸다는 의미이니 오래된 병을 제거한다.

○산(散)은 흩어낸다는 의미이니 위급한 병을 제거한다.

○환(丸)은 느리다는 의미이니 서서히 치료한다. ○ 동원

○단(丹)은 환(丸) 중에서 큰 것이다. 《의학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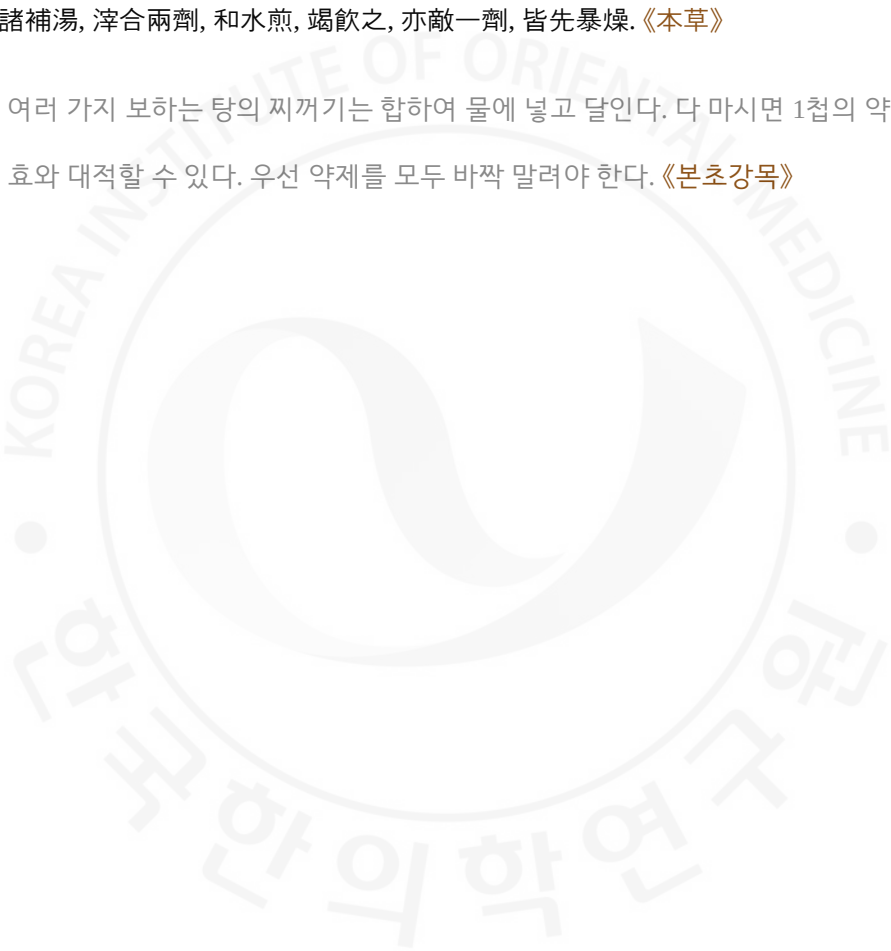


再煎法

다시 달이는 법

凡諸補湯, 滓合兩劑, 和水煎, 竭飲之, 亦敵一劑, 皆先暴燥. 《本草》

여러 가지 보하는 탕의 찌꺼기는 합하여 물에 넣고 달인다. 다 마시면 1첩의 약
효과 대적할 수 있다. 우선 약제를 모두 바짝 말려야 한다. 《본초강목》



醫宗損益附餘 〈藥性歌〉 閨集

의종손익부여 〈약성가〉 윤집



山草 元三十九增四

산초 원방 39종, 증보 4종

人蔘 삼

인삼 삼

- 人蔘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 인삼은 성미가 달고 크게 원기를 잘 보해주며
갈증을 멎게 하고 진액을 생성하여 영위를 조화롭게 길러준다.

삼. ◯生凉熱溫.

◯入手太陰. 氣中之血藥. ◯《入門》

◯以細辛密封, 徑年不蛀.

◯反藜蘆, 畏五靈脂、皂角、黑豆、紫石英, 忌鐵.

◯補氣須用人蔘, 血虛亦須用之.

◯人蔘補五臟之陽, 沙參補五臟之陰.

◯回元氣於無何有之鄉.

◯得升麻瀉肺脾火, 得茯苓瀉腎火, 得麥門冬生脈, 得乾薑補氣, 得芪、甘除大熱瀉

陰火, 又瘡家聖藥. 《本草》

◯焙用. 《備要》

○ { 蘆 } 弱者, 以參蘆代瓜蒂, 痰畜胸中, 參蘆湯, 加竹瀝, 吐之. 《本草》

○ { 尾 } 主下氣, 同橘薑服.

○ { 葉 } 主產後感冒, 同白朮更服. 俗方

삼. ㅇ생것은 성질이 서늘하고 익힌 것은 따뜻하다.

ㅇ수태음폐경에 들어간다. 기(氣)약 중에 혈약이다. ㅇ《의학입문》.

ㅇ세신과 함께 밀봉해 놓으면 몇 년이 지나도 좀먹지 않는다.

ㅇ여로와 상반약이다. 오령지, 조각, 흑두, 자석영과는 상외약이다. 철은 금한다.

ㅇ기를 보하려면 반드시 인삼을 써야 한다. 혈허(血虛)에도 인삼을 써야 한다.

ㅇ인삼은 오장의 양기를 보하고 사삼은 오장의 음기를 보한다.

ㅇ원기를 회복하는 데 이만한 약이 없다.

ㅇ승마와 같이 쓰면 폐비(肺脾)의 화를 사한다. 복령과 같이 쓰면 신(腎)의 화를 사한다. 맥문동과 같이 쓰면 맥이 생성된다. 건강과 같이 쓰면 기를 보한다. 황기, 감초와 같이 쓰면 심한 열을 내리고 음화(陰火)를 사한다. 또한 헌데를 치료하는 성약(聖藥)이다. 《본초강목》

ㅇ결불에 말려서 쓴다. 《본초비요》

○ { 노두 } 약한 사람은 인삼 노두 대신 과체를 쓴다. 담(痰)이 가슴 속에 쌓여 있으면 인삼노두를 달인 물에 죽력을 써서 토하게 한다. 《본초강목》

○ { 잔뿌리 } 기를 내려준다. 굴피, 생강을 함께 쓴다.

○ { 잎 } 산후 감기를 치료한다. 흰 길경을 함께 다시 먹인다. 속방

甘草 國老

감초 국로

- 甘草甘溫, 調和諸藥,
炙則溫中, 生則瀉火.
- 감초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여러 약과 조화롭게 화합한다.
구운 것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생것은 화(火)를 사해준다.

一名國老.

- 入足太陰、厥陰、手足十二經.
- 惡遠志、大戟、芫花、甘遂、海藻, 忌猪肉 菰. ◦《入門》
- 解百藥毒.
- 可升可降, 除邪熱, 去咽痛, 緩正氣, 養陰血, 其性能緩急, 而協和諸藥, 使之不爭, 故熱藥得之, 緩其熱, 寒藥得之, 緩其寒, 寒熱相雜用之, 得平.
- { 稍 } 主膈熱莖痛.
- { 頭 } 主癰疽, 入吐藥. 《本草》
- 自中原移種, 產咸鏡道. 《寶鑑》

국로(國老)라고도 한다.

- 족태음경、궐음경、수족 12경맥에 들어간다.
- 원지、대극、원화、감수、해조는 상오약이고 돼지고기、송채는 금한다.
- 《의학입문》
온갖 약독을 해독한다.

○오르게도 내리게도 할 수 있으며 사열(邪熱)을 내리고 인후통을 없앤다. 정기(正氣)를 완만하게 하고 음혈(陰血)을 길러준다. 성질이 완만하거나 급하게 할 수 있으니 여러 약재와 조화롭게 협력하여 다투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뜨거운 약재와 함께 쓰면 그 열을 완화시켜 주고 차가운 약재와 함께 쓰면 그 찬 성질을 완화시켜 준다. 뜨거운 약재와 차가운 약재를 서로 섞어 쓸 때는 화평하게 해 준다.

○ { 가는 뿌리 } 흉격의 열과 음경의 통증을 치료한다.

○ { 머리 부분 } 응저를 치료하니 토약에 넣어서 쓴다. 《본초강목》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옮겨 심었다. 함경도에서 생산된다. 《동의보감》

黃芪 단너슴불휘

황기 단너삼뿌리

- 黃芪性溫, 收汗固表,
托癰生肌, 氣虛莫少.
- 황기는 성미가 따뜻하며 땀을 거두어 걸을 든든하게 한다.
상처를 맡아 살이 돌아나게 하며 기허일 때는 양을 적게 쓰지 않도록 한다.

단너슴불휘. ○入手足太陰、手少陽、足少陰命門.¹ 《本草》

○達表生用, 補虛蜜.

○治下鹽炒, 此說非也. 氣升則腎受蔭, 而崩帶等症自止 《備要》

○惡龜甲、白蘚皮. 得防風其功愈大, 乃相畏而相使也.

○治諸虛, 益氣壯脾, 去熱排膿活血, 爲瘡家聖藥, 無汗則發之, 有汗則止之, 治小兒

百病, 婦人崩帶諸疾. 《本草》

○四君子湯, 去朮苓, 加黃芪, 名保元湯, 白朮燥濕, 茯苓滲水, 故痘症忌之. 《備要》

○產寧越, 皮黃, 肉白軟綿者佳.

단너삼뿌리. ○수태음경, 족태음경, 수소양경, 족소음경 명문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체표에 도달하게 하려면 생것을 쓰고 허를 보하려면 꿀에 축여 볶은 것을 쓴다.

○하초를 치료할 때 황기를 소금물에 축여 볶아서 쓴다는 것은 잘못된 설이다.

기가 오르면 신(腎)이 덕을 받아서 봉루와 대하가 절로 멎는다. 《본초비요》

○구갑, 백선파는 상오약이다. 방풍과 같이 쓰면 효능이 더욱 커지니 서로 상오약이면서 서로 사약(使藥)이 된다.

○여러 허증을 치료하고 기를 보익하며 비(脾)를 튼튼하게 한다. 열을 내리고 농을 배출시키며 혈을 잘 돌게 한다. 또한 헌데를 치료하는 성약(聖藥)이다. 땀이 없을 때는 땀을 내게 하고 땀이 너무 날 때는 멎게 해준다. 소아의 온갖 질병, 부인의 봉루, 대하 등 여러 질병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사군자탕에서 창출, 복령을 빼고 황기를 더하면 보원탕이다. 백출은 습을 말리고 복령은 수(水)를 빠져나가게 하므로 두창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備要》.

○영월(寧越)에서 생산된다. 껍질이 누렇고 과육이 희며 부드럽고 연한 것이 좋다.

齊茺 계로기

제니 계로기

- 〔増〕薺芑甘寒, 嗽渴癰瘡,
解百藥毒, 蛇咬箭傷.²
- 〔증보〕제니는 성미가 달고 차며 기침, 소갈, 용저, 창독을 치료한다.
온갖 약의 독을 해독하고 뱀이나 전갈에 물린 상처도 치료한다.

게로기. ◦似人參而葉小, 似桔梗而無心. 《本草》

게로기. ◦인삼과 비슷하나 잎이 작고 길경과 비슷하나 심이 없다. 《본초강목》

桔梗 도랏

길경 도라지

- 桔梗味苦, 療咽腫痛,
載藥上升, 開胸利壅.
- 길경은 성미가 쓰며 인후가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약을 싣고 위로 올라가서 흉격을 열어 막힌 것을 통하게 한다.

도랏. ◦微溫小毒, 一云, 無毒大寒.

◦入手太陰氣分, 及足少陰.

◦畏龍膽草、白芨, 忌猪肉.

◦去蘆米泔浸.

◦同甘草, 爲舟楫之劑. 《本草》

도라지.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독성이 약간 있다. 독성이 없고 대한(大寒)하다고도 한다.

◦수태음경의 기분(氣分)과 족소음경에 들어간다.

◦용담초·백급은 상외약이고, 돼지고기를 금한다.

◦노두를 제거하고 쌀뜨물에 담가 둔다.

◦감초와 함께 써서 배처럼 약 기운을 실어 나르는 약제로 삼는다. 《본초강목》

黃精 독덧불휘

황정 죽대뿌리

- 黃精味甘, 能安臟腑,
五勞七傷, 此藥大補.
- 황정은 성미가 달며 장부를 안정시킨다.
오로칠상(五勞七傷)에 이 약재를 쓰면 크게 보할 수 있다.

독덧불휘. ◦性平.

◦太陽之草黃精, 食之長生, 太陰之草鉤吻. 入口立死.

◦水洗蒸暴, 或九蒸九暴.

◦下三尸蟲. 《本草》

◦陳藏器曰, 鉤吻乃野葛之別名, 二物全不相似, 不必疑也. 《景岳》

◦産平安道. 《寶鑑》³

죽대 뿌리. ◦성질은 평하다.

◦태양(太陽)의 풀인 황정은 먹으면 오래 살고 태음(太陰)의 풀인 구문(鉤吻)은 먹으면 곧 죽는다.

◦물에 씻어서 찢다가 말리거나 구증구포(九蒸九暴)해서 쓴다.

◦삼시충(三尸蟲)을 내려준다. 《본초강목》

◦진장기가 말하기를 "구문은 야갈(野葛)의 별칭으로 황정과 구문은 서로 전혀 비슷하지 않다."고 하였으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 《경악전서》

◦평안도(平安道)에서 생산된다. 《동의보감》

知母

지모

- 知母味苦, 熱渴⁴能除,
骨蒸有汗, 痰咳皆舒.
- 지모는 성미가 쓰고 열과 소갈을 없애준다.
골증열로 땀이 나는 것을 치료하고 가래와 기침을 모두 풀어준다.

辛寒.

◦腎經本藥, 入足陽明, 手太陰氣分.

◦去皮毛, 忌鐵.

◦得黃栢及酒良, 伏鹽及蓬砂⁵. 《本草》

- 入補藥, 鹽水炒, 或蜜炒, 上行酒炒. 《寶鑑》
- 瀉無根之腎火, 療有汗之骨蒸, 止虛勞之熱, 滋化源之陰. 《本草》
- 多產於黃海道. 《寶鑑》

맵고 차다.

- 신경(腎經)의 근본이 되는 약으로 족양명경·수태음경의 기분(氣分)으로 들어간다.
- 겉질과 털을 제거하여 쓰고 철기 사용을 금한다.
- 황백과 술을 함께 쓰면 좋다. 소금과 붕사의 성질을 억제한다. 《본초강목》
- 보하는 약에 넣을 때는 소금물이나 꿀에 축여서 볶는다. 상초로 올라가게 하려면 술에 축여서 볶는다. 《동의보감》
- 신장의 근원 모를 화(火)를 사하거나 골증열로 땀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허로 인한 열을 내리고 음기를 자양한다. 《본초강목》
- 황해도에서 많이 생산된다. 《동의보감》

肉蓯蓉 鎖陽

육종용 쇄양

- 【蓯蓉】味甘, 峻補精血,
若驟用之, 反動便滑.
- 【육종용】은 성미가 달며 정(精)과 혈을 뛰어나게 보해준다.
한꺼번에 몰아 쓰면 도리어 설사가 쏟아진다.

微溫.

○馬精落地所生.

○忌鐵.

○酒浸一宿, 去鱗甲, 蒸或酥灸.

○凡服蓯蓉以治腎, 必妨心.

○{ 鎖陽 } 卽蓯蓉之類. 《入門》云, 蓯蓉根也., 里之淫婦, 就而合之, 一得陰氣, 勃然怒長, 功力百倍於蓯蓉. 《本草》⁶

성미가 약간 따뜻하다.

○말의 정액이 떨어진 곳에서 자라난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하룻밤 술에 담가 두었다가 비늘 같은 껍질을 벗기고 찌거나 연유에 축여 굽는다.

○육종용을 복용하여 신(腎)을 치료하면 반드시 마음이 방만해진다.

○{ 쇄양 } 은 육종용의 종류이다. 《의학입문》에는 종용의 뿌리라고 하였다. 마을의 음란한 부인이 쇄양으로 자위를 하자 그것이 한 번 음기를 얻고 갑자기 불끈 커졌다고도 한다. 약효가 육종용보다 백 배는 세다. 《본초강목》

天麻 슈즈히쵸

천마 수자해쵸

- 天麻味辛, 能驅頭眩,
小兒驚癇, 拘攣癱瘓.

- 천마는 성미가 매우며 어지럼증을 치료한다.

소아의 경간과 사지 마비를 몰아낸다.

슈즈히쵸. ◦性平.

◦入肝經氣分.

◦糠火煨, 酒浸焙乾.

◦有自內達外之理. 《本草》⁷

수자해쵸. ◦성미가 평하다.

◦간경(肝經)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쌀겨를 태운 잿불에 묻어 굽고 술에 담가 두었다가 결불에 말린다.

◦약효가 안에서 바깥으로 도달하는 이치가 있다. 《본초강목》

赤箭 定風, 天麻苗

적전 정풍초, 천마의 싹

- 赤箭味苦, 原號定風,

殺鬼蠱毒, 除疝療癰.

- 적전은 성미가 쓰며 정풍(定風)이라고 부른다.

귀신 · 고독을 죽이고 산증(疝症)을 제거하고 옹종을 치료한다.

卽天麻苗也. 有自表入裏之功.

◦此草有風不動, 無風自搖. 《本草》

즉, 천마의 싹이다. 약효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

○이 풀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없을 때 스스로 흔들린다. 《본초강목》

白朮 삼두불휘

백출 삼주 뿌리

- 白朮甘溫, 健脾強胃,
止瀉除濕, 兼歐痰痞.
- 백출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비위(脾胃)를 강하고 튼튼하게 한다.
설사를 멎게 하고 습을 제거하며 검하여 담(痰)이 막힌 것을 치료한다.

삼두불휘. ○入手太陽少陰, 足三陰陽明.

○米泔浸, 去蘆, 潤燥, 人乳拌, 胃虛黃土炒.

○忌桃、李、菰、雀肉.

○古無蒼白之名, 陶弘景始分. 《本草》

○產於大邱者, 佳.

삼주 뿌리. ○수태양경、수소음경、족태음경、족궐음경、족소음경、양명경으로 들어간다.

○쌀뜨물에 담가 두었다가 노두를 제거하고 쓴다. 마른 것을 축축하게 하려면 인유 넣고 섞어서 쓴다. 위허(胃虛)에는 황토를 넣고 볶아서 쓴다.

○복숭아、자두、송채、참새고기를 금한다.

◦옛날에는 창출이나 백출이란 이름이 없었으나 도홍경이 처음으로 구분하여 썼다. 《본초강목》

◦대구에서 생산된 것이 좋다.

蒼朮

창출

- 蒼朮甘溫, 健脾燥濕,
發汗寬中, 更祛瘴疫.
- 창출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비(脾)를 튼튼하게 하고 습을 말려준다.
땀을 내고 속을 편하게 하며 또한 장역(瘴疫)을 제거한다.

入足陽明、太陰、手太陰、陽明、太陽.

◦糯米泔浸, 去油.

◦忌同白朮. 《本草》

◦雄壯上行之藥. 《寶鑑》⁸

족양명경、족태음경、수태음경、수양명경、수태양경으로 들어간다.

◦찹쌀뜨물에 담가서 기름을 제거하고 쓴다.

◦백출과 함께 쓰는 것을 금한다. 《본초강목》

◦웅장하게 상초로 올라가는 기운이 있는 약이다. 《동의보감》

狗脊

구척

- 【狗脊】味甘, 酒蒸入劑,
腰背膝疼, 風寒濕痺.
- 【구척】은 성미가 달며 술로 찌서 약제에 넣는다.
허리、등、무릎이 아픈 것과 풍、한、습으로 인한 비증(痺症)을 치료한다.

微溫, 惡莎草.

◦燎金毛. 《本草》

성미가 약간 따뜻하다. 사초(莎草)와 상오약이다.

◦금빛 털은 태워버린 후 쓴다. 《본초강목》

貫衆 회초밋불휘, 黑狗脊

관중 회초밀뿌리, 흑구척

- 〔增〕貫衆寒毒, 破癥殺蟲,
漆瘡骨硬, 血症有功.
- 〔증보〕관중은 성미가 차고 독성이 있으며 징가를 깨뜨리고 충을 죽인다.
칠창(漆瘡)과 뼈가 굳은 경우, 혈증(血證)에 효과가 있다.

회초밋불휘. 一名黑狗脊.

회초밀뿌리. 흑구척이라고도 한다.

巴戟

파극

- 【巴戟】辛甘, 大補虛損,
精滑夢遺, 强筋固本.
- 【파극】은 성미가 맵고 달며 크게 허손을 보한다
유정(遺精)과 몽설(夢泄)을 치료하고 근력을 튼튼하게 하고 원기를 굳건하게
한다.

微溫.

- 入腎經血分.
- 惡雷丸丹參.
- 去心酒浸一宿. 《本草》

성질이 약간 따뜻하다.

- 신경(腎經)의 혈분(血分)에 들어간다.
- 뇌환, 단삼과 상오약이다.
- 심을 제거하고 술에 하룻밤 담가두었다가 쓴다. 《본초강목》

遠志 아기풀불휘

원지 아기풀뿌리

- 遠志氣溫, 能驅驚悸,
安神鎮心, 令人多記.
- 원지는 성질이 따뜻하며 경계(悸驚)를 몰아낸다.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기억력을 좋게 한다.

아기풀불휘. ○入腎經氣分, 非心經藥也.

○甘草水浸一宿, 去骨暴乾或焙乾.

○畏珍珠、藜蘆.

○苗名 { 小草 }, 益精止虛夢泄. 《本草》

아기풀뿌리. ○신경(腎經)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심경(心經)에 쓰는 약은 아니다.

○감초 달인 물에 하룻밤 담가두었다가 심을 빼고 벌에 말리거나 겉불에 말린다.

○진주、여로와 상외약이다.

○싹은 { 소초 } 라고 하며 정(精)을 보익하여 허로로 인한 몽설을 멎게 한다.

《본초강목》

淫羊藿 삼지구엽풀, 仙靈脾

음양곽 삼지구엽풀, 선령비

- 淫羊藿辛, 陽起陰興,
堅筋益骨, 志強力增.
- 음양곽은 성미가 맵고 음양을 흥기시킨다.

힘줄을 튼튼하게 하고 뼈를 보익하며 의지를 강하게 하고 힘을 더해준다.

삼지구엽풀. ○一名仙靈脾.

○小寒或微溫.

○入手足陽明、三焦、命門.

○得酒良.

○羊食此草, 一日百合. 《本草》

삼지구엽풀.

○선령비라고도 한다.

○조금 차거나 약간 따뜻하다.

○수양명경, 족양명경, 삼초경, 명문에 들어간다.

○술과 함께 마시면 좋다.

○양이 이 풀을 먹으면 하루에도 백 번 교미를 한다. 《본초강목》

仙茅

선모

• 【仙茅】味辛, 腰足攣痺,

虛損勞傷, 陽道興起.

• 【선모】는 성미가 매우며 허리, 다리에 경련이 일고 저린 증상을 낮게 한다.

허로로 몸이 손상된 경우와 노권상을 치료하며 양기를 일으킨다.

微溫, 小毒.

○忌鐵.

○黑豆水浸一宿, 酒拌蒸, 或米泔浸去赤汁.

○十斤乳石不及一斤仙茅. 《本草》

성미가 약간 따뜻하고 독성이 조금 있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흑두 달인 물에 하룻밤 담가 두었다가 술로 버무려서 찌거나 쌀뜨물에 담가 우려난 붉은 즙을 버리고 쓴다.

○유석(乳石) 10근이 선모 1근만 못하다. 《본초강목》

玄參

현삼

- 玄參苦寒, 清無根火, 消腫骨蒸, 補腎亦可.
- 현삼은 성미가 쓰고 차며 허화(無根火)를 식혀준다. 부종과 골증열을 없애주고 신(腎) 또한 보해준다.

腎經之君藥也.

○用蒲草蒸曬, 酒蒸亦好.

○惡黃芪、乾薑、大棗、山茱萸, 反藜蘆, 忌銅鐵. 《本草》

○乃樞機之劑, 管領諸氣上下, 清肅而不濁, 無根之火以爲聖藥. 《湯液》

○産於慶尙道云. 《寶鑑》⁹

신경(腎經)의 군약(君藥)이다.

○창포와 함께 찌서 햇볕에 말려 쓰거나 술에 찌서 써도 좋다.

○황기、건강、대추、산수유와 상오약이고 여로와는 상반약이다. 동이나 철기의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문의 지도리 같은 약재로서 여러 기를 거느려 오르내리게 하며 맑고 고요하여 탁하지 않으니 근원 모를 화를 치료하는 성약(聖藥)이다. 《탕액본초》

○경상도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동의보감》

地榆 외나물불휘

지유 오이풀뿌리

- 地榆沈寒, 血熱堪用,
血痢帶崩, 金瘡止痛.
- 지유는 성미가 가라앉으면서 차며 혈증이나 열증에 쓸 수 있다.
혈리, 대하, 봉루, 쇠붙이에 다친 곳을 치료하며 아울러 통증을 멎게 한다.

외나물불휘. ○入下焦.

○得髮良.

○惡麥門冬、伏丹砂、雄黃、硫黃. 《本草》

오이풀 뿌리. ○하초(下焦)로 들어간다.

○난발과 함께 쓰면 좋다.

○맥문동과 상오약이다. 단사, 옹황, 유황의 성질을 억제한다. 《본초강목》

丹參

단삼

- 【丹參】味苦, 破積調經¹⁰,
生新去惡, 祛除帶崩.

- 【단삼】은 성미가 쓰며 적취를 깨뜨리고 경맥을 고르게 한다.

새로운 피를 생성하고 나쁜 피를 제거하여 대하와 붕루를 없앤다.

微寒.

○入心與包絡血分.

○畏鹹水, 反藜蘆.

○久服多眼赤, 性應熱, 今云微寒, 恐謬.

○一味丹參, 功同四物. 《本草》

성미가 약간 차다.

○심경(心經)과 포락(包絡)의 혈분(血分)에 들어간다.

○짠 물과 상외약이고, 여로와는 상반약이다.

○오래 복용하면 눈이 많이 충혈 되니 성질이 열에 응하기 때문이다. 요즘 단삼

이 약간 차다고 하는 것은 생각건대 잘못된 것이다.

○단삼, 한 가지 약재가 사물탕의 약효와 같다. 《본초강목》

紫草 지치

자초 지치

- 紫草苦寒, 能通九竅,

利水消膨, 痘疹最要.

- 자초는 성미가 쓰고 차며 9규를 잘 통하게 한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팽만을 없애며 두진 치료에 가장 요긴한 약이다.

지치. ◦入手足厥陰.

◦陰乾酒洗.

◦忌人尿馬糞煙氣.

◦{ 葺 } 取其初得陽氣, 所以發痘瘡, 今人不達此理, 一概用之非矣. 《本草》

지치. ◦수궤음경, 족궤음경으로 들어간다.

◦그늘에 말fu 술로 씻어서 쓴다.

◦인뇨, 마분, 연기를 금한다.

◦{ 자초용 } 애초에 자초용이 양기를 얻어 생긴다는 점을 취하여 두창을 발진 시킬 때 쓰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쓰니 잘못된 것이다. 《본초강목》

白芨 디암풀

백급 대암풀

- 白芨味苦, 功專收斂,
腫毒瘡瘍, 外科最善.¹¹

- 백급은 성미가 쓰고 전적으로 수렴시키는 효과가 있다.

종독(腫毒)이나 악창, 가려움증을 치료하며 외과(外科) 질환에 가장 효과가 좋다.

디암풀. ◦平微寒. 入肺經.

◦畏杏仁, 反烏頭. 《本草》

대암풀. ◦성질이 평하고 약간 차다.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행인과 상외약이며 오두와는 상반약이다. 《본초강목》

〔増〕【三七】

〔증보〕【삼칠】

- 〔増〕【三七】苦溫, 專主血症,
外搽內服, 痛亦自定.
- 〔증보〕【삼칠】은 성미가 쓰고 따뜻하며 혈증을 전문으로 치료한다.
외용으로 발라주거나 내복하면 통증이 또한 저절로 사라진다.

入陽明厥陰血分. 《景岳》

◦以末, 搽猪血中, 化爲水者眞.

◦亦治虎咬蛇傷. 《本草》

양명경·궐음경의 혈분(血分)에 들어간다. 《경약전서》

◦가루 내어 돼지피 속에 부렸을 때 녹으면서 물이 되면 진품이다.

◦호랑이나 뱀에 물린 상처도 치료한다. 《본초강목》

黃連

황련

- 【黃連】味苦, 瀉心除痞¹²,
清熱明目, 厚腸止痢.
- 【황련】은 성미가 쓰며 심(心)을 사하여 속이 그득한 것을 없앤다.

열을 식혀주고 눈을 밝게 하며 장을 튼튼하게 하여 이질을 멎게 한다.

小寒.

○入心經.

○本臟火生用, 肝膽火猪膽炒¹³, 虛火醋炒, 上焦火酒炒, 中焦火薑炒, 下焦火鹽水炒, 氣分火吳茱萸湯炒, 血分火乾漆水炒, 食積火土炒.

○惡菊花、玄參、白蘚皮、芫花、白殭蠶、冷水, 畏款冬、牛膝, 勝烏頭, 解巴豆毒, 忌猪肉.

○古方有黃連猪肚丸, 豈只忌肉而不忌臟乎. 《本草》

○陶弘景有厚腸之一言, 而河間復證之曰, 苦寒藥多泄, 惟連栢性冷而燥, 因致後世視爲奇見, 凡治瀉痢者, 開手便是黃連一言之謬, 流染若此, 難洗若此, 悖理惑人, 莫此爲甚, 其有實熱猶可, 本無火邪而妄用, 則脾腎日敗, 百無一生, 凡患痢而死者, 率由此類, 可不寒心. 《景岳》

성미가 약간 차다.

○심경(心經)에 들어간다.

○심장의 화(火)에는 생것으로 쓰고 간담(肝胆)의 화에는 저담즙에 축여서 볶는다. 허화(虛火)에는 식초에 축여서 볶는다. 상초의 화에는 술에 축여서 볶고 중초의 화에는 생강즙에 축여서 볶으며 하초의 화에는 소금물에 축여서 볶는다. 기분(氣分)의 화에는 오수유 달인 물에 축여서 볶고 혈분의 화에는 건칠을 담갔던 물에 축여서 볶는다. 식적의 화에는 흑과 함께 볶는다.

○국화、현삼、백선피、원화、백강잠、냉수와 상오약이며 관동화、우슬과는 상외약이다. 오두의 성질을 이기고 파두독을 해독한다. 돼지고기와 함께 쓰

는 것을 금한다.

◦고방(古方)에 황련저두환이 있으니 어찌 돼지의 고기만 금하고 돼지의 내장은 금하지 않는 것인가. 《본초강목》

◦도홍경이 "황련은 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한 말에 대하여 유하간이 다시 논증하며 "성미가 쓰고 찬 약은 설사하게 하는 것이 많은데 황련·황백만은 성미가 냉하면서도 건조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후대에서는 탁월한 견해라고 보고 설사와 이질을 치료하려는 자는 처음부터 바로 황련을 쓴다. 황련에 대한 한마디 오류가 이처럼 오염되어 흘러 지금처럼 바로잡기 어렵게 되었다. 어긋난 이치가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실열(實熱)이 있을 때는 황련을 써도 괜찮지만 본래 화사(火邪)가 없었는데도 함부로 쓰면 비(脾)와 신(腎)이 날로 손상되어 백 명 중 한 명도 살아날 수 없다. 대개 이질 환자가 죽는 것은 대개 여기에서 비롯되니, 한심하지 않은가. 《경약전서》

胡黃連

호황련

- 【胡黃連】苦, 治勞骨蒸, 小兒疳痢, 盜汗虛驚.
- 【호황련】은 성미가 쓰며 허로나 골증열을 치료한다.
소아가 감병으로 설사하는 증상, 도한, 허하여 놀라는 증상을 치료한다.

大寒.

○惡忌同上, 解巴豆毒.

○心黑, 外黃, 折之塵出如煙者眞. 《本草》

약성이 크게 차다.

○상오약과 금기는 황련과 같다. 파두독을 해독한다.

○심은 검고 겉은 누런색이며 꺾었을 때 연기처럼 먼지가 날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본초강목》

黃芩 속서근풀, 子芩, 條芩

黃芩 속서풀, 자금, 조금

- 黃芩苦寒, 枯瀉肺火,
子清大腸, 濕熱皆可.¹⁴
- 黃芩은 성미가 쓰고 차며 속이 마른 것은 폐화(肺火)를 사한다.
자금(子芩)은 대장을 맑게 하고 습열에도 모두 좋다.

속서근풀. ○內實者, 名子芩、條芩.

○入手太陰血分, 手少陽陽明. 《本草》

○酒炒上行, 便炒下行, 尋常生用. 《入門》

○惡蔥實, 畏丹砂、牡丹、藜蘆.

○得厚朴黃連止腹痛, 得五味、牡蠣有子, 得黃芪、白斂、赤小豆, 療鼠瘻, 得酒上行, 得猪膽, 除肝膽火, 得柴胡, 退寒熱, 得芍藥, 治痢, 得桑白皮, 瀉肺火, 得白朮, 安胎. 《本草》

속서풀. ◦속이 실한 것을 자금(子苓) 또는 조금(條苓)이라고 한다.

◦수태음경, 혈분, 수소양경, 양명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술에 축여 볶으면 약 기운이 위로 올라간다. 동변에 축여서 볶으면 약 기운이 아래로 내려간다. 평소에는 생것을 쓴다. 《의학입문》

◦충실(蔥實)과 상오약이며 단사, 목단, 여로와는 상외약이다.

◦후박, 황련과 함께 쓰면 복통이 멎는다. 오미자, 모려와 함께 쓰면 임신하게 된다. 황기, 백령, 적소두와 함께 쓰면 서루(鼠癭)를 치료한다. 술과 함께 쓰면 약 기운이 위로 올라간다. 저담과 함께 쓰면 간과 담의 화를 제거한다. 시호와 함께 쓰면 한열을 없애준다. 작약과 함께 쓰면 이질을 치료한다. 상백피와 함께 쓰면 폐화(肺火)를 내린다. 백출과 함께 쓰면 태를 안정시켜 준다. 《본초강목》

秦艽 망초불휘

진교 망초뿌리

- 秦艽微寒, 除濕榮筋,
肢節風痛, 下血骨蒸.¹⁵
- 진교는 성미가 약간 차며 습을 제거하고 힘줄을 튼튼하게 한다.
사지 관절에 풍이 들어 아픈 경우, 피를 설사하는 경우와 골증열을 치료한다.

망초불휘. ◦入手足陽明及肝膽.

◦畏牛乳. 《本草》

망초 뿌리. ◦수양명경, 족양명경과 간담(肝膽)으로 들어간다.

◦우유와는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柴胡 뭇미나리

시호 산미나리

- 柴胡味苦, 能瀉肝火,
寒熱往來, 瘧疾均可.
- 시호는 성미가 쓰며 간화(肝火)를 사해준다.
한열 왕래와 학질에 똑같이 효과가 좋다.

뭇미나리. ◦微寒.

◦入手足少陽厥陰行經. 《本草》

◦外感生用, 內傷酒炒, 咳汗蜜水炒, 肝膽火猪膽炒. 《入門》

◦惡阜角, 畏藜蘆, 忌銅鐵. 《本草》

◦海藏曰, 苟無實熱而用柴胡, 不死何待. 《景岳》

산미나리. ◦약간 차다.

◦수소양경, 족소양경, 궤음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외감(外感)에는 생것을 쓰고 내상(內傷)에는 술에 축여 볶아서 쓴다. 기침과 한(汗)증에는 꿀물에 축여 볶아서 쓴다. 간화(肝火)와 담화(胆火)가 있을 때는 저담즙에 축여 볶아서 쓴다. 《의학입문》

◦조각과 상오약이고 여로와는 상외약이다. 동이나 철기의 사용을 금한다. 《본

초강목》

○해장이 말하기를 "실열이 없는데도 시호를 쓰면 어찌 죽지 않기를 기대하겠는가" 하였다. 《경약전서》

前胡 사양칫불휘

전호 사향취 뿌리

- 前胡微寒, 寧嗽消痰,
寒熱頭痛, 痞悶能安.
- 전호는 성미가 약간 차며 기침을 안정시키고 가래를 없애준다.
오한발열, 두통, 뱃속이 결리고 답답한 증상을 안정시킨다.

사양칫불휘. ○入手足太陰陽明.

○惡阜角, 畏藜蘆.

○其功長于下氣, 氣下則火降痰亦降. 《本草》

사향취 뿌리. ○수태음경, 족태음경, 양명경에 들어간다.

○조각과 상오약이고 여로와는 상외약이다.

○전호는 기를 잘 내려주는 효능이 있다. 기가 내려가면 화(火)를 내리고 담(痰)도 내려준다. 《본초강목》

防風 병풍나무모불휘

방풍 방풍나무 뿌리

- 防風甘溫, 能除頭暈,

骨節痺疼, 諸風口噤.

- 방풍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어지럼증을 잘 없애준다.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 증상, 여러 풍증과 구금(口噤)을 치료한다.

병풍나모불취. ◦入手足太陽及足陽明太陰, 又入肝經氣分.

◦惡白斂、乾薑、芫花、藜蘆, 畏葶藶, 殺附子毒, 解諸藥毒.

◦又頭發狂, 叉尾發痼疾.

◦得蔥行, 周身, 得澤瀉、藁本, 治風, 得歸、芍、陽起石、禹餘糧, 治婦人子臟風.

◦防風能制黃芪, 黃芪得防風, 其功愈大, 乃相畏而相使者也. 《本草》

◦除上焦風邪之仙藥. 《入門》

방풍나무 뿌리. ◦수태양경、족태양경、족양명경、족태음경으로 들어간다.

또한 간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백렴、건강、원화、여로와 상오약이고 비해(葶藶)와는 상외약이다. 부자독을 없애고 여러 약의 독을 해독한다.

◦가닥진 노두는 사람을 미치게 하고 가닥진 잔뿌리는 고질병을 발생시킨다.

◦충백과 함께 쓰면 약 기운이 온몸을 돈다. 택사、고본과 함께 쓰면 풍증을 치료한다. 당귀、작약、양기석、우여량과 함께 쓰면 부인 자궁의 풍증을 치료한다.

◦방풍은 황기의 약성을 억제하지만 황기를 방풍과 함께 쓰면 약효가 더욱 커지니 이는 서로 상외약이면서도 서로 사약(使藥)되는 것이다. 《본초강목》

◦상초의 풍사(風邪)를 없애는 매우 좋은 약이다. 《의학입문》

羌活 강호리

강활

- 羌活微溫, 祛風除濕,
身痛頭疼, 舒筋活骨.

- 강활은 성미가 약간 따뜻하며 풍습을 제거한다.

몸과 머리가 아픈 것을 치료하고 힘줄을 펴주고 뼈를 원활하게 한다.

강호리. 〇乃手足太陽, 足厥陰少陰, 表裏引經藥也. 撥亂反正之主, 大無不通, 小無不入, 故一身百節痛, 非此不能治, 羌活氣雄, 故入足太陽, 獨活氣細, 故入足少陰, 俱是治風, 而表裏之殊. 《本草》

〇羌活、獨活, 俱產江原道. 《寶鑑》

강활. 〇이 약은 수태양경、족태양경、족궐음경、족소음경의 표리로 이끄는 인경약이다. 병이 발작하는 것을 다스려 정상으로 되돌리는 주된 약이다. 크게 통하지 않는 데가 없고 작게는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으므로 몸에 있는 온갖 관절의 통증은 이 약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 강활은 기가 웅장하기 때문에 족태양경으로 들어가고 독활은 기가 약하기 때문에 족소음경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둘 다 풍증을 치료하며 표증에 쓰는지 이증에 쓰는지만 다르다. 《본초강목》

〇강활、독활은 모두 강원도에서 생산된다. 《동의보감》

獨活 ㄸ 둘흙

독활 산두릅

- 獨活甘苦, 頸項難舒,
兩足濕痺, 諸風能除.
- 독활은 성미가 달고 쓰며 목이 잘 펴지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두 다리에 생긴 습비와 여러 풍증을 제거한다.

ㄸ 둘흙. ◦微溫.

◦足少陰行經藥.

◦獨活不搖風而治風, 浮萍不沈水而利水.

◦兩足寒濕痺不能動, 非此不除. 《本草》

산두릅. ◦약간 따뜻하다.

◦족소음경을 지나는 약이다.

◦독활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풍증을 치료할 수 있고, 부평은 물에 잠기지 않아 수기를 잘 통하게 할 수 있다.

◦두 다리가 한비·습비로 움직이지 못할 때는 독활이 아니면 나을 수 없다.

《본초강목》

升麻 식덜가릿불휘

승마 끼덜가리뿌리

- 升麻性寒, 清胃解毒,

升提下陷, 牙疼可逐. 下陷¹⁶

- 승마는 성미가 차며 위(胃)를 서늘하게 하고 해독작용을 한다.

원기가 처진 것을 끌어올려 주며 치통을 낮게 한다.

식덜가릿불휘. ◦足陽明太陰經藥. 《本草》

◦發散生用, 補中酒炒, 止汗蜜炒. 《入門》

◦參芪非此引之不能上行, 同柴胡引生發之氣上行, 同葛根發陽明之汗, 瘀血入裏,

犀角地黃湯, 乃陽明聖藥, 如無犀角, 以升麻代之. 《本草》

기멸가리 뿌리. ◦족양명경·족태음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발산시킬 때는 생것을 쓰고 속을 보할 때는 술에 축여 볶아서 쓴다. 땀을 멎게 할 때는 꿀에 축여 볶아서 쓴다. 《의학입문》

◦인삼·황기는 승마가 아니면 약 기운을 이끌어 상행하게 할 수 없다. 시호와 함께 쓰면 성장하게 하는 기를 이끌어 위로 올라가게 한다. 갈근과 함께 쓰면 양명(陽明)의 땀을 발산시킬 수 있다. 어혈이 속으로 들어간 경우는 서각지항탕을 쓰니 양명병에 매우 좋은 약이다. 서각이 없을 때는 승마로 대신해서 쓴다. 《본초강목》

苦參 쓴너슴불휘

고삼 쓴너삼뿌리

- 苦參味苦, 癰腫瘡疥,

下血腸風, 眉脫赤癩.¹⁷

- 고삼은 성미가 쓰고 옹종과 창개를 치료한다.

장풍(腸風)으로 피를 설사하는 경우, 적나(赤癩)로 눈썹이 빠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쓴너삼불휘. ◦足少陰君藥, 入足少陽.

◦糯米泔浸, 蒸曬.

◦惡貝母、兔¹⁸絲子, 反藜蘆, 伏汞, 制雌黃、焰硝.

◦能峻補陰氣, 治大風有功, 況風熱細疹乎.

◦胃弱者慎用. 《本草》

쓴너삼 뿌리. ◦족소음경의 군약으로 족소양경으로 들어간다.

◦찹쌀뜨물에 담갔다가 찌서 햇볕에 말려서 쓴다.

◦패모、토사자와 상오약이며 여로와는 상반약이다. 수은을 굴복시키며 자황、염초의 약 기운을 억제한다.

◦음기를 높게 보해주고 대풍(大風)에 효과가 있으니 하물며 풍열(風熱)로 작게 발진하는 병들임에랴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써야 한다. 《본초강목》

〔增〕白蘚皮 검환불휘

〔증보〕백선티 검화뿌리

- 〔增〕白蘚皮寒, 濕痺風癰,
治諸疥癬, 淋疸亦安.
- 〔증보〕백선티는 성미가 차며 습비, 풍증, 탄탄에 쓴다.
여러 개선증과 임질, 황달도 안정시킨다.

검찰불휘. ◦入手太陰陽明.

◦惡海螵蛸、桔梗、茯苓、萆薢.

◦爲風痺要藥, 世醫止施之瘡科, 淺矣. 《本草》

검화뿌리. ◦수태음경、수양명경에 들어간다.

◦해표초、길경、복령、비해와 상오약이다.

◦풍증으로 저릴 때 중요한 약이다. 의사들이 백선파를 헌데 치료에만 사용하는 것은 식견이 얇기 때문이다. 《본초강목》

延胡索

현호색

- 延胡氣溫, 心腹卒痛,
通經活血¹⁹, 跌撲血崩.
- 현호색은 기운이 따뜻하며 멍치가 갑자기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경락을 통하게 하고 혈을 원활하게 하며 타박상과 혈봉을 치료한다.

本名玄胡索.

◦入手足太陰厥陰. 《本草》

◦醋煮用. 《入門》

◦行血中氣滯, 氣中血滯, 一身上下諸痛用之, 妙不可言. 《本草》

◦若產後血虛氣虛作痛大, 非所宜. 《景岳》

본래 이름은 현호색이다.

○수태음경、족태음경、수궐음경、족궐음경에 들어간다.《본초강목》

○식초에 삶아서 쓴다.《의학입문》

○혈(血) 속에 기가 응체된 경우, 기(氣) 속에 혈이 응체된 것을 운행시키니 온 몸의 상하부가 아픈 모든 경우에 쓰면 효과의 묘함을 말로 할 수 없다.《본초강목》

○산후의 혈허와 기허로 크게 아플 때는 쓰면 안 된다.《경약전서》

貝母

패모

- 【貝母】微寒, 止嗽化痰,

肺癰肺痿, 開鬱除煩.

- 【패모】는 성미가 약간 차고 기침을 멎게하고 가래를 녹인다.

폐옹과 폐위를 치료하고 막힌 것을 열어주며 번조를 제거한다.

入肺經氣分.

○去心, 薑汁炮.

○惡桃花, 畏秦艽、礬石, 反烏頭.《本草》

폐경(肺經)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심을 제거하고 생강즙에 축여 t습지에 싸서 굽는다.

○도화는 상오약이고 진교、반석은 상외약이다. 모두는 상반약이다.《본초강목》

慈菰 가치무릇

자고 까치무릇

- 慈菰辛苦, 疔腫癰疽,
惡瘡癰疹, 蛇虺竝施.
- 자고는 성미가 맵고 쓰며 정종(疔腫)과 응저를 치료한다.
악창, 은진과 뱀에 물렸을 때 모두 쓴다.

가치무릇. ◦小毒. 《本草》

까치무릇. ◦독성이 조금 있다. 《본초강목》

茅根 쑥불휘

모근 띠 뿌리

- 茅根味甘, 通關逐瘀,
止吐衄血, 客熱可去.
- 모근은 성미가 달며 혈관을 통하게 하고 어혈을 몰아낸다.
토혈, 녹혈을 멎게하고 객열을 없애준다.

쑥불휘. ◦性寒.

◦卽白茅根, 可辟穀.

◦利小便, 治渴疸. 世人因忽之, 惟事苦寒, 致傷沖和之氣, 烏足知此哉. 《本草》²⁰

띠 뿌리. ◦성질이 차다.

◦곧, 백모근(白茅根)이며 벽곡할 수 있다.

◦소변(小便)을 잘 통하게 하고 소갈과 황달을 치료한다. 세상 사람들이 모근을 소홀히 여기고 성미가 쓰고 찬 약재만 일삼아 써서 조화로운 기(氣)를 상하게 하니 어찌 모근을 충분히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본초강목》

龍膽 과남풀

용담초 관음풀

- 龍膽苦寒, 療眼赤疼,
下焦濕腫, 肝經煩熱.
- 용담초는 성미가 쓰고 차며 눈이 충혈되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하초가 습으로 붓는 증상과 간경의 번열을 치료한다.

과남풀. ◦入足厥陰少陽氣分.

◦忌鐵.

◦甘草湯浸一宿, 暴乾, 酒炒, 上行. 《本草》

◦虛人酒炒黑. 《湯液》

관음풀. ◦족궐음경, 족소양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감초 달인 물에 하룻밤 담가두었다가 햇볕에 말려서 술에 축여 볶으면 약 기운이 상초로 올라간다. 《본초강목》

◦허한 사람에게는 술에 축여 검게 볶아서 쓴다. 《탕액본초》

細辛 죽도리풀불휘

세신 죽도리풀뿌리

- 細辛辛溫, 少陰頭痛,
利竅通關, 風濕皆用.
- 세신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소음(少陰) 두통을 치료한다.
관규를 잘 통하게 하거나 풍습을 치료할 때 모두 쓴다.

죽도리풀불휘. ◦入足厥陰少陰血分, 手少陰引經.

◦惡黃芪、狼毒、山茱萸, 忌生菜, 畏消石、滑石, 反藜蘆.

◦單用末, 不可過半錢匕, 多則氣塞死, 雖死無傷.

◦頭面風痛, 不可缺. 《本草》

죽도리풀 뿌리. ◦죽궤음경、죽소음경의 혈분으로 들어가며 수소음경으로 이
끄는 인경약이다.

◦황기、낭독、산수유와 상오약이다. 생채소를 먹는 것을 금한다. 소석、활석
과 상외약이다. 여로와는 상반약이다.

◦단방으로 쓸 때는 세신을 가루 내어 쓴다. 0.5돈을 넘게 쓰지 말아야 하니 많
이 쓰면 숨이 막혀서 죽으니 죽더라도 상한 곳은 없다.

◦두면풍으로 아픈 증상에 필수약이다. 《본초강목》

白薇 이마존

백미 아마존

- 白薇大寒, 療風治瘡,
人事不知, 鬼邪堪却.
- 백미는 성미가 크게 차며 풍증과 학질을 치료한다.
인사불성이 된 경우나 귀사(鬼邪)를 물리칠 때 쓸 수 있다.

이마존. ◦入陽明經.

◦糯米泔水蒸, 曬或酒洗.

◦惡黃芪、大黃、乾薑、大棗、乾漆、山茱萸. 《本草》

아마존. ◦양명경으로 들어간다.

◦찹쌀뜨물로 찌서 햇볕에 말리거나 술에 씻어서 쓴다.

◦황기、대황、건강、대추、건칠、산수유와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1. 入手足太陰、手少陽、足少陰命門. : 入手足太陰氣分, 又入手少陽、足少陰命門. ※《본초강목》↩

2. : 主咳嗽消渴強中, 瘡毒疔腫 ※《본초강목》↩

3. : 陳藏器曰, "鉤吻, 乃野葛之別名. 二物, 全不相似, 不知陶公憑何說此", 是可見黃精之內, 本無鉤吻, 不必疑也. ※《경악전서》↩

4. 熱渴 : 消渴熱中 ※《본초강목》↩

5. 蓬砂 ⇨ 礪砂 ※《본초강목》↩

6. : 鎖陽.....上豐下儉, 鱗甲櫛比, 筋脈連絡, 絕類男陽, 卽肉蓯蓉之類. 或謂裏

之淫婦,就而合之,一得陰氣,勃然怒長.※《본초강목》↩

7. : 赤箭用苗,有自表入裏之功

天麻用根,有自內達外之理.※《본초강목》↩

8. : 雄壯上行之藥. : 蒼朮別有雄壯上行之氣 ※《본초강목》↩

9. : 須用蒲草重重相隔,入甑蒸兩伏時,晒乾用.※《본초강목》↩

10. 調經 : 調婦人經脈不勻.※《본초강목》

生新去惡 : 補新血,安生胎.※《본초강목》↩

11. : 癰腫惡瘡敗疽.※《본초강목》↩

12. 瀉心除痞 : 心下痞滿者,須用黃連、枳實.※《본초강목》↩

13. 猪膽炒 : 猪膽汁浸炒 ※《본초강목》↩

14. : 枯瀉肺火, : 黃芩之中枯而飄者,瀉肺火,※《본초강목》↩

15. : 腸風瀉血,養血榮筋.※《본초강목》↩

16. 下陷 : 元氣下陷諸病 ※《본초강목》↩

17. : 赤癩眉脫..... 治腸風瀉血並熱痢.※《본초강목》↩

18. 免 兔 ※문맥상 ↩

19. 通經活血 : 通經絡〔李珣〕,活血利氣.※《본초강목》↩

20. : 利小便,故能止諸血噦逆、喘急消渴,治黃疸水腫.※《본초강목》

世人因微而忽之, 惟事苦寒之劑, 致傷冲和之氣, 烏足知此哉. ※《본초강목》↩



芳草 元三¹十三

향초 원방 23종

當歸 승엄초불휘

당귀 승검초뿌리

- 當歸性溫, 生血補心,
扶虛益損, 逐瘀生新.
- 당귀는 성미가 따뜻하며 혈을 생성하고 심(心)을 보한다.
허손을 보익하며 어혈을 몰아내고 새로운 피를 생성한다.

승엄초불휘. ◦入心以其心生血, 入脾以其脾裹血, 入肝以其肝藏血.

◦痰用薑汁炒, 治上酒浸, 治外酒洗.

◦惡藺茹、溫麵, 畏菖蒲、海藻、生薑, 制雄黃.

◦{ 頭 } 止血.

◦{ 身 } 養血.

◦{ 尾 } 行血. 《本草》

승검초 뿌리. ◦당귀가 심(心)으로 들어가면 그 심에 혈이 생성되고 비(脾)로 들어가면 그 비가 혈에 감싸이고 간(肝)으로 들어가면 그 간에 혈을 저장해둔다.
◦담(痰)이 있을 때는 생강즙에 축여 볶아서 쓴다. 상초를 치료할 때는 술에 담가둔다. 외용으로 쓸 때는 술에 씻어서 쓴다.

- 여여(蘭茹)、온면과는 상호약이고 창포、해조、생강과는 상외약이다. 옹황의 약기운을 억제한다.
- { 당귀 노두 } 지혈한다.
- { 당귀신 } 혈을 길러준다.
- { 당귀미 } 혈을 잘 돌게 한다. 《본초강목》

川芎 궁궁

천궁 궁궁

- 川芎味溫, 能止頭疼,
養新生血, 開鬱上行.
- 천궁은 성미가 따뜻하며 두통을 잘 멎게 한다.
혈을 길러 새롭게 생성시키며 울결된 것을 열어주고 상승시킨다.

궁궁. ◦少陽引經藥, 入手足厥陰氣分.

◦畏黃連.

◦色白不油者佳.

◦頭面風不可缺也. 單服久服, 易致暴亡, 骨蒸多汗, 尤忌.

◦藜蘂卽其苗也, 治頭目風, 去三蟲. 《本草》

궁궁. ◦소양경의 인경약이다. 수궐음경、족궐음경의 기분에 들어간다.

◦황련과는 상외약이다.

◦흰색 빛깔에 기름기가 없는 것이 좋다.

◦두면풍(頭面風)에 필수적인 약이다. 단방으로 오래 복용하면 갑자기 죽기 쉽

다. 골증열로 땀이 많이 날 때는 더욱 금한다.

◦미무(蔞蕪)는 천궁의 싹이다. 두목풍(頭目風)을 치료하고 삼시충을 없앤다.

《본초강목》

蛇床 비암도랏씨

사상자 뱀도랏씨

- 蛇床辛苦, 下氣溫中,
惡瘡疥癩, 逐瘀祛風.
- 사상자는 성미가 맵고 쓰며 기를 내려주고 속을 따뜻하게 한다.
약창, 개선을 치료하고 어혈을 몰아내고 풍증을 제거한다.

비암도랏씨. ◦腎命門三焦氣分藥.

◦惡牡丹、貝母、巴豆, 伏硫黃.

◦微炒.

◦令人陽事盛.

◦不獨補助男子, 而能有益婦人, 捨此而求補於遠域, 豈非賤目貴耳乎. 《本草》

뱀도랏 씨. ◦신(腎)、명문(命門)、삼초의 기분(分藥)으로 들어가는 약이다.

◦목단、패모、파두와 상오약이며 유향의 약 기운을 억제한다.

◦약간 볶아서 쓴다.

◦성생활을 왕성하게 한다.

◦남자의 원기를 북돋워줄 뿐 아니라 부인도 보익해준다. 이 약을 버리고 먼 지역에서 보하는 약을 구하니 어찌 본 것을 경시하고 들은 것만 귀하게 여기는가. 《본초강목》

藁本

고본

- 藁本氣溫, 除痛巔頂,
寒濕可祛, 風邪可屏.
- 고본은 기운이 따뜻하며 정수리의 통증을 제거한다.
한증과 습증을 없애고 풍사(風邪)를 막아준다.

入足太陽.

◦畏青箱子. 《本草》

족태양경으로 들어간다.

◦청상자와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白芷 구리땃불휘

백지 구릿대뿌리

- 白芷辛溫, 陽明頭疼,
風熱癰癢, 排膿通用.
- 백지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양명 두통을 치료한다.
풍열증, 가려움증을 치료하고 농양을 배출시킬 때 두루 쓴다.

구릿대불휘. ○手陽明本經藥. 同升麻, 則行手足陽明及手太陰, 惡旋覆花, 制雄黃、
硫黃. ○通九竅發汗, 不可缺也. 《本草》

구릿대 뿌리.

○수양명의 본경약이다. 승마와 함께 쓰면 수양명경、족양명경、수태음경으
로 운행된다. 선복화와 상오약이고 옹황、유황의 약 기운을 억제한다.

○9규를 통하게 하고 땀을 내는데 필수적인 약이다. 《본초강목》

白芍藥 함박꽃불휘

백작약 함박꽃뿌리

- 白芍酸寒, 能收能補,
瀉痢腹痛, 虛寒勿用.
- 백작약은 성미가 시고 차며 잘 수렴시키고 잘 보한다.
설사와 이질, 복통을 치료한다. 몸이 허한할 때는 쓰지 말아야 한다.

함박꽃불휘. ○小毒.

○手足太陰行經, 入肝脾血分.

○花紅單葉山中者佳. 白補, 赤瀉, 以竹刀刮皮, 蜜蒸. 避寒者, 酒炒. 女人血藥, 醋炒.

《本草》

함박꽃 뿌리. ○독성이 조금 있다.

○수태음경、족태음경으로 운행하며 간(肝)、비(脾)의 혈분으로 들어간다.

○꽃이 붉고 단 잎으로 산속에 피어 있는 것이 좋다. 백작약은 보해주고 적작약

은 사해준다. 죽도로 껍질을 벗겨서 꿀을 발라서 찐다. 찬 것을 피해야 하면 술에 축여 볶아서 쓴다. 여성의 혈약으로 쓸 때는 식초에 축여 볶아서 쓴다. 《본초강목》

赤芍

적작약

- 赤芍酸寒, 能瀉能散,
破血通經, 產後勿犯.
- 적작약은 성미가 시고 차며 잘 사해주고 잘 흠어준다.
어혈을 깨뜨리고 경맥을 통하게 하나 산후에는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한다.

木香

목향

- 【木香】微溫, 散滯和胃,
諸氣能調, 行肝瀉肺.
- 【목향】은 성미가 약간 따뜻하며 체기를 흠어주고 위(胃)를 편하게 한다.
여러 기를 조화롭게 하며 간경(肝經)을 운행시켜 폐(肺)기를 사해준다.

入三焦氣分.

○理氣藥生用不見火, 若實大腸, 麵煨. 《本草》

삼초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기를 다스리는 약에는 생것으로 쓰고 불이 달지 않도록 한다. 대장을 견실하

게 하려면 목향을 밀가루 반죽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 《본초강목》

甘松

감송

- 【甘松】味香, 善除惡氣,

浴體香肌, 心腹痛已.

- 【감송】은 성미가 향기로우며 나쁜 기운을 잘 없앤다.

감송 달인 물로 목욕하면 피부가 향기롭고 머치가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良薑

양강

- 【良薑】性熱, 下氣溫中,

轉筋霍亂, 酒食能攻.²

- 【양강】은 성미가 뜨거우며 기를 잘 내리고 속을 따뜻하게 한다.

전근, 팍란, 술이나 음식을 먹고 상한 것을 잘 낮게한다.

入足太陰陽明.

○子名【紅豆蔻】, 治同. 又解酒毒. 《本草》

족태음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양강의 씨를 【홍두구】라고 하며 주치증은 양강 같다. 또한 주독(酒毒)을 풀어준다. 《본초강목》

草薹 草果

초두구 초과

- 【草薹】辛溫, 治寒犯胃, 作痛嘔吐³, 不食能治.
- 【초두구】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한사(寒邪)가 위(胃)를 침범한 것을 치료한다.
복통과 구토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麵裹煨.

○入太陰陽明.

○草豆薹、草果, 雖是一種, 然建寧所產爲草豆薹, 滇廣所產爲草果. 《本草》

밀가루 반죽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

○태음경、양명경으로 들어간다.

○초두구와 초과는 비록 한 종류이지만 건녕(建寧)에서 생산된 것을 초두구라 하고 진광(滇廣)에서 생산된 것을 초과라고 한다. 《본초강목》

草果

초과

- 【草果】味辛, 消食除脹,
截瘧逐痰, 解瘟辟瘴.
- 【초과】는 성미가 매우며 음식을 소화시켜 창만을 낮게 한다.
학질을 없애고 담(痰)을 몰아내며 온역과 산람장기를 물리친다.

麵煨研. 《本草》

밀가루 반죽에 싸서 잣불에 묻어 구워서 간다. 《본초강목》

白蔻

백두구

- 【白蔻】辛溫, 能祛瘴翳,
益氣調元, 止嘔翻胃.
- 【백두구】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산람장기와 예막을 잘 없앤다.
기를 북돋우며 원기를 고르게 하고 구토와 번위를 멎게 한다.

去皮炒研. 《入門》

○有五專, 一入肺經, 二散胸滯, 三去寒腹痛, 四煖脾胃, 五去太陽經赤眼紅筋. 《本草》

껍질을 벗기고 볶아서 간다. 《의학입문》

○전문으로 치료하는 5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로 폐경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로 흉격에 막힌 것을 흩어주고, 세 번째로 한사로 인한 복통을 없애며, 네 번째로

비위(脾胃)를 따뜻하게 하고, 다섯째로 태양경병으로 눈이 벌겋고 붉게 핏줄
이 서는 증상을 없애준다. 《본초강목》

砂仁

사인

- 【砂仁】性溫, 養胃進食,
止痛安胎, 通經破滯.
- 【사인】은 성미가 따뜻하며 위기(胃氣)를 길러주고 입맛을 돋운다.
통증을 멎게 하고 태를 안정시키며 경맥을 통하게 하고 체한 것을 깨뜨린다.

入手足太陰、陽明、太陽、足少陰.

◦得白檀、豆蔻, 入肺, 得人參益智, 入脾, 得黃栢、茯苓, 入腎, 得赤石脂, 入大小腸.

◦化銅鐵, 骨哽. 《本草》

◦慢火炒研. 《入門》

수태음경、족태음경、양명경、태양경、족소음경에 작용한다.

◦백단、육두구와 같이 쓰면 폐로 들어가고 인삼、익지인과 같이 쓰면 비(脾)
로 들어가고 황백、복령과 같이 쓰면 신(腎)으로 들어간다. 적석지와 같이 쓰
면 대장、소장으로 들어간다.

◦구리、철을 녹이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 《본초강목》

◦은근한 불에 볶아서 간다. 《의학입문》

益智

익지인

- 【益智】辛溫, 安神益氣,
遺溺遺精, 嘔逆皆治.
- 【익지인】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기를 북돋운다.
유뇨, 유정, 구역을 모두 치료한다.

心者脾之母, 進食, 不止於和脾, 火能生土, 當使心藥, 入脾胃⁴中, 土中益火也.⁵ 補藥中兼用勿多服.

○去殼, 炒研. 《本草》

심(心)은 비(脾)의 어머니이며 음식을 먹게 하려면 비장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화(火)가 토(土)를 생성하므로 심(心)에 쓰는 약을 비위약(脾胃藥)에 넣으면 토(土) 속에 화(火)가 북돋아진다. 보하는 약 속에 넣어서 쓰되 많이 먹지는 말아야 한다.

○껍질을 벗기고 볶아서 간다. 《본초강목》

葦撥

필발

- 【葦撥】味辛, 溫中下氣,
痙癖陰疝, 霍亂瀉痢.
- 【필발】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기를 내려준다.

헌벽(痲癬), 음산(陰疽), 객란, 설사와 이질을 치료한다.

入手足陽明.

◦醋浸一宿, 焙乾.

◦多服, 目昏傷肺. 《本草》

수양명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식초에 하루밤 담가두었다가 겉불에 말린다.

◦많이 복용하면 눈이 흐려지고 폐(肺)를 상하게 된다. 《본초강목》

肉蔻

육두구

- 【肉蔻】辛溫, 脾胃虛冷,
瀉痢不休, 功可立等.
- 【육두구】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비위(脾胃)가 허하고 찬 증상을 치료한다.
설사와 이질이 멎지 않을 때 금세 효과가 난다.

入手足陽明.

◦醋調麵包煨熟取出, 以紙槌去油, 勿犯銅. 《本草》

수양명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식초를 밀가루에 넣고 반죽한 것으로 싸서 잿불에 묻어 굽다가 익으면 꺼낸다. 종이에 싸서 두드려서 기름을 빼고 쓴다. 구리가 닿지 않도록 한다. 《본초강목》

破古紙 補骨脂

파고지 보골지

- 【破古紙】溫, 腰膝酸痛,
興陽固精, 鹽酒炒用.
- 【파고지】는 성미가 따뜻하며 허리나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양기를 일으키고 정(精)을 견고하게 하며 소금이나 술을 넣고 볶아서 쓴다.

一名補骨脂.

○使心包之火, 通命門之火.

○惡甘草, 忌羊肉諸血, 得胡桃、胡麻, 良. 《本草》使心包之火, 通命門之火.⁶

보골지(補骨脂)라고도 한다.

○심포락의 화(火)와 명문(命門)의 화를 서로 통하게 한다.

○감초와 상오약이고 양고기와 모든 피는 금한다. 호도、호마와 함께 쓰면 좋다. 《본초강목》

薑黃

강황

- 【薑黃】味辛, 消癰破血,
心腹結痛, 下氣最捷.
- 【강황】은 성미가 매우며 응종을 없애고 어혈을 깨뜨린다.
명치 부위가 뭉치고 아픈 것을 치료하고 기를 내려주는데 가장 빠르다.

性熱不冷云, 大寒誤矣.

○能入手臂. 《本草》

○醋炒. 《入門》

○功與鬱金稍同, 而氣味尤烈. 《景岳》性熱不冷云, 大寒誤矣.⁷

강황은 성미가 뜨거우며 냉하지 않다고 하였으니 크게 차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약 기운이 손과 팔로 들어간다. 《본초강목》

○식초에 축여서 볶는다. 《의학입문》

○약효는 울금과 다소 비슷하나 기미가 더욱 세다. 《경약전서》

鬱金 심황

울금 심황

- 鬱金味苦, 破血生肌,
血淋溺血, 鬱結能舒.
- 울금은 성미가 쓰며 어혈을 풀어주고 살찌게 한다.
혈림, 요혈을 치료하고 울결을 잘 풀어준다.

심황. ○性寒. 景岳云, 氣溫

○屬火與土有水, 其性輕揚上行. 《本草》⁸

심황. ○성질이 차다. 장경악이 울금은 기(氣)가 따뜻하다고 하였다.

○화(火)에 속하면서 토(土)와 수(水)에도 속하며 그 성질이 가벼워서 날아가 상부로 운행한다. 《본초강목》

○〔增〕鬱金、薑黃, 既爲異草, 而雲林云, 大者薑黃, 小者鬱金, 以爲一類者, 誤矣.

○市人多, 以薑黃, 僞之. 《備要》

○〔증보〕 울금과 강황은 원래 다른 본초이니雲林(雲林) 공정현(龔廷賢)이 큰 것이 강황이고 작은 것이 울금으로 한 종류라고 여긴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인들이 강황을 울금으로 속여서 판다. 《본초비요》

莪朮 蓬莪茂

아출 봉아술

- 【莪朮】溫苦, 善破瘀癖,

止痛消瘀, 通經⁹最宜.

- 【아출】은 성미가 따뜻하고 쓰며 현벽을 잘 깨뜨린다.

통증을 멎게하고 어혈을 없애며 월경을 통하게 할 때 가장 효과가 있다.

一名蓬莪茂¹⁰.

○入肝經, 治氣中之血.

○得酒醋良. 《本草》

○非頑積不宜用. 《景岳》

봉아술(蓬莪茂)이라고도 한다.

○간경(肝經)에 들어가 기(氣) 속의 혈을 치료한다.

○술이나 식초와 함께 쓰면 좋다. 《본초강목》

○심한 적(積)이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한다. 《경악전서》

三稜 미자깃불휘

삼릉 매자기뿌리

- 三稜味苦, 利血消癥,
氣滯作疹, 虛者當忌.
- 삼릉은 성미가 쓰며 혈을 잘 통하게 하고 벽(癥)을 없앤다.
기(氣)가 막혀 생긴 통증을 치료하며 허한 경우에는 사용을 금한다.

미자깃불휘. ◦入肝經血分.

◦性溫, 一云瀟涼.

◦醋浸炒, 或炮熟. 《本草》

매자기 뿌리. ◦간경(肝經)의 혈분에 들어간다.

◦성질이 따뜻하다. 껍끄럽고 서늘하다고도 한다.

◦식초에 담가두었다가 볶아서 쓰거나 습지에 싸서 구워서 익힌다. 《본초강목》

香附 향부즈, 莎根

향부 향부자, 사초뿌리

- 香附味甘, 快氣開鬱,
止痛調經, 更消宿食.
- 향부자는 성미가 달며 기를 쾌활하게 하고 울체된 것을 열어준다.
통증을 멎게하고 월경을 고르게 하며 숙식(宿食)을 없애준다.

향부즈, 卽莎根.

○肝三焦藥, 兼行十二經八脈氣分.

○得童便、醋、川芎、蒼朮, 良.

○忌鐵.

○生則上行外達, 下走外徹, 炒黑止血, 童便炒, 入血補虛, 鹽水炒入血潤燥, 酒炒行經, 醋炒消積, 薑炒化痰. 《本草》

향부자, 즉 사초 뿌리이다.

○간(肝)과 삼초의 약으로 12경 8맥의 기분에 들어간다.

○동변、식초、천궁、창출과 함께 쓰면 좋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생것을 쓰면 약 기운이 위로 올라가 체외에 도달하거나 아래로 내려가서 체외로 통하기도 한다. 검게 볶아서 쓰면 지혈된다. 동변에 축여 볶아서 쓰면 혈로 들어가서 허를 보한다. 소금물에 축여 볶아서 쓰면 혈로 들어가 마른 것을 적셔준다. 술에 축여 볶아서 쓰면 경맥을 잘 통하게 한다. 식초에 축여서 볶아서 쓰면 적(積)을 없앤다. 생강즙에 축여 볶아서 쓰면 담(痰)을 녹인다. 《본초강목》

藿香

곽향

- 【藿香】辛溫, 能止嘔吐, 發散風寒, 霍亂爲主.

- 【곽향】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구토를 잘 멎게 한다.

풍사(風邪)와 한사(寒邪)를 발산시키고 곽란을 주로 치료한다.

入手足太陰. 《本草》

수태음경、족태음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澤蘭

택란

- 澤蘭甘苦, 癰腫能消,
打撲損傷, 肢體虛浮.
- 택란은 성미가 달고 쓰며 옹종을 없애준다.

타박으로 인한 손상, 팔다리와 온몸이 허하고 붓는 증상을 치료한다.

小溫.

○足太陰厥陰.

○防己爲使.

○婦人方中, 最爲急用. 《本草》

조금 따뜻하다.

○족태음경、족궤음경에 들어간다.

○방기(防己)를 사약(使藥)으로 삼는다.

○부인의 처방 중에서 가장 급히 쓰는 약이다. 《본초강목》

香薷 노야기, 香茹

향유 노야기, 향여

- 香薷味辛, 傷暑便澀,
霍亂水腫, 除煩解熱.
- 향유는 성미가 매우며 서증(暑症)에 상하였거나 소변이 걸끄러운 증상을 치료한다.
곽란, 수종을 치료하고 번갈을 없애고 열을 내려준다.

소야기. ¹¹

- 一名香茹.
- 微溫.
- 屬金與水, 有徹上徹下之功.
- 勿犯火, 陳者良.
- 氣虛不可多服. 《本草》
- 去梗, 薑炒. 《入門》

노야기.

- 향여(香茹)라고도 한다.
- 약간 따뜻하다.
- 금(金)과 수(水)에 속하므로 위 · 아래로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 불에 달지 않도록 하고 오래 묵은 것이 좋다.
- 기허(氣虛)에는 많이 복용할 수 없다. 《본초강목》
- 줄기를 제거하고 생강즙에 축여 볶아서 쓴다. 《의학입문》

荊芥 명가, 假蘇

형개 명가, 가소

- 荊芥味辛, 能清頭目,
表寒¹²祛風, 治瘡消瘀.
- 형개는 성미가 매우며 머리와 눈을 시원하게 한다.
체표에 땀을 내어 풍증을 없애고 창(瘡)을 치료하고 어혈을 제거한다.

명가. ◦本名假蘇.

◦入足厥陰氣分.

◦忌無鱗魚, 與蟹同食動風, 食黃鱸魚犯薑芥立死. 《本草》

◦治血炒黑. 梔子、乾薑、地榆、棕櫚、五靈脂等炒黑, 以黑借血也.

◦陳者良. 《備要》

명가. ◦원래 이름은 가소(假蘇)이다.

◦족궐음경의 기분에 들어간다.

◦비늘 없는 해산물은 금하니 게와 함께 먹으면 풍(風)이 동하고 황상어를 먹고

생강이나 형개를 먹으면 곧 죽는다. 《본초강목》

○혈증을 치료할 때는 형개를 검게 볶아서 쓴다. 치자、건강、지유、종려、오령지 등을 검게 볶아서 쓰는 것은 흑색이 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본초비요》

薄荷 영싱이

박하 영생이

- 薄荷味辛, 最清頭目,
祛風化痰, 骨蒸宜服.
- 박하는 성미가 매우며 머리와 눈을 가장 시원하게 한다.
풍증을 없애고 담을 녹이며 골증열에 복용해야 한다.

영싱이. ○辛涼.

○入手足厥陰氣分.

○引諸藥入營衛, 故發散風寒.

○猫犬虎之酒也. 《本草》

영생이. ○맵고 서늘하다.

○수궐음경、족궐음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여러 약을 이끌고 영위(營衛)로 들어가서 풍、한을 발산시킨다.

○고양이、개、호랑이가 먹으면 취한다. 《본초강목》

紫蘇 차조기

자소 차조기

- 紫蘇味辛, 風寒發表,

梗下諸氣, 消除脹滿.

- 자소는 성미가 매우며 풍한의 사기를 걸으로 발산시킨다.

자소 줄기는 여러 기를 내려주며 창만을 제거한다.

초조기. ◦辛溫.

◦入氣分, 同橘、縮, 安胎, 同藿香、烏藥, 溫中止痛, 同香附、麻黃, 發汗, 同芎歸和血, 同木苿、厚朴, 解暑治霍亂脚氣, 同枳、梗利膈, 同杏仁、蘿菔子, 消痰.

◦葉可生食, 與一切魚肉作羹食, 殺毒. 《本草》

차조기. ◦맵고 따뜻하다.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굴、축사와 함께 쓰면 태를 안정시킨다. 곽향、오약과 함께 쓰면 속을 따뜻하게 하고 통증을 멎게 한다. 향부자、마황과 함께 쓰면 땀을 내게 한다. 천궁、당귀와 함께 쓰면 혈(血)을 고르게 한다. 목과、후박과 함께 쓰면 더위를 풀어주며 객란과 각기를 치료한다. 지각、길경과 함께 쓰면 흉격을 통하게 한다. 행인、나복자와 함께 쓰면 담(痰)을 없애준다.

◦자소엽은 생것으로도 먹으며 모든 생선、고기와 함께 국을 끓여서 먹으면 독을 없앤다. 《본초강목》

蘇子 초조기씨

소자 차조기 씨

- 蘇子味辛, 歐痰降氣,

止咳定喘, 更潤心肺.

- 소자는 성미가 매우며 가래를 없애고 기를 내려준다.

기침을 멎게 하고 숨이 몹시 차는 증상을 안정시키며 심폐(心肺)를 원활하게 한다.

초조기씨. ◦下氣, 與橘皮同.

◦解魚蟹毒. 《本草》¹³

차조기 씨. ◦기를 내려주니 굴피와 함께 쓴다.

◦게, 생선의 독을 풀어준다. 《본초강목》

◦〔增〕藥肆所存率多僞者, 嗅之有蘇臭, 方可入藥.

◦〔증보〕약국에 있는 것들은 거의 가짜이다. 냄새를 맡아보아 자소의 냄새가 나는 것을 약에 넣어야 한다.

大茴香

대회향

- 【大茴】味辛, 疝氣脚氣, 腫痛膀胱, 止嘔開胃.¹⁴

- 【대회향】은 성미가 매우며 산기(疝氣)와 각기를 낮게 한다.

방광이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하고 구토를 멎게 하며 위를 열어준다.

性平.

◦入手足少陰太陽.

◦酒浸一宿, 炒黃研. 《本草》

○一種¹⁵ 角茴香, 氣烈, 專主腰痛. 《入門》

성질이 평하다.

○수소음경、족소음경、수태양경、족태양경에 들어간다. 하룻밤 술에 담갔다가 누렇게 볶아서 간다. 《본초강목》

○대회향의 한 종류인 팔각회향은 약성이 강렬하며 요통(腰痛)을 전문으로 치료한다. 《의학입문》

小茴香

소회향

- 小茴性溫, 能除疝氣, 腹痛腰疼, 調中煖胃.
- 소회향은 성미가 따뜻하며 산기(疝氣)를 없애준다. 복통, 요통을 치료하고 속을 고르게 하여 위(胃)를 따뜻하게 한다.

我國隨處有之. 《寶鑑》

우리나라 어디서나 생산된다. 《동의보감》

百合

백합

- 百合味甘, 安心定膽, 止嗽消浮, 癰疽可啖.

- 백합(百合)은 성미가 달며 심(心)·담(膽)을 안정시킨다.

기침을 멎게 하고 부종을 없애며 옹저에 먹어도 좋다.

花白者, 入藥. 《備要》

꽃이 흰 것을 약으로 쓴다. 《본초비요》

1. 三 二 ※실제로는 23종이 있다. 오기인 듯하다. 역자주 <
2. 酒食能攻. 解酒毒, 消宿食. ※《본초강목》 <
3. 作痛嘔吐. 心腹痛, 嘔吐 ※《본초강목》 <
4. 脾胃. 脾胃藥 ※《본초강목》 <
5. 土中益火也. 故古人進食藥中, 多用益智, 土中益火也 ※《본초강목》 <
6. 使心包之火, 通命門之火. 能使心包之火與命門之火相通. ※《본초강목》 <
7. 性熱不冷云, 大寒誤矣. 藏器曰, 辛少苦多, 性熱不冷. 云大寒, 誤矣. ※《본초강목》 <
8. 屬火與土有水. 屬土與水 ※《본초강목(인문위생본)》 <
9. 消瘀, 通經. 通月經, 消瘀血 ※《본초강목》 <
10. 茂 茂 ※《본초강목》 <
11. 소야기. 노야기 ※《동의보감》, 《제증신편》 <

12. 表寒 ㉞ 表汗 ※《증보만병회춘》

表寒 ※《제중신편》↩

13. : 弘景曰 蘇子下氣, 與橘皮相宜. ※《본초강목》↩

14. : 膀胱胃間冷氣及育腸氣, 調中, 止痛、嘔吐.〔馬志〕治乾濕脚氣, 腎勞癰

疝陰疼, 開胃下氣 ※《본초강목》↩

15. 入 ㉞ 八 ※문맥상 ↩



濕草 元四十一增八

습초 원방 41종, 증보 8종

菊花 감국

국화 감국

- 菊花味甘, 除熱祛風,
頭眩眼赤, 收淚殊功.
- 국화는 성미가 달며 열과 풍(風)을 없애준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충혈된 것을 치료하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는 효능
이 특히 뛰어나다.

감국. ◦屬土與金, 有水與火. 《本草》

◦家園內味甘黃花者佳. 《保元》

◦作枕, 明目去頭眩.

◦白菊去風頭不白.

◦野菊傷胃惟癰疽付服. 《本草》

감국. ◦토(土)와 금(金)에 속하며 수(水)와 화(火)의 기운이 있다. 《본초강목》

◦집의 정원에서 길러 성미가 달고 노란 꽃이 좋다. 《수세보원》

◦베개로 만들어 쓰면 눈이 맑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진다.

○흰 국화는 풍(風)을 제거하고 머리가 희어지지 않게 한다.

○들국화는 위(胃)를 상하게 하니 응저(癰疽) 치료에만 붙이거나 복용한다. 《본

초강목》

艾葉 사지발쑀

애엽 사재발쑀

- 艾葉溫平, 驅邪逐鬼,
漏血安胎, 心疼即愈.
- 애엽은 성미가 따뜻하고 평하며 사기(邪氣)와 귀신을 몰아낸다.
자궁 출혈을 멎게하고 태를 안정시키며 심장 통증을 곧 낫게 한다.

사지발쑀.

- 一云性熱.
- 入足三陰.
- 得米粉或白茯苓少許, 可搗爲末.
- 久服毒發, 熱氣上衝, 甘豆湯菉豆汁飲. 《本草》
- 陳者良. 《備要》

사재발쑀.

- 성질이 뜨겁다고도 한다.
- 족삼음경에 들어간다.
- 쌀가루나 백복령 약간을 넣고 찼어서 가루 낸다.

○오랜 복용으로 독이 발생하여 열기가 상부로 치받으면 감두탕이나 녹두즙을 마신다. 《본초강목》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본초비요》

茵陳 더위지기

인진 더위지기

- 茵陳味苦, 退疸除黃,
瀉濕利水, 清熱爲良.
- 인진은 성미가 쓰며 황달을 제거하고 물러가게 한다.
습(濕)을 사하고 수기를 잘 통하게 하며 열을 없애는 데 좋다.

더위지기. ○微寒.

○入足太陽.

○勿犯火. 《本草》

더위지기. ○약간 차다.

○족태양경으로 들어간다.

○불에 닿지 않도록 한다. 《본초강목》

靑蒿 저비쑥

청호 제비쑥

- 靑蒿氣寒, 童便熱薑¹,
虛寒盜汗, 除骨蒸勞.

- 청호는 성미가 차며 동변에 뜨겁게 달여 고를 내어 쓴다.

허한(虛寒)·도한(盜汗)을 치료하고 골증노열을 없애준다.

저비쑥. ◦入足少陽厥陰血分.

◦童便浸七日, 曬乾.

◦伏硫黃. 《本草》

제비쑥. ◦족소양경·족궐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동변에 7일 동안 담가 두었다가 햇볕에 짊어 말린다.

◦유황의 약성을 억제한다. 《본초강목》

益母草 암눈비앗

익모초 암눈비앗

- 益母草甘, 女科爲主,

産後胎前, 生新去瘀.

- 익모초는 성미가 달며 부인과 질병을 치료한다.

출산 전과 임신 전에 쓰며 새로운 피를 생산하고 어혈을 없애준다.

암눈비앗. ◦微寒. 一云辛溫

◦入手足厥陰血分.

◦制硫黃·雄黃·砒石, 忌鐵. 《本草》

암눈비앗. ◦조금 차다. 맵고 따뜻하다고도 한다.

◦수궐음경、족궐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유황、웅황、비석의 약성을 억제한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茺蔚子 암눈비앗씨

충울자 암눈비앗씨

- [增]茺蔚子甘, 氣益目明,
春仁生食, 潤肺壅精².
- [증보]충울자는 성미가 달며 기를 북돋우고 눈을 밝게 한다.
생것으로 찢어서 쓰면 폐를 적서주고 정수를 채워준다.

암눈비앗 씨. ◦微炒香或蒸熟, 烈日曝燥, 春 去殼取仁《本草》

암눈비앗의 씨. ◦향이 나도록 약간 볶거나 찢서 익힌 다음 강렬한 햇볕에 찢어
말려서 절구에 찢고 키질하여 껍질을 제거한 속씨를 쓴다. 《본초강목》

夏枯 저비쑤

하고초 제비꿀

- 夏枯草苦, 瘰癧癭瘤,
破癥散結, 濕痺能瘳.
- 하고초는 성미가 쓰며 나력과 영류(癭瘤)를 치료한다.
징가를 깨뜨리고 맺힌 것을 풀어주며 습비(濕痺)를 잘 낫게 한다.

저비쑤. ◦性寒.

◦稟純陽之氣, 得陰氣則枯, 有能養厥陰血脈之功, 尚治目疼如神者, 以陽治陰也.

《本草》稟純陽之氣, 得陰氣則枯,³

제비쑤. ◦성질이 차다.

◦순전히 양(陽)의 기를 품부 받은 식물로 음기(陰氣)를 만나면 곧 시든다. 귤음의 혈맥을 길러주는 효능이 있다. 눈의 통증을 신기하게 치료하니 양기로 음증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본초강목》

金沸草 하국, 旋覆花

금비초 하국, 선복화

- 金沸草寒, 消痰止嗽,
明目祛風, 逐水尤妙.
- 금비초는 성질이 차며 가래와 기침을 멎게 한다.
눈을 밝게 하고 풍증을 없애며 수(水)를 몰아내는데 더욱 묘한 효과가 있다.

하국. ◦一名旋覆花.

◦微溫.

◦入肺大腸. 《本草》

하국. ◦선복화(旋覆花)라고도 한다.

◦약간 따뜻하다.

◦폐경과 대장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靑箱子 민드라미씨

靑상자 맨드라미씨

- 靑箱子苦, 肝臟熱毒,
暴發赤障, 靑盲可服.⁴
- 청상자는 성미가 쓰며 간장의 열독으로 인해
갑자기 눈에 붉은 예장이나 청맹이 생겼을 때 복용할 수 있다.

민드라미씨. ◦入厥陰.

◦炒用. 《本草》

◦小兒切忌弄鷄冠花, 其子入目不可醫. 《傳家寶》

맨드라미씨. ◦궐음(厥陰)경에 들어간다.

◦볶아서 쓴다. 《본초강목》

◦소아가 절대로 계관화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씨가 눈에 들어가
면 치료할 수가 없다. 《전가보》⁵

紅花 닛

홍화 잇꽃

- 紅花辛溫, 最消瘀熱,
多則通經, 少則養血.⁶
- 홍화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어혈과 열을 가장 잘 없앤다.
많이 쓰면 월경을 통하게 하고 적게 쓰면 혈을 길러준다.

넛. ◦入肝經血分.

◦得醋良.

◦{子} 主痘瘡.

◦{臙脂} 紅花汁凝作, 小兒聾耳, 浸汁滴之, 解痘毒. 《本草》

잇꽃. ◦간경(肝經)의 혈분에 들어간다.

◦식초와 함께 쓰면 좋다.

◦{씨} 두창을 치료한다.

◦{연지} 홍화즙을 응고시켜 만든다. 소아의 정이(聾耳)에는 연지를 물에 담가 낸 즙을 귀에 떨어뜨려준다. 두창 독을 해독한다. 《본초강목》

大薊 향가시, 小薊 초방가시

대계 향가새, 소계 조방가새

- 大小薊苦, 消腫破血⁷,
吐衄咯唾, 崩漏可啜.
- 대계, 소계는 성미가 쓰며 응종을 없애고 어혈을 깨뜨린다.
토혈, 늑혈, 객혈, 타혈과 봉루에 복용할 수 있다.

大薊향가시, 小薊초방가시.

◦根溫葉涼. 《本草》

대계의 향명은 향가새, 소계의 향명은 조방가새이다.

◦뿌리는 성미가 따뜻하고 잎은 성미가 서늘하다. 《본초강목》

續斷 검산풀불휘

속단 검산풀뿌리

- 續斷味辛, 接骨續筋,
跌撲折傷, 且固遺精.
- 속단은 성미가 매우며 뼈를 붙여주고 힘줄을 이어준다.
타박상, 골절상을 치료하며 또한 정(精)이 새는 것을 견고하게 한다.

검산풀불휘. ◦微溫.

◦酒浸焙乾.

◦地黃爲使, 惡雷丸.

◦血痢, 及婦人崩帶尿血, 產前後漏血最良. 《本草》

◦與桑寄生同功.

◦斷之節, 節有煙塵起者佳. 《入門》

검산풀 뿌리. ◦약간 따뜻하다.

◦술에 담가 두었다가 겉불에 말린다.

◦지황을 사약으로 삼는다. 뇌환과 상오약이다.

◦혈리(血痢)와 부인의 붕루·대하·요혈(尿血), 산전산후의 하혈에 가장 좋은 약재이다. 《본초강목》

◦상기생과 효능이 같다.

◦속단의 마디를 꺾었을 때 연기 같은 먼지가 일어나는 것이 좋다. 《의학입문》

漏蘆 절국디

누로 절굿대

- 漏蘆性寒, 祛惡瘡毒,

補血排膿, 生肌長肉.⁸

- 누로는 성미가 차며 악창과 독(毒)을 없애준다.

혈을 보하고 고름을 배출시키며 새살을 돋게 하고 살찌게 한다.

절국디.

◦入足陽明.

◦殺蛔蟲. 《本草》

절굿대.

◦족양명경에 들어간다.

◦회충을 죽인다. 《본초강목》

[增] 苧根 모시불휘

[증보] 저근 모시풀뿌리

- [增] 苧根味甘, 補陰行血,

胎漏丹毒, 產後熱疾.

- [증보] 저근은 성미가 달며 음(陰)을 보하고 피를 잘 돌게 한다.

태루, 단독, 산후의 열과 질병을 낫게 한다.

모시불휘. ◦滑冷. 《本草》

모시풀뿌리. ◦성질이 미끄러우며 냉하다. 《본초강목》

胡蘆巴

호로파

- 【胡巴】溫煖, 補腎臟虛, 膀胱諸疝, 脹痛皆除.⁹
- 【호로파(胡蘆巴)】는 성미가 온난하며 신장이 허해진 것을 보한다. 방광기(膀胱氣)와 여러 산증(疝症), 배가 창만하고 아픈 증상을 모두 제거한다.

酒蒸或炒.

◦得茴香·桃仁, 治膀胱氣甚效. 《本草》

술에 찌거나 볶아서 쓴다.

◦회향·도인과 함께 쓰면 방광기(膀胱氣)를 치료하는 데 효능이 매우 좋다.

《본초강목》

鼠黏

서점자 우엉씨, 우방자, 악실

- 鼠黏子辛, 能消瘡毒, 癰疹風熱, 咽疼可逐.¹⁰
- 서점자는 성미가 매우며 창독(瘡毒)을 잘 없앤다. 은진(癰疹), 풍열로 인한 인후통을 몰아낸다.

우왕씨. ○一名牛旁子.

○一名惡實.

○苦溫.

○酒蒸研.

○{ 根、葉 } 搗付金瘡杖瘡, 又入鹽, 付一切腫毒. 《本草》

우엉 씨. ○우방자(牛旁子)라고도 한다.

○악실(惡實)이라고도 한다.

○쓰고 따뜻하다.

○술에 찌서 갈아서 쓴다.

○{ 뿌리、잎 } 쇠붙이나 몽둥이에 다친 곳에 찢어 바른다. 또 소금을 섞어서 모든 종독에 붙여준다. 《본초강목》

蒼耳子 뚫고마리, 茺耳, 卷耳

창이자 도꼬마리, 시이, 권이

- 蒼耳子苦, 疥癬細瘡,

驅風濕痛, 瘙癢堪賞.

- 창이자는 성미가 쓰며 개선과 작은 부스럼을 치료한다.

풍습(風濕)으로 인한 통증을 몰아내고 가려움증 치료는 칭찬할 만하다.

뚫고마리. ○一名茺耳、卷耳.

○溫有小毒, 或無毒.

○炒熟或酒蒸.

○忌猪馬肉米泔, 伏礪砂.

○{ 葉 } 主風濕痺在骨髓. 《本草》

도꼬마리. ○시이(藁耳)、권이(卷耳)라고도 한다.

○성질이 따뜻하며 독성이 조금 있거나 독성이 없다.

○볶아서 익히거나 술에 찐다.

○돼지고기、말고기、쌀뜨물을 금한다. 요사(礪砂)의 약성을 억제한다.

○{ 잎 } 주로 골수에 생긴 풍비와 습비를 치료한다. 《본초강목》

蓴 진득찰

희렴 진득찰

● 蓴味甘, 追風除濕,

聰耳明目, 烏鬚黑髮.

● 희렴은 성미가 달며 풍증을 몰아내고 습증을 제거한다.

귀와 눈을 밝게 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검게 한다.

진득찰. ○苦寒有小毒.

○蜜酒蒸, 九蒸九曝, 補氣治風. 《本草》

진득찰. ○쓰고 차며 독성이 조금 있다.

○꿀이나 술에 축여서 구증구포 하여 찐다. 기(氣)를 보하고 풍(風)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增]甘蕉 반초불휘, 芭蕉

[증보]감초 반초뿌리, 파초

- [增]甘蕉大寒, 天行熱渴¹¹,
葉主腫毒, 油主生髮.
- [증보]감초는 성질이 크게 차며 유행성 열병과 소갈을 치료한다.
잎은 주로 종독(腫毒)을 치료하고 기름은 머리카락을 나게 한다.

반초불휘. ○一名芭蕉.

○取油以竹筒插皮中, 取出, 瓶盛.

○又治湯火瘡. 《本草》

반초 뿌리. ○파초(芭蕉)라고도 한다.

○기름을 낼 때는 대나무 대롱을 감초 껍질에 꽂아서 기름을 낸 후 병에 담아 둔다.

○또 뜨거운 물이나 불에 덴 상처를 치료한다. 《본초강목》

鶴蝨 여의오줌

학슬 여우오줌

- 鶴蝨味苦, 殺蟲追毒,
心腹卒痛, 蛔蟲堪逐.
- 학슬은 성미가 쓰며 벌레를 죽이고 독을 완화시킨다.
명치가 갑자기 아픈 것을 치료하며 회충을 몰아내는데 쓸 수 있다.

여의오줌. ◦凉有小毒. 《本草》

여우오줌. ◦서늘하고 독성이 조금 있다. 《본초강목》

麻黃

마황

- 麻黃味辛, 解表出汗,
身熱頭疼, 風寒發散.
- 마황은 성미가 매우며 해표시키고 땀이 나게 한다.
몸에 열이 나고 두통이 있는 것을 치료하고 풍한의 사기를 흩어준다.

性溫.

- 手太陰藥, 入足太陽, 走手少陰陽明, 發太陽少陰汗.
- 去根節, 水煮十餘沸, 去上沫, 根節止汗故也.
- 厚朴、白薇爲使, 惡辛夷.
- 陳者良.
- 有麻黃之地, 冬不積雪, 爲泄內陽, 故過用則泄眞氣.
- 傷寒解肌第一藥也. 《本草》
- 【根】止汗, 夏月多汗用之, 俱可. 《景岳》
- 自中原移植, 惟江原道、慶尙道有之. 《寶鑑》

성미가 따뜻하다.

- 수태음경의 약으로 족태양경에 들어간다. 수소음경、수양명경에 달려가 태양증、소음증에 땀을 내게 한다.

- 뿌리와 마디를 제거하고 물에 삶아 10여번 끓어오를 때까지 달이면서 위에 거품을 걷어낸다. 뿌리와 마디는 땀을 멎게 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다.
- 후박·백미(白薇)를 사약으로 삼고 신이(辛夷)와 상오약이다.
- 오래 묵은 것이 좋다.
- 마황이 자라는 땅은 겨울에도 눈이 쌓이지 않으니 안에서 양이 새어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황을 과하게 쓰면 진기가 새어 나간다.
- 상한의 병을 해기(解肌)시킬 때 가장 좋은 약이다. 《본초강목》
- 【뿌리】땀을 멎게 하거나 여름에 땀이 많이 날 때 쓰면 모두 좋다. 《경약전서》
- 중국에서 옮겨 심었으며 강원도·경상도에만 있다. 《동의보감》

木賊 속시

목적 속새

- 木賊味甘, 益肝退翳,
能止月經, 更消積聚.
- 목적은 성미가 달며 간장을 보익하고 예막을 물리친다.
계속되는 월경을 잘 멎게 하며 또한 적취를 없애준다.

속시. ○平溫.

○得牛角腮、麝香, 治久痢, 得禹餘糧、芎、歸, 治崩中, 得槐花、桑耳, 治腸風, 得槐子、枳實, 治痔出血.

○與麻黃性同, 發汗解肌. 《本草》

○眼藥多用, 童便浸一宿, 晒乾. 《寶鑑》

속새. ○성질이 평하고 따뜻하다.

○우각시(牛角腮)、사향과 함께 쓰면 오랜 이질을 치료하고, 우여량·천궁·당귀와 함께 쓰면 봉루를 치료한다. 괴화·상이와 함께 쓰면 장풍(腸風)을 치료한다. 괴화씨·지실과 함께 쓰면 치질로 피가 나는 것을 치료한다.

○마황과 성미가 같아서 땀을 내고 해기(解肌)시킨다. 《본초강목》

○안약으로 많이 쓴다. 동변에 하룻밤 담가두었다가 햇볕에 짊어 말려서 쓴다.

《동의보감》

燈草 골속

등초 골속

● 燈草味甘, 通利小水,

癰閉成淋, 濕腫爲最.

● 등초는 성미가 달며 소변과 수기를 잘 통하게 한다.

소변이 막혀 임증이 된 것을 치료하고 습종(濕腫)을 낮게 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

골속. ○寒平.

○瀉肺降心火.

○難研. 以米粉漿染, 晒乾, 研末, 入水浮者, 是燈心也.

○取心爲燈炷. 《本草》

골속. ◦성질이 차고 평하다.

◦폐기를 사하고 심화(心火)를 내려준다.

◦가루내기 어려우므로 쌀가루를 푼 물에 담갔다가 벌레 짝어 말린 후 가루 낸다. 물에 넣어 떠오르는 것을 등심(燈心)이라고 한다.

◦등심으로 등잔불의 심지로 삼는다. 《본초강목》

生地黃 苻

생지황 호

- 生地微寒, 能清濕熱,
骨蒸煩勞, 兼消瘀血.
- 생지황은 성미가 약간 차며 습열(濕熱)을 식혀준다.
골증열, 번열, 노열을 치료하고 겸하여 어혈을 없애준다.

一名苻¹²

◦大寒.

◦入手足少陰厥陰, 又手太陽之劑.

◦得清酒、麥門冬良, 惡貝母, 畏蕪荑, 忌蔥、蒜、蘿菔、諸血、銅、鐵.

◦大寒, 胃弱者, 斟酌用.

◦又治心痛蛔蟲. 《本草》

◦初採沈水浮者, 名天黃, 半浮半沈者, 名人黃, 沈者, 名地黃, 沈者佳, 半沈者次之, 浮者不堪用. 《寶鑑》

◦多產於黃州.¹³

호(芎)라고도 한다.

○성질이 크게 차다.

○수소음경、족소음경、수궐음경、족궐음경에 들어간다. 또 수태양경의 약제이다.

○청주、맥문동과 함께 쓰면 좋다. 패모와 상오약이며 무이(蕪荑)와 상외약이다. 총백、마늘、나복、각종 피、구리、철기의 사용을 금한다.

○성질이 크게 차니 위가 약한 사람은 상태를 짐작하여 쓴다.

○또 심통(心痛)과 회충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막 캐어 물에 담갔을 때 뜨는 것을 천황(天黃)이라고 하고, 절반은 뜨고 절반은 잠긴 것을 인황이라고 하며, 잠기는 것을 지황(地黃)이라고 한다. 잠긴 것이 좋고 반쯤 잠긴 것이 다음이며 뜨는 것은 쓸 수 없다. 《동의보감》

○황주(黃州)에서 많이 생산된다.

[增]生乾地

[증보]생건지황

- [增]生乾地凉, 能除寒熱,
心膽血虛, 肺損吐血.¹⁴
- [증보]생건지황은 성미가 서늘하며 한열을 제거한다.
심장과 쓸개를 돕고 혈허, 폐의 손상, 토혈을 치료한다.

酒浸上行, 薑汁浸不泥膈.

○其法, 以一百斤內, 六十斤, 木臼取汁投酒, 拌前生地黃, 晒乾或火焙. 《本草》¹⁵

술에 담가서 쓰면 약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생강즙에 담가서 쓰면 흥격이 막히지 않는다.

○생견지황 만드는 방법. 100근 중에 60근은 나무절구로 찌서 즙을 낸 후 술에 담가둔다. 여기에 앞의 나머지 생지황 40근을 버무려 햇볕에 말리거나 결불에 말려서 쓴다. 《본초강목》

熟地

숙지황

- 熟地微溫, 滋腎補血¹⁶, 益髓填精, 烏髭黑髮.
- 숙지황은 성미가 약간 따뜻하며 신수(腎水)를 자운시키고 혈을 보한다. 정(精)을 보익하고 골수를 채우며 수염과 머리를 검게 한다.

薑汁浸, 拌砂仁之香而竄, 合和五臟沖和之氣, 歸宿丹田故也. 得牧丹、當歸, 和血生血涼血滋陰補髓.

○臍下痛屬腎, 非熟地不能除, 乃通腎之藥也. 《本草》

○地黃產於中州之沃土, 色黃土色也, 味甘土味也, 得土之氣而曰非太陰陽明之藥, 吾弗信也. 惟生者性涼, 脾陽不足者, 當慎用, 至若熟則性平, 稟至陰之氣, 能補五臟之眞陰, 又於多血之臟, 爲最要, 得非脾胃經藥耶. 人之生者, 氣與血耳, 補氣以人參爲主, 而芪朮爲佐, 補血以熟地爲主, 而芎歸爲佐, 人參熟地, 氣血之必不可無, 一陰一陽, 相爲表裏, 一形一氣, 互主生成, 性味中正, 無踰於此, 誠有不可假借而更代者矣. 《景岳》

생강즙에 담갔다가 사인과 섞으면 향이 잘 스며들어 오장의 온화한 기운과 잘 화합되니 단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목단·당귀와 함께 쓰면 혈을 고르게 하고 혈을 만들며 혈을 식혀주고 음(陰)을 적셔주며 수(髓)를 보충한다.

○아랫배가 아픈 것은 신(腎)의 병에 속하니 숙지황이 아니면 병이 나을 수 없다. 신장의 병에 두루 쓰는 약이다. 《본초강목》

○지황은 중주의 비옥한 땅에서 생산된다. 색이 누런 것은 토(土)의 색깔이고 성미가 단 것은 토의 성미로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족태음경·족양명경의 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생지황만은 성미가 서늘하여 비(脾)에 양(陽)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써야 한다. 숙지황 같으면 성미가 평하고 천부적으로 지극한 음(陰)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므로 능히 오장의 진음(眞陰)을 보해준다. 또 혈이 많은 장기에 가장 중요한 약이니 비위경(脾胃經)의 약이 아닐 수 있겠는가. 사람이 사는 것에는 기와 혈이 있을 뿐이니 기를 보할 때는 인삼을 주약(主藥)으로 삼고 황기·백출을 좌약으로 삼는다. 혈을 보할 때는 숙지황을 주약으로 삼고 천궁·당귀를 좌약으로 삼는다. 그러니 인삼과 숙지황은 기와 혈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나는 음(陰)이고 하나는 양(陽)이라서 서로 표리가 되고, 하나는 형(形)이고 하나는 기(氣)라서 서로 생장을 주관한다. 성미가 균형잡힌 약재로는 이보다 뛰어난 것이 없으니 진실로 빌려서라도 대신할 것이 없다. 《경약전서》

牛膝 쇠무릅디기

우슬 쇠무릎풀

- 牛膝味苦, 除濕痺痿,

補精强足, 破瘀下胎.¹⁷

- 우슬은 성미가 쓰며 습사(濕邪)로 팔다리가 오그라든 증상을 제거한다.

정(精)을 보해주고 다리를 강하게 하며 어혈을 깨뜨리고 유산시킨다.

쇠무릅디기. ◦得酒則補肝腎, 生用則去惡血, 滋補則酒蒸, 欲下行則生用.

◦惡龜甲, 忌牛肉.

◦助十二經脈, 活血生血之劑也. 引諸藥下行于腰腿. 《本草》

쇠무릎풀. ◦술과 함께 먹으면 간(肝)·신(腎)을 보한다. 생것으로 쓰면 악혈을 제거한다. 몸을 자유했고 보하려면 술로 찌서 쓴다. 약 기운이 하부로 가게 하려면 생것으로 쓴다.

◦구갑(龜甲)과 상오약이며 쇠고기를 금한다.

◦12경맥을 도와 혈을 잘 돌게 하고 생성시키는 약제이다. 여러 약의 기운을 하부로 이끌어 허리와 다리로 운행하게 한다. 《본초강목》

紫菀 텅알

자완 텅알

- 紫菀苦辛, 痰喘欬逆, 肺痿吐膿, 寒熱竝濟.
 - 자완은 성미가 쓰고 매우며 가래, 호흡 곤란, 기침으로 숨이 차는 증상을 치료한다.
- 폐위(肺痿), 고름을 토하는 증상, 오한발열을 모두 구제한다.

텅알. ◦性溫.

◦蜜水浸, 焙乾.

◦款冬爲使, 惡天雄、瞿麥、藁本、雷丸、遠志, 畏茵陳. 《本草》

텅알. ◦성질이 따뜻하다.

◦꿀물에 담갔다가 곁불에 말린다.

◦관동(款冬)을 사약(使藥)으로 삼는다. 천웅、구맥、고본、뇌환、원지와는 상오약이고 인진과는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麥門冬 겨으스리불휘

맥문동 겨우살이 뿌리

- 麥門甘寒, 解渴祛煩,
補心清肺, 虛熱自安.
- 맥문은 성미가 달고 차며 갈증을 풀고 번열을 없앤다.
심장을 보하고 폐를 식혀주어 허열이 저절로 안정된다.

겨으스리불휘. ◦入手太陰氣分.

◦瓦焙乘熱去心, 補藥酒浸.

◦地黃、車前爲使, 惡款冬, 畏苦參、石鍾乳, 忌鐵.

◦氣弱胃寒者, 不可餌. 《本草》

◦産於慶尙、全羅、忠清道及生肥土海島中. 《寶鑑》

겨우살이 뿌리. ○수태음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기와 위에 놓고 결불에 찌어 열이 오르면 심을 제거하여 쓴다. 보하는 약으로 쓰려면 술에 담가둔다.

○지황、차전을 사약(使藥)으로 삼는다. 관동과 상오약이고 고삼、석종유와 상외약이다. 철기를 쓰는 것을 금한다.

○기(氣)가 약하고 위(胃)가 찬 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 《본초강목》

○경상도、전라도、충청도와 토양이 비옥한 섬에서 생산된다. 《동의보감》

葵花

규화

- 葵花味甘, 帶痢兩功,
赤治赤者, 白治白同.¹⁸
- 규화는 성미가 달며 대하와 이질에 모두 효능이 있다.
붉은 꽃은 적대하를 낫게 하고 흰꽃은 백대하를 낫게 한다.

규화. ○ { 子、根 } 同功, 主利小便五淋. 《本草》

규화. ○ { 씨、뿌리 } 는 효능이 같으니 주로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오림(五淋)을 낫게 한다. 《본초강목》

[增]龍葵 가마중이

[증보]용규 까마중

- [增]龍葵甘寒, 去熱少睡,

跌撲傷損, 小便通利.

- [증보]용규는 성미가 달고 차며 열을 내리고 잠을 줄인다.

타박으로 인한 손상을 낮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가마종이.

까마중.

[增]酸漿 꾸아리

[증보]산장초 파리

- [增]酸漿酸寒, 難産吞之,

熱煩利水, 治痘益兒.¹⁹

- [증보]산장초는 성미가 시고 차며 난산일 때 삼킨다.

열이 나서 답답한 증상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황달을 치료하고 소

아를 보익한다.

꾸아리. ◦ { 莖、苗 } 同功. 《本草》

파리. ◦ { 줄기、싹 } 은 효능이 같다. 《본초강목》

旱蓮草 한년초, 鱧腸

한련초 예장초

- 旱蓮草甘, 生鬚黑髮,

赤痢堪止, 血流可截.

- 한련초는 성미가 달며 수염과 머리카락을 나게 하고 검게 한다.
적리를 멎게 하고 지혈시킬 수 있다.

한련초, 卽鱧腸.

한련초는 곧 예장초(鱧腸草)이다.

款花

관동화

- 【款花】甘溫, 理肺消痰,
肺癰喘欬, 補²⁰除煩.
- 【관동화】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폐를 다스리고 담을 없앤다.
폐옹, 호흡이 가쁜 증상과 기침을 낮게 하고 허로를 보하며 번조를 없앤다.

純陽, 入手太陰.

○杏仁爲使, 得紫菀良, 惡阜角、消石、玄參, 畏貝母、麻黃、黃芪、黃芩、連翹、
青箱子.

○治嗽之最要. 《本草》

○《本經》云生我國, 今無. 《寶鑑》

순전한 양(陽)의 기운을 지녀 수태음경에 들어간다.

○행인을 사약(使藥)으로 삼는다. 자완과 함께 쓰면 좋다. 조각、초석、현삼과
상오약이다. 패모、마황、황기、황금、연교、청상자와 상외약이다.

◦기침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약재이다.《본초강목》

◦《본경》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없다.《동의보감》

決明子 초결명

결명자 초결명

- 決明子甘, 能除肝熱,
目痛收淚, 仍止鼻血.
- 결명자는 성미가 달며 간열(肝熱)을 잘 없앤다.
눈의 통증을 낮게 하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거두고 코피를 멎게 한다.

초결명. ◦微寒.

◦微炒研.

◦作枕, 治頭風明目. 《本草》

초결명. ◦약간 차다.

◦약간 볶아서 간다.

◦베개를 만들어 쓰면 두풍(頭風)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한다.《본초강목》

地膚子 디뿌리씨

지부자 땀싸리씨

- 地膚子寒, 去膀胱熱,
皮膚瘙癢, 除熱甚捷.
- 지부자는 성미가 차며 방광열을 내린다.

피부의 가려움증을 치료하고 열을 매우 빠르게 내린다.

디박리씨.

덥싸리씨.

瞿麥 석독화, 石竹花

구맥 석죽화

- 瞿麥辛寒, 專除淋病,
且能墮胎, 通經立應.²¹
- 구맥은 성미가 맵고 차며 임병을 전문으로 제거한다.
또 유산시키며 월경을 즉시 통하게 한다.

석독화. ○一名石竹花.

○牧丹爲使, 惡海螵蛸、丹砂. 《本草》

석죽화. ○석죽화라고도 한다.

○목단을 사약(使藥)으로 삼는다. 해표초·단사와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王不留行 당고시

왕불류행 장고초

- 王不留行, 調經催產,
除風痺瘕, 乳癰當啖.
- 왕불류행은 월경을 고르게 하고 출산을 촉진한다.

풍증으로 인한 마비나 경련을 제거하고 유옹(乳癰)에 씹어 삼키도록 한다.

당고시. ◦苦平.

◦漿水浸焙.

◦能走血分, 乃陽明衝任之藥也.

◦下乳引導用之, 取其利血脉也. 《本草》

◦治淋最效. 《資生》

장고초. ◦성질이 쓰고 평하다.

◦장수(漿水)에 담갔다가 곁불에 말린다.

◦혈분(血分)으로 내달리니 양명경과 충맥·임맥의 약이다.

◦젖이 잘 나오게 할 때 쓰니 혈맥을 잘 통하게 하기 때문이다. 《본초강목》

◦임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효능이 좋다. 《자생경》

葶藶子 두르미나이씨

정력자 두루미냉이 씨

- 葶藶苦辛, 利水消腫,

痰²²癥瘕, 治喘肺癰.

- 정력자는 쓰고 매우며 수기를 잘 통하게 하여 부종을 없앤다.

가래, 기침, 징가에 쓰며 호흡이 가쁜 증상, 폐옹(肺癰)을 치료한다.

두르미나이씨. ◦大寒小毒. 得酒良. 炒用.

◦宜大棗, 惡蠶蠶.

◦涉虛者²³ 宜遠之, 且殺人甚捷. 《本草》

두루미냉이 씨. ○크게 차고 독성이 조금 있다. 술과 함께 먹으면 좋다. 볶아서 쓴다.

○대추와 함께 쓰면 좋다. 백강잠과 상오약이다.

○조금이라도 허한 사람은 정력자를 멀리해야 하니 또한 사람이 매우 갑자기 죽을 수 있다. 《본초강목》

罌粟殼 양귀비껍질, 御米殼

앵속각 양귀비껍질, 어미각

- 粟殼性澁, 泄痢嗽怯,
刮病如神, 殺人如劍.

- 앵속각은 성질이 삼하고 설사와 이질, 기침을 예방한다.

병을 물리치는 귀신같은 약이면서 또한 사람을 죽이는 칼같은 약이기도 하다.

양귀비껍질. ○一名御米殼.

○去蒂筋膜, 取外薄皮, 醋炒亦蜜灸.

○得醋、烏梅、橘皮良.

○{ 米 } 씨. 性寒, 多食利二便, 動膀胱氣.

○{ 阿芙蓉 } 진. 一名阿片, 前代無聞, 近有用者, 是罌粟花之津液, 結實青苞時, 午后以鍼刺外面青皮, 勿損裏硬皮, 三五處, 次早津出, 竹刀刮收, 陰乾, 俗用房術. 《本草》

○阿片毒雖七日亦生, 礪砂或砂糖冷水調服, 忌太陽. 《驗方》

양귀비 껍질. ◦어미각(御米殼)이라고도 한다.

◦꼭지와 근막을 버리고 얇은 겉껍질을 쓴다. 식초에 축여 볶거나 꿀에 축여 볶아서 쓴다.

◦식초, 오매, 굴피와 함께 쓰면 좋다.

◦{ 속씨 } 씨. 성질이 차다. 많이 먹으면 대소변이 잘 통하고 방광의 기를 동하게 한다.

◦{ 아부용 } 진. 아편(阿片)이라고도 한다. 지난 시대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나 근래에는 쓴다. 이것은 앵속화의 진액이다. 열매가 퍼렇게 맺혔을 때 오후에 침으로 겉면의 푸른 껍질을 찌르되 속의 단단한 껍질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 5군데 찌른 다음 바로 나오는 진액을 대나무 칼로 긁어모아 그늘에서 말린다. 민간에서는 성생활에 쓴다. 《본초강목》

◦아편 중독은 비록 7일이 지났어도 살릴 수 있다. 봉사나 사당을 냉수에 타서 먹이고 햇빛을 쬌지 않도록 한다. 《경험방》

車前子 길경이씨, 茺苢

차전자 길경이 씨, 부이

- 車前氣寒, 溺澀眼赤,
小便能通, 大便能實
- 차전자는 성질이 차며 소변 뇨삽과 눈이 충혈된 것을 치료한다.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대변을 견실하게 한다.

길경이씨. ◦一名茺苢.

◦炒過用.

◦{ 根葉 } 主吐、衄、尿血、血淋, 取汁服. 《本草》

길경이 씨. ◦부이(茺苢)라고도 한다.

◦충분히 볶아서 쓴다.

◦{ 뿌리, 잎 } 토혈, 뇨혈, 요혈(尿血), 혈림(血淋)을 주로 치료한다. 즙을 내어 복용한다. 《본초강목》

連翹 이어리나모여름

연교 이어리나무열매

- 連翹苦寒, 能消癰毒,
氣聚血凝, 濕熱堪逐.
- 연교는 성미가 쓰고 차며 응종의 독을 제거한다.
기가 멎치고 혈이 응고된 것을 치료하며 습증, 열증을 몰아낸다.

이어리나모여름. ◦入手足少陽、手陽明、手少陰.

◦瀉心熱, 去上焦熱, 爲瘡家聖藥. 《本草》

이어리나무 열매. ◦수소양경, 족소양경, 수양명경, 수소음경을 치료한다.

◦심열(心熱)을 사하고 상초열을 없애준다. 헌데를 치료하는 성약(聖藥)이다.

《본초강목》

靑黛

청대

- 靑黛酸寒, 能平肝木,
驚癇疳痢, 兼除熱毒.
- 청대는 성미가 시고 차며 간목(肝木)을 평하게 한다.
경간, 감질로 인한 이질을 치료하며 겸하여 열독(熱毒)을 제거한다.

解諸藥毒, 殺蟲. 化爲水, 付熱瘡毒腫.

○【藍實】 〽 씨. 解毒殺蟲. 《本草》

여러 약의 독을 해독하고 충(蟲)을 죽인다. 청대를 물처럼 녹여서 열창(熱瘡)
、중독(毒腫)에 바른다.

○【남실】 쪽씨. 해독하며 충(蟲)을 죽인다. 《본초강목》

〔増〕虎杖根 감뎃불휘

〔증보〕호장근 감제풀뿌리

- 〔増〕虎杖溫平, 能治煩渴,
諸淋可利, 通經破血.²⁴
- 〔증보〕호장근은 성질이 따뜻하고 평하며 번갈을 치료한다.
여러 임증을 치료하여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월경이 잘 나오게 하며 어혈을 깨
뜨린다.

감뎃불휘.

감제풀뿌리.

篇蓄 옥미답

편축 온매듭

- 篇蓄味苦, 疥癬疽痔,
小兒蛔蟲, 女人陰蝕.
- 편축은 성미가 쓰며 개선, 가려움, 옹저, 치질을 낮게 한다.
소아의 회충과 여성의 음식창(陰蝕瘡)을 치료한다.

옥미답.

온매듭.

蒺藜 남가시

질려 남가새

- 蒺藜味苦, 療瘡癰癢,
白癬頭瘡, 翳除目朗.
- 질려는 성미가 쓰며 창(瘡)과 가려움증을 치료한다.
백반증, 두창, 예막을 치료하며 눈을 밝게 한다.

남가시. ◦性溫. 炒, 去刺, 研.

남가새. ◦성질이 따뜻하다. 볶아서 가시를 제거하고 갈아서 쓴다.

穀精草 고위긋몸

곡정초 고위긋몸꽃

- 穀精草辛, 牙齒風痛,
口瘡咽痺, 眼翳通用.
- 곡정초는 성미가 매우며 치아의 풍통을 낮게 한다.
구창(口瘡), 인후마비, 눈의 예막을 두루 치료한다.

고위긋몸.

고위긋몸꽃.

[增]海金沙

[증보]해금사

- [增]【海金沙】寒, 通利小腸,
濕熱腫滿, 諸淋亦當.
- [증보]【해금사】는 성질이 차며 소장을 잘 통하게 한다.
습증、열증으로 그득해진 증상을 치료하고 여러 임증에도 적당하다.

小腸膀胱血分藥. 《本草》

소장과 방광의 혈분약이다. 《본초강목》

蒲公英 안즌방이, 므음둘네

포공영 앓은뱅이, 민들레

- 蒲公英苦, 潰堅消腫²⁵,
結核能除, 食毒堪用.
- 포공영은 성미가 쓰며 단단하게 뭉친 것을 터뜨리고 종기를 없앤다.
멍울을 잘 없애고 식독을 제거하는 데 쓸 수 있다.

안즌방이, 又名, 므음둘네.

앓은뱅이, 또는 민들레라고 한다.

1. 童便熱膏 : 青蒿細剉, 水三升, 童子小便五升, 同煎取一升半. 去滓入器中煎成膏 ※《본초강목》↩

2. 填精 : 填精髓 ※《본초강목》↩

3. 稟純陽之氣, 得陰氣則枯, : 此草夏至後即枯. 蓋稟純陽之氣, 得陰氣則枯, 故有是名. ※《본초강목》↩

4. : 治肝臟熱毒衝眼, 赤障青盲翳腫 ※《본초강목》↩

5. 《전가보》: 청대 성석금(石成金)이 편찬한 민간백과전서. ↩

6. : 紅花汁與之同類, 故能行男子血脈, 通女子經水. 多則行血, 少則養血.
※《본초강목》↩

7. 消腫破血, : 大薊生山谷, 根療癰腫, 小薊生平澤, 不能消腫, 而俱能破血.

※《본초강목》↩

8. : 皮膚熱毒, 惡瘡疽痔 ※《본초강목》↩

9. : 治腎虛冷, 腹脅脹滿.....治膀胱氣甚效.〔嘉祐〕治冷氣疝瘕. ※《본초강목》

↩

10. : 鼠粘子其用有四, 治風濕癰疹, 咽喉風熱, 散諸腫瘡瘍之毒, 利凝滯腰膝之氣, 是也. ※《본초강목》↩

11. 天行熱渴, : 治天行熱狂, 煩悶消渴 ※《본초강목》↩

12. 芡. : 芡.〔音戶〕※《본초강목》↩

13. : 芡. : 芡.〔音戶〕※《본초강목》↩

14. : 心膽血虛, 肺損吐血. : 助心膽氣.....心肺損, 吐血鼻衄, 婦人崩中血運.

※《본초강목》↩

15. : 其法, 以一百斤內, 六十斤, 木臼取汁投酒, 拌前生地黃, 晒乾或火焙. : 其法取地黃一百斤, 擇肥者六十斤洗淨, 晒令微皺. 以揀下者洗淨, 木臼中搗絞汁盡, 投酒更搗, 取汁拌前地黃, 日中晒乾, 或火焙乾用. ※《본초강목》↩

16. 滋腎補血 : 補血氣, 滋腎水, ※《본초강목》↩

17. : 除濕痺痿, : 寒濕痿痺 ※《본초강목》

下胎. : 墮胎 ※《본초강목》↩

18. : 赤治赤者, 白治白同. : 赤治赤帶, 白治白帶 ※《의학입문》↩
19. : 熱煩利水, 治疸益兒. : 熱煩滿, 定志益氣, 利水道, 產難吞之立產. 別錄 食之, 除熱, 治黃病, 尤益小兒. ※《본초강목》↩
20. 劣 勞 ※《萬病回春》↩
21. : 通經立應. : 月經不通 ※《본초강목》↩
22. 痰欬 : 痰飲咳嗽 ※《본초강목》↩
23. 涉虛者 : 病人稍涉虛者 ※《본초강목》↩
24. : 通經破血. : 治女人月經不通 : 《본초강목》↩
25. 消腫 : 消腫核 ※《본초강목》↩

毒草 元十六, 衆一, 贈三

독초 원방 16종, 중 1종, 증보 3종

大黃 장군풀

대황 장군풀

- 大黃苦寒, 破血消瘀,
快膈通腸, 破除積聚.
- 대황은 성미가 쓰고 차며 어혈을 깨뜨린다.
흥격을 시원하게 하며 장(腸)을 잘 통하게 하고 적취를 제거한다.

장군풀. ◦入手足陽明, 酒浸入太陽, 酒洗入陽明, 下行生用.

◦黃芩爲使, 忌冷水, 惡乾漆. 《本草》

◦酌人虛實, 假虛誤用, 與鳩相類. 《景岳》

장군풀. ◦수양명경, 족양명경에 들어간다. 술에 담갔다가 쓰면 태양경에 들어가고 술로 씻어서 쓰면 양명경에 들어간다. 약 기운을 아래로 보내려면 생것으로 쓴다.

◦황금을 사약(使藥)으로 삼는다. 냉수와 함께 먹는 것을 금하며 건칠과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사람의 허실을 짐작해서 써야하니 가령 허증에 잘못 쓰면 짐새의 독을 마신 것과 같다. 《경약전서》

商陸 자리공불휘

상륙 자리공뿌리

- 商陸辛甘, 赤白各異,
赤者消腫, 白利水氣.
- 상륙은 성미가 맵고 달며 붉은 것과 흰 것이 각각 다르다.
붉은 상륙은 부종을 없애주고 흰 상륙은 수기(水氣)를 잘 통하게 한다.

자리공불휘. ○大毒.

○菉豆蒸, 或黑豆葉蒸, 半日.

○忌犬肉及鐵, 得蒜良.¹ 《本草》

○以水服殺人, 能行水而忌水服, 物性相惡而然也. 故方家多以爲外付, 藥亦不可輕用也. 《金匱》

자리공 뿌리. ○독성이 크다.

○녹두와 함께 찌거나 검정콩 잎과 함께 한나절동안 찐다.

○개고기와 철기를 금한다. 마늘과 함께 쓰면 좋다. 《본초강목》

○물로 복용하면 죽을 수 있다. 상륙이 수(水)를 잘 운행시키나 물과 함께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은 상륙과 물이 서로 상오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외용으로 붙이는데 많이 썼으니 약은 역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금궤육함경》

狼毒 오독또기

낭독 오독도기

- 狼毒味辛, 破積癥瘕,
惡瘡風癢, 殺毒鬼精².

- 낭독은 성미가 매우며 적(積)과 징가를 깨뜨린다.

악창과 풍으로 사지가 무력한 증상을 치료하고 고독과 귀신을 죽인다.

오독볶기. ◦醋炒.

◦殺鳥獸及鼠.

◦陳者良. 《本草》

오독도기. ◦식초에 축여서 볶는다.

◦새, 짐승, 쥐를 죽인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본초강목》

大戟 버들웃

대극 버들웃

- 大戟甘寒, 消水利便,
腫脹癥堅, 其功瞑眩³.

- 대극은 성미가 달고 차며 수병(水病)을 없애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종창과 징가가 단단하게 뭉친 것을 깨뜨리니 그 효능이 명확하다.

버들웃. ◦大毒.

◦漿水煮, 晒乾.

◦畏菖蒲, 忌山藥.

◦【澤漆】大戟苗, 有小毒, 治水腫, 利大小腸. 《本草》

버들옻. ◦독성이 많다.

◦장수(漿水)에 삶아서 벌에 찌어 말린다.

◦창포와 상외약이다. 산약을 금한다.

◦【택칠】은 대극의 싹이다. 독성이 조금 있다. 수종(水腫)을 치료하며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한다. 《본초강목》

甘遂

감수

- 【甘遂】苦寒, 破癥消痰, 面浮蠱脹, 利水能安.
- 【감수】는 성미가 쓰고 차며 징가를 깨뜨리고 담(痰)을 제거한다. 얼굴 부종, 고창(蠱脹)을 치료하며 수기를 잘 통하게 하여 안정시킨다.

甘草薺芫湯浸三日, 水淘去黑汁取淸, 熬脆或麴裹, 去其毒.

◦惡遠志, 反甘草. 《本草》⁴

감초나 제니를 달인 물에 감수를 3일간 담갔다가 검게 된 물을 제거하고 맑아질 때까지 물에 일어 낸다. 바짝 볶거나 밀가루 반죽에 싸서 독을 제거하고 쓴다.

◦원지와 상오약이고 감초와 상반약이다. 《본초강목》

續隨子 千金子

속수자 천금자

- 【續隨子】辛, 惡瘡蟲毒,

通經⁵消積, 不可過服.

- 【속수자】는 성미가 매우며 악창과 고독을 치료한다.

월경을 통하게 하고 적(積)을 없애나 지나치게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一名千金子.

○去殼, 以紙包壓去油.

○下水最速, 然有毒損人, 不可過多. 《本草》

천금자(千金子)라고도 한다.

○껍질을 제거하고 종이에 싸서 눌러서 기름을 제거한다.

○물을 내리는 데 가장 효과가 빠르나 독성이 있어서 사람에게 손상을 주므로

과다하게 쓰면 안 된다. 《본초강목》

〔增〕蓂蓉子 초우윙씨, 天仙子

〔증보〕낭탕자 초우엥씨, 천선자

- 〔增〕蓂蓉子寒, 熏齒出蟲,

通神見鬼⁶, 除邪逐風.

- 〔증보〕낭탕자는 성미가 차며 치아에 훈증하면 벌레가 나온다.

신명을 통하게 하여 귀신을 보게 된다. 사기를 제거하며 풍증을 몰아낸다.

초우윙씨. ○一名天仙子.

○有毒, 醋煮用.

○多食狂走. 《本草》

초우영씨. ◦천선자(天仙子)라고도 한다.

◦독성이 있으며 식초에 삶아서 쓴다.

◦많이 먹으면 미쳐서 날뛴다. 《본초강목》

蓖麻子

비마자

- 蓖麻子辛, 吸出⁷ 滯物,
塗頂肚收, 塗足胎出.
- 비마자는 성미가 매우며 태운 연기를 흡입하면 체한 것이 나온다.
정수리에 붙이면 위를 수렴하고 발에 붙이면 태를 나오게 한다.

비마즈. ◦小毒.

◦鹽水煮, 取仁.

◦伏丹砂粉霜.

◦服蓖麻者, 一生不得食炒豆, 脹死.

◦油, 主風症失音.

◦葉, 主脚氣風腫, 蒸⁸ 熨. 《本草》

비마자. ◦독성이 조금 있다.

◦소금물에 달여서 씨를 취한다.

◦단사·분상(粉霜)의 약성을 억누른다.

◦비마자를 먹은 사람은 평생 볶은 콩을 먹지 말아야 하니 창만이 되어 죽기 때 문이다.

○비마자유는 주로 풍증과 실음(失音)을 치료한다.

○비마 잎은 각기와 풍사로 부은 것을 주로 치료한다. 잎을 찌서 환부를 싸매준다. 《본초강목》

常山 조팝나무불회

상산 조팝나무뿌리

- 常山苦寒, 截瘧吐痰,
解傷寒熱, 水脹能寬.
- 상산은 성미가 쓰고 차며 학질을 없애고 담을 토하게 한다.
상한으로 인한 열을 풀어주고 수창(水脹)을 낮게 한다.

조팝나무불회. ○小毒, 微寒.

○酒蒸, 醋制.

○忌蔥蒜, 伏砒⁹.

○蜀漆, 苗也, 治同, 得甘草則吐, 得大黃則利. 《本草》

조팝나무 뿌리. ○독성이 조금 있다. 약간 차다.

○술에 찌서 쓰거나 식초로 법제한다.

○파·마늘을 금한다. 비석의 약성을 억누른다.

○촉칠(蜀漆)은 상산의 싹으로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 감초와 함께 쓰면 토하게 하고, 대황과 함께 쓰면 설사시킨다. 《본초강목》

藜蘆 박시

여로 박새

- 藜蘆味辛, 最能發吐,

腸澼瀉痢, 殺蟲消蟲.¹⁰

- 여로는 성미가 매우며 가장 잘 토하게 한다.

장벽(腸澼), 설사와 이질을 치료하고 벌레를 죽이고 고독(蠱毒)을 제거한다.

박시. ◦大毒, 糯米泔水煮, 微炒.

◦反細辛、芍藥、人參、沙參、丹參、苦參及酒, 惡大黃, 畏蔥白. 《本草》

박새. ◦독성이 크다. 찹쌀뜨물에 삶아서 약간 볶아서 쓴다.

◦세신、작약、인삼、사삼、단삼、고삼、술과 상반약이다. 대황과 상오약이

고 충백과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附子

부자

- 【附子】辛熱, 性走不守,

四肢厥逆, 回陽功有.

- 【부자】는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멈추지 않고 돌아다니는 성질이 있다.

사지궤역에 양(陽)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다.

大毒.

○烏頭、烏喙¹¹、天雄、附子、側子, 皆一物也.

○手少陰命門三焦藥也.

○用生, 引諸藥行經, 麵裹煨, 去皮, 臍切, 童便浸透, 炒乾.

○無乾薑不熱, 得生薑發散, 以熱攻熱, 又導虛熱下行.

○惡蜈蚣, 畏防風、黑豆、甘草、人參、黃芪、犀角、童便、烏薤, 忌豉汁. 棗肉、

飴糖、井華水, 亦解毒.¹² 《本草》

○童便浸五日, 切片, 去皮臍, 冷水又浸三日, 黑豆、甘草同煎, 待熟, 晒乾或焙乾. 俗

方

○人參、熟地, 治世之良相, 附子、大黃亂世之良將. 《景岳》

독성이 크다.

○오두、오웁(烏喙)、천웅、부자、측자는 모두 같은 식물이다.

○수소음경、명문、삼초의 약이다.

○생으로 쓸 때는 인경약으로서 약 기운이 경맥에 들어가게 한다. 밀가루 반죽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구워서 껍질을 벗기고 꼭지는 잘라낸 후 동변에 스며들도록 담갔다가 볶아서 말린다.

○건강과 함께 쓰지 않으면 뜨거워지지 않는다. 생강과 함께 쓰면 발산시키니 열로써 열을 다스리는 것이다. 또한 허열(虛熱)을 이끌어 아래로 운행시킨다.

○오공과 상오약이고 방풍、흑두、감초、인삼、황기、서각、동변、오구와 상오약이다. 두시 즙을 금한다. 대추살、이당、정화수는 부자독을 해독시킨다. 《본초강목》

○동변에 5일간 담갔다가 편으로 썰어서 껍질과 꼭지를 떼어내고 냉수에 다시

3일간 담갔다가 흑두·감초와 함께 달여 익으면 햇볕이나 결불에 말린다. 속

방

○인삼·숙지황은 치세(治世)의 좋은 재상과 같고 부자·대황은 난세(亂世)의 좋은 장수와 같다. 《경악전서》

川烏 烏頭

천오 오두

- 【川烏】大熱, 搜風入骨, 濕痺寒疼, 破積之用.¹³
- 【천오】는 성미가 매우 뜨거우며 뼈에 든 풍사를 찾아낸다. 습비(濕痺), 한사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고 적취를 깨뜨리는 효능이 있다.

卽烏頭.

○制法同上, 入鹽尤捷. 《本草》

곧, 오두이다.

○법제하는 방법은 위의 부자(附子)와 같다. 소금을 넣으면 더욱 효과가 빠르다. 《본초강목》

〔増〕草烏 바곳

〔증보〕초오 바꽃

- 〔増〕草烏熱毒, 汁名射罔, 風寒濕痺, 腫毒亦當.

- (증보)초오는 성미가 뜨겁고 독성이 있다. 바꽃의 즙을 사망(射罔)이라고 한다.
풍비, 한비, 습비를 치료하며 종독(腫毒) 치료에도 적당하다.

바꽃. ◦童便浸炒, 竹刀切或黑豆同煮. 《寶鑑》

바꽃. ◦동변에 담갔다가 볶아서 대나무 칼로 썰어서 쓰거나 흑두와 함께 삶아서 쓴다. 《동의보감》.

白附子 흰바꽃

백부자 흰 바꽃

- 白附辛溫, 治面百病,
血痺風瘡, 中風諸證.¹⁴
- 백부자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얼굴에 생기는 온갖 병을 치료한다.
혈비(血痺), 풍창(風瘡), 중풍증을 낫게 한다.

흰바꽃. ◦入陽明.

◦炮用.

◦引藥上行. 《本草》

흰 바꽃. ◦양명경에 들어간다.

◦습지에 싸서 구워서 쓴다.

◦약 기운을 이끌어서 상부로 올라가게 한다. 《본초강목》

南星 두여머조자기, 虎掌

남성 두여머조자기, 호장

- 南星性熱, 能治風痰,
破傷身強, 風搐皆安.
- 남성은 성미가 뜨거우며 풍담을 치료한다.
파상풍으로 몸이 강직되었거나 풍사로 오그라드는 증상을 모두 안정시킨다.

두여머조자기. ○一名虎掌.

○有毒.

○入手足太陰.

○炮用.

○脾虛多痰, 以生薑滓和黃泥包煨.

○薑汁白礬湯, 和南星末, 作餅, 包楮葉, 待上黃衣, 晒收,¹⁵ 名 { 南星麴 }, 南星末, 納于臘牛膽, 懸風處乾之, 名 { 牛膽南星 }. 《本草》

두여머조자기. ○호장(虎掌)이라고도 한다.

○독성이 있다.

○수태음경, 족태음경에 들어간다.

○습지에 싸서 구워서 쓴다.

○비(脾)가 허하여 담이 많으면 생강 찌꺼기를 섞은 황토에 남성을 싸서 잿불에 묻어 구워서 쓴다.

○생강즙이나 백반 달인 물에 남성 가루를 섞어서 떡을 만든 다음 닥나무 잎에

싸두었다가 윗부분에 누런 곰팡이가 끼면 꺼내어 햇볕에 쬘어 말려서 거둔다.
이것을 { 남성국(南星麴) } 이라고 한다. 남성을 가루 내어 납일(臘日)에 잡은
우담에 넣고 바람이 부는 곳에 매달아서 말린 것을 { 우담남성 } 이라고 한다.

《본초강목》

半夏 식물웃

반하 끼무릇

- 半夏味辛, 健脾燥濕,
痰厥頭疼, 嗽嘔堪入.
- 반하는 성미가 매우며 비(脾)를 튼튼하게 하고 습을 말려준다.
담궤두통, 기침, 구역 치료에 넣을 만하다.

식물웃. 入手太陽陽明太陰少陰.

○薑制者, 制其毒.

○陳者良.

○惡皐角, 畏雄黃、生薑、乾薑、秦皮、龜甲, 反烏頭, 忌羊血、海藻、飴糖.

○薑汁礬湯, 或加皐角汁, 或加竹瀝, 或加入白芥子, 隨症作麴, 名【半夏麴】. 《本草》¹⁶

끼무릇. 〇수태양경、수양명경、수태음경、수소음경에 들어간다.

〇생강으로 법제하면 반하독이 억제된다.

〇오래 묵은 것이 좋다.

〇조각은 상오약이고 웅황、생강、건강、진피、구갑은 상외약이며 모두는 상

반약이다. 양의 피, 해조(海藻)、이당을 금한다.

○생강즙과 백반을 달인 물에 조각즙이나 죽력이나 백개자 가루를 증상에 따라 더하여서 누룩을 만들어 쓴다.【반하국(半夏麴)이라고 한다.】.《본초강목》

射干 범부채

사간 범부채

- 射干味苦, 逐瘀通經¹⁷,
喉痺口臭, 癰毒堪憑.
- 사간은 성미가 쓰며 어혈을 몰아내고 월경을 통하게 한다.
후비(喉痺)와 입 냄새를 없애고 응독 치료에 의지할 만하다.

범부채. ○寒毒.

범부채. ○성질이 차고 독성이 있다.

〔増〕鳳仙子 봉선화씨, 急性子

〔증보〕봉선자 봉선화씨, 급성자

- 〔増〕鳳仙子溫, 透骨軟堅,¹⁸
難產骨哽, 噎食可痊.
- 〔증보〕봉선자는 성미가 따뜻하며 약성이 뼈에 스며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한다.
난산을 치료하며 뼈나 가시가 목에 걸리거나 목이 막혀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낫게 한다.

봉선화씨. ○一名急性子.

○有小毒.

○魚肉烹, 入數粒卽爛.

○服者不可着齒.

○{ 根、葉 } 治骨哽, 通經, 付杖腫.¹⁹ 《本草》

봉선화씨. ○급성자(急性子)라고도 한다.

○독성이 조금 있다.

○생선이나 고기를 삶을 때 몇 알을 넣으면 곧 물러진다.

○먹는 사람의 치아에 닿지 않아야 한다.

○{ 뿌리、잎 } 뼈가 목에 걸린 것을 치료한다. 경혈을 통하게 하니 맞아서 부은 곳에 붙여준다. 《본초강목》

芫花

원화

- 【芫花】寒苦, 能消脹蠱²⁰,

利水瀉濕, 止咳痰吐.

- 【원화】는 성미가 쓰고 차며 수고(水蠱)로 배가 창만해지는 증상을 없애준다.

수기를 잘 통하게 하여 습증을 사해주며 기침을 멎게 하고 담을 토하게 한다.

溫毒.

○醋煮.

○反甘草. 《本草》

따뜻하고 독성이 있다.

◦식초에 삶아서 쓴다.

◦감초와 상반약이다. 《본초강목》

[衆]烟草 담배

[제중방]연초 담배

- [衆]烟草辛熱, 逐瘴治痰,
寒毒風濕, 殺蟲尤堪.²¹
- [제중방]연초는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산람장기를 몰아내고 담을 치료한다.
한사(寒邪)의 독과 풍습증을 없애고 벌레를 죽이는데 더욱 쓸 수 있다.

담배. 純陽, 善行善散, 用於陰滯神效. 若陽盛氣越, 而多燥多火, 及氣虛多汗者, 不宜. 或多吸醉倒, 冷水一口解之即醒, 若煩悶者, 用白糖解之. 《濟衆》

담배. 순정한 양(陽)의 기운을 지녀 잘 운행시키고 잘 발산시키니 음이 정체된 경우에 쓰면 신표하다. 양이 왕성하고 기가 넘쳐 많이 번조하고 화(火)가 많은 경우나 기가 허하고 땀이 많은 경우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취하여 쓰러질 수 있다. 이때는 냉수 한 모금을 먹이면 해독되어 곧 깨어난다. 담배를 피워서 가슴이 번조하고 답답한 경우에는 백당(白糖)을 먹이면 해독된다. 《제중》

1. 得蒜良. : 得大蒜良 ※《본초강목》←

2. 毒鬼精：鬼精蠱毒 ※《본초강목》↩

3. : 蠱毒, 十二水, 腹滿急痛積聚, 中風皮膚疼痛, 吐逆. 本經 頸腋癰腫, 頭痛, 發汗, 利大小便. 瀉毒藥, 泄天行黃病溫瘡, 破癥結 ※《본초강목》↩

4. : 用生甘草湯、薺芎自然汁二味, 攪浸三日 ※《본초강목》

其水如墨汁, 乃漉出, 用東流水淘六、七次, 令水清爲度. ※《본초강목》↩

5. 通經：婦人血結月閉 ※《본초강목》↩

6. 通神見鬼：久服輕身, 使人健行, 走及奔馬, 強志益力, 通神見鬼. ※《본초강목》↩

7. 吸出：燒煙熏吸卽通 ※《본초강목》

胎出：若胎及衣下 ※《본초강목》↩

8. 蒸裹：蒸搗裹之 ※《본초강목》↩

9. 伏砒：伏砒石 ※《본초강목》↩

10. : 腸澼瀉痢, 殺蟲消蠱. : 蠱毒咳逆, 泄痢腸澼, 頭瘍疥癰惡瘡, 殺諸蟲毒 ※《본초강목》↩

11. 烏啄 烏喙 ※《본초강목》, 《동의보감》↩

12. 棗肉、飴糖、井華水, 亦解毒. : 草烏、川烏、天雄、附子毒 ... 又棗肉、飴糖服之并解. 又乾薑煮汁冷飲之. 又多飲井水, 大吐瀉卽愈. ※《동의보감》↩

13. : 此類止能搜風勝濕. ※《본초강목》↩

14. : 心痛血痺, 面上百病.....中風失音, 一切冷風氣.....疥癬風瘡 ※《본초강목》

↩

15. 包楮葉, 待上黃衣, 晒收, : 楮葉包蓋, 待上黃衣, 乃取晒收 ※《본초강목》↩

16. : 薑汁礬湯, 或加皐角汁, 或加竹瀝, 或加入白芥子 : 治濕痰以薑汁、白礬湯和之, 治風痰以薑汁及皂莢煮汁和之, 治火痰以薑汁、竹瀝或荊瀝和之, 治寒痰以薑汁、礬湯, 入白芥子末和之, 此皆造麴妙法也. ※《본초강목》↩

17. 通經 : 通女人月閉 ※《본초강목》↩

18. 透骨軟堅, : 故能透骨軟堅 ※《본초강목》↩

19. 通經, 付杖腫. : 杖撲腫痛, 散血通經. ※《본초강목》↩

20. 脹蠱 : 水蠱脹滿 ※《본초강목》↩

21. : 寒毒風濕 : 一切陰邪寒毒, 山嵐瘴氣風濕 ※《본초강목습유》↩

蔓草 元二十七衆二増二

덩굴 원방 27종, 중 2종, 증보 2종

【葦澄茄】

【필징가】

- 【葦澄茄】辛, 除脹化食,
消痰止噦, 能逐鬼氣.
- 【필징가】는 성미가 매우며 창만을 제거하고 음식을 소화시킨다.
담을 삭이고 딸꾹질을 멎게 하며 귀기(鬼氣)를 쫓아낼 수 있다.

向陰者, 葦澄茄, 向陽者, 胡椒. 係嫩胡椒, 青時摘取者是也. 《本草》

음지를 향하여 자라는 것이 필징가(葦澄茄)이고, 양지를 향하여 자라는 것이
호초(胡椒)이다. 매달려 있는 어린 호초를 푸른빛일 때 채취한 것이 필징가이
다. 《본초강목》

胡椒

호초

- 【胡椒】味辛, 心腹冷痛,
下氣溫中, 跌撲堪用.
- 【호초】는 성미가 매우며 명치가 냉하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응체된 기를 내려주고 속을 따뜻하게 하며 타박상에 쓸 수 있다.

多食損肺吐血, 殺魚肉鱉菌毒. 《本草》

많이 먹으면 폐가 손상되어 피를 토하게 된다. 생선, 고기, 자라, 버섯의 독을 없앤다. 《본초강목》

薯蕷 마, 山藥

서여 마, 산약

- 薯蕷甘溫, 理脾止瀉,
益腎補中, 諸虛何怕.
- 서여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비(脾)를 다스리고 설사를 멎게 한다.
신(腎)을 돕고 속을 보하니 여러 허증도 두려울 것이 없다.

마卽山藥, 入手足太陰. 《本草》

마는 곧 산약(山藥)이다. 수태음경, 족태음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兔絲子 시삼씨

토사자 새삼씨

- 兔絲甘平, 夢遺滑精,
腰疼膝冷, 添精强筋.
- 토사자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몽설과 정이 새는 증상을 치료한다.
허리 통증과 무릎이 싸늘한 증상을 치료하고 정을 채우며 근(筋)을 강하게 한

다.

시삼씨. ◦酒浸四五日, 蒸晒研作餅, 入紙條數枚同搗¹, 卽刻成粉. 《本草》

◦古人不入煎藥, 亦一失也. 欲止消渴, 煎湯, 任意服之. 《景岳》

새삼 씨. ◦술에 4 - 5일 담가두었다가 찌서 햇볕에 말려 갈아서 떡처럼 만든다.

볕에 말릴 때 종잇조각 몇 개를 넣고 함께 찌르면 곧바로 고운 가루가 된다.

《본초강목》

◦옛 사람들은 토사자를 전약(煎藥)에 넣지 않았으나 또 하나의 실수이다. 소갈을 멎게 하려면 토사자를 달인 탕을 임의대로 먹게 한다. 《경약전서》

沙參 더덕

사삼 더덕

- 沙參味苦, 消腫²排膿,
補肝益肺, 退熱除風.
- 사삼은 성미가 쓰며 종독을 없애고 고름을 배출한다.
간과 폐를 보익하고 열증을 물리치고 풍증을 제거한다.

더덕. ◦微寒.

◦治疰久嗽. 《本草》

◦易老云, 人參補陽, 沙參補陰, 若對人參, 則相去遠矣. 《景岳》

더덕. ◦약간 차다.

◦산증(痙症)과 오랜 기침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역로가 "인삼으로 양(陽)을 보하고 사삼으로 음(陰)을 보한다."고 하였다. 그

러나 인삼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경악전서》

扁豆 번두콩

편두 번두콩

- 扁豆微凉, 轉筋吐瀉,
下氣和中, 酒毒能化.
- 편두는 성미가 약간 서늘하며 전근과 구토, 설사를 치료한다.
기를 내려주고 속을 고르게 하며 주독을 잘 풀어준다.

번두콩. ◦ { 花 } 主帶下泄痢. { 藤、葉 } 主霍亂. 《本草》

번두콩. ◦ { 꽃 } 주로 대하와 설사, 이질을 치료한다. { 덩굴, 잎 } 주로 괄란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五味子 오미주

오미자

- 五味酸溫, 生精止渴,³
久嗽虛勞, 金水枯竭.
- 오미자는 성미가 시고 따뜻하며 정(精)을 생성하고 갈증을 멎게 한다.
오랜 기침과 허로, 폐금(肺金)과 신수(腎水)가 고갈된 것을 보한다.

오미주. ◦入手太陰血分、足太陰氣分.

◦蜜蒸⁴, 入嗽藥生用.

◦惡烏頭.

◦味酸, 斂肺, 不宜多食, 恐成虛熱. 夏月常服以益肺金之氣, 在上滋源, 在下補腎.

◦皮酸, 肉甘, 核辛苦, 都有醎, 此五味具. 《本草》

오미자. ◦수태음경의 혈분과 족태음경의 기분에 들어간다.

◦꿀에 찐다. 기침을 치료하는 약에는 생것을 쓴다.

◦오두와 상오약이다.

◦성미가 시고, 폐기를 수렴하므로 많이 먹지 말아야 하니 허열이 생길 우려가 있다. 여름에 늘 먹으면 폐금(肺金)의 기를 보한다. 위로는 근원을 자양해주고 아래로는 신(腎)을 보해준다.

◦오미자 껍질은 성미가 시고, 과육은 성미가 달고, 씨는 성미가 맵고 쓰며, 전체적으로 짠 성미를 가지고 있으니 오미가 갖춰진 것이다. 《본초강목》

使君子

사군자

- 【使君】甘溫, 消疰清濁⁵,

瀉痢諸蟲, 總能除却.

- 【사군자】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감병(疢病)을 없애고 소변이 탁한 것을 맑게 한다.

설사, 이질, 여러 충병을 모두 잘 없앤다.

煨去殼.

○治小兒百病, 每月上旬侵晨, 空腹食數枚, 或以殼煎湯嚥下, 次日蟲皆死出.

○{ 殼 } 亦殺蟲. 《本草》

젓불에 묻어 구워서 껍질을 벗겨서 쓴다.

○소아의 온갖 병을 치료한다.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새벽마다 빈속에 몇 개를 먹거나 껍질을 달인 탕으로 삼키면 다음날 벌레가 모두 죽어서 나온다.

○{ 껍질 } 도 벌레를 죽인다. 《본초강목》

木鼈

목별

• 【木鼈】甘溫, 能追瘡毒,

乳癰腰疼, 消腫⁶最速.

• 【목별】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창독을 몰아낸다.

유옹(乳癰)과 허리 통증을 치료하고 종기를 가장 신속히 낫게 한다.

狗食之立斃, 非大毒有如是乎. 《景岳》

개가 목별을 먹으면 곧 죽으니 독성이 크지 않다면 이렇게 되겠는가. 《경악전서》

馬兜鈴 쥐방울

마두령 쥐방울

- 兜鈴苦寒, 能熏痔漏

定喘消痰, 肺熱久嗽.

- 마두령은 성미가 쓰고 차며 치루에 혼증할 수 있다.

호흡이 가쁜 증상을 안정시키고 가래를 없애며 폐열로 인한 오래된 기침을 치료한다.

쥐방울. ◦入手太陰. 《本草》

쥐방울. ◦수태음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牽牛 黑丑

견우자 흑축

- 牽牛苦寒, 利水消腫,

蠱脹疝癖, 散滯除壅⁷.

- 견우는 성미가 쓰고 차며 수기를 잘 통하게 하고 부종을 없앤다.

고창(蠱脹)·헌벽(疝癖)을 치료하고 체한 것을 흠어주며 막힌 것을 제거한다.

一名黑丑.

◦有毒, 白屬金, 黑屬水, 頭末用. 《本草》

흑축(黑丑)이라고도 한다.

◦독성이 있다. 백축은 금(金)에 속하고 흑축은 수(水)에 속한다. 말물 가루를 쓴다. 《본초강목》

瓜 蔓 仁 하날타리씨

과루인 하날타리씨

- 瓜 蔓 仁 寒, 寧嗽化痰,
傷寒結胸, 解渴止煩.⁸
- 과루인은 성미가 차며 기침을 안정시키고 가래를 녹인다.
상한으로 인한 결흉을 치료하고 소갈을 풀어주고 번조를 멎게 한다.

하날타리씨. 以紙壓去油.

하날타리 씨. 종이로 눌러 기름기를 제거하고 쓴다.

天 花 粉 하날타리불휘, 苁 蔓 根

천화분 하날타리 뿌리, 과루근

- 天 花 粉 寒, 止渴祛煩,
排膿消毒, 善除熱痰.
- 천화분은 성미가 차며 갈증을 멎게하고 번조를 없앤다.
고름을 배출시키고 독을 없애며 열담(熱痰)을 잘 제거한다.

하날타리불휘. ○卽苁蔓根.

○搗泥, 以絹濾汁, 澄粉晒乾.

○惡乾薑, 畏牛膝、乾漆, 反烏頭. 《本草》

하늘타리 뿌리. ㅇ곧, 과루근이다.

ㅇ진흙처럼 질게 찢어 비단에 즙을 걸러내어 가라앉은 고운 가루를 햇볕에 말려서 쓴다.

ㅇ건강과 상오약이고 우슬·건칠과 상외약이며 오두와 상반약이다. 《본초강목》

葛根 출불휘

갈근 칩뿌리

- 葛根味甘, 傷寒發表, 溫瘧⁹ 往來, 止渴解酒.
- 갈근은 성미가 달며 상한을 걸으로 발산시킨다.
온병과 학질이 번갈아 오는 것을 막고 갈증을 멎게 하며 주독을 풀어준다.

출불휘. ㅇ入陽明.

- ㅇ { 粉 } 止渴利水, 解酒.
- ㅇ { 花 } 主消酒腸風.
- ㅇ { 葉 } 主金瘡止血. 《本草》¹⁰

칩 뿌리. ㅇ양명경에 들어간다.

- ㅇ { 갈분 } 갈증을 멎게 하고 수기를 잘 통하게 한다. 주독을 해독한다.
- ㅇ { 갈화 } 주로 주독과 장풍(腸風)을 풀어준다.
- ㅇ { 잎 } 쇠붙이에 난 상처를 지혈시킨다. 《본초강목》

天門冬 **홀아비죽**

천문동 **홀아비죽**

- 天門甘寒, 肺痿肺癰¹¹,
消痰止嗽, 喘熱有功.
- 천문동은 성미가 달고 차며 폐위(肺痿)로 폐옹(肺癰)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가래를 녹이고 기침을 멎게 하며 호흡이 가쁜 증상과 열증에 효능이 있다.

홀아비죽. ◦入肺腎氣分.

◦溫水浸, 去心.

◦忌鐵.

◦殺三蟲. 《本草》

홀아비죽. ◦폐경과 신경(腎經)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따뜻한 물에 담가두었다가 심을 빼내고 쓴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삼시충을 죽인다. 《본초강목》

百部

백부

- 【百部】味甘, 骨蒸勞瘵,
殺疳蛔蟲, 久嗽功大.
- 【백부】는 성미가 달며 골증열과 노채를 치료한다.

감병(疳病)과 회충을 없애고 오래된 기침 증상에 큰 효과가 있다.

微寒.

◦酒浸. 《本草》

성미가 약간 차다.

◦술에 담가두었다가 쓴다. 《본초강목》

何首烏 온조롱, 시박불휘

하수오 은조롱, 새박뿌리

- 何首烏甘, 添精種子,
黑髮悅顏, 長生不死.
- 하수오는 성미가 달며 정(精)을 더해주고 자식을 낳게 한다.
머리를 검게 하고 얼굴빛을 좋게 하며 장수하게 한다.

江原道, 온조롱. 黃海道, 시박불휘. 《寶鑑》

◦肝腎藥也. 白入氣, 赤入血.

◦米泔浸晒乾, 或米泔浸, 黑豆蒸,¹² 晒乾, 再以豆蒸, 九蒸九晒.

◦忌鐵及諸血、無鱗魚、蘿菔、蔥、蒜, 伏朱砂. 《本草》

강원도에서는 은조롱이라고 한다. 황해도에서는 새박뿌리라고 한다. 《동의보

감》

◦간(肝)、신(腎)의 약이다. 백하수오는 기분에 들어가고 적하수오는 혈분에 들어간다.

- 쌀뜨물에 담가두었다가 햇볕에 짚어 말린다. 또는 쌀뜨물에 담가두었다가 검은 콩과 같이 찐 후 하수오를 햇볕에 말린 후 다시 검은 콩과 함께 찐다. 이와 같이 구증구포한 다음에 쓴다.
- 철기, 각종 피, 비늘 없는 해산물, 나복, 총백, 마늘을 금한다. 주사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본초강목》

萆薢 열잇불휘, 竹木

비해 머래뿌리, 죽목

- 【萆薢】甘溫, 風寒濕痺¹³,
腰背冷疼, 添精益氣.
- 【비해】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풍, 한, 습으로 인한 비증(痺症)을 치료한다.
허리와 등이 시리고 아픈 것을 낫게 하고 정(精)을 채워주고 기를 보익한다.

열잇불휘. ◦一名竹木.

◦入足陽明厥陰, 長于去風濕.

◦酒浸.

◦畏大黃、柴胡、前胡. 《本草》

머래뿌리. ◦죽목(竹木)이라고도 한다.

◦족양명경, 족궐음경에 들어간다. 풍습을 제거하는 데 뛰어나다.

◦술에 담가두었다가 쓴다.

◦대황, 시호, 전호와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増〕土茯苓 상비히, 仙遺糧

〔증보〕토복령 상비해, 선유량

- 〔増〕土茯苓淡, 食之當穀,
去風止瀉, 解輕粉毒.
- 〔증보〕토복령은 성미가 담담하며 곡식을 대신하여 먹을 수 있다.
풍증을 없애고 설사를 멎게 하며 경분독을 풀어준다.

상비히. ◯一名仙遺糧.

◯忌飲茶及牛、羊、鷄、鵝、魚肉、酒、麵、房事. 《本草》

상비해. ◯선유량(仙遺糧)이라고도 한다.

◯차를 마시는 것, 소, 양, 닭, 거위, 생선의 고기와 술, 밀가루 음식, 성생
활을 금한다. 《본초강목》

白蘗 가희톱

백렴 가희톱

- 白斂微寒, 兒瘡驚癇,
女陰腫痛, 癰疔可啖.
- 백렴은 성미가 조금 차며 소아의 학질, 경간에 쓴다.
여성의 음부가 붓고 아픈 증상, 옹종, 정창에 씹어서 먹도록 한다.

가희톱.

가희뜸.

山豆根 金鎖匙

산두근 금쇄시

- 【山豆根】苦, 療咽腫痛,
敷蛇蟲傷, 可救急用.
- 【산두근】은 성미가 쓰며 인후가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뱀이나 벌레에 물린 상처에 펴바르면 위급한 것을 구할 수 있다.

俗名金鎖匙.

민간에서는 금쇄시(金鎖匙)라고 한다.

葳靈仙 술위나모불휘

위령선 술위나물 뿌리

- 葳靈苦溫, 腰膝冷痛,
積痰痲痺, 風濕通用.
- 위령선은 성미가 쓰고 따뜻하며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적담(積痰)、현벽(痲痺)、풍습(風濕)에 두루 쓴다.

술위나모불휘. ◦入太陽, 通十二經脈, 朝服暮效. 弱者不可服, 不聞水聲者佳.

◦酒洗. 《本草》

술위나물 뿌리. ◦태양경에 들어가며 12경맥을 통하게 한다.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효과가 난다. 허약한 사람은 먹을 수 없다. 물가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 캔 것이 좋다.

◦술로 씻어서 쓴다. 《본초강목》

茜草 곡도손

천초 꼭두서니

- 茜草味苦, 蠱毒吐血,
經帶崩漏, 損傷虛熱.
- 천초는 성미가 쓰며 고독과 토혈을 치료한다.
경락이 막힌 것을 풀어주고 봉루, 다친 곳, 허열을 치료한다.

곡도손. ◦入手足厥陰血分.

◦忌鐵. 《本草》

꼭두서니. ◦수결음경·족결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防己

방기

- 【防己】氣寒, 風濕脚痛,
熱積膀胱, 消癰散腫.
- 【방기】는 성질이 차며 풍습으로 인한 다리 통증을 치료한다.

방광에 열이 쌓인 것을 치료하고 옹(癰)을 제거하고 부종을 흡어준다.

入太陽, 通行十二經.

○有下焦濕熱, 然後審用. 《本草》

태양경에 들어가며 12경맥을 통하게 한다.

○하초에 습열이 있는 경우에만 조심해서 쓴다. 《본초강목》

通草 으흐름너출

통초 으름덩굴

- 通草味甘, 善治膀胱,
消癰散腫, 能通乳房.
- 통초는 성미가 달며 방광을 잘 치료한다.
옹을 없애고 부종을 흡어주며 젖을 잘 나오게 한다.

으흐름너출.

으름 덩굴.

木通 으흐름나무불휘

목통 으름나무 뿌리

- 木通性寒, 小腸熱閉,
利竅通經¹⁴, 最能導滯.
- 목통은 성질이 차며 소장이 열로 막힌 것을 치료한다.

구멍을 열어 경락을 통하게 하며 체했을 때 가장 효능이 있다.

으름나무모불휘. ◦入手厥陰, 手足太陽.

◦利水之功與琥珀同. 《本草》

으름나무 뿌리. ◦수궐음경, 수태양경, 족태양경에 들어간다.

◦수기를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호박(琥珀)과 같다. 《본초강목》

釣藤

조등

- 【釣藤】微寒, 療兒驚癇,
手足痙攣, 抽搐口眼.¹⁵
- 【조등】은 성미가 약간 차며 소아의 경간을 치료한다.
손발이 오그라들고 입과 눈에 경련이 생긴 것을 낫게 한다.

入手足厥陰.

◦取鉤. 《本草》

수궐음경, 족궐음경에 들어간다.

◦가시가 달린 것을 쓴다. 《본초강목》

〔衆〕忍冬 겨우소리너출

〔제중방〕인동 겨우살이덩굴

- 〔衆〕忍冬甘寒, 外感寒熱,

身腫熱痢, 癰疽熱渴.

- [제중방]인동은 성미가 달고 차며 외감(外感)으로 한열이 왕래하는 것을 치료한다.

몸의 부종, 열리, 옹저, 열갈을 치료한다.

겨우소리너흘. 小寒, 一云溫, 卽金銀花藤, 無毒, 忌鐵.

○消腫散毒之要藥. 《本草》

겨우살이덩굴. ○성질이 조금 차다. 따뜻하다고도 하다. 즉 금은화의 덩굴이다.

독성이 없고 철기 사용을 금한다.

○종기를 없애고 독을 풀어주는 중요한 약이다. 《본초강목》

金銀花 겨우소리꽃, 忍冬花

금은화 겨우살이꽃, 인동화

- 金銀花甘, 療癰無對,
未成則散, 已成則潰.
- 금은화는 성미가 달며 옹저 치료에 대적할 것이 없다.
옹저가 아직 성하지 않은 것은 풀어주고 이미 돋은 것은 터뜨려준다.

겨우소리꽃. ○卽忍冬花, 四月采花, 陰乾. 忌鐵. 《本草》

겨우살이 꽃. ○즉, 인동화(忍冬花)다. 4월에 꽃을 캐어 그늘에 말려서 쓴다. 철

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増〕丁公藤 마가목, 南藤

〔증보〕정공등 마가목, 남등

- 〔増〕丁公藤溫, 腎衰脚弱,
風淫濕痺, 止嗽變白.
- 〔증보〕정공등은 성질이 따뜻하며 신장이 쇠하고 다리가 약해진 것을 치료한다.
풍증이 지나쳐 습비가 된 것을 치료하고 기침을 멎게하고 흰 머리를 검게 변하게 한다.

마가목. ○一名南藤.

마가목. ○남등(南藤)이라고도 한다.

〔衆〕絲瓜 수시외

〔제중방〕사과 수세미오이

- 〔衆〕絲瓜性冷, 一切惡瘡,
小兒痘疹, 乳疽疔瘡.
- 〔제중방〕사과(絲苺)는 성미가 냉하며 모든 악창을 치료한다.
소아의 두진·유저(乳疽)·정창(疔瘡)을 치료한다.

수시외. ○解毒, 殺蟲, 通經¹⁶, 下乳汁, 多燒存性用. 《本草》

수세미 오이. ○해독 작용을 하고 충을 죽이며 경락을 잘 통하게 하여 젖이 잘 나오게 한다. 약성이 대부분 남도록 태워서 쓴다. 《본초강목》

1. 入紙條數枚同搗：曝乾時，入紙條數枚同搗 ※《본초강목》↩
2. 消腫：消腫毒 ※《본초강목》↩
3. 生精止渴：益男子精.....生津止渴 ※《본초강목》↩
4. 蜜蒸：用蜜浸蒸 ※《본초강목》↩
5. 消疳清濁：小兒五疳，小便白濁 ※《본초강목》↩
6. 消腫：消結腫惡瘡 ※《본초강목》↩
7. 散滯除壅：一切氣壅滯 ※《본초강목》↩
8. 解渴止煩：消渴煩亂 ※《본초강목》↩
9. 溫瘧：解溫病發熱...亦療瘧及瘡 ※《본초강목》↩
10. 消酒〔別錄〕.....腸風下血. ※《본초강목》
金瘡止血，按敷之 ※《본초강목》↩
11. 肺痿肺癰：肺萎生癰 ※《본초강목》↩
12. 或米泔浸，黑豆蒸：米泔浸一夜，切片. 用黑豆三斗，.....砂鍋內鋪豆一層，
首烏一層，重重鋪盡，蒸之. ※《본초강목》↩
13. 風寒濕痺：風寒濕周痺 ※《본초강목》↩
14. 利竅通經：血屬於心，宜木通以通心竅，則經絡流行也. ※《본초강목》↩
15. 口眼相引，目睛上搖，手足掣縱 ※《本經續疏·釣藤》↩

16. 通經 : 通經絡. ※《본초강목》↩



水草 元四衆五増一

수초 원방 4종, 제중방 5종, 증보 1종

澤瀉 쇠귀나물 불휘

택사 쇠귀나물 뿌리

- 澤瀉苦寒, 消腫止渴¹,
除濕通淋, 陰汗自遏.
- 택사는 성미가 쓰고 차며 부종을 없애고 갈증을 멎게한다.
습증을 제거하고 소변이 방울져 나오는 것을 통하게 하며 외음부 사이에 땀이
나는 증상이 저절로 낫는다.

쇠귀나물 불휘. ◦入足太陽少陰.

酒浸一宿.

◦畏文蛤.

◦多服病眼. 《本草》

쇠귀나물 뿌리. ◦족태양경·족소음경에 들어간다.

◦하룻밤 술에 담가두었다가 쓴다.

◦문합과 상외약이다.

◦많이 먹으면 눈병이 생긴다. 《본초강목》

菖蒲 석창포

창포 석창포

- 菖蒲性溫, 開心通竅²,
去痺除風, 出聲至妙.
- 창포는 성미가 따뜻하며 심규(心竅)를 열어 통하게 한다.
저린 증상과 풍증을 제거하고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데 효능이 지극히 묘하다.

석창포. ◦入手少陰厥陰.

◦微炒.

◦忌麻黃、飴糖、羊肉及鐵.

◦解巴豆、大戟毒. 《本草》

석창포. ◦수소음경、수궐음경에 들어간다.

◦약간 볶아서 쓴다.

◦마황、이당、양고기와 철기 사용을 금한다.

◦파두독、대극독을 해독한다. 《본초강목》

蒲黃 부들쑏

포황 부들꽃

- 蒲黃味甘, 逐瘀止崩,
補血須炒, 破血宜生.
- 포황은 성미가 달며 어혈을 몰아내고 붕루를 멎게 한다.

혈을 보할 때 볶아서 써야하고 어혈을 풀어줄 때는 생것으로 써야한다.

부들쑤. ◦入手足厥陰. 《本草》

부들쑤. ◦수궐음경、족궐음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增]浮萍 기구리밥

[증보]부평 개구리밥

- [增]浮萍辛寒, 暴熱身痒,
麻痺脚氣, 利水消腫.
- [증보]부평은 성미가 맵고 차며 갑자기 열이 나고 몸이 가려운 증상을 치료한다.
마비, 각기를 치료하며 수기를 잘 통하게 하고 부종을 없앤다.

기구리밥. ◦入肺.

◦楊花所化³, 燒烟去蚊. 《本草》

개구리밥. ◦폐경(肺經)에 들어간다.

◦버들나무 꽃이 변화한 것이라고도 한다. 부평 태운 연기는 모기를 쫓아낸다.

《본초강목》

海藻 물

해조 바닷말

- 海藻鹹寒, 消癭散瘰,

除脹破癥, 利水通關.

- 해조는 성미가 짜고 차며 영류를 제거하고 나력을 흠어준다.

창만을 제거하고 징가를 깨뜨리며 수기를 매끄럽게 하여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물.

○小毒.

○反甘草.

○黑色如亂髮. 《本草》

바닷말.

○독성이 약간 있다.

○감초와 상반약이다.

○뭉친 머리털 같은 검은색이다. 《본초강목》

[衆]海帶 다시마

[제중방]해대 다시마

- [衆]海帶味鹹, 疝氣下水, 癭瘤結氣, 能軟堅硬.
- [제중방]해대는 성미가 짜며 산기(疝氣)를 막고 수(水)를 내려준다.

영류(癭瘤)와 결기를 풀어주고 굳은 것을 풀어준다.

다시마. 下水, 勝海藻、昆布.

다시마. 수(水)를 내리는 효능이 해조(海藻)·곤포보다 낮다.

〔衆〕昆布

〔제중방〕곤포

- 〔衆〕昆布 鹹寒, 十二水腫, 面腫癭瘡, 癭瘤結氣.
- 〔제중방〕곤포는 성미가 짜고 차며 12가지 수종을 치료한다. 얼굴이 붓는 증상, 누창(癭瘡), 영류와 결기를 풀어준다.

곤포.

곤포.

〔衆〕海菜 머육, 甘藷

〔제중방〕해채 미역, 감곽

- 〔衆〕海菜 鹹寒, 能下熱煩, 癭瘤結氣, 通利水道.
- 〔제중방〕해채는 성미가 짜고 차며 번열을 잘 내린다. 영류(癭瘤)와 기가 뭉친 것을 풀어주며 수도(水道)를 잘 통하게 한다.

머육. ◦俗名甘藷.

미역. ◦민간에서는 감곽(甘藷)이라고 한다.

감태 단낙기

감태 단낙기

- 〔衆〕甘苔鹹寒, 主痔殺蟲,
霍亂吐瀉, 除心煩熱.
- 〔제중방〕감태는 성미가 짜고 차며 주로 치질을 치료하고 충을 죽인다.
곽란·토사를 낫게 하며 심장의 번열을 제거한다.

단낙기.

단낙기.

〔衆〕鹿角菜 청각, 靑角

〔제중방〕녹각채 청각

- 〔衆〕鹿角菜寒, 大下熱氣,
小兒骨蒸, 能解麴毒.
- 〔제중방〕녹각채는 성미가 차며 열기를 크게 내려준다.
소아의 골증열을 치료하고 면독(麴毒)을 잘 풀어준다.

청각. 疑今靑角.

청각. 지금의 청각(靑角)인 듯하다. 《동의보감》

1. 消腫止渴: 消腫脹, 滲泄止渴 ※《본초강목》

治小便淋瀝, 去陰間汗. ※《본초강목》↩

2. 開心通竅 : 開心孔 ※《본초강목》↩

3. 楊花所化 : 或云楊花所化. ※《본초강목》↩



石草 元二

돌풀 원방 2종

石斛 석곡풀

석곡 석곡풀

- 【石斛】味甘, 卻驚定志¹,
壯骨補虛, 善驅冷閉.
- 【석곡】은 성미가 달며 경계(驚悸)를 물리치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뼈를 튼튼하게 하며 허를 보하고, 냉증으로 막힌 것을 잘 몰아낸다.

석곡풀. ◦入脾腎.

◦酒浸或酥蒸.

◦惡寒水石、巴豆, 畏雷丸蠶蠶. 《本草》

석곡풀. ◦비경(脾經)、신경(腎經)에 들어간다.

◦술에 담가두거나 연유를 발라 찌서 쓴다.

◦한수석、파두는 상오약이고 뇌환、백강잠과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骨碎補

골쇄보

- 【骨碎補】溫, 折傷骨節,

風血積疼, 最能破血.²

- 【골쇄보】는 성질이 따뜻하며 골절상을 치료한다.

풍혈(風血)이 쌓여 생긴 통증을 치료하고, 어혈을 깨뜨리는데 가장 효능이 좋다.

入腎.

◦酒蒸.

◦忌鐵. 《本草》

신경(腎經)에 들어간다.

◦술에 찌서 쓴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1. 卻驚定志 : 定志除驚 ※《본초강목》↩

2. : 破血止血, 補傷折.〔開寶〕主骨中毒氣, 風血疼痛 ※《본초강목》↩

苔草 원방 1종

이끼 1종

拳栢 부터손

권백 부처손

- 拳栢味苦, 癥瘕血閉,
風眩痿躄¹, 更驅鬼疰.
- 권백은 성미가 쓰며 징가로 혈이 막힌 것을 치료한다.
두풍으로 어지러운 증상, 위궤(痿蹶)로 다리를 저는 증상을 치료하고 또한 귀주
(鬼疰)를 없앤다.

부터손.

부처손.

¹. 風眩痿躄 : 頭中風眩, 痿蹶 ※《본초강목》[←](#)

香木 元二十四衆一増三

향목 원방 24종, 제중방 1종, 증보 3종

側栢葉 측빅낙모닙

측백엽 측백나무잎

- 側栢葉苦, 吐衄崩痢,
能生鬚眉, 除濕之劑.
- 측백엽은 성미가 쓰며 토혈, 녹혈, 혈붕, 혈리를 치료한다.
수염과 눈썹을 나게 하며 습병을 제거하는 약제에 쓴다.

측빅낙모닙. ◦性溫, 一云寒.

◦酒蒸.

◦畏菊花、諸石、麴、麴, 伏砒硝.

◦萬木向陽, 惟栢向西. 《本草》

측백나무 잎. ◦성질이 따뜻하다. 차다고도 한다.

◦술에 찌서 쓴다.

◦국화, 여러 광물, 밀가루, 누룩과 상약이다. 비소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온갖 나무는 태양을 향하여 자라는데 오직 측백만 서쪽을 향하여 자란다.

《본초강목》

栝子

백자

- 【栝子】味甘, 補心益氣,
斂汗扶虛, 更除驚悸.
- 【백자】는 성미가 달며 심(心)과 기를 보익한다.
땀을 수렴하고 허로를 돕고 또한 경계를 없애준다.

入肝經氣分.

○畏菊花. 《本草》

간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국화와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松脂 송진, 瀝靑

송지 송진, 역청

- 松脂味甘, 滋陰補陽,
驅風安臟, 膏可貼瘡.
- 송지는 성미가 달며 음(陰)을 자윤하고 양(陽)을 보해준다.
풍(風)을 몰아내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고(膏)를 내어 상처에 붙여도 괜찮다.

송진. ○一名瀝靑.

○甘溫.

○伏汞.

○ { 松節 } 治脚痺風症, 牙疼煎漱. 釀酒服, 治脚弱骨節風.

○ { 花 } 主潤心肺, 多食發上焦熱.

○ { 葉 } 主去風斷穀. 《本草》

송진. ○역청(瀝靑)이라고도 한다.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수은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 { 송절(마디) } 다리가 저리는 증상, 풍주(風症)를 치료한다. 치아 통증이 있을 때 달여서 양치한다. 술을 빚어서 먹으면 다리가 무력해진 경우나 골절풍을 치료한다.

○ { 송화 } 심폐를 자유했으며 많이 먹으면 상초에 열이 난다.

○ { 송엽 } 풍증을 없애며 곡식을 끊을 수 있다. 《본초강목》

肉桂

육계

● 【肉桂】辛熱, 善通血脈,

腹痛虛寒, 溫補可得.

● 【육계】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혈맥을 잘 통하게 한다.

배가 아프고 허한(虛寒)한 증상을 치료하니 속을 따뜻하게 보할 수 있다.

入足少陰太陰血分. 《本草》

○下焦虛寒, 法當引火歸元者, 則此爲要藥, 不可誤執. 《景岳》

○ { 桂皮 } 一名筒桂, 此桂嫩而易卷如筒, 故名. 爲諸藥先聘通使.¹ 《本草》

족소음경·족태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하초가 허하고 차면 당연히 화(火)를 이끌어 원기를 되돌려야 하니 육계가 중

요한 약이 되지만 이 방법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 《경약전서》

○ { 계피 } 통계(筒桂)라고도 한다. 이것은 계(桂)의 어린 껍질로 쉽게 대나무

통처럼 말려서 이름한 것이다. 여러 약의 선두에서 초빙하는 사신(使臣) 같

은 약이다. 《본초강목》

〔增〕【桂心】

〔증보〕【계심】

- 〔增〕【桂心】苦辛, 心痛冷侵²,
殺蟲消瘀, 下胞失音.
- 〔증보〕【계심】은 성미가 쓰고 매우며 심장이 아프고 속이 찬 증상을 치료한다.
충을 죽이고 어혈을 없애며 포의(胞衣)가 내려오게 하고 실음(失音)을 치료한
다.

入手少陰血分. 《本草》

수소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桂枝

계지

- 【桂枝】小梗, 橫行手臂,
止汗舒筋, 治手足痺.

- 【계지】는 육계의 작은 가지로 손과 팔로 운행된다.

땀을 멎게 하고 근을 펴주며 손발이 저린 증상을 치료한다.

入足太陽.《本草》

족태양경에 들어간다.《본초강목》

辛夷 붓꽃

신이 붓꽃

- 辛夷味辛, 鼻塞流涕,
香臭不聞, 通竅之劑.³
- 신이는 성미가 매우며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흐르는 것을 치료한다.
코가 막혀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니 9규(九竅)를 잘 통하게 하는 약제이다.

붓꽃. ◦入手太陰, 足陽明.

◦去毛微灸.

◦惡石脂, 畏菖蒲、黃連、石膏.《本草》

붓꽃. ◦수태음경, 족양명경에 들어간다.

◦잔털은 제거하고 약간 구워서 쓴다.

◦적석지와 상오약이고 창포, 황련, 석고와 상외약이다.《본초강목》

沈香

침향

- 【沈香】降氣, 煖胃逐邪,
通天徹地, 衛氣堪誇.
- 【침향】은 기를 내려주고 위(胃)를 따뜻하게 하며 사기를 몰아낸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 기를 지키는 데 효능을 자랑할 만하다.

沈水上, 半沈次, 不見火. 《本草》⁴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는 것이 상품(上品)이고 반만 가라앉는 것이 그 다음이다. 불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한다. 《본초강목》

丁香

정향

- 【丁香】辛熱, 能除寒嘔⁵,
心腹疼痛, 溫胃可曉.
- 【정향】은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위가 차거나 구역질을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명치의 통증을 낮게 하고 위를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명확하다.

雄爲丁香, 雌爲鷄舌香, 卽母丁香, 氣味尤佳.

○入手太陰, 足少陰陽明.

○不見火.

○畏鬱金.《本草》

○又治小兒吐瀉,痘瘡胃寒灰白不發.⁶《景岳》

○{皮} 主心腹冷氣.《本草》

숯꽃을 정향(丁香)이라고 한다. 암꽃을 계설향(鷄舌香), 곧 모정향(母丁香)이라고 하며 성미가 더욱 좋다.

○수태음경·족소음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불을 가까이하지 않도록 한다.

○울금과 상외약이다.《본초강목》

○소아의 구토·설사와 두창에 위가 차가워서 회백색을 띠며 수포가 돋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경약전서》

○{껍질} 주로 명치에 냉한 기운이 있을 때 쓴다.《본초강목》

檀香

단향

- 檀香味辛, 升胃進食, 霍亂腹痛, 中惡鬼氣.
- 단향은 성미가 매우며 위기를 올려주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다. 객란, 복통, 중악, 귀기(鬼氣)를 치료한다.

【白檀】性溫, 氣分藥.

○入手太陰·足少陰, 通行陽明.

○{紫檀} 鹹寒, 血分藥. 消腫, 治金瘡.《本草》

○治霍亂, 心腹痛. 《神農》

【백단향】은 성미가 따뜻하며 기분(氣分)에 작용하는 약이다.

○수태음경, 족소음경에 들어가며 양명경을 두루 돌아다닌다.

○ { 자단향 } 은 성미가 짜고 차며 혈분에 작용하는 약이다. 부종을 없애고 쇠
불이에 상한 것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곽란으로 명치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신농본초경》

川椒 초피나모여름, 蜀椒

천초 초피나무열매, 촉초

- 川椒辛熱, 祛邪逐冷,
明目殺蟲, 溫而不猛.
- 천초는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사기(邪氣)를 없애고 냉기를 몰아낸다.
눈을 밝게 하고 충을 죽인다. 성질이 따뜻하면서도 너무 뜨겁지는 않다.

초피나모여름. ○一名蜀椒.

○有毒.

○入手足太陰, 腎命門氣分.

○閉口者, 殺人.

○得鹽味佳, 畏款冬花、防風、附子、雄黃, 可收水銀.

○微炒出汗.

○花椒卽秦椒, 葉實差大.

○ { 椒目 } 苦寒利水, 如人之瞳, 故謂之椒目. 《本草》⁷

초피나무 열매. ◦촉초(蜀椒)라고도 한다.

◦독성이 있다.

◦수태음경·족태음경·신경의 명문과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벌어지지 않은 것을 먹으면 죽는다.

◦소금과 함께 쓰면 성미가 좋아진다. 관동화·방풍·부자·웅황과 상외약이다. 수은을 수렴할 수 있다.

◦약간 볶아서 기름기가 나오게 한 후 쓴다.

◦화초(花椒)는 곧, 진초(秦椒)인데 잎과 열매의 차이가 크다.

◦{ 초목(椒目, 천초씨) } 성미가 쓰고 차며 수기를 잘 통하게 한다. 사람의 눈동자처럼 생겨서 초목(椒目)이라고 한다. 《본초강목》

吳茱萸

오수유

- 【吳茱萸】辛熱, 能調疝氣,

臍腹寒疾, 酸水通治.

- 【오수유】는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산기(疝氣)를 잘 고르게 한다.

배꼽 주위가 찬 증상과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두루 치료한다.

有小毒.

◦入足太陰血分、少陰厥陰氣分.

◦湯浸去苦烈汁七次, 始可焙用.

○惡丹參、消石, 畏紫石英.

○陳者良. 《本草》

독성이 조금 있다.

○족태음경의 혈분, 소음경·궐음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뜨거운 물에 우려서 쓴맛을 빼내기를 7차례 하고 나서 비로소 곁불에 말려서 쓴다.

○단삼·소석과 상오약이고, 자석영과 상외약이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본초강목》

檳榔

빈랑

• 【檳榔】辛溫, 破氣⁸ 殺蟲,

逐水祛痰⁹, 專除後重.

• 【빈랑】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기를 깨뜨리고 충을 죽인다.

수(水)를 몰아내고 담(痰)을 없애며 후증을 전문으로 치료한다.

勿令經火, 近世亦有煨焙用者.

○向陽者, 檳榔. 向陰者, 大腹子. 《本草》

○陰蝨煎洗卽除. 《備要》

불에 익히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요즘에는 잿불에 묻어 굽거나 곁불에 짚어 말려서 쓴다.

○태양을 향하여 자라는 것이 빈랑이고 음지를 향하여 자라는 것이 대복자이

다.《본초강목》

◦음슬창(陰蝨瘡)에 빈랑을 달여서 씻으면 바로 낫는다.《본초비요》

腹皮

대복피

- 【腹皮】微溫, 能下膈氣,
安胃健脾, 浮腫消去.
- 【대복피】는 성미가 약간 따뜻하며 막힌 기를 잘 내려준다.
위(胃)를 편안하게 하고 비(脾)를 튼튼하게 하며 부종을 없애준다.

有鴆毒, 酒洗後, 大豆汁洗晒.《本草》

짐새의 독이 묻어 있으므로 술로 씻은 후 대두 즙으로 씻어서 벌에 말려준다.

〔增〕【枳椇】

〔증보〕【지구】

- 〔增〕【枳椇】甘平, 止渴去煩,
利大小便, 解酒功尊.
- 〔증보〕【지구】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갈증을 없애고 번조를 제거한다.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주독을 해독하는 데 효능이 뛰어나다.

枇杷葉

비파엽

- 【枇杷葉】苦, 偏理肺臟,
吐穢不已, 解酒清上.
- 【비파엽】은 성미가 쓰며 폐장만 다스린다.
오물을 계속 토하는 것을 치료하며 술을 해독하고 상초를 식혀준다.

平寒.

○火灸, 以布拭去毛.

○治肺胃病. 《本草》

성미가 평하고 차다.

○불에 구워서 베 보자기로 털을 훔쳐내고 쓴다.

○폐와 위(胃)의 병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烏藥

오약

- 【烏藥】辛溫, 心腹脹疼,
小便滑數, 順氣通用.
- 【오약】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뱃속이 창만하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소변이 빈번하게 줄줄 새는 것을 치료하고 기를 순환시켜 잘 통하게 한다.

入足陽明少陰. 《本草》

족양명경·족소음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乳香】薰陸香

【유향】훈륙향

- 【乳香】辛苦, 療諸惡瘡,
生肌止痛, 心腹尤良.¹⁰⁾

- 【유향】은 성미가 쓰며 여러 악창을 치료한다.

새살을 돋게 하고 통증을 멎게 하는 데 명치의 통증에 더욱 좋다.

一名薰陸香.

○辛熱微毒.

○善竄, 入手少陰.

○微炒則不粘, 或燈心或糯米數粒同研, 易細. 《本草》

훈륙향(薰陸香)이라고도 한다.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독성이 약간 있다.

○잘 스며들어 수소음경에 들어간다.

○끈적이지 않게 약간 볶거나 등심이나 찹쌀 몇 알을 넣고 함께 갈면 곱게 갈기
쉽다. 《본초강목》

沒藥

물약

- 【沒藥】溫平, 治瘡止痛,

跌打損傷, 破血通用.

- 【물약】은 성미가 따뜻하고 평하며 상처를 치료하고 통증을 멎게 한다.
넘어지거나 부딪혀 손상된 것을 치료하고 어혈을 깨뜨리는데 두루 쓴다.

血竭 麒麟竭

혈갈 기린갈

- 【血竭】味鹹, 跌撲傷損,
惡毒瘡癰, 破血有準.
- 【혈갈】은 성미가 짜며 넘어지거나 부딪혀 손상된 것을 치료한다.
악독(惡毒)·악창(惡瘡), 응종을 치료하고 어혈을 풀어주는데 효능이 높다.

一名麒麟竭.

○入手足厥陰血分.

○得密陀僧良. 《本草》

기린갈(麒麟竭)이라고도 한다.

○수궐음경·족궐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밀탁승과 함께 쓰면 좋다. 《본초강목》

安息香 복낙모진

안식향 복낙무진

- 安息香辛, 辟邪驅惡,
逐鬼¹¹消蟲, 鬼胎能落.

- 안식향은 성미가 매우며 사기(邪氣)와 악기(惡氣)를 물리친다.

시체에 전염된 주병(疰病)을 몰아내고 고독을 없애며 이상 발육된 태막을 잘 나오게 한다.

북늑모진. ◦黑黃色燒熏, 鬼懼¹²神散. 《本草》

북나무 진. ◦다갈색이 되도록 태우면서 연기를 내면 귀신이 두려워하여 흩어진다. 《본초강목》

蘇合香

소합향

- 【蘇合香】甘, 誅惡殺鬼¹³,
蟲毒癰疽, 夢魘能起.
- 【소합향】은 성미가 달며 악기(惡氣)를 몰아내고 귀기(鬼氣)를 없앤다.
고독, 간질을 치료하고 가위 눌렸을 때 깨어나게 한다.

龍腦 片腦, 氷片

용뇌 편뇌, 빙편

- 【龍腦】味辛, 目痛喉痺,
狂燥妄語, 眞爲良劑.
- 【용뇌】는 성미가 매우며 눈의 통증과 후비(喉痺)를 치료한다.
미쳐 날뛰거나 헛소리를 떠들어 대는 것을 진정시키는 좋은 약제이다.

一名片腦, 俗呼冰片.

○微寒, 或辛溫.

○合糯米炭貯之不耗. 《本草》

편뇌(片腦)라고도 한다. 민간에서는 빙편(冰片)이라고 부른다.

○성질이 약간 차다. 맵고 따뜻하다고도 한다.

○찹쌀을 태운 재와 함께 보관해두면 향이 소모되지 않는다. 《본초강목》

阿魏

아위

- 【阿魏】性溫, 除癥破結,
却鬼殺蟲, 傳尸可滅.
- 【아위】는 성미가 따뜻하며 징가를 제거하고 뭉친 것을 깨뜨린다.
귀사(鬼邪)를 물리치고 충을 죽이며 전시(傳尸)를 사멸시킨다.

蘆薈

노회

- 【蘆薈】氣寒, 殺蟲消疰¹⁴,
癰癤驚搐, 服之立安.
- 【노회】는 성미가 차며 충을 죽이고 감병(疢病)을 없앤다.
전간、경축(驚搐)에 복용하면 곧 편해진다.

入厥陰.

◦煨用. 《本草》

◦胃寒泄瀉者, 禁用. 經疏

꺽음경에 들어간다.

◦불에 달꺽서 쓴다. 《본초강목》

◦위한(胃寒)으로 설사할 때는 사용을 금한다. 본경소증

〔增〕【胡桐淚】

〔증보〕【호동루】

- 〔增〕【胡桐淚】寒, 風蟲牙疼,
殺火麵毒, 瘰癧必勝.
- 〔증보〕【호동루】는 성미가 차며 풍치나 충치로 인한 통증을 치료한다.
화독, 면독을 없애고 나력을 반드시 낮게 한다.

投少許於醋中, 便沸者眞.

약간을 식초에 떨어뜨려서 바로 끓어오르는 것이 진품이다.

茶茗 작설차

다명 작설차

- 茶茗味苦, 熱渴能濟,
上清頭目¹⁵, 下消食氣¹⁶.

- 다명(茶茗)은 성미가 쓰며 열갈을 낮게 한다.

상초를 식혀주고 머리와 눈을 치료하며 기를 내려주고 음식을 소화시킨다.

작설차. ○早採爲茶, 晚採爲茗. 《本草》

작설차. ○이른 아침에 딴 잎을 다(茶)라고 하고 저녁에 딴 잎을 명(茗)이라고 한다. 《본초강목》

[衆]黃梅 싱강나모

[제중방]황매 생강나무

- [衆]黃梅微溫, 産後寒熱,
消痰下氣, 腹痛瘀血.
- [제중방]황매는 성미가 약간 따뜻하며 산후 오한발열을 다스린다.
담을 삭이고 기를 내려주며 복통과 어혈을 치료한다.

싱강나모.

생강나무.

1. 爲諸藥先聘通使. : 宣導百藥, 爲之先聘通使, 如執圭之使也 ※《본초강목》

←

2. 心痛冷侵 : 九種心痛, 腹內冷氣痛不可忍, 咳逆結氣壅痺... ※《본초강목》←

3. : 香臭不聞, 通竅之劑 : 利九竅, 通鼻塞涕出 ※《본초강목》←

4. 沈水上：木之心節置水則沈, 故名沈水 ※《본초강목》↩
5. 寒嘔：療嘔逆, 甚驗.〔保昇〕去胃寒, 理元氣 ※《본초강목》↩
6. 痘瘡胃寒灰白不發：痘雖起發, 若灰白色或頂陷者, 氣虛也, 切不可用寒涼之藥. 須六氣煎加丁香、川芎、人乳、好酒主之. ※《경악전서》↩
7. 入手足太陰, 腎命門氣分：乃手足太陰、右腎命門氣分之藥 ※《본초강목》
男子以右腎爲命門 ※《동의보감》↩
8. 破氣：破胸中氣 ※《본초강목》↩
9. 逐水祛痰：消穀逐水, 除痰癖 ※《본초강목》↩
10. 止痛, 心腹尤良：心腹痛要藥 ※《본초강목》↩
11. 逐鬼：逐鬼疰 ※《본초강목》↩
12. 惧：懼 ↩
13. 誅惡殺鬼：辟惡, 殺鬼精物 ※《본초강목》↩
14. 殺蟲消疳：療五疳, 殺三蟲 ※《본초강목》↩
15. 上清頭目：上清矣...利頭目 ※《본초강목》↩
16. 下消食氣 下氣消食 ※《본초강목》↩



喬木 元十五衆一増四

교목 원방 15종, 제중방 1종, 증보 4종

黃栢 황벽나모껍질, 黃蘗

황백 황벽나무껍질, 黃檗

- 黃栢苦寒, 降火滋陰,
骨蒸濕熱, 下血堪任.
- 황백은 성미가 쓰고 차며 화(火)를 내리고 음을 자양한다.
골증열, 습열(濕熱), 하혈에 쓸 수 있다.

황벽나모껍질. ○一名黃蘗.

○入足少陰, 足太陽, 引經藥.

○生用瀉實火, 熟用不傷胃, 酒制治上, 鹽制治下, 蜜制治中.

○惡乾漆, 伏硫黃, 忌鐵. 《本草》

○火盛, 童便蒸. 《入門》

○近時補陰藥, 往往以知母¹爲君, 受傷眞陽, 致生他病. 《景岳》

황벽나무 껍질. ○황백(黃蘗)이라고도 한다.

○족소음경、족태양경으로 이끄는 인경약이다.

○생것으로 쓰면 실화(實火)를 사해주고 익혀서 쓰면 위(胃)가 상하지 않는다.

술로 법제하면 상초를 치료하고 소금에 법제하면 하초를 치료하며 꿀에 법제

하면 중초를 치료한다.

○건칠과 상오약이다. 유향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

강목》

○화(火)가 성할 때는 동변에 찌서 쓴다. 《의학입문》

○요즘은 음(陰)을 보하는 약으로 종종 지모와 황백을 군약으로 쓰지만 진양

(眞陽)이 상해서 다른 병이 생기게 된다. 《경약전서》

厚朴

후박

- 厚朴苦溫, 消脹泄滿,

痰氣²瀉痢, 其功不緩.

- 후박은 성미가 쓰고 따뜻하며 창만과 설사를 없애준다.

담(痰)과 기를 기를 내려주며 설사와 이질에 쓰면 효과가 빠르다.

屬土有火.

○薑汁炒.

○乾薑爲使, 惡澤瀉、消石、寒水石, 忌豆. 《本草》

○産濟州.

토(土)에 속하며 화(火)를 지니고 있다.

○생강즙에 축여 볶아서 쓴다.

○건강을 사약(使藥)으로 쓴다. 택사、소석、한수석과 상오약이며 콩을 금한

다. 《본초강목》

○제주도에서 생산된다.

杜冲

두충

- 【杜冲】辛甘, 益腎固精,
腰膝酸疼, 小便淋瀝.
- 【두충】은 성미가 맵고 달며 신(腎)을 보익하여 정(精)을 견고하게 한다.
허리와 무릎이 시고 아픈 증상과 소변을 찝끔거리며 지리는 증상을 치료한다.

性溫.

○入肝補腎.

○酥或蜜灸, 或薑汁炒, 以絲斷爲度.

○惡玄參·蛇皮.

○忌鐵. 《本草》

성미가 따뜻하다.

○간경으로 들어가 신(腎)을 보한다.

○연유나 꿀에 축여 굽거나 생강즙에 축여 볶아서 쓴다. 두충의 실이 제거될 때
까지 여러 번 한다.

○현삼·뱀허물과 상오약이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樗根 가죽나무모불휘겅질

저근 가죽나무뿌리겅질

- 樗根味苦, 瀉痢帶崩,
腸風痔漏, 燥濕澀精.³
- 저근은 성미가 쓰며 설사, 이질, 대하, 봉루를 치료한다.
장풍(腸風)으로 인한 치루를 치료하고 습을 말리며 정(精)을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가죽나무모불휘겅질. 炒或蜜灸. 《丹心》

가죽나무 뿌리겅질. 볶거나 꿀에 축여 구워서 쓴다. 《단계심법》

乾漆 마른 옷

건칠 말린 옷

- 乾漆辛溫, 通經⁴ 破癥,
追積殺蟲, 效如奔馬.
- 건칠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월경을 잘 통하게 하고 징가를 깨뜨린다.
적취를 몰아내고 고독을 죽이며 효능이 달리는 말과 같이 빠르다.

마른옷. ○炒熟不爾損人腸胃, 或燒存性.

○畏鷄子, 忌油脂. 《本草》

○畏漆者, 雞子清和藥. 《正傳》

○ { 生漆 } 去長蟲⁵

○蟹黃化漆爲水. 《入門》⁶

말린 울. ○충분히 볶아서 쓰니 볶지 않으면 사람의 장위(腸胃)를 손상시킨다.

또는 약성이 남도록 태워서 쓴다.

○계란과 상외약이다. 기름진 것을 금한다. 《본초강목》

○울이 오를까 두려우면 달걀흰자를 약에 섞어서 쓴다. 《의학정전》.

○ { 생울 } 회충을 제거한다.

○해황(蟹黃)은 울을 녹여 물이 되게 한다. 《의학입문》

[衆]海桐皮 **엄나모겍질**

[제중방]해동피 **엄나무겍질**

- [衆]海桐皮苦, 腰脚麻痺,

瀉痢痞癰, 善除風氣.

- [제중방]해동피는 성미가 쓰며 허리와 다리의 마비를 치료한다.

설사와 이질, 감병(疳病)·개선을 치료하고 풍의 기운을 잘 없앤다.

엄나모겍질.

엄나무 겍질.

練根

고련근

- 練根性寒, 能追諸蟲,

疼痛一止, 積聚立通.

- 고련근은 성미가 차며 여러 충을 몰아낸다.

통증을 한번에 멎게 하고 적취를 바로 통하게 한다.

雄者根赤有毒, 雌者入藥每一兩, 以糯米五十粒, 同煎殺毒. 《本草》

○惟濟州有之. 《寶鑑》

수련근은 뿌리가 붉고 독성이 있다. 암련근을 약에 넣는 데 1냥마다 찹쌀 50알

을 넣어 함께 달이면 독이 제거된다. 《본초강목》

○오직 제주도에에서만 생산된다. 《동의보감》

楝子 金鈴子

연자 금령자

- 【楝子】味苦, 膀胱疝氣, 中濕傷寒, 利水之劑.

- 【연자】는 성미가 쓰며 방광의 산기(疝氣)를 치료한다.

중습(中濕), 상한을 치료하며 수기를 잘 통하게 하는 약제에 넣어 쓴다.

一名金鈴子.

금령자(金鈴子)라고도 한다.

槐花 회화나무꽃

괴화 회화나무꽃

- 槐花味苦, 痔漏腸風,

大腸熱痢, 更殺蛔蟲.⁷

- 괴화는 성미가 쓰며 치루·장풍(腸風)을 치료한다.

대장의 열을 내려 이질을 치료하며 또한 회충을 죽인다.

회화나무꽃. ◦入陽明厥陰血分.

◦{ 實 } 治腸風, 殺蟲, 墮胎.

◦{ 枝 } 煮洗陰濕⁸, { 白皮 } 煎洗, 五痔. 《本草》

회화나무 꽃. ◦양명경·궐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 열매 } 장풍(腸風)을 치료하며 충을 죽인다. 유산시킨다.

◦{ 가지 } 를 삶은 물로 음습창을 씻어 준다. { 뿌리의 흰껍질 } 달여서 5치(五痔)의 환부를 씻어준다. 《본초강목》

秦皮 무풀에껍질

진피 물푸레껍질

- 秦皮苦寒, 熱痢可治,

煎湯洗目, 除腫風淚

- 진피는 성미가 쓰고 차며 열리를 치료한다.

진피를 달여서 눈을 씻어주면 부종과 풍루(風淚)가 제거된다.

무풀에껍질.

물푸레 껍질.

牙𦵑 주엽나모여름

저아조합 주엽나무열매

- 牙𦵑味辛, 通關利竅⁹,
敷腫痛消, 吐風痰妙¹⁰.
- 저아조합은 성미가 매우며 관절과 9구를 잘 통하게 해준다.
부종과 통증을 없애주며 풍담을 토하게 하게 하는 데 효과가 묘하게 좋다.

주엽나모여름. ◦性溫.

◦入手太陰陽明厥陰氣分.

◦蜜灸酥灸.

◦惡天門冬, 畏人參、苦參, 伏丹砂、硫黃、硃砂.

◦{ 子 } 主治風, 潤腸. 《本草》

주엽나무 열매. ◦성질이 따뜻하다.

◦수태음경、수양명경、수궐음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꿀에 축여 굽거나 연유에 축여 구워서 쓴다.

◦천문동과 상오약이고 인삼、고삼과 상외약이다. 단사、유황、요사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 씨 } 풍(風)을 낮게 하고 장을 윤회하게 한다. 《본초강목》

[增] 阜角刺

[증보] 조각자

- 〔增〕阜角刺溫, 下胞¹¹殺蟲,
妬乳癰腫, 惡瘡大風.
- 〔증보〕조각자는 성미가 따뜻하며 포의(胞衣)가 내려오게 하고 충을 죽인다.
젓몸살, 웅종, 악창, 대풍창을 치료한다.

引藥上行.

○又能至癰疽潰處. 《本草》

약 기운을 상초로 이끈다.

○또 웅저로 문드러진 곳까지 약 기운이 이르게 한다. 《본초강목》

訶子 訶黎勒

가자 가리륵

- 【訶子】味苦, 澀腸止痢,
痰嗽喘急, 降火斂肺.
- 【가자】는 성미가 쓰며 장을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 이질을 멎게한다.
가래, 기침, 호흡이 가쁜 증상을 낮게 하고 화(火)를 내려주어 폐를 수렴한다.

性溫.

○一名訶黎勒.

○治崩帶安胎.

○泄氣氣虛者, 似難輕服. 《本草》

○麵裹煨, 或酒蒸. 《入門》

성미가 따뜻하다.

○가리극(訶黎勒)이라고도 한다.

○봉루·대하를 치료하고 태를 안정시킨다.

○기가 새어나가 허해진 사람에게는 경솔히 복용시키기 어려울 듯하다. 《본초

강목》

○밀가루 반죽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거나 술에 찌서 쓴다. 《의학입문》

[增]水楊 기버들

[증보]수양 갯버들

• [增]水楊苦平, 癰腫堪當,

久痢赤白, 浴發痘瘡.

• [증보]수양은 성미가 쓰고 평하며 옹종(癰腫)을 치료할 만하다.

오래된 이질과 적백리를 치료하고 수양 달인 물로 목욕하면 두창을 겉으로 돌아나게 한다.

기버들. ○ { 垂絲柳 } 甘溫, 解酒, 利小便.

○ { 柳絮 } 버들개야지, 治濕痺黃疸, 金瘡止血, 可以代羊毛爲茵蓐, 小兒臥, 尤佳¹², 着衣物生虫, 入池沼, 化爲浮萍.

○ { 葉 } 主煎洗漆瘡.

○ { 枝 } 煮酒漱齒痛.

○ { 白楊 } 슌시나모겍풀, 治脚腫風毒. 《本草》

갯버들. ◦ { 수사류(垂絲柳, 능수버들) }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주독을 해독하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 { 유서(柳絮) } 버들강아지. 습비·황달을 치료하고 쇠붙이에 난 상처를 지혈시킨다. 양털을 대신해서 버들강아지로 요이불(茵蓐)을 만들 수 있으며 소아가 눕기에 더욱 좋다. 옷에 들러붙으면 벌레가 생기고 연못에 들어가면 부평으로 변화된다.

◦ { 잎 } 달여서 칠창(漆瘡)을 씻어주면 낫는다.

◦ { 가지 } 치통에는 가지를 술에 삶은 물로 양치한다.

◦ { 백양 } 사시나무 껍질이다. 풍독(風毒)이나 다리가 부은 것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榆皮 늘음나무껍질

유피 느릅나무껍질

- 榆皮味甘, 通水除淋, 能利關節, 敷腫痛定.
- 유피는 성미가 달며 수도를 잘 통하게 하여 소변이 방울지는 증상을 없애준다.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부종을 풀어주며 통증을 안정시킨다.

늘음나무 껍질. ◦濕搗如糊粘瓦石. 《本草》¹³

느릅나무 껍질. ◦습기가 남아있을 때 찢으면 풀처럼되니 점성이 기와나 돌을 붙일 정도이다. 《본초강목》

蕪荑

무이

- 【蕪荑】味辛, 驅邪殺蟲,
痔瘻癰疥, 化食除風.
- 【무이】는 성미가 매우며 사기를 몰아내고 충을 죽인다.
치질, 영류, 개선을 치료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풍증을 제거한다.

蘇木 다목, 蘇方木

소목 다목, 소방목

- 【蘇木】甘鹹, 能行積血,
産後月經¹⁴, 兼醫撲跌.
- 【소목】은 성미가 짜며 쌓인 혈을 잘 풀어준다.
산후 월경을 고르게 하며 겸하여 타박상 치료한다.

다목. ○一名蘇方木.

○入三陰血分, 少用和血, 多用破血. 《本草》

다목. ○소방목(蘇方木)이라고도 한다.

○삼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조금 쓰면 혈을 고르게 하고 많이 쓰면 어혈을 풀어준다. 《본초강목》

[增]樺皮 붓겁풀

[증보]화피 벗겁질

- [增]樺皮苦平, 治痘乳癰,
肺風癰疹, 痘毒可攻.
- [증보]화피는 성미가 쓰고 성질이 평하며 황달과 유옹을 치료한다.
폐풍, 은진(癰疹), 두창 독을 치료한다.

붓겁풀. ◦産咸鏡道.

벗겁질. ◦함경도에서 생산된다.

[增]棕櫚皮 종려

[증보]종려피 종려

- [增]棕櫚皮澁, 崩帶腸風,
止吐衄血, 血淋堪通.
- [증보]종려피는 성미가 짙으며 봉루, 대하, 장풍을 치료한다.
토혈, 녹혈을 멎게하고 소변에 피가 섞여 방울져 나오는 것을 통하게 하는 데
쓸 수 있다.

종려. ◦燒黑用, 與亂髮同用更良. 《本草》

종려. ◦검게 태워서 쓴다. 난발(亂髮)과 함께 쓰면 또한 좋다. 《본초강목》

바豆

파두

- 【巴豆】熱辛, 除胃寒積,
破癥消痰, 太能通利.¹⁵¹⁶
- 【파두】는 성미가 뜨겁고 매우며 위에 쌓인 한기를 제거한다.
징가를 깨뜨리고 담(痰)을 삭이며 크게 통리시킨다.

大毒.

- 畏大黃、黃連、藜蘆、漿¹⁷、鼓、冷水, 得火良, 與牽牛相反.
- 以紙壓去油, 謂之霜, 或燒存性用.
- 斬關奪命之將.
- 鼠食而肥. 《本草》¹⁸

독성이 크다.

- 대황、황련、여로、장(醬)、두시、냉수와 상오약이다. 불과 함께 쓰면 좋다. 견우(牽牛)와는 서로 상반약이다.
- 종이로 눌러서 기름기를 제거한 것을 파두상(巴豆霜)이라고 한다. 혹은 약성이 남도록 태워서 쓴다.
- 파두는 빗장을 부수고 목숨을 빼앗는 장수처럼 위험하다.
- 쥐가 먹으면 살이 찐다. 《본초강목》

1. 知母 二味 ※知母, 黃蘗을 말함. 《본초강목》

二味(知母, 黃蘗을 말함) ※《본초강목》

古書言知母佐黃蘗.....縱欲求嗣之人, 用補陰藥, 往往以此二味爲君, 日日服餌. 降令太過, 脾胃受傷, 眞陽暗損, 精氣不暖, 致生他病. ※《본초강목》↩

2. 痰氣 : 消痰下氣 ※《본초강목》↩

3. : 利溺澀.〈雷斅〉治赤白濁, 赤白帶, 濕氣下痢, 精滑夢遺, 燥下濕, 去肺胃陳積之痰 ※《본초강목》↩

4. 通經 : 女人經脈不通 ※《본초강목》破瘕 ↩

5. 長蟲, : 經曰, 蛔者, 長蟲也 ※《동의보감》↩

6. : 長蟲, : 經曰, 蛔者, 長蟲也 ※《동의보감》↩

7. : 大腸熱痢, 更殺蛔蟲. : 赤白痢, 並炒研服.〈大明〉涼大腸. ※《본초강목》↩

8. 陰濕 : 陰囊下濕癢 ※《본초강목》

白皮 : 根白皮 ※《본초강목》↩

9. 通關利竅 : 利九竅...通關節. ※《본초강목》

消吐風痰妙 : 此證風涎潮於上, 胸痺氣不通, 宜用急救稀涎散吐之. ※《본초강목》↩

10. 吐風痰妙 : 此證風涎潮於上, 胸痺氣不通, 宜用急救稀涎散吐之. ※《본초강목》↩

11. 下胞 : 胎衣不下 ※《본초강목》↩

12. 可以代羊毛爲茵蓐, 小兒臥, 尤佳: 柳絮可以捍氈, 代羊毛爲茵褥, 柔軟性涼, 宜與小兒臥尤佳. ※《본초강목》↩

13. : 濕搗如糊粘瓦石. : 承曰, 榆皮濕搗如糊, 用粘瓦石極有力. ※《본초강목》↩

14. 產後月經: 月候不調 ※《본초강목》↩

15. 大能通利. : 通利關竅 ※《본초강목》↩

16. 震亨曰, 巴豆去胃中寒積. ※《본초강목》↩

17. 漿 醬 ※《본초강목》↩

18. : 斬關奪命之將. : 元素曰, 巴豆乃斬關奪門之將, 不可輕用. ※《본초강목》↩

灌木 元十九, 增一

관목 원방 19종, 증보 1종

桑椹子 오디

상심자 오디

- 桑椹子甘, 解金石燥¹,
清除熱渴², 染鬚髮皓³.
- 상심자는 성미가 달며 금석독으로 생긴 번조를 해소한다.
열갈을 식혀 없애주고 흰 수염과 머리를 검게 물들인다.

오디. ◦箕星之精⁴. 《本草》

오디. ◦기성(箕星)의 정수이다. 《본초강목》

桑皮 뽕나무불회껍질

상피 뽕나무뿌리껍질

- 桑皮甘辛, 止嗽定喘,
瀉肺火邪, 其功不淺.
- 상피는 달고 매우며 기침을 멎게하고 호흡이 가쁜 증상을 안정시킨다.
폐화(肺火)의 사기를 쓸어내리는 데 그 효능이 적지 않다.

뽕나무 불휘 겁 풀. ◦寒平.

◦入手太陰.

◦忌鐵. 《本草》

◦利水生用, 咳嗽蜜蒸或炒. 《入門》.

◦{ 葉 } 消腫止渴利水. 洗且病.⁵

◦{ 枝 } 治水氣, 脚氣, 利小便, 臂痛.

◦{ 花 } 主崩帶, 炒用.

◦{ 桑柴灰 } 淋汁小毒. 煮赤小豆, 作粥, 下水腫. 《本草》

뽕나무 뿌리 껍질. ◦성질이 차고 평하다.

◦수태음경에 들어간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수기를 잘 통하게 하려면 생것으로 쓰고 기침에는 꿀에 축여서 찌거나 볶아서 쓴다. 《의학입문》

◦{ 상엽(桑葉) } 부종을 없애고 갈증을 멎게 하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눈 병에는 눈을 씻어준다.

◦{ 상지(桑枝) } 수기(水氣)、각기를 치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팔의 통증을 낮게 한다.

◦{ 상화(桑花) } 주로 봉루、대하를 치료하며 볶아서 쓴다.

◦{ 상시회(桑柴灰, 뽕나무 재) } 상시회에 물을 뿌려서 낸 즙은 독성이 조금 있다. 이 잿물로 적소두를 삶아 죽을 쑀어 먹으면 수종(水腫)을 내려준다. 《본초강목》

桑螵蛸 뽕나무 우희 당아지집

상표초 뽕나무 위 사마귀알집

- 桑螵蛸醃, 淋濁精泄,
除疝腰痛, 虛損莫缺.
- 상표초는 성미가 짜며 임증(淋症), 소변백탁, 정(精)이 새는 증상을 치료한다.
산증과 요통을 제거하며 허손증이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

뽕나무 우희 당외아지집.

뽕나무 위 사마귀알집.

寄生 뽕나무 우희 겨으사리

상기생 뽕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

- 寄生甘苦, 腰痛頑麻,
續筋壯骨, 風濕尤佳.
- 상기생은 성미가 달고 쓰며 허리가 아프고 뻣뻣하며 저린 증상을 치료한다.
근(筋)을 이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풍습증에 더욱 좋다.

뽕나무 우희 겨으사리. ○忌鐵.

○勿見火. 《本草》

뽕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 ○철기 사용을 금한다.

○불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한다. 《본초강목》

楮實 닥나모여름

저실 닥나무열매

- 楮實味甘, 壯筋明目,
益氣補虛, 陰痿當服.
- 저실은 성미가 달며 근(筋)을 튼튼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기를 더해주고 허를 보하며 음위(陰痿) 치료에 복용하도록 한다.

닥나모여름. ◦酒蒸.

- { 皮 } 治水腫, 利小便.
- { 紙 } 燒灰, 止血暈、血崩. 《本草》

닥나무 열매. ◦술에 찌서 쓴다.

- { 닥나무 껍질 } 수종(水腫)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 { 닥종이 } 닥종이를 태운 재는 혈훈(血暈)·혈붕을 멎게 한다. 《본초강목》

枳實 탕조여름

지실 탕자열매

- 枳實味苦, 消食除痞,
破積化痰, 沖牆倒壁⁶.
- 지실은 성미가 쓰며 음식을 소화시켜 막힌 것을 없애준다.
적취를 깨뜨리고 담(痰)을 녹이니 담장을 뚫고 벽을 무너뜨리는 격이다.

탕조여름. 〇微寒.

〇麩炒用. 蜜灸則破水積.

〇陳者良. 《本草》

탱자 열매. 〇성미가 약간 차다.

〇밀기울과 함께 볶아서 쓴다. 꿀에 축여 구워서 쓰면 수적(水積)을 깨뜨린다.

〇오래 묵은 것이 좋다. 《본초강목》

枳殼

지각

- 枳殼微溫, 快氣寬腸,

胸中氣結, 脹滿堪嘗.

- 지각은 성미가 따뜻하며 기를 상쾌하게 하고 장(腸)을 뚫어준다.

가슴에 기가 멎은 것을 풀어주며 창만을 없애는데 우선으로 쓸 만하다.

微寒.

〇氣血弱者, 不可服以其損氣.

〇枳殼主高主氣, 枳實主下主血.

〇陳者良. 《本草》

〇惟濟州有之. 《寶鑑》⁷

성미가 약간 차다.

〇기혈(氣血)이 약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되니 기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〇지각은 주로 상부를 치료하고 기(氣)를 치료한다. 지실은 주로 하부를 치료하

고 혈(血)을 치료한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본초강목》

◦제주도에서만 생산된다. 《동의보감》

梔子

치자

- 梔子性寒, 解鬱除煩,

吐衄胃痛, 火降小便.⁸

- 치자는 성미가 차며 울증을 풀어주고 번조를 제거한다.

토혈, 녹혈, 위의 통증을 치료하고 화를 내려주어 소변을 나오게 한다.

치자. ◦入肺血分. 《本草》

◦入藥用山梔子. 《丹心》

◦用仁去心腎熱, 用皮去肌表熱, 尋常生用, 虛火童便炒, 止血炒黑, 涼肺胃酒炒. 《入門》

치자. ◦폐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약용에는 산치자를 쓴다. 《단계심법》

◦치자 속씨는 심(心)과 신(腎)의 열을 제거하고 치자 껍질은 체표의 열을 내려준다. 평상시에는 생것으로 쓰고 허화(虛火)에는 동변에 축여 볶아서 쓴다. 지혈할 때는 검게 볶아서 쓴다. 폐(肺)를 서늘하게 할 때는 술에 축여 볶아서 쓴다. 《의학입문》

酸棗 뫋디초씨

산조인 뫋대추씨

- 酸棗味酸, 斂汗祛煩⁹,
多眠用生, 不眠用炒.
- 산조인은 성미가 시며 땀을 수렴하고 번조를 없애준다.
잠이 많이 올 때는 생것으로 쓰고, 불면증에는 볶아서 쓴다.

뫋디초씨. ◦益肝.

◦惡防己.

◦睡多則生用, 不得睡則炒熟蒸. 《本草》

뫋대추씨. ◦간(肝)을 보익한다.

◦방기와 상오약이다.

◦ 잠이 많이 오면 생것으로 쓰고, 불면증에는 볶거나 찌서 쓴다. 《본초강목》

山茱萸

산수유

- 山茱性溫, 澀精益髓,
腎虛耳鳴, 腰膝痛止.
- 산수유는 성미가 따뜻하며 정(精)을 수렴하고 골수를 보익한다.
신허(腎虛), 이명을 치료하고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멎게 한다.

入足厥陰少陰氣分.

◦酒浸去核, 核反滑精.

◦惡桔梗、防己、防風. 《本草》

죽결음경、죽소음경의 기분에 들어간다.

◦술에 담가 두었다가 씨를 빼고 쓴다. 씨는 도리어 정(精)을 새어나가게 한다.

◦길경、방기、방풍과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金櫻子

금앵자

- 【金櫻子】甘, 夢遺精滑,
禁止遺尿, 寸白蟲殺.
- 【금앵자】는 성미가 달며 자면서 정(精)이 줄줄 새는 증상을 치료한다.
유노를 멎게 하며 촌백충을 죽인다.

固陰養陰之佳品, 人之忽之亦久矣, 咸宜珍之. 《景岳》

음(陰)을 굳세게 하며 음을 길러주는 좋은 물건이나 사람들이 소홀이 여긴지
오래되었으니 모두 귀하게 여겨야 한다. 《경악전서》

郁李仁

육리인

- 郁李仁酸, 破血潤燥,

消腫利便, 關格通導.

- 옥리인은 성미가 시며 어혈을 깨뜨리고 마른 것을 자윤시켜 준다.

부종을 없애며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또한 관격이 잘 통하도록 인도한다.

入脾經氣分. 蜜浸陰乾. 《本草》

비경(脾經)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꿀에 담가두었다가 그늘에 말린다.

女貞實 冬青

여정실 동청

- 女貞實苦, 黑髮烏鬚,

强筋壯力, 去風補虛.

- 여정실은 성미가 쓰며 수염과 머리를 검게 한다.

힘줄을 강하게 하고 힘을 길러주며 풍(風)을 제거하고 허를 보한다.

一名冬青.

○性平.

○乃少陰之精, 故冬不落葉, 其益腎之功, 可推. 《本草》¹⁰

동청(冬青)이라고도 한다.

○성질이 평하다.

○소음(少陰)의 정수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신

(腎)을 보익하는 효능이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본초강목》

五加皮 닳둘흙

오가피 닳두릅

- 五加皮寒, 祛痛風痺,
健步堅筋, 益精止瀝.
- 오가피는 성미가 차며 풍비(風痺)로 아픈 증상을 없앤다.
걸음걸이를 힘차게 하고 힘줄을 튼튼하게 하고 정(精)을 채워주고 소변을 찝끔
거리는 증상을 멎게 한다.

닳둘흙. ◦性溫.

◦惡玄參、蛇皮.

◦應五車星精而生, 故葉五出. 《本草》

닳두릅. ◦성질이 따뜻하다.

◦현삼、사피(蛇皮)와 상오약이다.

◦오거성(五車星)의 정수에 응하여 자라기 때문에 잎이 5개가 난다. 《본초강
목》

枸杞子 구기조 여름

구기자 구기자 열매

- 枸杞甘溫, 添精固體,
明目祛風, 陰興陽起.
- 구기자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정(精)을 채우고 몸을 튼튼하게 한다.

눈을 밝게 하고 풍을 없애며 음(陰)을 흥기시키고 양(陽)을 일으킨다.

구기조 여름. 忌鐵.

○酒潤搗.

구기자 열매. 철기 사용을 금한다.

○술로 축축하게 적셔서 찢는다.

地骨皮 구기나모불휘

지골피 구기자나무 뿌리

- 地骨皮寒, 解肌退熱,

有汗骨蒸¹¹, 强陰凉血.

- 지골피는 성질이 차며 해기시키고 열을 내려준다.

골증열로 땀이 나는 것을 멎게 하고 음경을 강하게 하며 혈을 식혀준다.

구기나모불휘. ○入足少陰手少陽.

○制雄黃、丹砂, 忌鐵.

○甘草水浸製. 《本草》¹²

구기자나무 뿌리. ○족소음경、수소양경에 들어간다.

○웅황、단사의 약성을 억제하고 철기 사용을 금한다.

○감초 달인 물에 담가서 법제한다. 《본초강목》

蔓荊子 승범실

만형자 승범실

- 蔓荊味苦, 頭痛能醫,

拘攣濕痺¹³, 淚眼堪除.

- 만형자는 성미가 쓰며 두통을 잘 치료한다.

경련으로 오그라드는 증상과 습비(濕痺), 눈물이 나는 증상을 없앨 수 있다.

승범실. ◦微寒.

◦入太陽.

◦酒蒸.

◦去白蟲、長蟲¹⁴. 胃虛人, 不可服. 恐生痰. 《本草》

승범실. ◦성질이 약간 차다.

◦태양경에 들어간다.

◦술에 찌서 쓴다.

◦촌백충、회충을 없애준다. 위(胃)가 허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되니 담이 생길

우려가 있다. 《본초강목》

牧丹 모란꽃불휘

목단 모란꽃뿌리

- 牧丹苦寒, 破血通經¹⁵,

血分有熱, 無汗骨蒸.

- 목단은 성미가 쓰고 차며 어혈을 깨뜨리고 경맥을 잘 통하게 한다.

혈분에 열이 나는 것과 골증열에 땀이 나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모란꽃불휘. ◦入足太陰, 手厥陰.

◦白補, 赤利.

◦治無汗之骨蒸.

◦畏貝母、大黃、兔絲子, 伏砒, 忌蒜及鐵. 《本草》¹⁶

모란꽃뿌리. ◦족태음경、수궐음경에 들어간다.

◦흰 꽃이 피는 것은 보해주고 붉은 꽃이 피는 것은 잘 통하게 한다.

◦골증열인데 땀이 나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패모、대황、토사자와 상외약이다. 비상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마늘과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密蒙花

밀몽화

- 【密蒙花】甘, 主能明目,

虛翳青盲, 服之效速.

- 【밀몽화】는 성미가 달며 주로 눈을 밝게 한다.

허예(虛翳), 청맹에 복용하면 효능이 빠르다.

酒浸蜜拌蒸. 《本草》

술에 담가두었다가 꿀에 반죽하여 찌서 쓴다. 《본초강목》

〔増〕【寶豆】

〔증보〕【보두】

- 〔増〕【寶豆】溫毒, 蛔痛喉痺,
糝刀蟲傷, 竝治瘡痢.
- 〔증보〕【보두】는 성미가 따뜻하고 독성이 있으며 회충으로 배가 아픈 것과 후비
(喉痺)를 치료한다.
칼에 베었거나 벌레 물린 상처에 뿌려주며 아울러 학질과 이질을 낫게 한다.

壯者二三分, 老弱一分或一二里而止, 孕婦忌服. 俗方

장성한 사람에게는 2 - 3푼 쓰고, 노약자에게는 1푼이나 1 - 2리까지만 쓴다.

임신부는 복용을 금한다. 속방

1. 解金石燥：治服金石發熱口渴, ※《본초강목》↩

2. 清除熱渴：發熱口渴 ※《본초강목》↩

3. 染鬚髮皓：以染白髮如漆《본초강목》↩

4. 箕星之精：桑乃箕星之精, 能助藥力 ※《본초강목》↩

5. 洗目病：每以一合, 於瓷器內煎減二分, 傾出澄清, 溫熱洗目 ※《본초강목》

淋汁：以桑柴灰熱湯淋取汁 ※《본초강목》↩

6. 冲牆倒壁：震亨曰, 枳實瀉痰, 能冲牆倒壁, 滑竅破氣之藥也. ※《본초강목》

↩

7. : 枳殼主高主氣, 枳實主下主血. : 枳殼主高, 枳實主下, 高者主氣, 下者主血

※《본초강목》↩

8. : 胃痛火 : 胃脘火痛 ※《본초강목》↩

9. 斂汗祛煩 : 虛汗煩渴 ※《본초강목》↩

10. : 乃少陰之精, 故冬不落葉 : 《典術》云, 女貞木乃少陰之精, 故冬不落葉

※《본초강목》↩

11. 有汗骨蒸 : 汗之骨蒸 ※《본초강목》

强陰 : 强盛陰道也 ※《본초강목》↩

12. : 甘草水浸製. : 以熟甘草湯浸一宿. ※《본초강목》↩

13. 拘攣濕痺 : 濕痺拘攣 ※《본초강목》↩

14. 長蟲 : 經曰, 蛔者, 長蟲也 ※《동의보감》↩

15. 破血通經 : 通關腠血脈, 排膿, 消撲損瘀血 ※《본초강목》↩

16. : 時珍曰, 牡丹皮.....赤花者利, 白花者補. ※《본초강목》↩

寓木 元五

나무에 기생하는 것 원방 5종

茯苓

복령

- 茯苓味淡, 滲濕利竅¹,
白化痰涎, 赤通水道.
- 복령은 성미가 담담하며 습을 스며나가게 하여 9규를 통하게 한다.
백복령은 담연(痰涎)을 녹이고 적복령은 소변을 통하게 한다.

白入壬癸手太陰足太陰氣分, 赤入丙丁足太陰手少陰太陽氣分.

○去皮, 爲末, 水飛, 去膜晒乾.

○惡白斂, 畏地榆、雄黃、秦艽、龜甲, 忌米醋酸物.

○{ 皮 } 治水腫, 開水道. 《本草》

백복령은 임일(壬日)과 계일(癸日)에 왕성해지는 수태음경·족태음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가고 적복령은 병일(丙日)과 정일(丁日)에 왕성해지는 족태음경·수소음경·수태양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껍질을 벗기고 가루 내어 수비(水飛)한 후 막을 제거하고 볶에 찌어 말린다.

○백렴과 상오약이고 지유·웅황·진교·구갑과 상외약이다. 쌀식초·신 것을 금한다.

○ { 겹질 } 수종(水腫)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본초강목》

茯神 神木, 心木, 黃松節

복신 신목, 심목, 황송절

- 茯神補心, 善鎮驚悸,
恍惚健忘, 兼除怒恚.
- 복신은 심(心)을 보하며 놀라서 두근거리는 증상을 잘 진정시킨다.
넋이 나간 증상과 건망을 치료하고 겸하여 쉽게 화를 내는 성질을 없애준다.

{ 神木 } 卽心木. 名黃松節, 治偏風脚氣筋攣. 《本草》

{ 신목 } 곧 심목(心木)이다. 황송절(黃松節)이라고도 한다. 편풍(偏風), 각기, 근이 당기는 증상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琥珀

호박

- 【琥珀】味甘, 安魂定魄,
破瘀消癥, 利水通澀.
- 【호박】은 성미가 달며 혼백을 안정시킨다.
어혈을 풀어주고 징가를 없애며 수기를 매끄럽게 하여 뇨삽을 통하게 한다.

吸草芥者眞. 《本草》

초개(草芥, 호박에 달라 붙은 겨자씨)가 붙어 있는 것이 진품이다. 《본초강목》

豬苓

저령

- 【豬苓】味淡, 利水通淋,
消腫除濕, 多服損腎.
- 【저령】은 성미가 담담하며 수기를 잘 통하게하여 소변이 방울져 나오는 것을
치료한다.
부종을 없애고 습을 제거하나 많이 먹으면 신(腎)을 손상시킨다.

入足太陽少陰.

○忌鐵. 《本草》

족태양경、족소음경에 들어간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雷丸】

【뇌환】

- 【雷丸】味苦, 善殺諸蟲,
癰癤蠱毒, 治兒有功.
- 【뇌환】은 성미가 쓰며 여러 충을 잘 죽인다.

전간、고독을 낮게 하며 소아의 병을 치료하는 데 효능이 있다.

小毒.

○甘草水蒸, 或炮.

○忌鐵, 惡葛根. 《本草》

독성이 조금 있다.

○감초를 우려낸 물로 찌거나 습지에 싸서 굽는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갈근과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1. 滲濕利竅：瀉心小腸膀胱濕熱，利竅行水. ※《본초강목》←

苞木 元四衆一

대나무 원방 4종, 제중방 1종

竹葉

죽엽

- 竹葉味甘, 退熱安眠,
化痰定喘, 止渴消煩.
- 죽엽은 성미가 달며 열을 내리고 수면을 안정시킨다.
담을 녹이고 호흡이 가쁜 증상을 안정시키며 갈증을 멎게 하고 번조를 없애준다.

竹瀝

죽력

- 竹瀝味甘, 除虛痰火,
汗熱渴煩, 效如開鎖.¹
- 죽력은 성미가 달며 허증의 담화(痰火)를 제거한다.
땀이 나는 증상, 열증, 소갈, 번민에 효능이 열쇠처럼 들어 맞는다.

薑汁爲使. 《本草》

생강즙을 사약(使藥)으로 삼는다. 《본초강목》

竹茹

죽여

- 竹茹止嘔, 能除寒痰,
胃熱欬噦, 不寐安歇.
- 죽여는 구역을 멎게 하고 한담(寒痰)을 제거한다.
위열(胃熱)로 딸꾹질이 나는 것을 치료하며 불면증을 안정시켜 쉬게 한다.

卽竹上青皮, 刮下用. 《本草》

곧, 대나무 겉의 푸른 껍질이니, 긁어내서 쓴다. 《본초강목》

〔衆〕竹筍, 죽순

〔제증방〕죽순

- 〔衆〕竹筍甘寒, 利水消渴,
除煩益氣, 多食發冷.²
- 〔제증방〕죽순은 성미가 달고 차며 수기를 잘 통하게 하고 소갈을 치료한다.
번조를 없애고 기를 보익하나 지나치게 먹으면 냉증이 생긴다.

죽순. ○ { 仙人杖 } 筍欲成竹時立死, 色黑如漆, 五六月收. 治小兒吐乳, 大人吐食.

《本草》

죽순. ◦ { 선인장 } 죽순은 대나무가 되는 시기에 바로 죽어서 색이 옅처럼 검게 변한 것이다. 5 - 6월에 채취한 것은 소아가 젖을 토하거나 어른이 먹은 것을 토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天竺黃

천축황

- 【天竺黃】甘, 急慢驚風, 鎮心解熱, 驅邪有功.
- 【천축황】은 성미가 달며 급경풍과 만경풍을 치료한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열을 내리며 사기를 몰아내는 효능이 있다.

¹. : 竹瀝味甘, 除虛痰火 : 養血清痰, 風痰虛痰在胸膈. ※《본초강목》

胸中大熱, 止煩悶, 消渴, 勞復.〔別錄〕中風失音不語, 養血清痰, 風痰虛痰在胸膈, 使人癲狂 ※《본초강목》↩

². : 消渴, 利水道, 益氣, 可久食. ※《본초강목》↩

葷辛菜 元十衆三增三

매운 향이 나는 채소 원방 10종, 제증방 3종, 증보 3종

韭菜 부치

구채 부추

- 韭味辛溫, 祛除胃熱,
汁清血瘀¹, 子醫夢泄.
- 구채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위열(胃熱)을 제거한다.
구채 맑은즙은 어혈을 풀어주고 구채 씨는 몽설(夢泄)을 치료한다.

부치. ◦反蜜.

◦久服, 不利病人. 《本草》

◦今人多以韭炒牛肉, 其味甚佳, 未見作害. 《備要》²

부추. ◦꿀과 상반약이다.

◦병이 있는 사람이 오래 먹으면 좋지 않다. 《본초강목》

◦요즘 사람들은 소고기를 구울 때 부추를 같이 먹으나 그 맛은 매우 좋으나 해
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본초비요》

[增]韭子 부치씨

[증보]구자 부추씨

- 〔增〕韭子甘溫, 小便不禁,

腰膝³夢泄, 女人白淫.

- 〔증보〕구자(韭子)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요실금을 치료한다.

허리와 무릎을 치료하고 몽설과 여성의 백음증(白淫症)을 낮게 한다.

부치씨. ◦入厥陰及命門.

◦炒黃.

◦伏鍾乳乳香. 《本草》

부추씨. ◦궤음경의 명문(命門)에 들어간다.

◦누렇게 볶아서 쓴다.

◦종유석、유향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본초강목》

蔥白 파 흰빛

총백 파 흰빛

- 蔥白辛溫, 發表出汗,

傷寒頭疼, 腫痛皆散.⁴⁵

- 총백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표증을 발산시켜 땀이 나게 한다.

상한(傷寒)으로 머리가 아픈 증상과 붓고 아픈 증상을 모두 흩어준다.

파흰빛. ◦入足太陰陽明.

◦合棗食, 令人病, 合犬雉食, 令人病血. 服地黃、常山, 忌食蔥及蜜, 解魚肉毒.

◦{ 鬚 } 主通氣. 《本草》

파 흰밀. ◦족태음경, 족양명경에 들어간다.

◦대추와 함께 쓰면 병이 생기고 개고기, 꿩고기와 함께 먹으면 혈병이 생긴다. 지황(地黃)、상산을 먹을 때는 총백과 꿀을 금한다. 생선독, 고기독을 해독한다.

◦ { 파뿌리 } 기를 통하게 한다. 《본초강목》

大蒜 마늘

대산 마늘

- 大蒜辛溫, 化肉消穀
解毒散癰, 多用傷目.
- 대산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고기와 곡식을 소화시킨다.
해독 작용을 하며 응(癰)을 흩어주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눈을 손상시킨다.

마늘. ◦獨子者入藥. 《本草》

마늘. ◦외톨마늘을 약에 넣어 쓴다. 《본초강목》

[增] 薤白 평지

[증보] 운대 평지

- [增] 薤白辛溫, 丹腫甚良,
乳癰破癥, 久食損傷.
- [증보] 운대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단독으로 부은 것을 매우 잘 치료한다.
유옹(乳癰)을 치료하고 징가를 깨뜨리나 오래 먹으면 몸이 손상된다.

평지.

평지.

〔衆〕菘菜 白菜

〔제증방〕송채 백채

- 〔衆〕菘菜甘涼, 胸熱利腸,
消食下氣, 解酒止渴.⁶
- 〔제증방〕송채는 성미가 달고 서늘하며 가슴의 열을 내리고 장(腸)을 잘 통하게 한다.
먹은 것을 소화시키고 기를 내려주며 주독을 풀어주고 갈증을 멎게 한다.

一名白菜.

○微毒.

○多食發皮風冷, 有足疾者, 忌之, 多食以生薑解之.

○{ 子油 } 長髮, 塗劍不銹⁷. 《本草》⁸

백채(白菜)라고도 한다.

○독성이 약간 있다.

○많이 먹으면 피부에 풍냉(風冷)을 발생시키며 발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복용을 금한다. 많이 먹었을 때는 생강으로 해독한다.

○{ 배추씨기름 } 머리를 자라게 하고 칼에 발라두면 녹이 슬지 않는다. 《본초강목》

芥菜 계즈

개채 겨자

- 芥菜味辛, 除邪通鼻,
能利九竅, 多食通氣.⁹
- 개채는 성미가 매우며 사기를 제거하고 코가 막힌 것을 뚫어준다.
9규를 매끄럽게 하며 많이 먹으면 기가 새어나간다.

계즈. ◦痔疾便血忌之. 同鯽魚食, 發水腫. 《本草》

겨자. ◦치질이나 혈변이 있을 때는 복용을 금한다. 즉어와 함께 먹으면 수종(水腫)이 생긴다. 《본초강목》

白芥子

백개자

- 【白芥子】辛, 專化蠱痰¹⁰,
瘡蒸痞塊, 服之能安.
- 【백개자】는 성미가 매우며 옆구리에 생긴 담을 전문으로 녹인다.
학질, 골증열, 비괴에 복용하면 편안해진다.

入肺.

◦微炒. 《本草》

폐경(肺經)에 들어간다.

○약간 볶아서 쓴다. 《본초강목》

〔衆〕蔓菁 쏏무우

〔제중방〕만청 쏏무우

- 〔衆〕蔓菁甘溫, 通利五臟,
消食下氣, 益氣治疸.
- 〔제중방〕만청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오장을 매끄럽게 통하게 한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내려주고 복돋우며 황달을 치료한다.

쏏무우. ○性冷而云溫, 恐誤. 《本草》

쏏무우. ○성질이 냉하며 따뜻하다고도 하나 아마 오류인 듯하다. 《본초강목》

〔増〕蔓菁子 쏏무우씨

〔증보〕만청자 쏏무우씨

- 〔増〕蔓菁子平, 明目治瘰¹¹,
能利水便, 腹脹霍亂.
- 〔증보〕만청자는 성질이 평하며 눈을 밝게 하고 황달(瘰)을 치료한다.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복창과 괄란을 낫게 한다.

쏏무우씨. ○蜘蛛咬, 爲末酒服.

○{ 油 } 點燈, 甚明而損目. 《本草》

순무우씨. ◦거미에게 물렸을 때는 가루 내어 술에 타서 먹는다.

◦ { 순무우씨기름 } 으로 등불을 켜면 너무 밝아서 시력이 손상된다. 《본초강목》

萊菔根 던무우, 蘿菔

내복근 댄무우, 나복

- 萊菔根甘, 下氣消穀,
痰癖欬嗽, 兼解麵毒.
- 내복근은 성미가 달며 기를 내려주고 음식을 소화시킨다.
담벽(痰癖)과 기침을 치료하며 겸하여 밀가루 독을 해독시킨다.

던무우. ◦一名蘿菔.

◦苦溫, 一云冷. 不可與地黃, 同食令人髮白.

◦生薑制毒, 伏礪砂. 《本草》

댄무우. ◦나복(蘿菔)이라고도 한다.

◦성미가 쓰고 따뜻하다. 냉하다고도 한다. 지황과 함께 쓰지 않아야 하니 함께 먹으면 백발이 된다.

◦생강으로 무독을 억제한다. 요사(礪砂)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본초강목》

萊菔子 던무우씨, 蘿菔子

내복자 댄무우씨, 나복자

- 萊菔子辛, 喘欬下氣,

倒壁衝牆, 脹滿消去.

- 내복자는 성미가 매우며 호흡이 가쁜 증상과 기침을 치료하고 기를 내려준다.

벽을 무너뜨리고 담장을 뚫듯이 창만을 제거한다.

단무우씨. 卽蘿菔子.

단무우씨. 곧 나복자이다.

生薑 **싱강**

생강

- 生薑性溫, 通暢神明,

痰嗽嘔吐, 開胃極靈.

- 생강은 성미가 따뜻하며 신명을 잘 통하게 한다.

가래, 기침, 구토를 낫게 하며 위(胃)를 열어주는 매우 영험한 약이다.

싱강. ◦要熱去皮, 要冷留皮.

◦秦椒爲使, 殺半夏、狼毒, 惡黃芩、黃連. 《本草》

생강. ◦열을 내게 하려면 껍질을 벗겨서 쓰고, 차게 하는 효과를 내려면 껍질

째 쓴다.

◦진초(秦椒)를 사약으로 삼는다. 반하독, 낭독을 없애 준다. 황금, 황련과 상

오약이다. 《본초강목》

乾薑

건강

- 乾薑味辛, 表解風寒,
炮苦逐冷¹², 虛熱尤堪.
- 건강은 성미가 매우며 풍사·한사를 해표시킨다.
습지에 싸서 구운 것은 성미가 써지고 냉기를 몰아낸다. 건강은 허열(虛熱)에는
더욱 적당하다.

心脾氣分藥, 入肺開胃.

- 多用耗氣. 《本草》
- 見火則止而不移, 所以能治裏寒. 《丹心》¹³

심경(心經)·비경(脾經)의 기분에 들어가는 이다. 폐경(肺經)에 들어가 위(胃)를 열어준다.

- 많이 쓰면 기를 소모시킨다. 《본초강목》
- 불에 찌면 약성이 한곳에 머물면서 옮겨가지 않게 되어 속이 찬 것을 치료한다. 《단계심법》

胡荽 고시

호유 교수

- 胡荽味辛, 上止頭疼,
內消穀食, 痘疹發生.

- 호유는 성미가 매우며 위로는 두통을 멎게 한다.

안으로는 곡식을 소화시키시고 두진을 잘 올라오게 한다.

고시. ◦ { 子 } 亦發痘瘡. 《本草》

고수. ◦ { 열매 } 고수씨도 두창을 잘 올라오게 한다. 《본초강목》

[衆]水芹 마나리

[제증방]수근 미나리

- [衆]水芹甘平, 養神益精, 肥健止煩, 利大小腸.¹⁴
- [제증방]수근은 성미가 달고 평하며 정신을 길러주며 정(精)을 채워준다. 살찌고 튼튼하게 하며 번조를 멎게 하고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해준다.

미나리. ◦ { 汁 } 去伏熱, 殺石藥毒. 治尿血淋痛黃病. 《本草》

미나리. ◦ { 즙 } 잠복해 있는 열을 제거하고 광물성 약의 독성을 없애준다. 요혈(尿血), 임병으로 인한 통증, 황달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1. 汁清血瘀：搗汁澄清，和童尿飲之，能消散胃脘瘀血，甚效 ※《본초강목》↩

2. : 今人多以韭炒牛肉，其味甚佳，未見作害。：不可與蜜及牛肉同食. ※《본초강목》↩

3. 腰膝：暖腰膝 ※《본초강목》↩

4. 傷寒頭疼, 腫痛皆散. : 治傷寒寒熱, 中風面目浮腫.....治傷寒頭痛 ※본초강
목 ←

5. : 傷寒頭疼, 腫痛皆散. : 治傷寒寒熱, 中風面目浮腫.....治傷寒頭痛 ※본초
강목 ←

6. : 通利腸胃, 除胸中煩, 解酒渴. 別錄 消食下氣, ※《본초강목》←

7. 綉 縮 ※《본초강목》←

8. : 訖曰, 發風冷內虛人不可食.....瑞曰, 夏至前食, 發氣動疾. 有足疾者忌之.
※《본초강목》←

9. : 多食通氣. : 多食昏目動火, 泄氣傷精. ※《본초강목》←

10. 脅痰 : 痰在脅下及皮裏膜外, 非白芥子莫能達. ※《본초강목》←

11. 治瘰 : 療黃膽 ※《본초강목》

明目別錄 療黃膽, 利小便. 水煮汁服, 主癥瘕積聚. 少少飲汁, 治霍亂心腹脹.
※《본초강목》←

12. 炮苦逐冷 : 乾薑生辛炮苦, 陽也. 生則逐寒邪而發表, 炮則除胃冷而守中.
※《본초강목》

乾薑入肺中利肺氣, 入腎中燥下濕, 入肝經引血藥生血, 同補陰藥亦能引血藥
入氣分生血, 故血虛發熱、產後大熱者用之. ※《본초강목》←

13. : 乾薑本辛, 炮之稍苦, 故止而不移, 所以能治裏寒 ※《본초강목》←

14. : 止血養精, 保血脈, 益氣, 令人肥健嗜食. ※《본초강목》←



柔滑菜 衆五増五

임채소 제중방 5종, 증보 5종

[増]薺菜 낭이

[증보]제채 냉이

- [増]薺菜甘溫, 明目可試,
利臟和中, 燒灰治病.¹
- [증보]제채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눈을 밝게 할 때 쓴다.
오장을 잘 통하게 하여 속을 조화롭게 하며 제채를 태운 재는 이질을 치료한다.

낭이. ◦凌冬不死, 煮粥食, 能引血歸肝. 《本草》

냉이. ◦겨울을 나도 죽지 않는다. 삶아서 죽을 쑀어 먹으면 혈을 이끌어 간(肝)으로 돌아가게 한다. 《본초강목》

[増]菰²子 낭이씨

[증보]석명자 냉이씨

- [増]菰³子溫, 補氣益精,
去腎解熱, 淚陰⁴目明.
- [증보]석명자는 성미가 따뜻하며 기를 보하고 정(精)을 채워준다.
예막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눈물을 제거하고 눈을 밝게 한다.

냉이씨. ◦得蔓荊、細辛良, 惡乾薑. 《本草》

냉이씨. ◦만형、세신과 함께 쓰면 좋다. 건강과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增]蓴菜 순치

[증보]순채

- [增]蓴菜性冷, 冷而能補,
解百藥毒, 渴疸⁵亦主.
- 순채는 성질이 냉하나 냉하면서도 몸을 잘 보해준다.
온갖 약독을 풀어주고 소갈, 황달 또한 치료한다.

순치.

순채.

[衆]苜蓿 거어목

[제증방]목숙 고여목

- [衆]苜蓿性凉, 脾胃邪氣,
熱毒黃疸, 利大小腸.
- [제증방]목숙은 성미가 서늘하며 비위(脾胃)의 사기를 흩어준다.
열독, 황달을 치료하고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한다.

거어목, 多食, 冷氣入筋. 《本草》

고여목. 많이 먹으면 냉기가 근(筋) 속으로 들어간다.

[增]馬齒莧 쇠비름

[증보]마치현 쇠비름

- [增]馬齒莧寒, 腫消淋通,
止渴⁶ 治痢, 解毒殺蟲.
- [증보]마치현은 성미가 차며 부종을 없애고 소변이 방울지는 것을 잘 통하게 한다.
소갈을 멎게 하고 이질을 치료하며 해독하고 충을 죽인다.

쇠비름.

쇠비름.

[衆]萵苣 상취

[제중방]와거 상추

- [衆]萵苣苦冷, 通利五臟,
胸膈壅氣, 多食患冷.
- [제중방]와거는 성미가 쓰고 차며 오장을 잘 통하게 한다.
흉격에 기가 뭉친 것을 풀어주지만 많이 먹으면 냉증이 생긴다.

상취. { 子 } 主下乳, 通小便. 《本草》

상추. { 씨 } 젖이 잘 나오게 하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본초강목》

〔衆〕蕨菜 고소리

〔제중방〕괘채 고사리

- 〔衆〕蕨菜甘寒, 利水暴熱⁷,
不可久食, 消陽脚弱.
- 〔제중방〕괘채는 성미가 달고 차며 수도를 잘 통하게 하고 갑작스런 열을 내려 준다.
오래 먹으면 안되니 양기가 줄어들어 다리가 약해진다.

고소리.

고사리.

〔衆〕芋子 土卵

〔제중방〕우자 토란

- 〔衆〕芋子辛平, 寬腸充肌,
補益破血, 葉主止瀉.
- 〔제중방〕우자(芋子)는 성미가 맵고 평하며 장(腸)을 통하게 하고 살찌게 한다.
몸을 보익하고 어혈을 풀어주며 잎은 주로 설사를 멎게 한다.

小毒.

○一名土卵.

○解諸藥毒. 《本草》

독성이 조금 있다.

○토란(土卵)이라고도 한다.

○여러 약독을 해독한다. 《본초강목》

〔衆〕甘藷

〔제중방〕감저

- 〔衆〕甘藷甘平, 强腎健脾,
補虛益氣, 代食不飢.
- 〔제중방〕감저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신(腎)을 강하게 하고 비(脾)를 튼튼하게 한다.
허를 보하며 기를 더해주며 음식을 대신하여 굶주리지 않게 한다.

功同山藥.

○海中之人不食五穀, 食此多壽. 《本草》

산약과 효능이 같다.

○바다 가운데 사는 섬사람들은 오곡을 먹지 않고 이것을 먹어서 오래 산다.

《본초강목》

〔増〕冬葵子 아욱씨, 露葵

〔증보〕동규자 아욱씨, 노규

- 〔増〕冬葵子寒, 治瘰⁸ 即安,
滑胎易産, 善通乳難.

- 〔증보〕동규자는 성미가 차며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태(胎)를 매끄럽게 하여 출산을 쉽게 하며 젖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잘 통하게 한다.

아욱씨. ○一名露葵.

○{葉}脾之菜也. 宜脾利胃, 霜後不可食, 動痰. 《本草》

아욱씨. ○노규(露葵)라고도 한다.

○{잎}비(脾)의 채소로 비(脾)와 위(胃)를 이롭게 한다. 서리가 내린 후에는 먹지 않아야 하니 담이 생긴다. 《본초강목》

1. 利肝和中. 利五臟.....根、葉燒灰, 治赤白痢極效. ※《본초강목》↩

2. 荇: 荇 ※《본초강목》↩

3. 荇: 荇 ※《본초강목》↩

4. 淚除: 淚眼堪除 ※《본초강목》↩

5. 渴疸: 消渴熱痺.....治熱疸. ※《본초강목》↩

6. 止渴: 止消渴 ※《본초강목》↩

7. 利水暴熱: 去暴熱, 利水道 ※《본초강목》↩

8. 治癰: 治五癰 ※《본초강목》↩



茄菜 衆四

오이과 채소 제중방 4종

〔衆〕茄子 가지

〔제중방〕가자 가지

- 〔衆〕茄子甘寒, 傳尸勞氣,
五臟虛勞, 多食動氣.
- 〔제중방〕가자는 성미가 달고 차며 전시(傳尸)와 노채를 치료한다.
오장의 허로를 치료하나 많이 먹으면 기병(氣病)이 생긴다.

가지. ◦多食動氣, 女人傷子宮. 《本草》

가지. ◦많이 먹으면 기병(氣病)이 생기고 여성은 자궁을 상하게 된다. 《본초강
목》

〔衆〕冬瓜 동화

〔제중방〕동과 동아

- 〔衆〕冬瓜甘寒, 消渴積熱,
利大小腸, 壓丹石毒
- 〔제중방〕동과는 성미가 달고 차며 소갈과 쌓인 열을 풀어준다.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하고 단석(丹石)의 독을 억제한다.

동화. ◦冷者食之瘦. 《本草》

동아. 냉증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몸이 야윈다. 《본초강목》

〔衆〕南瓜 호박

〔제증방〕남과 호박

- 〔衆〕南瓜甘溫, 補中益氣,
羊肉同食, 令人氣壅.
- 〔제증방〕남과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속을 보하고 기를 북돋운다.
양고기와 함께 먹으면 기를 막히게 한다.

호박. ◦同猪肉食良, 亦可蜜煎. 多食發脚氣、黃疸. 《本草》

호박.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다. 꿀에 축여 달여 먹어도 또한 괜찮다. 많이 먹으면 각기병과 황달이 생긴다. 《본초강목》

〔衆〕胡瓜 외

〔제증방〕호과 오이

- 〔衆〕胡瓜甘寒, 不可多食,
能動寒熱, 又發瘧疾.
- 〔제증방〕호과는 성미가 달고 차며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하니
한열이나 학질이 생길 수도 있다.

외. ◦多食, 動氣瘧痢. 《本草》

오이. 많이 먹으면 기병을 동하고 학질과 이질이 생긴다. 《본초강목》



芝栢 增二

버섯 증보 2종

〔增〕松耳

〔증보〕송이

- 〔增〕松耳味香, 食進胃實,
益氣止瀉, 耳中第一.¹
- 〔증보〕송이는 성미가 향기로우며 식욕을 돋우고 위(胃)를 실하게 한다.
기를 북돋우고 설사를 멎게 하며 버섯 중에 제일이다.

〔增〕石耳

〔증보〕석이

- 〔增〕石耳甘平, 久食益色,
令人不飢, 明目益力.
- 〔증보〕석이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오래 먹으면 안색을 좋게 한다.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고 눈을 밝게 하며 힘을 더해준다.

¹.: 耳中第一.: 木茸中第一也 ※《동의보감》↩



五果 元四衆二

오과 원방 4종, 제중방 2종

[衆]李 외얏

[제중방]이 오얏

- [衆]李實味甘, 骨節勞熱,
亦能益氣, 不可多食.
- [제중방]오얏은 성미가 달며 골증노열을 치료한다.
또한 기를 잘 보익하나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외얏. ◦不沈水者, 有毒.

◦不可合蜜食. 《本草》

자두. ◦물에 담가놓지 않은 것은 독성이 있다.

◦꿀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본초강목》

杏仁 솔고씨

행인 살구씨

- 杏仁溫苦, 風痰喘嗽,
大腸氣閉, 便難切要.
- 행인은 성미가 따뜻하고 쓰며 풍담과 호흡이 가쁜 증상을 치료한다.

대장의 기가 막힌 것을 풀어주니 변을 보는 것이 어려울 때 꼭 필요하다.

솔고삐. ○入手太陰.

○去皮尖, 麩炒.

○得火良, 惡黃芩、黃芪、葛根. 殺狗¹, 雙仁殺人. 《本草》

○有火有汗, 童便浸三日. 《入門》

○實小毒, 多食損筋, 產婦尤忌. 《本草》

살구씨. ○수태음경에 들어간다.

○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하고 밀기울과 함께 볶는다.

○불에 익혀서 쓰면 좋다. 황금、황기、갈근과 상오약이다. 개고기의 독을 없애며, 씨가 두개 들어있는 것을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 《본초강목》

○화가 있거나 땀이 나는 사람은 동변에 3일 담갔다가 쓴다. 《의학입문》

○열매는 독성이 약간 있다. 많이 먹으면 근(筋)을 손상시킨다. 임산부는 더욱 금한다. 《본초강목》

烏梅 미화열음

오매 매화열매

- 烏梅酸溫, 收斂肺氣,
止渴生津, 能安瀉痢.
- 오매는 성미가 따뜻하며 폐기(肺氣)를 수렴한다.
갈증을 멎게 하고 진액을 생성하며 설사와 이질을 잘 안정시킨다.

미화열음. ○忌猪肉.

○ { 葉 } 主休息痢霍亂. 《本草》

매화열매. ○돼지고기를 금한다.

○ { 잎 } 주로 휴식리·곽란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桃仁 복숭화씨

도인 복숭아씨

- 桃仁甘寒, 能潤大腸,
通經破瘀, 血瘕堪嘗.²
- 도인은 성미가 달고 차며 대장을 윤활하게 한다.
월경을 통하게 하고 어혈을 깨뜨리며 징가·어혈에 우선적으로 쓸 만하다.

복숭화씨. ○入手足厥陰.

○去皮尖雙仁, 麴炒.

○ { 實 } 有損無益.

○ { 花 } 主殺蟲, 利水.

○ { 葉 } 功同.

○ { 膠 } 下石淋, 破血.

○ { 桃奴 } 卽經霜不落者, 主破血. 《本草》

복숭아 씨. ○수궤음경·족궤음경에 들어간다.

○겉질과 뾰족한 끝, 씨가 두 개 들어있는 것은 제거하고 밀기울과 함께 볶아서 쓴다.

- { 열매 } 해롭고 유익함이 없다.
- { 꽃 } 주로 충을 죽이고 수기를 잘 통하게 한다.
- { 도엽 } 효능이 복숭아꽃과 같다.
- { 도교(桃膠, 복숭아나무 진) } 석림을 치료하고 어혈을 풀어준다.
- { 도노(桃奴) } 는 곧 서리 내린 후에도 매달린 복숭아이다. 주로 어혈을 깨뜨린다. 《본초강목》

栗子 밤

율자 밤

- 〔衆〕栗子鹹溫, 益氣厚腸, 補腎耐飢, 略煨尤良.
- 〔제중방〕밤은 성미가 짜고 따뜻하며 기를 북돋우고 장을 두텁게 한다. 신(腎)을 보해주고 배고픔을 건디게 하며 살짝 잿불에 묻어 구우면 더욱 좋다.

밤. ○乾食補益, 生食發氣, 煮蒸壅氣, 惟煨半熟食, 小兒亦不可多食, 令齒不生, 生則難化, 熟則滯氣隔食生蟲.

○潤沙中藏之, 至夏如初. 《本草》

밤. ○말린 것을 먹으면 보익하고 생것을 먹으면 기를 발산시킨다. 삶거나 찢 것을 먹으면 기를 막으니 반만 익도록 잿불에 묻어 구워서 먹는다. 소아는 또한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하니 치아가 나지 않게 한다. 생것으로 먹으면 소화

가 잘 되지 않는다. 익혀서 먹으면 기를 정체시키고 음식을 막히게 하여 충이 생기게 한다.

◦습한 모래 속에 저장해 두면 여름까지 처음처럼 보관된다. 《본초강목》

大棗

대추

- 大棗味甘, 調和百藥,
益氣養脾, 中滿休嚼.
- 대추는 성미가 달며 온갖 약과 잘 조화된다.
기를 북돋우고 비(脾)를 길러주지만 속이 더부룩할 때는 먹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屬土有火, 助十二經脈.

- 久食損脾助濕, 小兒尤不宜食.
- 生棗脹瘦.
- 皮北向者, 燒灰煎洗目, 昏者復明. 《本草》

토(土)에 속하면서 화(火)의 성질이 있으며 12경맥을 돕는다.

◦오래 먹으면 비(脾)를 손상시키고 습을 생성한다. 소아는 더욱 먹지 않도록 한다.

- { 생대추 } 생대추를 먹으면 몸이 수척해진다.
- { 대추껍질 } 북쪽을 향하여 자라는 대추 껍질을 태운 재를 물에 달여서 눈을 씻어주면 흐려졌던 눈이 다시 밝아진다. 《본초강목》

1. 殺狗 殺狗毒 ※《본초강목》

2. 瘀血血閉, 癥瘕邪氣, ※《본초강목》



山果 元九衆四増四

산과 원방 9종, 제중방 4종, 증보 4종

梨 비

이 배

- 梨味甘酸, 解酒除渴,
止嗽消痰, 善驅煩熱.
- 배는 성미가 달고 시며 술을 해독하고 갈증을 제거한다.
기침을 멎게하고 가래를 녹이며 번열을 잘 몰아낸다.

비. ◦ { 葉 } 主霍亂. 《本草》

비. ◦ { 배잎 } 주로 객란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木瓜

목과

- 木瓜味酸, 濕腫脚氣,
霍亂轉筋, 足膝無力.¹
- 목과는 성미가 시며 습으로 다리가 붓는 증상을 치료한다.
객란, 전근을 낮게 하고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증상을 치료한다.

목과. ◦入手足太陰, 得木之正, 入肝.

◦忌鐵.

◦{ 枝、葉 } 霍亂轉筋煮服. 《本草》

목과. ◦수태음경、족태음경에 들어간다. 목(木)의 정(正)을 얻어 간으로 들어간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 가지、잎 } 주로 꺾란、전근에 삶아서 복용한다. 《본초강목》

山楂 아가위, 棠棣子

산사 아가위, 당구자

• 山楂味甘, 磨消肉食,

療疝催瘡, 消膨健胃.²

• 산사는 성미가 달며 고기와 음식을 소화시킨다.

산증(疝症)을 치료하고 창(瘡)을 없애며 배가 팽만한 증상을 없애고 위를 건강하게 한다.

아가위. ◦一名棠棣子.

◦陳者良.

◦{ 核 } 主化食磨積. 《本草》

아가위. ◦당구자(棠棣子)라고도 한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 씨 } 주로 음식을 소화시키고 적취를 없앤다. 《본초강목》

[増]林檎 임금, 來禽, 文林郎

[증보]임금 임금, 내금, 문림랑

- [増]林檎酸溫, 下氣消痰,
霍亂頭痛, 渴痢可堪.³
- [증보]임금(林檎)은 성미가 시고 따뜻하며 기를 내려주고 담을 녹인다.
곽란, 두통, 소갈, 이질에 쓸 수 있다.

임금. ◦一名來禽. 一名文林郎.

◦多食, 發熱動冷痰.

◦{ 根 } 殺蛔白蟲. 《本草》

임금. ◦내금(來禽), 또는 문림랑(文林郎)이라고도 한다.

◦많이 먹으면 열이 나고 냉담(冷痰)이 생긴다.

◦{ 뿌리 } 회충·촌백충을 죽인다. 《본초강목》

柿子 감

시자 감

- 柿子氣寒, 能潤心肺,
止渴化痰, 澀腸禁痢.
- 시자(柿子, 감)는 성질이 차며 심폐를 윤활하게 한다.
갈증을 멎게 하고 담을 녹이며 장을 잘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이질을 멎게 한다.

감. ◦屬金而有土.

◦烏柿, 火熏乾者, 性溫, 殺蟲止嘔.

◦白柿⁴日乾者, 性冷.

◦{ 霜 } 清上焦, 生津止渴, 咽喉口舌瘡.

◦{ 蒂 } 卽小蒂, 桴楸⁴止咳逆. 《本草》

감. ◦금(金)에 속하면서 토(土)의 성질이 있다.

◦오시(烏柿)는 불로 훈증하여 말린 것으로 성질이 따뜻하며 충을 죽이고 구역을 멎게 한다.

◦백시(白柿)는 햇볕에 말린 것으로 성질이 냉하다.

◦{ 시상(柿霜, 말린 감에 얹은 흰 가루) } 상초의 열을 식히고 진액을 생성하며 갈증을 멎게 한다. 인후, 입, 혀가 허는 증상을 치료한다.

◦{ 시체(柿蒂) } 곧 소체(小蒂), 감꼭지 기침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增]石榴

[증보]석류

- [增]石榴酸溫, 止痢崩帶, 制殺三蟲, 多食損肺.
- [증보]석류는 성미가 시고 따뜻하며 이질, 봉루, 대하를 멎게 한다. 삼시충을 죽이며 많이 먹으면 폐가 손상된다.

{ 皮、根 } 同功.

◦忌鐵. 《本草》

{ 껍질, 뿌리 } 약의 효능이 석류와 같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陳皮 동정굴, 橘皮

진피 동정굴, 굴피

- 陳皮甘溫, 順氣寬膈,
留白和脾, 去白消痰.⁵
- 진피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기를 순조롭게 하고 흉격을 편하게 한다.
굴껍질에 흰 부분을 함께 쓰면 비(脾)를 조화롭게 하고, 흰 부분을 제거하고 굴
홍만 쓰면 담을 삭인다.

동정굴. ○一名橘皮.

○入手足太陰.

○去白, 名橘紅.

○陳者良.

○有白朮補脾胃, 無白朮瀉脾胃, 有甘草補肺, 無甘草瀉肺. 《本草》

○下焦鹽水炒, 肺燥童便炒. 《入門》

○{ 核 } 主疝氣腎冷. 《本草》

○濟州橘、青橘、柚子、柑子, 皆產. 《寶鑑》

동정굴. ○굴피라고도 한다.

○수태음경, 족태음경에 들어간다.

○흰 부분을 제거한 것을 굴홍(橘紅)이라고 한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백출과 같이 쓰면 비위(脾胃)를 보하고 같이 쓰지 않으면 비위를 사한다. 감초와 같이 쓰면 폐를 보하고 같이 쓰지 않으면 폐를 사한다. 《본초강목》

○하초를 치료할 때는 소금물에 축여 볶아서 쓰고, 폐(肺)가 마른 증상에는 동변에 축여 볶아서 쓴다. 《의학입문》

○ { 굴씨 } 주로 산기(疝氣)와 신(腎)의 냉증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제주에서 굴·청굴·유자·감자(柑子, 굴과 열매)가 모두 생산된다. 《동의보감》

靑皮 청굴피

청피 청굴피

- 靑皮苦寒, 能攻氣滯,

剝⁶平肝, 安脾下食.

- 청피는 성미가 쓰고 차며 기체(氣滯)를 잘 열어준다.

단단한 것을 굳은 것을 깎고 간(肝)을 평정하며 비(脾)를 안정시키고 먹은 것을 소화시킨다.

청굴피. ○入肝經氣分及手少陽.

○醋炒. 《本草》

청굴피. ○간경(肝經)의 기분(氣分)과 수소양경에 들어간다.

○식초에 축여 볶아서 쓴다. 《본초강목》

[衆] 柑子 감조

[제중방] 감자(귤과열매)

- [衆] 柑子大寒, 腸胃熱毒,
止渴利溲, 能解酒毒.
- [제중방] 감자(柑子, 귤과 열매)는 성미가 차며 장위(腸胃)의 열독을 치료한다.
갈증을 멎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주독을 잘 해독한다.

감조.

감자.

[衆] 柚子 유조

[제중방] 유자

- [衆] 柚子味甘, 去胃惡氣,
能解酒毒, 橘之大者.
- [제중방] 유자는 성미가 달며 위(胃)의 나쁜 기운을 제거한다.
주독을 잘 해독하니 곧 대귤(大橘)이다.

유조.

유자.

〔衆〕櫻桃 잉도

〔제중방〕앵도

- 〔衆〕櫻桃甘熱, 調中益脾,
能悅顔色, 止水穀痢.
- 〔제중방〕앵도는 성미가 달고 뜨거우며 속을 고르게 하고 비(脾)를 보익한다.
안색을 좋게 하며 수곡리(水穀痢)를 멎게 한다.

잉도. ○經雨則蟲自內生, 水浸良久皆出, 不可多食, 發熱肺癰.

○〔東根〕殺白蟲. 《本草》

앵두. ○비가 내리면 자연히 앵두에 충이 생기고 물에 오래 담가두면 벌레가 나온다. 많이 먹지 않아야 하니 열이 나고 폐옹이 생긴다.

○〔동행근(東行根, 동쪽으로 뻗은 뿌리)〕촌백충을 죽인다. 《본초강목》

白果 은항, 銀杏

백과 은행

- 白菓甘苦, 喘嗽白濁,
點茶壓酒, 不可多嚼.
- 백과는 성미가 달고 쓰며 호흡이 가쁘고 기침하는 증상과 백탁을 치료한다.
차로 우려내어 마시면 술기운을 내려주나 많이 먹지는 말아야 한다..

은항. ○一名銀杏.

○不可多食, 氣壅. 《本草》

은행. ◦은행(銀杏)이라고도 한다.

◦많이 먹으면 안 되니 기가 웅체된다. 《본초강목》

胡桃 호도

호도

- 胡桃肉甘, 補腎黑髮,
多食生痰, 動氣之物.
- 호도는 과육이 달며 신(腎)을 보하고 머리를 검게 한다.
많이 먹으면 담(痰)이 생기니 기(氣)를 동하게 하는 약재이다.

호도. ◦屬土, 有火性.

◦多食, 動風生痰.

◦{ 油 } 有毒, 殺蟲. 《本草》

호도. ◦토(土)에 속하면서 화(火)의 성질이 있다.

◦많이 먹으면 풍이 동하고 담이 생긴다.

◦{ 호도기름 } 독성이 있으며 충을 죽인다. 《본초강목》

〔衆〕榛 지암

〔제중방〕진 개암

- 〔衆〕榛子甘平, 益氣寬腸,
開胃健行, 令人不飢.
- 〔제중방〕진(榛)은 성미가 달고 평하며 기를 북돋우고 장을 편하게 한다.

위(胃)를 열어 걸음걸이를 힘차게 하며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한다.

지암.

개암.

〔増〕【落花生】

〔증보〕【낙화생】

- 〔増〕【落花生】溫, 果中佳宜, 性能潤肺, 香能舒脾.
- 〔증보〕【낙화생】은 성미가 따뜻하며 과일 중에 가장 좋다.

성질이 폐를 잘 자유했으며 향기가 비(脾)를 열어준다.

出閩廣, 藤落地而結實. 《備要》⁷

중국 민광(閩廣)에서 생산되며 덩굴 위의 꽃이 떨어져 땅속에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낙화생(落花生)이라고 한다. 《본초비요》

覆盆子 나모딸기

복분자 나무딸기

- 覆盆子甘, 腎損精竭,
黑鬚明眸, 補虛續絕.
- 복분자는 성미가 달며 신(腎)이 손상되고 정(精)이 메마른 것을 치료한다.
수염을 검게 하고 눈을 밝게 허를 보하고 끊어진 것을 이어준다.

나모뽕기. ◦酒蒸.

◦ { 蓬蘽 } 멧덕뽕기, 功同. 《本草》

나무딸기. ◦술로 찌서 쓴다.

◦ { 봉류 } 멧덕딸기. 복분자와 효능이 같다. 《본초강목》

橡實 상소리

상실 상수리

- [增]橡實微溫, 澁腸止痢,
氣味俱佳, 歉歲可備.
- 상실은 성미가 약간 따뜻하며 장을 수렴하고 이질을 멎게 한다.
약성과 약미가 모두 좋아서 구황으로 대비할 수 있다.

상소리. ◦水浸十五日, 去澁味, 蒸食.

◦ { 榲桲 } 도토리, 功同. 《本草》

상수리. ◦15일 동안 물에 담가 떼은맛을 제거하고 찌서 쓴다.

◦ { 곡실 } 도토리. 상실과 효능이 같다. 《본초강목》

1.: 濕痺脚氣, 霍亂大吐下, 轉筋不止. ※《본초강목》↩

2.: 化飲食, 消肉積癥瘕 ※《본초강목》↩

3.: 消渴者, 宜食之. ※《본초강목》↩

4. 白柿：時珍曰，白柿卽乾柿生霜者. ※《본초강목》

霜：其霜謂之柿霜. ※《본초강목》↩

5. : 凡橘皮入和中理胃藥則留白, 入下氣消痰藥則去白 ※《본초강목》↩

6. 削堅：破堅癖 ※《본초강목》↩

7. 枝上不結實, 其花落地, 卽結實於泥土 ※《본초강목습유》↩



夷果 元二衆二増一

남만 과일 원방 2종, 제중방 2종, 증보 1종

〔衆〕荔枝 레지

〔제중방〕여지

- 〔衆〕【荔枝】甘平, 通神益智,
止渴好顔, 核治疝氣.
- 〔제중방〕【여지】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정신을 통하게 하고 지혜를 길러준다.
갈증을 멎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하며 여지의 씨는 산증(疝症) 치료한다.

레치. ◦【核】入肝治疝. 《本草》

여지. ◦【여지핵】간경(肝經)에 들어가며 산증(疝症)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龍眼】圓眼

【용안】원안

- 【龍眼】味甘, 歸脾益智,
健忘怔忡, 聰明廣記.
- 【용안】은 성미가 달며 비(脾) 제자리로 돌리고 지혜를 더해준다.
건망·정충을 치료하고 총명하게 하며 기억력을 넓혀준다.

一名圓眼.

원안(圓眼)이라고도 한다.

〔増〕【橄欖】

〔증보〕【감람】

- 〔増〕【橄欖】酸溫, 諸毒竝省,
酒毒喉痺, 核主骨哽.
- 〔증보〕【감람】은 성미가 시고 따뜻하며 여러 독을 모두 돌본다.
주독, 후비(喉痺)를 치료하며 감람의 씨는 목에 걸린 뼈를 나오게 한다.

【核】主骨哽.

【씨】주로 목에 뼈가 걸렸을 때 쓴다.

榧實 비즈

비실 비자

- 榧實味甘, 主療五痔,
蟲毒三蟲, 不可多食.
- 비실(榧實, 비자열매)은 성미가 달며 주로 5가지 치병(痔病)을 치료한다.
고독, 삼시충을 치료하나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비즈. ○産濟州.

비자. ○제주에서 생산된다.

〔衆〕海松子

〔제중방〕해송자

- 〔衆〕海松子溫, 主骨節風,
風痺頭眩, 潤膚補虛.
- 〔제중방〕해송자는 성미가 따뜻하며 주로 골절풍을 치료한다.
풍비와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을 치료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허를 보한다.

잣.

잣.

茄果 元二衆五

오이과 과일 원방 2종, 제중방 5종

〔衆〕甜茄 참외

〔제중방〕참과 참외

- 〔衆〕甜瓜甘寒, 止渴除煩¹,
通利三焦, 能利小便.
- 〔제중방〕참과는 성미가 달고 차며 갈증을 멎게하고 번열을 없앤다.
삼초를 통리시키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참외. 〇忌麝香與酒, 消茄勝於鹽水. 《本草》²

참외. 〇사향과 술을 함께 먹는 것을 금하는데 소금이나 물보다 참외의 약성을
더 잘 이긴다. 《본초강목》

茄蒂 참외꼭지

과체 참외꼭지

- 瓜蒂苦寒, 善能吐痰,
消身浮腫, 并治黃疸.
- 과체는 성미가 쓰고 차며 가래를 잘 토하게 한다.
몸의 부종을 없애고 아울러 황달을 치료한다.

참외꼭지. ◦性急損胃. 《本草》

참외꼭지. ◦성질이 급하여 위(胃)를 손상시킨다. 《본초강목》

〔衆〕西茄 슈박

〔제증방〕서과 수박

- 〔衆〕西瓜甘寒, 煩渴暑毒, 寬中下氣, 血痢利溲.³
- 〔제증방〕서과는 성미가 달고 차며 번갈과 서독(暑毒)을 치료한다.
속을 편안하게 하고 기를 내려주며 혈리를 치료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슈박. ◦胃弱者, 不可食. 《本草》

수박. ◦위(胃)가 약한 사람은 쓸 수 없다. 《본초강목》

〔衆〕葡萄 포도

〔제증방〕포도

- 〔衆〕葡萄甘平, 濕痺治淋⁴, 益氣強志, 乾則發痘.
- 〔제증방〕포도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습비를 낮게하고 소변이 방울지는 것을 치료한다.
기를 보익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말려서 쓰면 두창을 잘 올라오게 한다.

포도. ◦多食眼昏.

◦ { 根 } 止嘔噦, 治子懸. 《本草》

포도. ◦많이 먹으면 눈이 흐려진다.

◦ { 뿌리 } 구역과 딸꾹질을 멎게 하고 태기가 위로 치받는 증상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衆] 蔓萆 밧머류, 山葡萄

[衆] 英육 산머루, 산포도

- [衆] 蔓萆味酸, 止渴益氣,
亦堪作酒, 藤通小便.
- [衆] 英육은 성미가 시며 갈증을 멎게 하고 기를 북돋운다.
또한 술로 만드는데 쓸 만하며 덩굴은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밧머류. ◦卽山葡萄.

◦ { 根 } 主熱淋. 《本草》

산머루. ◦즉, 산포도이다.

◦ { 뿌리 } 주로 열림(熱淋)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衆] 獼猴桃 다리

[제중방] 미후도 다래

- [衆] 獼猴桃寒, 止渴解煩⁵,

熱壅反胃, 能下石淋.

- [제중방]미후도는 성질이 차며 갈증을 멎게하고 번조를 해소한다.

열웅, 번위를 치료하고 석림(石淋)을 잘 내려보낸다.

다리.

다래.

砂糖 甘蔗

사당 감자(사탕수수)

- 【砂糖】味甘, 潤肺和中, 多食損齒, 濕熱生蟲.⁶
- 【사당】은 성미가 달며 폐를 윤활하게 하고 속을 조화롭게 한다. 많이 먹으면 치아가 손상되니 습열로 인해 충이 생기는 것이다.

卽甘蔗汁煎成者, 多食生蟲發疳蠱. 《本草》

곤, 감자(甘蔗, 사탕수수) 즙을 끓여서 만든다. 많이 먹으면 충이 생기고 감닉(疳蠱)이 생긴다. 《본초강목》

¹. 止渴除煩, : 止渴, 除煩熱 ※《본초강목》↩

². 瓜最忌麝與酒, 凡食瓜過多, 但飲酒及水服麝香, 尤勝於食鹽・漬水也.

※《본초강목》↩

3. : 寬中下氣, 血痢利溲. : 寬中下氣, 利小水, 治血痢 ※《본초강목》↩

4. 濕痺治淋 : 筋骨濕痺.....調中治淋. ※《본초강목》↩

5. 止渴解煩 : 止暴渴, 解煩熱 ※《본초강목》↩

6. : 濕熱生蟲. : 饴生胃火, 乃濕土生熱, 故能損齒生蟲 ※《본초강목》↩



水果 元三

수과 원방 3종

藕 련순

우 연근

- 藕味甘寒, 解酒清熱,
消煩逐瘀, 止吐衄血.
- 우(藕, 연근)는 성미가 달고 차며 주독을 해독하고 열을 식혀준다.
번조를 없애고 어혈을 몰아내며 토혈과 녹혈을 멎게 한다.

련순. ○ { 節 } 主諸血症.

○ { 藥 } 瀉溫. 清心固精, 治血崩吐血.

○ { 房 } 主破血, 胞衣不下.

○ { 葉 } 主血脹腹痛. 《本草》

연근. ○ { 연근마디 } 여러 혈증(血症)을 치료한다.

○ { 연꽃술 } 성미가 겉고럽고 따뜻하다. 심(心)을 맑게 하며 정(精)을 견고하게 하고 혈붕·토혈을 치료한다.

○ { 우방(藕房) } 주로 어혈을 깨뜨리고 산후 태반이 내려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 { 잎 } 혈창(血脹)으로 배가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蓮肉 련밤

연육 연밥

- 蓮肉味甘, 健脾理胃,
止瀉澀精, 清心養氣.
- 연육은 성미가 달며 비(脾)를 튼튼하게 하고 위(胃)를 잘 다스린다.
설사를 멎게 하고 정(精)이 새는 것을 거두어들이며 심(心)을 맑게 하고 기(氣)
를 길러준다.

련밤. ◦補十二經血脈.

◦水沈者, 謂之石蓮.

◦{ 薏 } 蓮心也, 能治血疾. 《本草》

연밥. ◦12경의 혈맥을 보한다.

◦물에 담가둔 것을 석련(石蓮)이라고 한다.

◦{ 연의(蓮薏) } 연심(蓮心)이다. 혈병(血病)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芡實 거식련밤, 鷄頭實

검실 가시연밥, 鷄頭實

- 芡實味甘, 能益精氣,
腰膝酸疼, 皆主濕痺.
- 검실은 성미가 달며 정기(精)와 기(氣)를 잘 북돋운다.
허리와 무릎이 시고 아픈 증상을 치료하며 모든 습으로 인해 저린 증상을 치료

한다.

거식련밤. ◦一名鷄頭實.

◦小兒多食, 不長. 《本草》

가시연밤. ◦계두실(鷄頭實)이라고도 한다.

◦소아가 많이 먹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본초강목》



麻麥稻 元三衆五増一

깨, 보리, 벼 원방 3종, 제중방 5종, 증보 1종

胡麻仁 검은참씨, 巨勝

호마인 검은참깨, 거승

- 胡麻仁甘, 疔腫惡瘡,
熟補虛損, 筋壯力强.
- 호마인은 성미가 달며 정종(疔腫)과 악창(惡瘡)을 치료한다.
익힌 것은 허손을 보하고 근력을 튼튼하고 강하게 한다.

검은참씨. ◦一名巨勝.

◦{ 葉 } 名青囊, 治風寒濕痺. 《本草》

검은참깨. ◦거승(巨勝)이라고도 한다.

◦{ 잎 } 청양(靑囊)이라고도 한다. 풍, 한, 습으로 인한 비증(痺症)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麻油

마유

- 麻油性冷, 善解諸毒,
百病能除, 功難悉述.

- 마유는 성질이 냉하며 여러 독을 잘 해독한다.

온갖 병을 잘 없애니 효능을 다 기술하기 어렵다.

참기름. ◦麻溫而油寒. 《本草》

참기름. ◦참깨는 성질이 따뜻하나 참기름은 성질이 차다. 《본초강목》

火麻 삼삐, 大麻

화마 삼씨, 대마

- 火麻味甘, 下乳催生,
潤腸通結, 小水能行.
- 화마(火麻)는 성미가 달며 젖이 잘 나오게 하고 출산을 촉진시킨다.
대장을 원활하게 하여 막힌 변을 잘 나오게 하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삼삐. ◦一名大麻.

◦{ 根 } 主瘀血石淋. 《本草》

삼씨. ◦대마(大麻)라고도 한다.

◦{ 뿌리 } 어혈, 석림(石淋)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衆〕小麥 밀

〔제중방〕소맥 밀

- 〔衆〕小麥微寒, 主除煩熱,
止渴利溲, 能養肝氣.¹

- 〔제중방〕소맥은 성미가 약간 차며 주로 번열을 없애준다.

갈증을 없애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간기(肝氣)를 잘 길러준다.

밀. 〇入少陰太陽.

〇麥涼而麵熱.

〇{浮少麥} 밀땀복이, 除熱止汗.

〇{麵} 補氣消癰散血, 忌蘿菔.《本草》

밀. 〇소음경、태양경에 들어간다.

〇밀은 성질이 서늘하나 밀가루는 뜨겁다.

〇{부소맥} 밀감부기 열을 내려주고 땀을 멎게 한다.

〇{밀가루} 기를 보해주고 웅을 없애주며 어혈을 풀어준다. 나복을 금한다.

《본초강목》

〔衆〕大麥 보리, 牟麥

〔제중방〕대맥 보리, 모맥

- 〔衆〕大麥 鹹溫, 益氣調中,

止泄補虛, 久食肥健.

- 〔제중방〕대맥은 성미가 짜고 따뜻하며 기를 북돋우고 속을 조화롭게 한다.

설사를 멎게 하고 허를 보하며 오래 먹으면 살찌고 튼튼해진다.

보리. 〇一名牟麥.

보리. 〇모맥(牟麥)이라고도 한다.

〔衆〕蕎麥 메밀

〔제중방〕교맥 메밀

- 〔衆〕蕎麥甘寒，實腸益氣，
雖動諸病，能鍊五臟。²
- 〔제중방〕교맥은 성미가 달고 차며 장을 실하게 하고 기를 보익한다.
비록 여러 질병을 일으키지만 오장을 잘 정제시킨다.

메밀. 〇久食動風.

〇{麵} 發起諸瘡. 以砂糖水調服，治痢. 炒焦熱湯調服，治絞腸沙.

〇解此毒，用蘿菔搗汁飲，如無，取子研水服. 《本草》

메밀. 〇오래 먹으면 풍증이 생긴다.

〇{메밀가루} 여러 창증(瘡症)을 일으킨다. 설탕(砂糖)물에 타 먹이면 이질을 치료한다. 검게 볶아서 뜨거운 물에 타서 먹으면 교장사(絞腸沙)를 치료한다.

〇메밀 독을 풀려면 나복을 찢어 나온 즙을 마신다. 나복이 없으면 나복씨를 물에 갈아서 먹는다. 《본초강목》

〔衆〕糯米 찹쌀, 稻

〔제중방〕나미 찹쌀, 찰벼

- 〔衆〕糯米甘寒，補中益氣，
能止霍亂，令人多熱.

- [제중방]나미(糯米, 찹쌀)는 달고 차며 속을 보하고 기를 북돋운다.

곽란을 잘 멎게 하며 먹으면 열이 많이 나게 한다.

찹쌀. ○一名稻.

○脾穀.

○壅諸經絡, 四肢不遂, 發風動氣, 不可多食.

○{ 米泔 } 止渴解毒. 《本草》³

찹쌀. ○도(稻)라고도 한다.

○비(脾)의 곡식이다.

○찹쌀은 여러 경락을 막고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하며 풍을 유발하여 기를 동하게 하므로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

○{ 찹쌀뜨물 } 갈증을 멎게 하고 해독작용을 한다. 《본초강목》

[增]粳米 멎쌀

[증보]갯미 멍쌀

- [增]粳米甘平, 和胃溫中,

壯骨益陽⁴, 渴瀉有功.⁵

- [증보]갯미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위(胃)를 조화롭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한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장(腸)을 유익하게 하며 갈증과 설사에 효능이 있다.

멎쌀. ○入手太陰少陰.

○{ 飯 } 乘熱, 付腫毒.

○{ 泔二泔 } 止渴, 利小便. 《本草》

몹쌀. ○수태음경, 수소음경에 들어간다.

○ { 쌀밥 } 밥이 뜨거울 때 종독(腫毒)에 붙여준다.

○ { 석이감(浙二甘, 두번째 일어 낸 쌀뜨물) } 갈증을 멎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본초강목》

[衆]荏子 들씨

[제중방]임자 들깨

- [衆]荏子辛溫, 下氣止嗽, 止渴潤肺, 補精填髓⁶.
- [제중방]임자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기를 내려주고 기침을 멎게 한다. 갈증을 멎게 하고 폐를 윤택하게 하며 정(髓)을 보해주고 골수를 채워준다.

들씨.

들깨.

1. 止煩渴咽燥, 利小便, 養肝氣, 止漏血唾血 ※《본초강목》↩

2. 蕎麥能煉五臟滓穢 ※《본초강목》↩

3. 說曰 涼. 發風動氣, 使人多睡, 不可多食. ※《본초강목》↩

4. 壯骨益陽 ☞ 壯骨益腸 ※《본초강목》↩

5. 渴瀉有功. 止煩止渴止泄. ※《본초강목》↩

6. 補精填髓：填精髓 ※《본초강목》↩



稷粟 元一衆六增一

기장·조 원방 1종, 제중방 6종, 증보 1종

〔衆〕稷米 피쌀, 粢

〔제중방〕직미 피쌀, 자

- 〔衆〕稷米甘冷, 益氣補虛,
壓丹石毒¹, 多食發冷.
- 〔제중방〕직미는 성미가 달고 냉하며 기를 북돋우고 허(虛)를 보한다.
단석독(丹石毒)을 억누르며 지나치게 먹으면 냉증이 생긴다.

피쌀. 一名粢.

○脾穀. 《本草》

피쌀. 자(粢)라고도 한다.

○비(脾)의 곡식이다. 《본초강목》

〔衆〕黍米 기장쌀

〔제중방〕서미 기장쌀

- 〔衆〕黍米甘溫, 益氣補中,
不可久食, 令人多煩.
- 〔제중방〕서미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기를 북돋우고 속을 보해준다.

오래 먹을 수 없으니 사람에게 번조증을 많이 생기게 한다.

기장쌀. ○肺穀. 《本草》

기장쌀. ○폐(肺)의 곡식이다. 《본초강목》

〔増〕玉蜀黍 옥수수

〔증보〕옥촉서 옥수수

- 〔増〕玉蜀黍平, 調中開胃,
藥用根葉, 治淋氣味.
- 〔증보〕옥촉서는 성질이 평하며 속을 조화롭게 하고 위(胃)를 열어준다.
약용으로는 뿌리와 잎을 쓰며 소변이 방울져 나오는 것을 치료하는 약성을 지
녔다.

옥수수.

옥수수.

〔衆〕黃粱 누른 조밥

〔제증방〕황량미 누런 좁쌀

- 〔衆〕黃粱甘平, 益氣和中,
霍亂吐利, 能除煩渴.²
- 〔제증방〕황량미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기를 북돋우고 속을 조화롭게 한다.
곽란, 구토, 설사를 치료하며 번갈을 잘 제거한다.

누른 조밭. ◦勝於靑白梁.

누런 좁쌀. ◦靑梁미(靑梁)와 백梁미(白梁)보다 좋다.

[衆]靑梁 싱동찰

[제증방]靑梁미 생동찹쌀

- [衆]靑梁微寒, 胃痺熱中,
消渴利溲, 能止泄痢.³
- [제증방]靑梁미는 성질이 약간 차며 위비(胃痺)와 열중(熱中)을 치료한다.
소갈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설사와 이질을 잘 멎게 한다.

싱동찰.

생동찹쌀.

[衆]粟米 조밭

[제증방]속미 좁쌀

- [衆]粟米鹹寒, 益氣養腎,
去胃中熱, 能利小便.
- [제증방]속미는 성미가 짜고 차며 기를 북돋우고 신(腎)을 길러준다.
위(胃) 속의 열을 내리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조밭.

좁쌀.

〔衆〕稊葛 슈슈

〔제중방〕출촉 수수

- 〔衆〕稊葛甘溫, 溫中澀腸,
能止霍亂, 粘者同黍.
- 〔제중방〕출촉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속을 따뜻하게 하고 장을 수렴한다.
곽란을 잘 멎게 하며 점성이 기장〔黍〕과 같다.⁴

슈슈. ○功效同黍.

수수. ○효능이 기장〔黍〕과 같다.

薏苡仁 울무벌

의이인 울무쌀

- 薏苡味甘, 專除濕痺,
筋脈拘攣, 肺癰肺痿.
- 의이인은 성미가 달며 습비(濕痺)를 전문적으로 제거한다.
근맥이 당기고 경련이 이는 증상과 폐옹(肺癰), 폐위(肺痿)를 치료한다.

울무벌. ○屬土, 陽明藥.

○利水, 殺蟲, 輕身, 勝瘴氣.

○{ 根 } 下三蟲, 治疸, 墮胎. 《本草》

울무쌀. ㅇ토(土)에 속하며 양명경의 약이다.

ㅇ수기를 잘 통하게 하며 충을 죽이고 몸을 가볍게 하며 산람장기를 억누른다.

ㅇ { 뿌리 } 삼시충을 없애고 황달을 치료하며 유산시킨다. 《본초강목》

1. 壓丹石毒：壓丹石毒發熱 ※《본초강목》 ←

2. : 止霍亂下痢, 利小便, 除煩熱. ※《본초강목》 ←

3. : 青粱米, 味甘微寒無毒. 主胃痺熱中, 除消渴, 止泄利. ※《천금요방》

胃痺熱中消渴, 止泄痢 ※《본초강목》 ←

4. 점성이 기장(黍)과 같다. : 여기서는 기장(黍)과 점성이 같다고 하였지만
《본초강목》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면서 《이아》 손염(孫炎)이 말한
"속(粟)과 점성이 같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

蘇頌《圖經》謂稭爲黍之粘者...皆誤也.....孫炎注《爾雅》謂稭爲粘粟者, 得之.

※《본초강목》 ←

菽豆 元一衆二增一

콩 원방 1종, 제중방 2종, 증보 1종

[衆]大豆 흰콩

[제중방]대두 흰콩

- [衆]大豆甘平, 補臟益中,
調中煖胃, 久服身重.
- [제중방]대두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오장을 돕고 속을 보익한다.
속을 조화롭게 하고 위(胃)를 따뜻하게 하며 오래 먹으면 몸을 무겁게 한다.

흰콩. 生平. 炒熱黑色者, 解百藥毒.

○腎穀.

○小兒, 以炒豆猪肉同食, 必壅氣致死, 十有八九, 十歲以上, 不畏.

○{ 槽豆 } 자근검은콩. 此雄黑豆也. 俗稱쥐눈이콩. 治風痺, 產後冷血. 炒焦熱, 投酒中飲之. 《本草》

흰콩. 성질이 평하다. 검게 되도록 뜨겁게 볶아서 쓰면 온갖 약독을 해독한다.

○신(腎)의 곡식이다.

○소아에게 볶은 콩과 돼지고기를 함께 먹이면 반드시 기가 막혀서 심중팔구 죽게 된다. 10살 이상부터는 같이 먹어도 괜찮다.

○ { 노두(櫛豆) } 작은 검정콩. 이것은 숫검정콩이다. 민간에서는 쥐눈이콩이라고 한다. 풍비(風痺)·산후 냉혈을 치료한다. 검게 되도록 뜨겁게 볶아서 술에 넣어두고 그 술을 마신다. 《본초강목》

[增]大豆黃卷 콩기름순

[증보]대두황권 콩나물순

- [增]大豆黃卷, 筋攣膝痛,
消水脹滿¹, 其功可貢.
- [증보]대두황권은 근의 경련과 무릎의 통증을 치료한다.
수병(水病)으로 배가 창만한 것을 없애니 그 효능이 매우 좋다.

콩기름순.

콩나물 순.

[衆]赤豆 불근 팻

[제중방]적소두 붉은 팻

- [衆]赤豆酸平, 水腫脹滿,
消渴利洩, 排癰膿血.²
- [제중방]적소두는 성미가 시고 평하며 수종과 창만을 치료한다.
소갈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며 웅종에 생긴 피고름을 배출한다.

불근 팻.

붉은 팥.

菽豆 녹두

녹두

- 菽豆氣寒, 能解百毒,
止渴除煩³, 諸熱可服.
- 녹두는 성질이 차며 온갖 독을 잘 해독한다.
소갈을 멎게하고 번열을 제거하며 여러 열증 치료에 복용할 수 있다.

녹두. ○ { 粉 } 解百藥毒. 痘瘡濕爛, 糝之.

○【皮】解熱退腎. 《本草》

녹두. ○ { 녹두분 } 온갖 약독을 해독한다. 두창이 짓무른 곳에 뿌려준다.

○【녹두껍질】열을 내리고 예막을 없애준다. 《본초강목》

1. 消水脹滿 : 消水病脹滿 ※《본초강목》↩

2. : 排癰膿血. : 排癰腫膿血 ※《본초강목》↩

3. 止渴除煩 : 治丹毒煩熱風疹.....止消渴. ※《본초강목》↩

造釀 元七衆二

양조 원방 7종, 제중방 2종

淡豆豉 약전국

담두시 약전국

- 淡豆豉寒, 能除懊懣,
傷寒頭疼, 兼理瘴氣.
- 담두시는 성미가 차며 오뇌(懊懣)를 잘 없앤다.
상한 두통을 치료하고 겸하여 산람장기를 다스린다.

약전국.

약전국.

〔衆〕豆腐 두부

〔제중방〕두부

- 〔衆〕豆腐甘平, 益氣和脾,
清熱散血, 多食膨脹.
- 〔제중방〕두부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기를 북돋우고 비(脾)를 조화롭게 한다.
열을 식혀주고 어혈을 흡여주지만 많이 먹으면 몸이 붓는다.

두부. ◦蘿菹治毒, 忌酒.

◦暑月恐有人汗, 尤宜慎之. 《本草》

◦漿水治毒. 俗方

두부. ◦나복으로 두부 독을 다스린다. 술을 금한다.

◦여름에 먹으면 땀이 나게 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서 써야 한다. 《본초강목》

◦장수(漿水)로 두부 독을 다스린다. 속방

陳倉穀米 창 의 드러 무근 쌀

진창곡미 창고의 묵은 쌀

- 陳倉穀米, 調和脾胃,
解渴除煩, 能止瀉痢.
- 진창곡미는 비위(脾胃)를 조화롭게 한다.
갈증을 해소하고 번조증을 없애며 설사와 이질을 잘 멎게 한다.

창 의 드러 무근 쌀.

창고의 묵은 쌀

神麴 약 의 드는 누룩

신국 약누룩

- 神麴味甘, 開胃消食,
破結逐痰, 調中下氣.¹

- 신국은 성미가 달며 위(胃)를 열어주고 음식을 소화시킨다.

몽친 것을 깨뜨리고 담(痰)을 몰아내며 속을 조화롭게 하고 기(氣)를 내려준다.

약의 드는 누룩. ◦入足陽明.

◦入藥, 炒令黃, 以助土氣.

◦{ 寒食麪 } 한식날 만단 밀가루 국수. 主破積行氣.

◦【紅麴】主消食燥胃, 治赤白痢.

◦陳者良. 《本草》

약 누룩. ◦죽양명경에 들어간다.

◦약에 넣을 때는 누렇게 되도록 볶아서 토(土)의 기운을 돕는다.

◦{ 한식면 } 한식날 만든 밀가루 국수. 주로 적(積)을 풀어주고 기(氣)를 잘 운행되게 한다.

◦【홍국】주로 음식을 소화시키며 위(胃)를 말려준다. 적백리를 치료한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본초강목》

麥芽 보리길음

맥아 보리질금

- 麥芽甘溫, 能消宿食,
心腹膨脹, 行血散滯.

- 맥아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묵은 체증을 잘 소화시킨다.

뱃속이 팽만한 증상을 치료하며 혈을 운행시키고 체기를 흩어준다.

보리길음. ◦炒黃.

보리질금. ◦누렇게 볶아서 쓴다.

飴糖 엿

이당 엿

- 飴糖味甘, 和脾潤肺,
止渴消痰, 中滿休食.²
- 이당은 성미가 달며 비(脾)를 조화롭게 하고 폐를 윤택하게 한다.
갈증을 멎게 하고 담을 녹이지만 창만이 있는 사람은 먹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엿. ◦入太陰.

◦多食甘, 甘傷腎, 骨痛齒落. 《本草》

엿. ◦태음경에 들어간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단맛이 신(腎)을 상하게 하여 뼈가 아프고 치아가 빠진다. 《본초강목》

〔衆〕醬 장

〔제중방〕장

- 〔衆〕醬性冷利, 除熱止煩³,
殺魚菜毒, 又殺火毒.
- 〔제중방〕장(醬)은 성질이 냉하고 미끄러우며 열을 내리고 번만을 멎게 한다.
생선독·채소독을 없애고 또한 화독(火毒)도 없애준다.

장. ◦殺飲食百藥毒, 故聖人不得其醬, 不食.⁴ 《本草》

장. ◦장은 음식독과 온갖 약독을 해독한다. 그러므로 공자는 음식에 알맞은 장이 없으면 먹지 않았다. 《본초강목》

醋 초

초

- 醋消腫毒, 積癥可去, 產後金瘡, 血暈皆治.⁵
- 초(醋)는 중독(腫毒), 적취, 징가를 없애준다.
출산 후나 금창으로 다쳐서 생긴 혈혼을 모두 치료한다.

초. ◦多食傷筋骨.

◦王戡不食醋, 年踰九十.

◦殺魚肉蔬菜毒. 《本草》

초. ◦많이 먹으면 근골이 상한다.

◦왕전(王戡)은 초(醋)를 먹지 않았는데 90세까지 살았다.

◦생선독, 고기, 채소독을 풀어준다. 《본초강목》

酒 술

주 술

- 酒通血脈, 消愁遣興,

少飲壯神, 過則損命.

- 술은 혈맥을 통하게 하며 근심을 없애고 흥을 일으킨다.

조금 마시면 정신을 단단하게 하나 지나치게 마시면 수명이 단축된다.

술. ◦ { 燒酒 } 自元時始創, 大熱大毒, 殺蟲辟瘴, 洗目赤腫.

◦ { 糟 } 去草菜毒, 罨撲損瘀血. 《本草》

술. ◦ { 소주 } 원(元)나라 때부터 소주가 만들어졌다. 성질이 크게 뜨겁고 독성이 많다. 충을 죽이며 산람장기를 물리친다. 눈이 붉게 부었을 때 소주로 씻어준다.

◦ { 조(糟, 술지게미) } 채소독을 없앤다. 타박상으로 어혈이 생긴 부위에 덮어준다. 《본초강목》

1. : 消食下氣, 除痰逆霍亂 ※《본초강목》↩

2. : 中滿休食. : 時珍曰, 凡中滿吐逆...切宜忌之. ※《본초강목》↩

3. 除熱止煩 : 除熱, 止煩滿 ※《본초강목》↩

4. 故聖人不得其醬, 不食. : 割不正, 不食, 不得其醬, 不食. ※《논어(論語)·향당(鄉黨)》↩

5. : 產後金瘡, 血暈皆治. : 產後及傷損金瘡出血昏運 ※《본초강목》↩

卵蟲 元八增二

난충 원방 8종, 증보 2종

石蜜 술

석밀 꿀

- 石蜜甘平, 入藥煉熟,
益氣補中, 潤燥¹解毒.
- 석밀은 성미가 달고 평하며 약에 넣을 때는 불에 졸인다.
기를 복돋우고 속을 보해주며 마른 것을 윤활하게 하고 해독작용을 한다.

술. ◦蜂寒而蜜溫.

◦{ 蠟 } 主下痢膿血, 胎動下血. 以雞子大, 煎三五沸, 投酒半升服, 立差. 《本草》

꿀. ◦벌은 성질이 차지만 꿀은 성질이 따뜻하다.

◦{ 밀랍 } 주로 이질과 설사, 농혈(膿血), 태동(胎動)으로 하혈하는 증상을 낮게 한다. 달걀만한 밀납을 3 - 5번 끓여오르도록 달여서 술 0.5되를 넣어 먹으면 곧 낫는다. 《본초강목》

蜂房 말벌의 집

봉방 말벌 집

- 蜂房鹹苦, 驚癇瘈瘲,

牙疼腫毒, 癰癤腸癰.

- 봉방은 성미가 짜고 쓰며 경간과 계종을 치료한다.

치통, 종독, 나력, 장옹을 치료한다.

말벌의 집. ◦惡乾薑、丹參、黃芩、芍藥. 《本草》

말벌 집. ◦건강, 단삼, 황금, 작약과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五倍 북나모여름, 文蛤

오배자 붉나무열매, 문합

- 五倍苦酸, 療齒疳匿,
痔癰瘡膿, 兼除風熱.²
- 오배자는 성미가 쓰고 시며 충치로 인한 감닉을 치료한다.
치질, 선창(癰瘡), 농양을 치료하고 겸하여 풍열을 안정시킨다.

북나모여름. ◦一名文蛤.

붉나무열매. ◦문합(文蛤)이라고도 한다.

〔增〕百藥煎

〔증보〕백약전

- 〔增〕百藥煎酸, 治嗽化痰,
下血³ 久痢, 止渴亦堪.
- 〔증보〕백약전은 성미가 시며 기침을 치료하고 가래를 녹여준다.

피를 설사하는 증상이나 오래된 이질을 치료하며 또한 갈증을 멎게 할 만하다.

殭蠶 누에 죽어 못르니

백강잠 죽은 누에를 말린 것

- 【殭蠶】味鹹, 諸風驚癇, 濕痰喉痺, 瘡毒癍痕.
- 【백강잠】은 성미가 짜며 여러 풍증과 경간을 치료한다.
습담, 후비(喉痺), 창독으로 생긴 흉터를 치료한다.

누에죽어 못르니. ○ { 原蚕蛾 } 도나기누에나비, 第二番也. 益精壯陽.

○ { 蚕沙 } 누에똥, 以麻油, 浸二三宿, 研細, 塗爛弦風, 隔宿即愈.

○ { 繰絲湯 } 고치컨물, 止消渴, 大驗. 《本草》

죽은 누에를 말린 것. ○ { 원잠아 } 되내기누에나방. 두번째 치는 누에이다. 정(精)을 더해주고 양(陽)을 튼튼하게 한다.

○ { 잠사 } 누에똥. 마유(麻油)에 2 - 3일 담가두었다가 잘게 갈아서 난현풍(爛弦風) 환부에 바르고 하룻밤 지나면 곧 낫는다.

○ { 조사탕(繰絲湯) } 고치에서 켜낸 실을 달인 물. 소갈을 없애는데 효험이 매우 크다. 《본초강목》

〔增〕蜻蛉 준지리

〔증보〕청령 잠자리

- 〔增〕蜻蛉微寒, 強陰止精,

壯陽暖下, 當用色靑.⁴

- (증보)청령은 성질이 약간 차며 음(陰)을 강하게 하여 정(精)이 새는 것을 멎게 한다.

양(陽)을 튼튼하게 하고 하초를 따뜻하게 하며 약용으로는 푸른 빛깔의 잠자리가 적당하다.

존자리. ◦去翅足, 炒用.

◦ { 檮鷄 } 팻비히, 今所謂莎雞, 一名紅娘子. 主陰痿, 益精, 微炒用. 《本草》

잠자리. ◦날개와 다리를 떼어내고 볶아서 쓴다.

◦ { 저계 } 팻비히. 지금은 사계(莎鷄)라고도 한다. 홍낭자(紅娘子)라고도 한다. 음위(陰痿)를 치료하며 정(精)을 더해준다. 약간 볶아서 쓴다. 《본초강목》

斑猫 갈외

반묘 가뢰

- 斑猫有毒, 破血通經,
諸瘡癰癤, 水道能行.⁵
- 반묘는 독성이 있으며 주로 어혈을 풀어주고 경맥을 통하게 한다.
여러 창(瘡)과 나력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

갈외. ◦性寒.

◦二三月芫青, 四五月王不留行蟲, 六七月葛上亭長, 八九月斑猫, 九十月地膽, 主治皆相似.

◦去翅足, 同糯米炒熟用, 生則吐瀉. 《本草》

가뢰. ◦성질이 차다.

◦2 - 3월에는 원청(芫靑), 4 - 5월에는 왕불류행충(王不留行蟲), 6 - 7월에는 갈상정장(葛上亭長), 8 - 9월에는 반묘, 9 - 10월에는 지담(地膽)이라고 부르며 주치증은 모두 서로 같다.

◦날개와 다리를 떼어내고 쓴다. 찹쌀과 함께 익도록 볶아서 쓴다. 생것으로 쓰면 구토·설사가 난다. 《본초강목》

全蝎 전갈

전갈

- 【全蝎】味辛, 却風痰毒,
口眼喎斜, 風癰發搐.
- 【전갈】은 성미가 매우며 풍담(風痰)의 독을 물리친다.
구안와사와 풍간(風癰)으로 경련이 생기는 증상을 치료한다.

전갈. ◦有毒.

◦入肝血分.

◦水洗, 去腹中土.

◦【稍】其力尤功. 《本草》

전갈. ◦독성이 있다.

◦간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물에 씻어서 뱃속의 흙을 빼내고 쓴다.

◦【꼬리】약의 효력이 더욱 좋다. 《본초강목》

水蛭 거머리

거머리

- 水蛭味鹹, 除穢瘀堅,⁶

通經墮產, 折傷可痊.

- 수질(水蛭)은 성미가 짜며 적취와 굳은 어혈을 제거한다.
월경을 잘 통하게 하며 유산시키고 골절상을 치료한다.

거머리. ◦畏石灰鹽. 《本草》

거머리. ◦석회、소금과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蜘蛛 말거미

지주 말거미

- 蜘蛛氣寒, 狐疝偏痛,⁷

蛇虺咬塗, 疔腫敷用.

- 지주(蜘蛛)는 성질이 차며 탈장으로 음낭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아픈 증상(陰狐疝氣)을 치료한다.
뱀에 물린 곳에 발라주고 정종(疔腫) 환부에 퍼바른다.

말거미. ◦{ 壁錢 } 납거미, 無毒. 金瘡血不止, 取汁點之.

◦{ 錢幕 } 主小兒嘔吐. 《本草》

말거미. ◦ { 벽전(壁錢) } 납거미. 독이 없다. 쇠붙이에 다쳐 피가 멎지 않을 때 납거미의 즙을 내어 상처에 떨어뜨려 준다.

◦ { 납거미집 } 주로 소아의 구토를 치료한다. 《본초강목》

1. 潤燥 : 潤心肺燥熱 ※《본초강목》↩

2. : 肺臟風毒流溢皮膚, 作風濕癬, 疥癢膿水, 五痔下血不止 ※《본초강목》↩

3. 下血 : 大腸便血.....腸風下血.....腸風臟毒下血者. ※《본초강목》↩

4. : 强陰, 止精.〔別錄〕壯陽, 暖水臟. ※《본초강목》

當用色靑. : 古方惟用大而靑者, 近時房中術, 亦有用紅色者. ※《본초강목》↩

5. : 水道能行. : 通利水道 ※《본초강목》↩

6. 除積瘀堅, : 逐惡血瘀血月閉, 破血癥積聚 ※《본초강목》

墮胎.....治女子月閉.....治折傷墜蹠畜血有功. ※《본초강목》↩

7. 狐疝偏痛, : 張仲景治陰狐疝氣, 偏有大小, 時時上下者, 蜘蛛散主之. ※《본

초강목》↩

化蟲 四種

화충 원방 4종

蟬退 미아미허물

선투 매미허물

- 蟬退甘平, 消風定驚,
殺疳除熱, 退翳侵睛.
- 선투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풍증을 없애고 놀란 것을 진정시킨다.
감충(疳蟲)을 죽이고 열을 내리며 예막이 눈동자를 침범한 것을 낮게 한다.

미아미허물. 去翅足, 湯洗.

매미 허물. 날개와 다리를 떼어내고 끓는 물에 씻어서 쓴다.

蟾蜍 뉘꺼비

섬여 두꺼비

- 蟾蜍氣涼, 殺疳蝕癰,
瘰癧能碎, 瘡毒可祛.¹
- 섬여는 성질이 서늘하며 감식창(疳蝕瘡)과 옆구리가 뭉친 것을 제거한다.
온역을 잘 깨뜨리고 창독(瘡毒)을 없애준다.

뚝거비. ◦有毒.

◦酒灸去骨, 或燒存性.

◦{ 蝦蟇 } 개고리, 塗惡瘡癰癤.

◦{ 青蛙 } 머구리, 治單腹脹.

◦黑者, 南人食之, 補虛損. 《本草》

두꺼비. ◦독성이 있다.

◦술에 축여서 구운 다음 뼈를 제거하고 쓴다. 또는 약성이 남도록 태워서 쓴다.

◦{ 하마 } 개구리. 약창과 나력에 발라준다.

◦{ 청와 } 머구리. 복창 증상만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검은 빛이 도는 청와를 남쪽 지방 사람들은 먹는다. 허손을 보해준다. 《본초

강목》

蜈蚣 진에

오공 지네

• 蜈蚣味辛, 蛇虺惡毒,

殺鬼除邪, 墮胎逐瘀.²

• 오공은 성미가 매우며 뱀, 독사 등 여러 악독을 해독한다.

귀신을 죽이고 사기(邪氣)를 없애며 유산시키고 어혈을 몰아낸다.

진에. ◦赤者, 薑汁灸, 去頭足末.

◦畏蜘蛛、雞屎、桑皮、白鹽. 《本草》

지네. ◦붉은 지네를 생강즙에 구워서 머리와 다리를 제거하여 가루 낸다.

◦지주、닭똥、상피、흰소금과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蚯蚓 지렁이

구인 지렁이

- 蚯蚓氣寒, 傷寒瘟病,

大熱狂言, 投之立應.³

- 구인은 성질이 차며 상한과 온병을 치료한다.

열이 심하게 나면서 헛소리를 하는 증상에 투약하면 곧 낫는다.

지렁이. ◦畏蔥鹽. 殺三蟲.

지렁이. ◦충백、소금과 상외약이다. 삼시충을 죽인다.

1.: 治疳氣, 小兒面黃癖氣 ※《본초강목》↩

2.: 啖諸蛇、蟲、魚毒, 殺鬼物老精溫瘧. ※《본초강목》↩

3.: 療傷寒.....溫病, 大熱狂言, 飲汁皆瘥. ※《본초강목》↩

龍 元二増二

용 원방 2종, 증보 2종

龍骨 용의 뼈

용골 용뼈

- 【龍骨】味甘, 夢遺精泄,
崩帶腸癰, 驚癇風熱.
- 【용골】은 성미가 달며 자면서 또는 평상시 정(精)이 새는 증상을 치료한다.
붕루, 대하, 장옹(腸癰), 경간(驚癇), 풍열(風熱)을 치료한다.

용의뼈. ◦入手足厥陰少陰.

◦煨用或酒浸.

◦得人參、牛黃良, 畏石膏.

◦入補藥中, 其效如神.

◦【龍齒】大寒, 忌鐵, 鎮心安魂驚癇. 《本草》

용의 뼈. ◦수궤음경、족궤음경、수소음경、족소음경에 들어간다.

◦불에 달궈서 쓰거나 술에 담가서 쓴다.

◦인삼、우황과 함께 쓰면 좋다. 석고와 상외약이다.

◦보하는 약에 넣으면 신기한 효능이 있다.

◦【용치(龍齒)】성질이 크게 차며 철기 사용을 금한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혼(魂)과 경간(驚癇)을 안정시킨다. 《본초강목》

〔增〕【紫稍花】

〔증보〕【자초화】

- 〔增〕【紫稍花】溫, 秘精益陽,
小便不禁, 囊下濕痒.
- 〔증보〕【자초화】는 성질이 따뜻하며 정(精)을 간직하게 하고 양(陽)을 북돋운다.
소변을 지리는 증상과 음낭 아래가 습하고 가려운 증상을 낮게 한다.

吊之精, 一云, 與龍涎相類.¹

자초화는 조(吊)²의 정액을 말하며 용의 침과 비슷한 종류라고도 한다.

穿山甲

천산갑

- 【穿山甲】毒, 痔癰惡瘡,
吹奶腫痛, 鬼魅潛藏.
- 【천산갑】은 독성이 있으며 치질, 개선, 악창을 치료한다.
젖몸살로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하고 잠복해 있는 귀매(鬼魅)를 없애준다.

微寒.

○土炒, 或蛤粉炒.

○尾甲有力. 《本草》

성질이 약간 차다.

○흙과 함께 볶거나 합분(蛤粉)과 함께 볶아서 쓴다.

○꼬리, 갑피에 약의 효력이 있다. 《본초강목》

〔增〕【蛤蚧】

〔증보〕【합개】

- 〔增〕【蛤蚧】鹹平, 久嗽肺痿,

下淋通水³, 助陽可施.

- 〔증보〕【합개】는 성미가 평하며 오래된 기침과 폐위(肺痿)를 치료한다.

수도를 통리시켜 소변이 방울지는 것을 잘 나오게 하고 양기를 북돋는데 쓸 수 있다.

其毒在眼, 去眼及毛, 酒浸焙乾, 勿傷尾. 《本草》

합개의 독은 눈에 있으므로 눈과 털을 제거하고 쓴다. 술에 담갔다가 곁불에 말려서 쓴다. 꼬리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본초강목》

¹.: 弔之精: 弔... 精名紫稍花. ※《본초강목》

或云紫稍花與龍涎相類, 未知是否. ※《본초강목》←

2. 조(吊) : 길조(吉弔)로 용의 일종이다. ←

3. 下淋通水 : 下淋瀝, 通水道 ※《본초강목》

助陽可施. : 助陽道 ※《본초강목》 ←



蛇 元二

뱀 원방 2종

蛇退 비암의허물

사퇴 뱀허물

- 蛇退辟惡, 能除翳膜,
腸痔蟲毒, 驚癇搐搦.¹
- 사퇴는 악기(惡氣)를 물리치고 예막을 제거한다.
치질, 벌레의 독, 경간, 경련을 치료한다.

비암의허물. 畏磁石及酒.

뱀허물. 자석·술과 상오약이다.

花蛇 산므애비암, 褰鼻蛇

화사 산무애뱀, 건비사

- 【花蛇】溫毒, 癰瘡喎斜,
大風癰疥, 諸毒彌佳.
- 【화사】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성이 있으며 반신불수(癱瘓)와 구안와사를 치료한다.
대풍증, 나병, 음과 여러 독에 더욱 좋다.

산므애비암. ○一名褰鼻蛇.

○去頭尾, 只用中段, 酒浸, 去骨灸.

○{ 烏蛇 } 功相似, 黑質白章大毒, 治風, 速於諸蛇, 惟鼻向上. 《本草》

산무애뱀. ○건비사(褰鼻蛇)라고도 한다.

○머리와 꼬리를 제거하고 중간 부분만 쓴다. 술에 담가 두었다가 뼈를 발라내고 구워서 쓴다.

○{ 오사 } 효능이 화사와 같다. 검은 바탕에 흰 점이 있다. 강한 독이 있다. 풍을 치료하며 각종 뱀들보다 효능이 빠르다. 뱀 중에 오사만 코가 위로 향하고 있다. 《본초강목》

○〔增〕蛇, 有毒無緊, 只可療大風癲疾, 柳文捕蛇者說, 亦云是, 已是用古方罕用, 至近者, 稱爲滋陰補血, 而陰虛勞損等症, 例爲仙藥, 甚者, 以爲平日自奉之食品, 此果因何以然歟. 未見其效, 徒增其害, 用藥者, 宜慎之.²

○〔증보〕뱀은 독이 있어서 요긴하지 않고 다만 대풍·나병 치료에만 쓴다. 유종원의 〈포사자설(捕蛇者說)〉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으니, 이처럼 고방(古方)에는 오사를 드물게 썼다. 요즘에는 음(陰)을 자운하고 혈을 보한다고 일컬으면서 음허(陰虛)와 과로로 손상된 증상 등에 으레 쓰는 선약(仙藥)이 되었고 심지어 평소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으로 여기니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된 것인가. 그 약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다만 그 해만 더할 수 있으니 오사를 약으로 쓸 때는 신중히 써야 한다.

¹. : 小兒百二十種驚癇蛇癇, 癲疾瘕瘕 ※《본초강목》←

2. : 유충원(柳文)의 포사자설(捕蛇者說)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으니 : 永州之野, 産異蛇, 黑質白章, 觸草木, 盡死, 以齧人, 無禦之者, 然得而腊之, 以爲餌, 可以已大風攣踠痠癘, 去死肌殺三蟲. ※《고문진보후집·포사자설》←



魚 元二衆七増四

어류 원방 2종, 제중방 7종, 증보 4종

鯉魚 니어

이어 잉어

- 鯉魚味甘, 消水腫滿¹,
下氣安胎, 其功不緩.
- 잉어는 성미가 달며 수종(水腫)과 창만을 없앤다.
기를 내려주며 태를 안정시키는 그 효과가 느리지 않다.

니어. ◦去脊上兩筋及黑血, 毒故也.

◦{ 膽 } 主眼赤腫痛. 《本草》

잉어. ◦등뼈 위 양쪽의 힘줄과 검은 피를 제거하고 쓰니 독이 있어서이다.

◦{ 잉어쓸개 } 주로 눈이 붓고 충혈되어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衆〕鰾魚 려어

〔제중방〕연어

- 〔衆〕鰾魚性平, 味亦甘美²,
卵如眞珠, 色紅尤佳.
- 〔제중방〕연어는 성질이 평하며 성미 또한 달고 맛있다.

붉은 빛이 도는 진주 같은 알을 벤 것을 쓰면 더욱 좋다.

련어.

연어.

〔衆〕石魚 조기

〔제중방〕석어 조기

- 〔衆〕石魚甘平, 益胃消食,
腹脹暴痢³, 淋用頭石.
- 〔제중방〕석어는 성미가 평하고 위(胃)를 도와 음식을 소화시킨다.
배의 창만과 갑작스런 이질을 치료하며 소변이 방울져 나오는 증상에는 석어
대가리 속의 돌 같은 뼈를 쓴다.

조기. ◦ { 頭中骨 } 治淋燒用.

조기. ◦ { 대가리속의 뼈 } 임증(淋症)을 치료할 때 태워서 쓴다.

鯽魚 부어, 鮒魚

즉어 붕어, 부어

- 鯽魚味甘, 和中補虛,
理胃進食, 脹瀉瀉痢.
- 즉어는 성미가 달며 속을 조화롭게 하며 허를 보해준다.
위(胃)를 다스려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창만, 장벽, 설사, 이질을 치료한다.

부어. ◦一名鮒魚.

◦諸魚屬火, 此獨屬土, 多食能動火. 《本草》

붕어. ◦부어(鮒魚)라고도 한다.

◦각종 물고기는 화(火)에 속하며 붕어만 홀로 토(土)에 속한다. 많이 먹으면 화(火)가 동한다. 《본초강목》

〔衆〕鰮魚 슈어, 秀魚

〔제증방〕치어 승어, 수어

- 〔衆〕鰮魚甘平, 開胃健脾, 通利五臟, 百藥無忌.
- 〔제증방〕치어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위(胃)를 열어주고 비(胃)를 튼튼하게 한다.
오장을 통리시키며 온갖 약과 함께 쓸 수 있다.

슈어. ◦一名秀魚.

승어. ◦수어(秀魚)라고도 한다.

〔衆〕魴魚 방어

〔제증방〕방어

- 〔衆〕魴魚味甘, 調和脾胃, 和芥食之, 能助肺氣.

- [제중방]방어는 성미가 달며 비위(脾胃)를 조화롭게 한다.

개(芥)와 함께 먹으면 폐기(肺氣)를 잘 복돋운다.

방어. 〇痢人, 不可食.

방어. 〇이질이 있는 사람은 먹지 않도록 한다.

[衆]鱸魚 로어

[제중방]노어 농어

- [衆]鱸魚甘平, 補益五臟,
益筋補骨, 和胃調腸.⁴
- [제중방]노어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오장을 보익한다.
근과 골을 보익하고 위를 조화롭게 하고 장을 고르게 한다.

로어. 〇小毒, 作膾佳.

농어. 〇독성이 조금 있다. 회로 먹으면 좋다.

[衆]鰕魚 소가리, 錦鱗魚

[제중방]괘어 쏘가리, 곧 금린어

- [衆]鰕魚甘平, 下血腸風.⁵
補勞益脾, 去腹內蟲.
- [제중방]괘어는 달고 평하며 장풍(腸風)으로 피를 설사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허로를 보해주고 비(脾)를 보익하며 뱃속의 충을 제거한다.

소가리. 卽錦鱗魚.

쏘가리. ㅇ곧 금린어(錦鱗魚)이다.

〔衆〕大口

〔제증방〕대구

- 〔衆〕大口魚肉, 味鹹性平,
食之補氣, 腸脂尤良.
- 〔제증방〕대구 살은 성미가 짜고 성질이 평하다.
먹으면 기를 보해주며 내장과 지방이 더욱 좋다.

딕구.

딕구.

〔衆〕鮠魚 江鰮, 魚鰮, 民魚

〔제증방〕회어 강표, 어표, 민어

- 〔增〕鮠魚味美, 鰮可作膠,
治破傷風, 亦可充庖.
- 〔제증방〕회어는 맛이 좋고 부레는 아교를 만들어 쓴다.
파상풍을 치료하며 또한 식재료로 쓸 수 있다.

一名江鰮魚鰮.

ㅇ疑今民魚. 《寶鑑》

강표(江鰮), 어표(魚鰮)라고도 한다.

◦아마 지금의 민어(民魚)인 듯하다. 《동의보감》

[增]鰮膠

[증보]표교

- [增]鰮膠醎平, 産後風搐,
散瘀消腫, 伏硃砂毒.
- [증보]표교(鰮膠)는 성미가 짜고 평하며 산후풍을 몰아낸다.
어혈을 흡어주고 부종을 없애주며 망사(硃砂)의 약성을 굴복시키는 효능이 있다.

[增]靑魚 비웃

[증보]청어 비웃

- [增]靑魚微冷, 煮灸皆當,
開胃消食, 多食滑腸.
- [증보]청어는 성질이 약간 냉하며 삶거나 구워서 먹는 것이 적당하다.
위(胃)를 잘 열어주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지나치게 먹으면 물설사를 한다.

비웃. 産黃海、慶尙、咸鏡道.

비웃. 황해도、경상도、함경도에서 생산된다.

[增]北魚 명타, 無泰魚

[증보]북어 명태, 무태어

- [增]北魚鹹溫, 虛勞風氣,
多食動蛔, 卵可開胃.
- [증보]북어는 성미가 짜고 따뜻하며 허로와 풍기(風氣)를 치료한다.
많이 먹으면 회충이 생긴다. 알(명란)은 위(胃)를 열어준다.

명타. ◦産明川, 卽無泰魚.

명태. ◦명천(明川)에서 생산된다. 즉, 무태어(無泰魚)이다.

1. 水腫滿 : 水腫脹滿 ※《본초강목》↩

2. 味亦甘美 : 時珍曰, 酒之美者曰, 魚之美者曰鰾. ※《본초강목》↩

3. 腹脹暴痢 : 治暴下痢, 及卒腹脹 ※《본초강목》

頭石. : 頭中石魴 ※《본초강목》↩

4. 和胃調腸. : 和腸胃 ※《본초강목》↩

5. 下血腸風, : 治腸風瀉血 ※《본초강목》↩

無鱗魚 元二衆十三増四

비늘 없는 생선 원방 2종, 제중방 10종, 증보 4종

〔衆〕蠡魚 가물치, 鰮魚

〔제중방〕여어 가물치, 예어

- 〔衆〕蠡魚甘寒, 浮腫五痔,
瘡者當忌, 膽主喉痺.
- 〔제중방〕여어는 성미가 달고 차며 부종과 다섯가지 치질을 치료한다.
창(瘡)이 있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도록 한다. 여어 쓸개는 후비(喉痺)를 치료한다.

가물치. ○一名鰮魚. 是蛇所變, 至難死, 猶有蛇性.

가물치. ○예어(鰮魚)라고도 한다. 가물치는 뱀이 변해서 된 것으로 잘 죽지 않으며 뱀과 유사한 성질을 지녔다.

○〔増〕蠡是性寒, 利水之魚, 不必有補而俗用産後, 若有熱氣實者, 雖無所害, 氣弱虛冷者, 非徒無益, 必有所損, 此皆不讀本草, 而失於傳聞之謬者也, 覽者宜慎之.

○〔증보〕가물치는 성질이 차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물고기이다. 반드시 보해주는 것이 아닌데도 속방에서는 산후에 쓰는데, 열이 많고 기가 실한 사람에게는 해가 없지만 기가 약하고 허냉한 사람에게는 이로울게 없을 뿐 아니라 반

드시 손상이 생긴다. 이는 모두 본초서를 읽지 않고 잘못 전해 들어서 생긴 실수이니 이 책을 본 자는 조심해서 써야 한다.

鰻鱺魚 비암장어

만리어 뱀장어

- 鰻鱺魚甘, 勞瘵殺蟲,
痔漏瘡疹, 崩疾有功.
- 만리어는 성미가 달며 노채를 치료하고 충을 죽인다.
치루, 창진(瘡疹), 봉루에 효능이 좋다.

비암장어.

뱀장어.

鱠魚 드렁허리

선어 드렁허리

- 鱠魚味甘, 益智補中,
能祛狐臭, 善散濕風.
- 선어는 성미가 달며 지혜롭게 하고 속을 보해준다.
액취를 잘 제거하고 습사와 풍사를 잘 흠어준다.

드렁허리. ○血塗口眼喎斜, 左患塗右, 右患塗左. 《本草》

드렁허리. ○선어의 피를 구안와사 걸린 사람의 입과 눈에 발라준다. 구안와사가 왼쪽이면 오른쪽에 발라주고, 오른쪽이면 왼쪽에 발라준다. 《본초강목》

〔增〕鰮魚 미씨리, 鰮魚

〔증보〕추어 미꾸라지, 추어(鰮魚)

- 〔增〕鰮魚甘平, 暖中益氣,
解酒消渴¹, 煮食調胃.
- 〔증보〕추어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잘 북돋운다.
술 기운과 소갈을 해소하고 삶아서 먹으면 위(胃)를 조화롭게 한다.

미씨리. ○一名鰮魚.

미꾸라지. ○추어(鰮魚)라고도 한다. 《본초강목》

〔增〕黃鰯魚 자가스리

〔증보〕황상어 자가사리

- 〔增〕黃鰯魚甘, 醒酒祛風,
煮食消腫, 小便亦通.
- 〔증보〕황상어는 성미가 달며 술을 잘 깨게 하고 풍증을 없애준다.
삶아서 먹으면 부종을 없애며 소변을 또한 잘 통하게 한다.

자가스리.

자가사리.

[增]鱸魚 전어

[증보]전어

- [增]鱸魚肥美, 發氣動風,
又生熱痰, 食之無功.
- [증보]전어는 기름지고 맛이 좋으나 기병(氣病)을 발생시키고 풍증을 일으킨다.
또 열담을 발생시키니 먹어서 좋을 것이 없다.

전어.

전어.

[衆]鮎魚 머역이, 鯪魚

[제중방]점어 메기, 이어

- [衆]鮎魚甘溫, 浮腫利水,²
稍益胃氣, 無腮殺人.
- [제중방]점어는 성미가 따뜻하며 부종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차츰 위기(胃氣)를 복돋워 주며 아가미가 없는 점어를 먹으면 죽는다.

머역이. ◦即鯪魚, 赤目赤鬚, 殺人. 不可與牛肝、野雞、野豬同食. 《本草》

메기. ◦곧, 이어(鯪魚)이다. 눈갈이 붉은 것과 수염이 붉은 것을 먹으면 죽는다. 소의 간, 야계(野鷄)、멧돼지와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본초강목》

[衆]魮魚 아오리

[제중방]공어 가오리

- [衆]魮魚益人, 大毒在尾,
要治其毒, 煮飲獺皮.³
- [제중방]공어는 사람에게 이롭지만 꼬리에 맹독이 있다.
꼬리의 독에 찔린 것을 치료할 때는 해달 가죽을 삶아서 마셔야 한다.

가오리.

가오리.

[衆]河豚 복

[제중방]하돈 복어

- [衆]河豚甘溫, 補虛去濕,
脚氣痔疾, 肝卵尤毒.
- [제중방]하돈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허를 보하고 습을 제거한다.
각기, 치질을 치료하며 복어의 간과 알은 독성이 더욱 크다.

복. ○肝及子, 入口爛舌, 入腸爛腸, 無藥可解. 《本草》

복어. ○복어의 간과 알은 입에 들어가면 혀가 문드러지고 창자에 들어가면 창자가 문드러지니 해독할 수 있는 약이 없다.

〔衆〕比目魚 가잠미

〔제중방〕비목어 가자미

- 〔衆〕比目魚甘, 補虛開胃,
食之甚益, 多反動氣.
- 〔제중방〕비목어는 성미가 달며 허를 보하고 위(胃)를 열어 준다.
먹으면 기를 매우 북돋워주나 많이 먹으면 도리어 기를 동하게 한다.

가잠미.

가자미.

〔衆〕鮫魚 스어

〔제중방〕교어 상어

- 〔衆〕鮫魚性平, 補益五臟,
皮主吐血, 魚毒最良.⁴
- 〔제중방〕교어는 성미가 평하고 오장을 보익한다.
교어의 껍질은 토혈을 치료하며 생선독 해독에 가장 좋다.

스어.

상어.

〔衆〕烏賊魚 오징어

〔제중방〕오적어 오징어

- 〔衆〕烏賊魚平, 益氣通經,
益精有子, 骨主漏崩.⁵
- 〔제중방〕오적어는 성질이 평하며 기를 북돋우고 월경을 통하게 한다.
정(精)을 더해 주어 자식을 낳게 하며 오적어 뼈는 붕루를 치료한다.

오징어.

오징어.

海螵蛸 오징어뼈

해표초 오징어뼈

- 海螵蛸鹹, 下血除癥,
通經水腫, 目翳心疼.⁶
- 해표초는 성미가 짜며 하혈을 치료하고 징가를 없애준다.
월경을 잘 통하게 하고 수종(水腫), 예막, 심장의 통증을 치료한다.

오징어뼈.

오징어뼈.

〔衆〕鰕 시오

〔제중방〕하 새우

- 〔衆〕鰕則甘平, 主治五痔,
久食動風, 小兒尤忌.
- 〔제중방〕하(鰕)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오치(五痔)를 치료한다.
오래 먹으면 풍증을 동하게 하니 소아에게는 먹이지 않도록 한다.

시오. ◦無鬚及煮色白者, 不可食. 《本草》

새우. ◦수염이 없거나 삶았을 때 흰색이 되는 것은 먹지 않아야 한다. 《본초강
목》

〔増〕【海馬】

〔증보〕【해마】

- 〔増〕【海馬】甘溫, 臨産燒服,
産難之時, 兩手竝握.⁷
- 〔증보〕【해마】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출산이 임박하면 태워서 먹인다.
난산인 경우에는 양손에 쥐고 있게 한다.

壯陽道.

음경을 튼튼하게 한다.

[衆]八稍魚 문어

[제중방]팔초어 문어

- [衆]八稍甘平, 善治肉滯,
卵主補陽, 養血成胎.
- [제중방]팔초어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고기를 먹고 체한 것을 치료한다.
팔초어의 알은 양(陽)을 보하고 혈을 길러주어 임신을 성공하게 한다.

문어. ◦能治眩氣. 《本草》

문어. ◦어지럼증을 잘 치료한다. 《본초강목》

[衆]小八稍魚 락데

[제중방]소팔초어 낙지

- [衆]小八稍魚, 性平味甘,
養血益氣, 只供食品.
- [제중방]소팔초어는 성질이 평하고 성미가 달다.
혈을 길러주고 기를 북돋우며 식품으로만 쓴다.

락데.

낙지.

[衆]白魚 빙어

[제중방]백어 병어

- [衆]白魚性平, 開胃下食,
去水助脾, 補肝明目.
- [제중방]백어는 성질이 평하며 위(胃)를 열어주고 먹은 것을 내려준다.
수기(水氣)를 제거하며 비(脾)를 돕고 간(肝)을 보해주며 눈을 밝게 한다.

빙어. ○我國漢江生者尤好, 冬月鑿氷取之. 《濟衆》

병어. ○우리나라 한강에서 생산된 것이 더욱 좋다. 겨울에 얼음을 뚫고 잡는다. 《제중》

[衆]銀條魚 銀口魚

[제중방]은조어 은구어

- [衆]銀條魚平, 同薑作羹,
食之甚美, 健胃寬中.
- [제중방]은조어는 성질이 평하며 생강과 함께 국을 끓여서 쓴다.
먹으면 맛이 매우 좋으며 위(胃)를 튼튼하게 하고 속을 편하게 한다.

疑今銀口魚. 《濟衆》

지금의 은구어(銀口魚)인 듯하다. 《제중》

1. 解酒消渴：醒酒，解消渴 ※《본초강목》↩
2. 浮腫利水，：療水腫，利小便. ※《본초강목》↩
3. 煮飲獺皮：刺在尾中，人被刺，煮海獺皮及魚簾竹，解之. ※《동의보감》↩
4. 魚毒最良：解鯢鯪魚毒 ※《본초강목》↩
5. 通經，：通月經 ※《본초강목》↩
6. 女子赤白漏下，經汁血閉.....寒熱癥瘕. ※《본초강목》↩
7. 婦人難産割裂而出者，手持此蟲，即如羊之易産也. ※《본초강목》↩

龜鱉 元四衆一

거북·자라 원방 4종, 제중방 1종

龜甲 남성의 등껍질

구갑 남생이 등껍질

- 龜甲味甘, 滋陰補腎,
逐瘀續筋, 更醫顛顛.
- 구갑은 성미가 달며 음(陰)을 자양하고 신(腎)을 보해준다.
어혈을 몰아내고 근을 이어주며 정수리의 병을 낫게 한다.

남성의 등껍질. ◦酥灸或酒灸.

◦{ 板 } 卽下甲, 主治同.

◦龜乃陰中至陰之物, 稟北方而生, 故大有補陰之功. 《本草》

◦{ 膠 } 取龜板十箇, 入水五十斤銅鍋內, 熬至一晝夜, 去殼再熬, 成膠爲度, 桑柴爲上, 柳枝爲次, 用時炒成珠. 燕俗市俗方

◦{ 玳瑁 } 야기갑질, 解百藥毒. 《本草》

남생이 등껍질. ◦연유에 축여 굽거나 술에 축여 구워서 쓴다.

◦{ 구판 } 곧, 배딱지이다. 등껍질과 주치증이 같다.

◦남생이는 음(陰) 중에서도 지극히 음(陰)인 생물이다. 북방(北方)의 기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음(陰)을 크게 보하는 효능이 있다. 《본초강목》

○ { 구갑교 } 구판 10개와 물 50근을 구리냄비에 넣고 1일 동안 졸여서 껍질을 제거하고 다시 졸인다. 아교가 될 때까지 졸인다. 땀감으로는 뽕나무 가지가 가장 좋고 버드나무 가지가 다음으로 좋다. 구갑교를 쓸 때는 볶아서 구슬처럼 만들어 쓴다. 연경 저자의 속방.

○ { 대모 } 야귀 껍질. 온갖 약독을 해독한다. 《본초강목》

鱉肉 자라고기

별육 자라고기

- 鱉肉性冷, 凉血補陰,
癥瘕勿食, 孕婦勿侵.
- 별육은 성질이 냉하고 혈을 식혀주며 음(陰)을 보해준다.
징가가 있는 사람과 임신부는 모두 먹지 말아야 한다.

자라고기. ○不可合雞子食, 殺人, 又忌芥子同食. 《本草》

자라고기. ○달걀과 함께 쓰지 않아야 하니 먹으면 죽는다. 또한 개자(芥子)와 함께 먹는 것을 금한다. 《본초강목》

鱉甲 자라등껍질, 團魚

별갑 자라등껍질, 단어

- 鱉甲酸平, 勞嗽骨蒸,
散瘀消腫, 去¹瘡除崩.
- 별갑은 성미가 시고 평하며 기침과 골증열을 치료한다.

어혈을 흡어주고 부종을 없애며 막힌 것과 붕루를 제거한다.

자라등껍질. ○一名團魚.

○入厥陰血分, 去裙醋灸黃. 《本草》

자라 등껍질. ○단어(團魚)라고도 한다.

○겔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e등껍질 부근의 군살을 제거하고 식초에 축여 누렇게 볶아서 쓴다. 《본초강목》

[衆]蟹 게

[제중방]해 게

- [衆]蟹則鹹寒, 胸熱消食, 亦治胃氣, 霜前有毒.
- [제중방]해(蟹)는 성미가 짜고 차며 가슴 속 열을 내리고 음식을 소화시킨다. 또한 위기(氣)를 치료하며 서리 내리기 전에 잡은 것에는 독이 있다.

게. ○傷筋搗付. 獨螯獨目, 四目, 六足, 皆有毒.

○反荊芥及柿.

○其黃, 化漆爲水.

○燒可集鼠. 《本草》

게. ○힘줄이 다친 곳에 짓찧어서 붙여준다. 집게발이 하나인 것, 눈이 하나인 것, 눈이 네 개인 것, 다리가 여섯 개인 것은 모두 독이 있다.

○형개, 감과 상오약이다.

◦게내장은 옷을 녹여 물이 되게 한다.

◦게를 태우면 쥐가 모여든다. 《본초강목》

螃蟹 방게

방해 방게

- 螃蟹味鹹, 散血解結,
益氣養筋, 除胸煩熱.
- 방해는 성미가 짜며 어혈을 흡어주고 뭉친 것을 풀어준다.
기를 보익하고 근을 길러주며 가슴의 번열을 내려준다.

방게.

방게.

1. 去痞：去痞疾息肉 ※《본초강목》←

蚌蛤 元七衆五

조개 원방 7종, 제중방 5종

白蛤肉 껍질 흰 조개

백합살 껍질 흰 조개

- 白蛤肉平, 解諸藥毒,
能除疥癩, 味勝猪肉.
- 백합육은 성질이 평하며 여러 약독을 해독한다.
개창(疥癩)을 잘 제거하며 맛이 돼지고기보다 좋다.

껍질흰조개.

껍질 흰 조개.

蛤蜊肉 참조기

합리육 참조개

- 蛤蜊肉冷, 能止消渴,
酒毒堪除, 開胃頓豁.
- 합리육은 성질이 차며 소갈을 잘 멎게 한다.
주독을 제거하는 데 쓸 만하며 위(胃)를 단번에 활짝 열어준다.

참조기. ◦反醋. 《本草》

참조개. ◦식초와 상반약이다. 《본초강목》

牡蠣 굴조기껍질

모려 굴조개껍질

- 牡蠣微寒, 澀精止汗,
崩帶脅痛, 老痰祛散.
- 모려는 성미가 약간 차며 주로 정(精)을 수렴하고 땀을 멎게 한다.
붕루·대하·옆구리의 통증을 치료하며 오래되어 끈적해진 담(痰)을 흩어 없애준다.

굴조기껍질. ◦入足少陰, 爲軟堅之劑.

◦火煨.

◦左顧者, 佳.

◦{ 肉 } 卽石花, 食之, 令人細肌膚美顏色. 《本草》¹

굴조개껍질. ◦족소음경에 들어가며 단단한 것을 무르게 하는 약제이다.

◦불에 달궈서 쓴다.

◦왼쪽으로 돌아간 것이 좋다.

◦{ 굴조개살 } 곧, 석화(石花)이다. 먹으면 피부가 고와지고 안색이 좋아진다.

《본초강목》

海粉

해분

- 海粉味鹹, 太治頑痰²,

婦人白帶, 鹹能軟堅.

- 해분은 성미가 짜며 진득한 담(痰)을 크게 치료한다.

부인의 백대하를 치료하니 성미가 짠 것은 단단한 것을 무르게 한다.

紫海蛤所造.

자해합(紫海蛤)으로 만든다.

珍珠

진주

- 珍珠氣寒, 鎮驚除癇,

開齏磨翳, 止渴墜痰.³

- 진주는 성질이 차며 경간(驚癇)을 진정시켜 없애준다.

귀가 먹은 것을 들리게 하고 예막을 마멸시키며 소갈을 멎게 하고 담(痰)을 떨어뜨린다.

〔衆〕瓦礫肉 강요주, 江瑤柱

〔제중방〕와룡육 강요주

- 〔衆〕瓦礫肉溫, 補中益陽,

心腹冷氣, 消食健胃.

- 〔제중방〕와룡육은 성질이 따뜻하며 속을 보하고 양(陽)을 북돋운다.

심복부에 냉기가 뭉친 것을 치료하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위(胃)를 튼튼하게 한

다.

강요주. ○一名江瑤柱.

강요주. ○강요주(江瑤柱)라고도 한다.

〔衆〕石決明 싱복, 全鰓

〔제중방〕석결명 생복, 전복

- 〔衆〕石決明肉, 味鹹性涼,
啖之明目, 殼消翳障.
- 〔제중방〕석결명 살은 성미가 짜고 서늘한 약제이다.
살은 눈을 밝게 하고 껍질은 예장을 없애준다.

싱복. ○一名全鰓.

○ { 殼 } 麴褁煨熟, 或鹽水煮研細. 《本草》

생복. ○전복(全鰓)이라고도 한다.

○ { 전복껍질 } 밀가루에 싸서 잿불에 묻어 푹 익혀서 쓰거나 소금물에 삶아서
곱게 갈아서 쓴다. 《본초강목》

〔衆〕蜳 가리맛

〔제중방〕정 가리맛

- 〔衆〕蜳則甘溫, 心胸煩悶,
産後虛損, 亦能補虛.

- [제중방]정(蛭)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심흉(心胸)의 번민을 치료한다.
산후 허손을 치료하며 또한 허를 잘 보해준다.

가리맛.

가리맛.

貝子 굴근조기

패자 굵은조개

- 貝子味鹹, 解肌散結,⁴
利水消腫, 目翳清潔.
- 패자는 성미가 짜며 해기시켜 주고 뭉친 것을 풀어준다.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부종을 없애고 눈의 예막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굴근조기. ◦火煨.

굵은 조개. ◦불에 달궈서 쓴다.

[衆]淡菜 홍합, 紅蛤, 東海夫人

[제중방]담채 홍합, 동해부인

- [衆]淡菜甘溫, 補虛益陽,
消食久痢, 大益婦人.
- [제중방]담채는 달고 따뜻하며 허를 보하고 양(陽)을 북돋운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오래된 이질을 치료하며 부인에게 매우 좋다.

홍합. ◦一名東海夫人, 又名紅蛤.

◦治崩漏帶下癥瘕, 產後血結冷痛. 《本草》

홍합. ◦동해부인(東海夫人)이라고도 한다. 또한 홍합(紅蛤)이라고도 한다.

◦붕루, 대하, 징가, 산후에 혈이 멎쳐서 뱃속이 냉하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衆]海參 미

[제증방]해삼 미

- [衆]海參醎平, 清潤津液,
能補脾腎, 婦人尤益.
- [제증방]해삼은 성미가 짜고 평하며 진액을 깨끗하고 원활하게 해준다.
비(脾)와 신(腎)을 잘 보해주며 부인에게 더욱 이롭다.

미. ◦性滑, 患泄痢勿食. 《本草》

미. ◦성질이 미끄러우니 설사와 이질이 있는 환자는 먹지 말아야 한다. 《본초강목》

田螺 우렁이

전라 우렁이

- 田螺性冷, 利大小便,
消腫除熱, 醒酒立見.

- 전라는 성질이 냉하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부종을 없애주고 열을 내려주며 술을 깨는데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우렁이. ○癰疽拔根神效, 爲末糝之, 或生搗付. 俗方

우렁이. ○옹저의 뿌리를 뽑아내는데 신기한 효능이 있다. 가루를 내어서 옹저에 뿌려주거나 생것을 짓찧어서 붙여준다. 속방

1. : 左顧者, 佳. : 弘景曰.....其生著石, 皆以口在上. 舉以腹向南視之, 口斜向東, 則是左顧. ※《본초강목》↩

2. 大治頑痰 : 熱痰濕痰, 老痰頑痰. ※《본초강목》
鹹能軟堅. : 堅者軟之以鹹, 取其屬水而性潤也. ※《본초강목》↩

3. : 主聾. 磨翳墜痰.....合知母, 療煩熱消渴. ※《본초강목》↩

4. 解肌散結 : 解肌, 散結熱 ※《본초강목》↩

水禽 元二

물새 원방 2종

白鵝肉 거의고기

백아육 거위고기

- 白鵝肉甘, 大補臟腑,
最發瘡毒, 痼疾勿與.
- 백아육은 달며 오장육부를 크게 보해준다.
창독(瘡毒)을 심하게 발생시키므로 고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도록 한다.

거위고기. ◦止消渴. 《本草》

거위고기. ◦소갈을 멎게 한다. 《본초강목》

鴨肉 오리고기

압육 오리고기

- 鴨肉酸寒¹, 補虛勞怯,
消水腫脹, 退驚癇熱.
- 압육은 찬 것을 흠어주며 허로로 겁약해진 것을 보해준다.
수종(水腫)과 창만을 없애고 경간과 열증을 물리친다.

오리고기. ◦靑頭鴨佳, 老者良, 嫩者毒.

◦{ 血 } 解諸毒. 《本草》

오리고기. ◦청둥오리와 늙은 오리가 좋다. 어린 오리는 독이 있다.

◦{ 오리의 피 } 해독작용을 한다. 《본초강목》

1. 酸寒 ㄹ散寒 ※《제중신편》↔

原禽 元五衆三

들새 원방 5종, 제중방 3종

雄鷄 슈닭

웅계 수닭

- 雄雞味甘, 動風助火,¹
補虛溫中, 血漏亦可.
- 웅계는 성미가 달며 풍을 동하게 하고 화(火)를 돋운다.
허를 보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며 혈루 또한 치료할 수 있다.

슈닭. ◦雞屬巽, 佐肝火. 《丹心》丹入心, 白入肺, 黑入腎, 黃入脾, 總歸於肝也. 《入門》

- { 烏雌鷄 } 排膿安胎, 補產後虛.
- { 黃雌鷄 } 主消渴泄痢, 補陽.
- { 肝 } 主起陰.
- { 腸 } 主遺尿.
- { 翮翎 } 起陰, 小兒夜啼, 安席下, 勿令母知. { 窠中草 } 亦同.²
- { 屎白 } 微寒, 無毒, 主消渴消脹.
- { 卵 } 白象天, 黃象地. 精不足者, 補之以氣.
- { 殼中白皮 } 卽鳳凰衣, 治久嗽, 得麻黃、紫菀服, 立效. 《本草》

수탉. ◦닭은 손괘(巽卦≡)에 속하며 간화(肝火)를 돕는다. 《단계심법》닭의 약성은 심경(心經)으로 들어가고 흰 닭은 폐경으로 들어가며 검은 닭은 신경(腎經)으로 들어가고 누런 닭은 비경(脾經)으로 들어가서는 모두 간경(肝經)으로 돌아간다. 《의학입문》

- { 검은 암탉 } 농을 빼내고 태를 안정시킨다. 산후 허로를 보한다.
- { 누런 암탉 } 주로 소갈, 설사와 이질을 치료하고 양(陽)을 보해준다.
- { 닭간 } 주로 음(陰)을 일으킨다.
- { 닭내장 } 주로 유노를 치료한다.
- { 닭 깃털 } 음(陰)을 일으킨다. 소아의 야제를 치료할 때는 닭 깃털을 아이가 자는 곳 아래에 놓아둔다. 엄마가 알지 못하게 해야한다. { 닭둥지 속의 풀 } 또한 효능이 같다.
- { 계시백 } 성질이 약간 차며 독성이 없다. 주로 소갈을 치료하고 창만을 없애준다.
- { 계란 } 흰자는 하늘의 형상이고 노른자 땅의 형상이다. 정(精)이 부족한 경우 기를 보해준다.
- { 달걀 흰 속껍질 } 곧, 봉황의(鳳凰衣)이다. 오랜 기침을 치료하니 마황, 자완과 함께 먹으면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 《본초강목》

鷄內金 닭의 멀더군이 속에 누른 껍질

계내금 닭의 모래주머니 안쪽의 누런 껍질

- 雞內金寒, 溺遺精洩,
噤痢³漏崩, 更除煩熱.

- 계내금은 성질이 차며 소변을 지리고 정(精)새는 것을 치료한다.

금구리(嚙口痢)와 봉루를 치료하며 또한 번열을 없애준다.

닭의 멀터군이 속에 누른 겹질. ◦久滯不消, 取一錢, 燒末水服. 俗方

닭의 모래주머니 안쪽의 누런 겹질. ◦오래된 체기가 소화되지 않을 때 계내금

1돈을 태워서 가루 내어 물로 먹는다. 속방

〔衆〕雉肉 싱치고기

〔제중방〕치육 꿩고기

- 〔衆〕雉肉微寒, 補中益氣, 止泄除瘻⁴, 三冬宜食.⁵
- 〔제중방〕치육은 성미가 약간 차며 속을 보하고 기를 북돋운다.
설사를 멎게 하고 누창을 제거한다. 겨울 3개월 동안에 먹어야 한다.

싱치고기. ◦自正月, 至八月, 不宜食, 發五痔瘡疥. 《本草》

꿩고기. ◦1월부터 8월까지의 먹지 않아야 하니 먹으면 오치(五痔)와 창개가 생긴다. 《본초강목》

〔衆〕鶉肉 뽕초라기고기

〔제중방〕순육 메추라기고기

- 〔衆〕鶉肉甘平, 補臟益氣, 能消熱結, 小兒疳痢.

- [제중방]순육은 성미가 달고 평하며 오장을 보하고 기를 북돋운다.

열이 뭉친 것을 잘 없애고 소아의 감병(疳病)과 이질을 치료한다.

뫼초라기고기.

메추라기고기.

[衆]雀肉 참시고기

[제중방]작육 참새고기

- [衆]雀肉性煖, 壯陽益氣,
益精興陽, 能煖腰膝.
- [제중방]작육은 성미가 따뜻하며 양(陽)을 튼튼하게 하고 기를 북돋운다.
정(精) 더해주며 양(陽)을 일으키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해준다.

참시고기. ◦正月以前, 十月以後, 宜食, 取其陰陽, 靜定未泄也.

◦{ 屎 } 名白丁香, 決癰, 和乳汁點目, 弩肉赤脈即消. 《本草》

참새고기. ◦1월 이전, 10월 이후에 먹어야 하니 음양의 기운이 고요히 안정되어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 참새똥 } 백정향(白丁香)이라고도 한다. 응(癰)을 터뜨린다. 유즙에 타서 눈에 점안하면 노육(弩肉)과 눈에 핏발이 선 것을 곧 없애준다. 《본초강목》

雀卵 참시알

작란 참새알

- 雀卵氣溫, 善扶陽痿,
可致堅強, 常能固閉.
- 작란은 성질이 따뜻하며 음경이 발기하지 않는 것을 잘 도와서
견고하게 하여 정(精)이 새어 나가는 것을 늘 견고하게 막아준다.

참시알.

참새알.

夜明砂 박쥐똥, 伏翼, 蝙蝠, 天鼠

야명사 박쥐똥, 복익, 편복, 천서

- 夜明砂糞, 能下死胎,
小兒無辜, 瘰癧堪哉.
- 야명사는 박쥐의 똥으로 사산된 태아를 잘 내보낸다.
소아의 무고감(無辜疳)과 나력 치료에 쓸 만하구나.

박쥐똥. ○伏翼. 一名蝙蝠. 一名天鼠.

○主明目, 五淋. 《本草》

박쥐똥. ○복익(伏翼), 편복(蝙蝠), 천서(天鼠)라고도 한다.

○주로 눈을 밝게 하며 5가지 임병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五靈

오령지

- 五靈味甘, 血痢腹痛,
止血用炒, 行血用生.
- 오령지(五靈脂)는 성미가 달며 혈리와 복통을 치료한다.
지혈시키려면 볶아서 쓰고 혈을 운행하게 하려면 생것을 쓴다.

寒號蟲糞. ◦惡人參. 《本草》

한호충(寒號蟲)의 똥이다. ◦인삼과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1. 動風助火, : 故能生熱動風, 風火相扇, 乃成中風. ※《본초강목》↩
2. 亦同. : 頭瘡白禿, 和白頭翁草燒灰, 豬脂調敷. 日華 天絲入眼, 燒灰淋清汁洗之, 良. ※《본초강목》↩
3. 噤痢 : 噤口痢疾 ※《본초강목》↩
4. 除瘰 : 止泄痢, 除蟻瘰 ※《본초강목》↩
5. 三冬宜食. : 九月至十一月稍有補, 他月則發五痔、諸瘡疥. ※《본초강목》

↩

林禽 增三

숲새 증보 3종

[增]鴉肉 가마귀고기

[증보]아육 까마귀고기

- [增]鴉肉酸平, 癰疾暗風,
咳嗽骨蒸, 吐血殺蟲.
- [증보]아육(鴉肉)은 성미가 시고 평하며 간질과 암풍(暗風)을 치료한다.
기침, 골증열, 토혈을 치료하고 충을 죽인다.

가마귀고기.

까마귀고기.

[增]鵲肉 가치고기

[증보]작육 까치고기

- [增]鵲肉甘寒, 消渴祛風,
除熱痰結, 燒服淋通.¹
- [증보]작육은 성미가 달고 차며 소갈을 치료하고 풍을 없애준다.
열과 담이 뭉친 것을 없애주며 태워서 복용하면 소변이 방울지는 것을 잘 통하게 한다.

가치고기.

까치고기.

[增]鳩肉 비둘기고기

[증보]구육 비둘기고기

- [增]鳩肉甘平, 明目益氣,
久病虛損, 食之補胃.²
- [증보]구육은 성미가 달고 평하며 눈을 밝게 하며 기를 북돋운다.
오래된 병으로 허손되었을 때 먹으면 위를 보해준다.

비둘기고기. ◦助陰陽.

◦仲春, 羅氏獻鳩以養老.《本草》³

비둘기고기. ◦음양의 기를 돕는다.

◦중춘(仲春)에는 나씨(羅氏)가 비둘기고기를 바쳐 국로(國老)들을 봉양하였다.《본초강목》

¹. : 石淋, 消結熱.....治消渴疾, 去風及大小腸澀.....胸膈痰結 ※《본초강목》↩

². : 久病虛損人食之, 補氣 ※《본초강목》↩

³. : 古者, 仲春, 羅氏獻鳩以養國老. ※《본초강목》↩



畜 元八增一

가축 원방 8종, 증보 1종

猪肉 돛티고기

저육 돼지고기

- 猪肉味甘, 量食補虛,
動風痰物, 多食虛肥.¹
- 돼지고기는 성미가 달며 양껏 먹으면 허를 보할 수 있다.
풍(風)과 담(痰)을 동하게 하는 동물로 많이 먹으면 헛살이 찐다.

돛티고기. ◦反烏梅、桔梗、黃連、胡黃連.

- { 脂 } 主癰瘡殺蟲, 胞衣不下.
- { } 在兩腎間, 似脂似肉, 主肺痿咳軟, 下乳汁.
- { 腸脬 } 止遺尿.
- { 膽 } 主傷寒熱渴, 通二便, 去目腎疳蟲.
- { 蹄 } 下乳托癰, 解百藥毒. 《本草》

돼지고기. ◦오매、길경、황련、호황련과 상반약이다.

- { 돼지비계 } 주로 응저와 창(瘡)을 치료하고 충을 죽인다. 산후 태반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 { 이() } 양쪽 콩팥 사이에 있으며 비계나 살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주로 폐

위와 기침을 치료하고 젖이 잘 나오게 한다.

○ { 창자 · 방광 } 유뇨를 멎게 한다.

○ { 쓸개 } 주로 상한 열갈을 치료하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눈의 예막, 감충(疳蟲)을 치료한다.

○ { 발굽 } 젖이 잘 나오게 하며 옹(癰)을 밀어내며 온갖 약독을 풀어준다. 《본초강목》

犬肉 지고기

견육 개고기

- 犬肉性溫, 益氣壯陽,

炙食作渴, 陽虛禁嘗.

- 견육은 성미가 따뜻하며 기를 북돋우고 양기를 강하게 한다.

구워서 먹으면 갈증을 일으키며 양(陽)이 허한 사람은 늘상 금하도록 한다.

지고기. ○與蒜同食, 損人.

○九月勿食, 傷神.

○不可去血, 去血力少, 不益人.

○治脾胃虛寒之疾.

○蹄主下乳.

○ { 白犬乳 } 青盲點之, 又斷酒.

○ { 膽 } 主明目殺蟲, 治惡瘡.

○ { 陰莖 } 主陽痿帶下. { 狗寶 } 一名狗砂. 治肺經風毒痰火, 癰疽惡瘡. 入豆腐中, 半日煮熟. 《本草》

○ 犬月發狂者, 有之. 《丹心》²

개고기. ○마늘과 함께 먹으면 몸이 상한다.

○9월에 먹지 말아야 하니 정신이 상하기 때문이다.

○피를 빼지 말고 먹어야 하니 피를 빼면 약효가 줄어들어 먹어도 이로움이 없다.

○비위(脾胃)가 허한하여 생긴 질병을 치료한다.

○ 발굽 젖이 잘 나오게 한다.

○ { 흰 개의 젖 } 청맹(靑盲)에 눈에 점안한다. 또한 술을 끓을 때 쓴다.

○ { 쓸개 } 주로 눈을 밝게 하며 충을 죽이고 악창을 치료한다.

○ { 개의 음경 } 양위(陽痿)·대하를 치료한다. { 구보(狗寶, 개 뱃속의 담석) } 구사(狗砂)라고도 한다. 폐경의 풍독, 담화, 웅저, 악창을 치료한다. 두부 속에 구보를 넣고 반일동안 푹 삶아서 쓴다. { 《본초강목》 }

○달을 보고 미친 듯이 짚는 것을 멈추지 않는 개에게 구보가 있다. 《단계심법》

양육 양의고기

양육 양고기

● 羊肉味甘, 專補虛羸,

開胃補腎, 不致陽痿.

● 양육은 성미가 달며 허하고 마른 것을 전문적으로 보해준다.

위(胃)를 열어주고 신(腎)을 보익하며 양위(陽痿)에 이르지 않게 한다.

양의 고기. ○大熱屬火.

○ { 血 } 主産後血悶. 熱飲. 久服猪羊血, 鼻中生毛.

○ { 腎 } 主耳聾, 壯陽, 虛損.

○ { 肝 } 主補肝明目. 《本草》

양고기. ○성질이 크게 뜨겁고 화(火)에 속한다.

○ { 양혈 } 주로 산후 출혈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치료한다. 뜨겁게 해서 마신다. 돼지피나 양피를 오래 복용하면 콧속에 털이 난다.

○ { 양신 } 이롱(耳聾)을 치료하고 양(陽)을 튼튼하게 하며 허손을 치료한다.

○ { 양간 } 간을 보하며 눈을 밝게 한다. 《본초강목》

牛肉 쇠고기

우육 쇠고기

- 牛肉屬土, 補脾胃弱,

乳養虛羸, 善滋血涸.

- 우육은 토(土)에 속하며 비위(脾胃)가 약해진 것을 보해준다.

우유는 허하고 수척한 몸을 길러주며 혈을 강하게 자운한다.

쇠고기. ○ { 鼻 } 主下乳.

○ { 腎 } 主補腎益精.

○ { 肚 } 양. 益胃止渴.

○ { 膽 } 止渴明目殺蟲.

- { 乳 } 補虛止渴.
- { 血 } 解毒, 治血痢.
- { 皮 } 消腫, 利水.
- { 角鰓 } 止崩, 帶, 血痢.
- { 口涎 } 主利水消脹, 搗且破臍³, 點之.
- { 尿 } 治水腫, 利小便.
- { 屎 } 主霍亂, 利水, 消渴. 《本草》

쇠고기. ○ { 코 } 젖이 잘 나오게 한다.

- { 신(腎) } 주로 신을 보하고 정(精)을 더해준다.
- { 소밥통 } 양. 위(胃)를 보익하고 갈증을 멎게 한다.
- { 우담 } 갈증을 멎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충을 죽인다.
- { 우유 } 허를 보하고 갈증을 멎게 한다.
- { 소피 } 해독작용을 하며 혈리를 치료한다.
- { 소가죽 } 부종을 없애고 수기를 잘 통하게 한다.
- { 소뿔심 } 봉루, 대하, 혈리를 멎게 한다.
- { 소의 침 } 주로 수기를 잘 통하게 하며 창만을 없앤다. 눈이 손상되었거나 눈동자가 터졌을 때 소 침을 눈에 점안한다.
- { 소오줌 } 수종(水腫)을 치료하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 { 소똥 } 괄란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소갈을 치료하고 옹(癰)을 무르게 한다. 《본초강목》

阿膠 갖풀

아교 갖풀

- 阿膠甘溫, 止欬膿血⁴,
吐衄胎崩, 虛羸可啜.
- 아교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기침과 농혈을 멎게 한다.
토혈·늑혈을 치료하고 태를 안정시키며 봉루를 치료한다. 허로로 수척해진 사람에게 먹인다.

갖풀. ◦蛤粉炒成珠.

갖풀. ◦합분(蛤粉)과 함께 볶아서 구슬처럼 만들어 쓴다.

牛黃 쇠속이황

우황 우담 속의 누런 돌

- 牛黃味苦, 大治風痰,
安魂定魄, 驚癇靈丹.
- 우황은 성미가 쓰며 풍과 담을 크게 치료한다.
혼백을 안정시키고 경간을 치료하는 영험한 약이다.

쇠속이황.

우담 속의 누런 돌.

馬肉 말고기

마육 말고기

- 馬肉味辛, 堪強腰脊,
自死老死, 竝棄勿食.
- 마육은 성미가 매우며 허리와 척추를 강하게 하는 데 쓸 수 있다.
자연적으로 죽은 말이나 늙어서 죽은 말의 고기는 모두 버리고 먹지 말아라.

말고기. ○血與肝, 大毒.

- { 白馬通 } 止消渴, 主崩漏, 吐衄血. 治暑最佳.
- { 脛骨 } 性寒, 補陰瀉火. 可代芩連用. 《本草》

말고기. ○말의 피와 간은 독성이 크다.

- { 백마의 똥 } 소갈을 멎게 하고 주로 봉루, 늑혈, 토혈을 치료한다. 서증(暑症)을 치료하는 데 가장 좋다.
- { 경골(脛骨) } 성질이 차고 음(陰)을 보하며 화(火)를 사해준다. 황금이나 황련을 대신할 수 있다. 《본초강목》

驢肉 나귀고기

여육 나귀고기

- 驢肉微寒, 安心解煩,
能發痼疾, 以動風溫.
- 나육은 성질이 약간 차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번조를 해소하나,

고질병을 발생시키고 풍병이나 온병을 동하게 한다.

나귀고기. ◦ { 屎 } 主反胃. 《本草》

나귀고기. ◦ { 나귀똥 } 번위를 치료한다. 《본초강목》

〔増〕酥油

〔증보〕수유

- 〔増〕酥油甘寒, 除胸客熱,
潤血益虛, 止嗽止渴.
- 〔증보〕수유는 성미가 달고 차며 가슴 속 객열(客熱)을 제거한다.
혈을 순환하게 하고 허를 보익하며 기침과 갈증을 멎게한다.

以牛羊乳所作.

소나 양젖으로 만든다.

1. : 弘景曰, 猪爲用最多, 惟肉不宜多食, 令人暴肥, 蓋虛風所致也. ※《본초강목》↩

2. : 犬吠月, 發狂者, 多有之. ※《동의보감》
犬夜吠月發狂者, 多有之. ※《의학입문》↩

3. 捐目破睛 捐目破睛 ※《본초강목》↩

4. 止欬膿血 : 肺痿唾膿血 ※《본초강목》

女子下血, 安胎.....虛勞羸瘦.....療吐血衄血. ※《본초강목》↩



獸 元九衆一增一

들짐승 원방 9종, 제중방 1종, 증보 1종

虎骨 갈범의 뼈

호골 칩범의 뼈

- 虎骨味辛, 專治脚膝,
定痛追風, 能壯筋力.
- 호골은 성미가 매우며 다리와 무릎을 전문적으로 치료한다.
통증을 안정시키고 풍질(風疾)을 몰아내며 근력을 튼튼하게 한다.

갈범의 뼈. ◦酥醋或酒灸.

◦氣力皆出前足. 《本草》

칩범의 뼈. ◦연유나 식초, 또는 술을 축여 구워서 쓴다.

◦기운과 근력이 모두 앞다리에 있다. 《본초강목》

【犀角】무소뿔

【서각】무소뿔

- 【犀角】酸寒, 化毒辟邪,
解熱止血, 消腫毒蛇.
- 【서각】은 성미가 시고 차며 독을 풀고 사기(邪氣)를 물리친다.

열을 내리고 지혈시키며 부종을 없애고 뱀독을 제거한다.

무소뿔. ○入陽明.

○以升麻爲使, 惡烏頭, 忌鹽. 《本草》

무소뿔. ○양명경에 들어간다.

○승마를 사약(使藥)으로 삼고, 오두와 상반약이다. 소금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熊膽 곰의 뽕지

웅담 곰의 쓸개

- 熊膽味苦, 熱蒸黃疸,¹,
惡瘡蟲痔, 五疳驚癇.
- 웅담은 성미가 쓰며 열이 심해 황달로 변한 것을 치료한다.
악창, 충병, 치질, 다섯가지 감질, 경간을 치료한다.

곰의 뽕지. ○入手少陰厥陰、足陽明.

○{ 肉 } 主風痺, 補虛.

○{ 脂 } 主長髮. 《本草》

곰의 쓸개. ○수소음경、수궐음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 곰의 고기 } 주로 풍비를 치료하고 허를 보해준다.

○{ 곰 비계 } 머리를 잘 자라게 한다. 《본초강목》

羚羊角

영양각

- 羚羊角寒, 明目清肝,
却驚解毒, 神智能安.
- 영양각은 성미가 차며 눈을 밝게 하고 간(肝)을 식혀준다.
경증(驚症)을 물리치며 해독하고 정신과 지혜를 잘 안정시킨다.

夜宿以角掛樹. 《本草》

밤에 영양각을 나무에 걸어두고 잔다. 《본초강목》

鹿茸

녹용

- 鹿茸甘溫, 益氣滋陰,
泄精溺血, 崩帶堪任.
- 녹용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기를 북돋우고 음(陰)을 자양한다.
정(精) 새는 증상,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봉루, 대하 치료에 적당하다.

사슴의 고은뿔.² ○一名斑龍.

- { 肉 } 甘溫補中, 强五臟.
- { 血 } 陰痿, 治崩帶, 大補虛損, 益精血.
- { 腎 } 補腎壯陽.
- { 糞 } 治經日不產. 乾、濕, 各三錢爲末, 薑湯服, 立產. 《本草》

사슴의 어린 뿔. ◦반룡(斑龍)이라고도 한다.

◦ { 사슴고기 } 성질이 달고 따뜻하며 속을 보하고 오장을 강하게 한다.

◦ { 사슴피 } 음위(陰痿)에 쓴다. 봉루·대하를 치료하고 허손을 크게 보하고 정(精)과 혈을 더해준다.

◦ { 신(腎) } 신(腎)을 보하고 양(陽)을 튼튼히 한다.

◦ { 사슴똥 } 출산일이 지나도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마른 것과 습한 것을 각 3돈씩 가루 내어 생강탕으로 복용하면 곧 출산할 수 있다. 《본초강목》

鹿角膠 사슴의 뿔 고은 것

녹각교 사슴의 뿔을 고아 만든 아교

- 鹿角膠溫, 吐衄虛羸, 跌撲傷損, 崩帶安胎.
- 녹각교는 성질이 따뜻하며 토혈과 녹혈, 허로로 몸이 마르는 증상을 치료한다. 넘어지거나 부딪혀 생긴 타박상, 봉루, 대하를 치료하며 태를 안정시킨다.

사슴의뿔고은것.

사슴의 뿔을 고아 만든 아교.

[增]鹿角霜 사슴의뿔고은뿔

[증보]녹각상 녹각교를 가루 낸 것

- [增]鹿角霜平, 安胎補中,

腰痛崩漏, 諸虛有功.

- 녹각상은 성질이 평하며 태를 안정시키고 속을 보해준다.

허리 통증과 봉루, 여러 허증을 치료하는 데 효능이 있다.

사슴의 뿔고은뿔.

녹각교를 가루 낸 것.

麝香 국놀의비쌈

사향 궁노루의 배꼽

- 麝香辛煖, 善通關竅,
伐鬼安驚, 解毒甚妙.³
- 사향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관규(關竅)를 잘 통하게 한다.
귀기(鬼氣)를 치고 경간을 안정시키고 독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매우 좋다.

국놀의 비쌈. 忌大蒜. 《本草》

궁노루의 배꼽. 마늘을 금한다. 《본초강목》

兔肉 토끼고기

토육 토끼고기

- 兔肉味辛, 補中益氣,
止渴健脾, 孕婦勿食.
- 토육은 성미가 매우며 속을 보하고 기를 북돋운다.

갈증을 멎게 하고 비(脾)를 튼튼하게 한다. 임신부는 먹지 않도록 한다.

토끼고기. ○春夏忌食. 《本草》

토끼고기. ○봄、여름에는 먹는 것을 금한다. 《본초강목》

膾肭臍 海狗腎

울눌제 해구신

- 膾肭臍熱, 補益元陽,
驅邪辟鬼, 痲痺勞傷.
- 울눌제는 성미가 뜨거우며 근원의 양기를 보해준다.
사기(邪氣)와 귀기(鬼氣)를 몰아내고 헌벽(痲痺)과 노권상을 치료한다.

一名海狗腎.

- 酒浸一日, 微火灸, 令香.
- 如無眞者, 以黃狗腎三枚, 可代一枚.
- 欲驗其眞, 置睡犬傍, 其犬忽驚跳者, 佳. 《本草》
- 出平海郡. 《寶鑑》

해구신(海狗腎)이라고도 한다.

○하루 동안 술에 담가 두었다가 향이 나도록 약한 불에 구워서 쓴다.

○진품이 없으면 울눌제 1개 대신 황구신(黃狗腎) 3개를 쓴다.

- 진품을 가려내려면 울눌제를 자는 개의 옆에 놓아두었을 때 그 개가 갑자기 놀라 도망가면 좋은 것이다. 《본초강목》
- 평해군(平海郡)에서 산출된다. 《동의보감》

[衆]獐肉 오소리고기

[제중방]단육 오소리고기

- [衆]獐肉甘平, 水脹垂死, 食之肥健, 久痢大效.
- [제중방]단육은 성미가 달고 평하며 수창(水脹)으로 거의 죽게 된 것을 치료한다.
먹으면 살찌고 튼튼하게 하며 오랜 이질에 큰 효과가 있다.

오소리고기.

오소리고기.

1. 熱蒸黃疸, : 時氣熱盛, 變爲黃疸. ※《본초강목》↩

2. 사슴의 고은\ueb6a. : 사슴의 뿔을 고은 것은 녹각교이다. ↩

3. : 殺鬼精物, 去三蟲蟲毒, 溫瘡驚癇 ※《본초강목》↩

鼠 元一增一

쥐 원방 1 종, 증보 1종

〔增〕鼠肉 슈쥐고기

〔증보〕서육 솃쥐고기

- 〔增〕鼠肉味甘, 小兒腹膨,
治勞殺蟲, 或灸或烹.
- 〔증보〕서육은 성미가 달며 소아의 복부 팽만을 치료한다.
허로를 치료하고 충을 죽이며 굽거나 삶아서 쓴다.

슈쥐고기. ◦ { 骨 } 折齒, 爲末揩之. 《本草》

솃쥐고기. ◦ { 쥐의 뼈 } 부러진 이빨에 쥐뼈를 가루 내어 문지른다. 《본초강
목》

刺猬皮 고슴도치 겹질

자위피 고슴도치 겹질

- 刺猬皮苦, 主醫五痔,
陰腫癰痛, 能開胃氣.
- 자위피는 성미가 쓰며 주로 5치(痔)를 치료한다.
음종(陰腫)으로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하고 위기(胃氣)를 잘 열어준다.

고슴도치 껍질. ◦炒黑. 《本草》

고슴도치 껍질. ◦검게 볶아서 쓴다. 《본초강목》



人 元四増二

인 원방 4종, 증보 2종

紫河車 조식나은티

자하거 출산 후 나온 태반

- 紫河車甘, 療諸虛損,
勞瘵骨蒸, 培植根本.
- 자하거는 성미가 달며 여러 허손증을 치료한다.
노채·골증열을 치료하고 근본을 복돋아 길러준다.

조식나은티. ◦忌銅鐵. 《本草》

◦予初年, 惑於以人補人之說, 用之再三既無其效, 又胡忍食之, 以殘厥子之先天, 勸人少用, 可也. 《景岳》

◦{ 胞水 } 티샤근물. 主諸熱毒, 小兒丹毒. 《本草》

◦胞水稟至陰之氣, 眞小兒胎熱良劑, 但不可多食, 致胃寒. 《及幼》

◦{ 月水 } 解毒箭, 女勞復. 《本草》

◦月經治熱之說, 古方亦無, 而近世無論大人小兒新舊, 諸熱用之有效, 何也. 竊¹想.

凡下竅出者, 稟至陰之氣, 女屬陰, 血亦屬陰, 故借陰氣而然耶. 《及幼》

산후 태반. 〇구리와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〇나는 초년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한다"는 설에 미혹되어 태반을 2 - 3번 써보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또 어찌 야만스럽고 잔인하게 그 아이가 하늘에게 받은 것을 먹겠는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되도록 쓰지 않기를 권한다. 《경약전서》

〇 { 포수(胞水) } 양수. 주로 여러 열독과 소아의 단독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〇양수는 천부적으로 지음(至陰)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참으로 소아의 태열을 치료하는 좋은 약재이다. 다만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하니 위(胃)가 차가워진다. 《급유방》

〇 { 월경수 } 화살독과 여로복(女勞復)을 풀어준다. 《본초강목》

〇월경수가 열을 치료한다는 설은 고방(古方)에 없었으나 요즘에는 어른, 소아, 신병, 구병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열증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어째서인가. 가만히 생각건대 아래쪽의 구멍은 천부적으로 지음(至陰)의 기운을 지녔고 여자도 음(陰)에 속하며 혈도 음(陰)에 속하니 그러므로 음(陰)의 기운을 빌어서 그런 것인가 싶다. 《급유방》

頭髮 절로 빠러진 머리털

두발 저절로 빠진 머리카락

- 人之頭髮, 補陰甚捷,
吐衄血暈, 風驚癇熱.
- 사람의 머리카락은 음(陰)을 보하는 효능이 매우 크다.
토혈, 늑혈, 혈훈, 풍간, 경간, 열증을 치료한다.

절로 빠러진 머리털. ○一名血餘.

○男二十已來無疾髮, 或自己髮, 以阜角水洗淨, 燒存性.

○{ 垢 } 主通淋. 《本草》

저절로 빠진 머리카락. ○혈여(血餘)라고도 한다.

○20세 이후에 모발 질환이 없었던 남자의 머리카락이나 자기 머리카락을 조각 달인 물로 씻은 후 약성이 남도록 태워서 쓴다.

○{ 머리때 } 주로 임병(淋病)을 잘 통하게 치료한다. 《본초강목》

[增]人屎苦 人糞

[증보]인사 사람의 똥, 인분

- [增]人屎苦寒, 癰腫痘瘡, 諸毒瘟熱, 末服沸湯.
- [증보]인사는 성미가 쓰고 차며 응종(癰腫)과 두창을 치료한다. 여러 중독, 온병, 열증에 가루 내어 끓는 물로 복용한다.

人糞. ○ 一名人糞.

○封疔腫, 一日根拔. 《本草》

사람의 똥. ○인분(人糞)이라고도 한다.

○정종(疔腫)이 생긴 곳을 덮어 봉하면 하루만에 뿌리가 뽑힌다. 《본초강목》

童便 아희 오줌

동변 아이 오줌

- 童便氣凉, 撲損瘀血,
虛勞骨蒸, 熱嗽尤捷.
- 동변은 성질이 서늘하며 타박상과 어혈을 치료한다.
허로, 골증열, 기침에 더욱 효과가 빠르다.

아히 오줌. ○自己尿, 名輪迴酒.

○滋陰降火甚速, 殺蟲解毒, 療瘡暑.

○{ 秋石 } 오줌 마히 안초와 고은 것. 性溫. 治虛勞尿頻, 遺精白濁, 壯陽補陰.

○{ 人中白 } 오란 달분지 미티 얼원적.

○煨研.

○瀉肝三焦膀胱火, 主降火消瘀, 咽喉口舌瘡. 《本草》

아이 오줌. ○자기 소변을 윤회주(輪迴酒)라고 한다.

○음(陰)을 자운하고 화(火)를 내리는 효과가 매우 빠르다. 충을 죽이고 해독작용을 하며 학질과 서증을 치료한다.

○{ 추석(秋石) } 아이 오줌을 구워서 만든 결정. 성질이 따뜻하며 허로, 소변이 잦은 증상, 유정(遺精), 백탁을 치료하며 양(陽)을 튼튼히 하고 음(陰)을 보해준다.

○{ 인중백 } 오래된 대소변통 밑에 엉겨 붙은 것.

○불에 달궈 갈아서 쓴다.

○간(肝)·삼초·방광의 화(火)를 사해준다. 화를 내려주고 어혈을 풀어주며 인후·입·혀가 험 것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人乳 젖

인유 젖

- 人乳味甘, 補陰益陽,
悅顏明目, 羸瘦仙方.
- 인유는 성미가 달며 음을 보하고 양을 북돋운다.
얼굴이 윤택해지고 눈이 밝아지며 야위고 수척한 것을 치료하는 신선방이다.

젖. ◦療目赤多淚. 《本草》

◦乳酪之中, 牛乳上, 羊乳次, 馬乳又次², 衆乳之功, 總不及人乳. 食物³

젖. ◦눈이 충혈 되고 눈물이 많이 흐르는 것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유제품 중에서 우유가 상품이며 양젖이 다음이고 말젖이 그 다음이지만 여러
젖의 효능은 모두 인유에 미치지 못한다. 식물

口津 입에 침

구진 입에 침

- 口津甘醴, 可塗瘡疥,
解毒辟邪, 目翳竝瘡.
- 구진은 성미가 달고 짜며 부스럼에 발라준다.
해독을 하며 사기(邪氣)를 물리치고 눈의 예막을 없애며 아울러 학질을 치료한
다.

입에 침.

입에 침.

1. 窃 : 竊 [↩](#)

2. 馬又次 : 馬乳又次之 ※동의보감 [↩](#)

3. : 馬又次 : 馬乳又次之 ※동의보감 [↩](#)



水 增一

수 증보 1종

〔增〕臘雪水

〔증보〕납설수

- 〔增〕臘雪水冷, 天行瘟疫,
解一切毒, 洗目退赤.
- 〔증보〕납설수는 성질이 냉하며 온역을 치료한다.
해독작용을 하고 충을 죽이며 눈이 충혈된 것을 낫게 한다.

셋들 납평식 온 눈 녹은 물. ○ { 立春雨水 } 夫妻各飲一盃還房, 有子.

○ { 雹 } 우박. 醬味不正, 入之.

○ { 夏水 } 解煩消暑, 解燒酒毒.

○ { 半天河水 } 卽空樹穴中水, 洗瘡體白駁.

○ { 甘爛水 } 동덩이쳐 거품진 물. 揚之萬遍者, 性溫, 主陽盛陰虛.

○ { 井華水 } 시벽에 처음 기른 우물물. 治酒後熱痢, 又洗目.

○ { 溫泉 } 더운 시암물. 辛熱微毒, 治諸風筋攣不遂等症, 入浴, 大虛, 不宜輕入.

○ { 地漿 } 누른 흙물. 解百物毒, 療霍亂中喝.

○ { 百沸湯 } 助陽行經.

- { 生熟湯 } 삶은 물과 찬물탄 것. 治霍亂嘔吐.
- { 漿水 } 조벌쓰물. 主解渴化滯.
- { 長流水 } 卽千里水. 治手足四末之病, 通大小便. 《本草》

설탕 납일에 온 눈이 녹은 물. ○ { 입춘에 내리는 비 } 부부가 각각 1잔씩 마시고 성관계를 하면 자식이 생긴다.

○ { 박 } 우박. 장(醬) 맛이 이상해졌을 때 넣어준다.

○ { 여름철 얼음 } 번조를 풀어주고 서증을 없애며 소주독을 해독한다.

○ { 반천하수 } 곧 나무 구멍에 고인 물이다. 상처나 백전풍을 씻으면 낫는다.

○ { 감란수 } 휘저어 거품진 물. 수 만 번 휘저은 것으로 성질이 따뜻하다. 주로 양이 성하고 음이 허한 증상에 쓴다.

○ { 정화수 } 새벽에 처음 길어온 우물물. 술을 마신 후 열리를 치료하고 또한 눈병에 눈을 씻어준다.

○ { 온천 } 더운 샘물. 성질이 맵고 뜨거우며 독성이 약간 있다. 여러 풍증과 근에 경련이 일어 쓰지 못하는 증상 등에 온천에 목욕하면 치료된다. 몸이 크게 허할 때는 함부로 온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 지장 } 누런 흙물. 온갖 중독을 해독하며 광란、중갈을 치료한다.

○ { 백비탕 } 양기를 돕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한다.

○ { 생숙탕 } 끓인 물과 찬물을 탄 것. 광란、구토를 치료한다.

○ { 옷물 } 좁쌀. 주로 갈증을 풀고 체기를 풀어준다.

○ { 장류수 } 곧 천리수이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말단에 생긴 병을 치료하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본초강목》



土 元二

토 원방 2종

伏龍肝 오런 솟밋희 누른 흙

복룡간 오래된 솔 밑의 누런 흙

- 伏龍肝溫, 治疫安胎,
吐血嗽逆¹, 心煩妙哉.
- 복룡간은 성미가 따뜻하며 전염병을 치료하고 태(胎)를 안정시킨다.
토혈, 기침으로 기가 솟구치는 증상,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 효과가 묘하게 좋다.

오런 솟 밋희 누른 흙. ◦ { 黃土 } 룰은 흙. 甘平, 主泄痢熱毒, 解諸藥毒, 中肉毒, 合口椒菌毒.

◦ { 東壁土 } 히 먼저 씌인 동벽흙, 甘溫, 主泄瀉霍亂.

◦ { 千步峰 } 卽行步地土高起上者, 便毒, 薑醋調付.

◦ { 百草霜 } 오란 부엌에 검디영. 性溫, 消積, 止上下血崩帶, 治疽瘡口舌瘡. 《本草》

오래된 솔 밑의 누런 흙. ◦ { 황토 } 누런 흙. 성미가 달고 평하며 주로 설사·이질·열독을 치료하고 여러 약독과 고기독, 입이 벌어지지 않은 산초열매독, 버섯독을 해독한다.

◦ { 동벽토 } 햇볕을 쬔 동쪽벽 흙.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설사·곽란을 치료

한다.

- { 천보봉 } 곧, 신발에서 떨어진 흙이 높이 쌓인 흙이다. 변독(便毒)에 중독되었을 때 천보봉의 흙을 생강이나 식초에 개어서 붙인다.
- { 백초상 } 부엌의 오래된 검댕. 성질이 따뜻하며 적체를 소화시킨다. 상초와 하초의 혈붕과 대하를 멎게 한다. 황달, 학질, 구설창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京墨 송연먹

경묵 송연묵

- 京墨辛溫, 吐衄下血, 産後崩中, 止血甚捷.
- 경묵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토혈, 녹혈, 하혈을 치료한다. 산후 봉루에 매우 빠르게 하혈을 멎게 한다.

송연먹.

송연묵.

1. 吐血欬逆：婦人崩中吐血, 止咳逆血 ※《본초강목》↩

金石 元二十六增八

금석 원방 26종, 증보 8종

金屑 금

금조각 금

- 金屑味甘, 善安魂魄,
癲狂驚癇, 調和血脈.
- 금조각은 성미가 달며 혼백을 잘 안정시킨다.
전광(癲狂)과 경간을 치료하고 혈맥을 고르게 한다.

금.

금.

銀屑 은

은조각 은

- 銀屑味辛, 譫語恍惚,
定志養神, 鎮心明目.
- 은조각은 성미가 매우며 헛소리와 정신이 멍한 증상을 치료한다.
의지를 바로잡고 정신을 길러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눈을 밝게 한다.

은.

은.

黑鉛 납

흑연 납

- 黑鉛味甘, 止嘔反胃,
鬼疰癭瘤, 安神定智.
- 흑연은 성미가 달며 번위로 인한 구역질을 멎게 한다.
귀주(鬼疰)·영류(癭瘤)를 치료하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지혜를 바로잡는다.

납.

납.

[增]自然銅 산골

[증보]자연동 산골

- [增]自然銅凉, 折傷止痛,
能續筋骨, 積瘀竝貢.¹
- [증보]자연동은 성질이 서늘하며 골절상을 치료하고 통증을 멎게 한다.
근골을 이어주고 적(積)과 어혈에 모두 효능이 있다.

산골. ◦醋煨七次, 水飛. 《本草》

산골. ◦불에 달궈서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7번하여 수비한다. 《본초강목》

〔増〕黃丹

〔증보〕황단

- 〔増〕黃丹微寒, 積消瘰治²,
墜痰殺蟲, 止痛生肌.
- 〔증보〕황단은 성미가 약간 차며 적취, 소갈, 학질을 치료한다.
담(痰)을 물리치고 충을 죽이며 통증을 없애고 살찌게 한다.

無毒. 《本草》

○有毒. 雷公

독성이 없다. 《본초강목》

○독성이 있다고도 한다. 《뇌공포자론》

密陀僧

밀타승

- 【密陀僧】鹹, 止痢醫痔,
能除白癬, 諸瘡可治.
- 【밀타승】은 성미가 짜며 이질을 멎게 하고 치질을 치료한다.
백반증을 잘 없애며 여러 상처를 치료한다.

小毒. 《本草》

○外付生用, 內服火煨. 《入門》

독성이 조금 있다.《본초강목》

○외용으로 붙일 때는 생것을 쓰고 내복할 때는 불에 달궈서 쓴다.《의학입문》

〔増〕鐵漿 무쇠 당가 울닌물

〔증보〕철장 생철을 담가 우린 물

- 〔増〕鐵漿鹹寒, 鎮心明目,
癲癇狂走, 諸毒可伏.
- 〔증보〕철장은 성미가 짜고 차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눈을 밝게 한다.
전간으로 미쳐 날뛰는 증상을 치료하며 여러 독을 굴복시킨다.

무쇠 당가 울닌물. ○ { 古文錢 } 有毒. 主赤眼通淋去翳. 《本草》

생철을 담가 우린 물. ○ { 고문전(古文錢) } 독성이 있다. 눈이 충혈된 것을 치료하고 소변이 찢끔찢끔 나오는 것을 잘 통하게 하며 예막을 제거한다.《본초강목》

〔増〕雲母 돌비늘

〔증보〕운모 돌비늘

- 〔増〕雲母甘平, 除邪安臟,
益精明目, 勞傷可當.
- 〔증보〕운모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사기(邪氣)를 제거하고 오장을 편하게 한다.
정(精)을 더해주고 눈을 밝게 하며 노관상 치료에 적당하다.

돌비늘. ◦屬金, 主肺.

◦鹽湯煮, 成粉.

◦制汞, 伏丹砂. 《本草》

돌비늘. ◦금(金)에 속하며 주로 폐(肺)를 치료한다.

◦소금 달인 물에 삶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쓴다.

◦수은의 약성을 억제하고 단사를 굴복시킨다. 《본초강목》

[增]紫石英 자수정

[증보]자석영 자수정

- [增]紫石英溫, 鎮心益脾,
女子無孕, 寒熱邪宜.
- [증보]자석영은 성미가 따뜻하며 심(心)을 진정시키고 비(脾)를 보해준다.
여성의 불임을 치료하고 한사(寒邪)와 열사(熱邪)에 써야한다.

자수정. ◦入手少陰、足厥陰.

◦醋煨七次. 《本草》

자수정. ◦수소음경、족궐음경에 들어간다.

◦불에 달궈서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7번 해서 쓴다. 《본초강목》

朱砂 丹砂, 辰砂

주사 단사, 진사

- 【朱砂】味甘, 鎮心養神,

驅邪殺鬼³, 安魂定魄.

- 【주사】는 성미가 달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신을 길러준다.

사기(邪氣)를 몰아내고 귀신을 물리치며 혼백을 안정시킨다.

一名丹砂, 又名辰砂.

○惡磁石, 畏鹹水. 忌一切血. 《本草》

단사(丹砂)라고도 하며 또한 진사(辰砂)라고도 한다.

○자석과 상오약이고 소금물과 상외약이다. 모든 피를 금한다. 《본초강목》

水銀 汞

수은 汞

- 【水銀】性寒, 治疥殺蟲⁴,

斷絕胎孕⁵, 催生立通.

- 【수은】은 성미가 차며 개선을 치료하고 충을 죽인다.

임신을 단절시키고 출산을 촉진시키며 바로 아이가 나오게 한다.

一名汞.

○大毒.

○畏磁石、砒礪, 忌一切血. 《本草》

홍(汞)이라고도 한다.

○독성이 크다.

○자석·비상과 상외약이다. 모든 피를 금한다. 《본초강목》

輕粉 汞粉

경분 홍분

- 輕粉性燥, 外科要藥,
楊梅諸瘡, 殺蟲可托.
- 경분은 성질이 조(燥)하며 외과 치료에 요긴한 약이다.
양매창과 여러 창증을 치료하며 충을 죽일 때 쓸 수 있다.

有毒.

○一名汞粉, 又名膩粉.

○畏磁石, 忌一切血. 《本草》

독성이 있다.

○홍분(汞粉)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분(膩粉)이라고도 한다.

○자석과 상외약이다. 모든 피를 금한다. 《본초강목》

靈砂, 二氣砂

영사, 이기사

- 靈砂性溫, 能通血脈,
殺鬼辟邪, 安魂定魄.

- 영사는 성미가 따뜻하며 혈맥을 잘 통하게 한다.

귀신을 몰아내고 사기(邪氣)를 물리치며 혼백을 안정시킨다.

一名二氣砂.

이기사(二氣砂)라고도 한다.

雄黃

응황

- 【雄黃】甘辛, 辟邪解毒,
更治蛇虺, 喉風⁶ 瘰肉.
- 【응황】은 성미가 달고 매우며 사기(邪氣)를 물리치고 독을 해독한다.
또한 독사의 독을 치료하고 전후풍과 코에 군살을 치료한다.

有毒.

○【雌黃】主惡瘡. 《本草》

독성이 있다.

○【자황】악창을 주로 치료한다. 《본초강목》

石膏

석고

- 石膏大寒, 能瀉胃火,
發渴頭痛⁷, 解肌立安.

- 석고는 크게 차며 위화(胃火)를 잘 내려준다.

소갈과 두통이 나는 것을 치료하고 해기시켜서 곧 편안해진다.

入手太陰少陽、足陽明.

◦火燉. 《本草》

◦但用之少則難見功. 《備要》

수태음경、수소양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불에 달궈서 쓴다. 《본초강목》

◦단, 너무 적게 쓰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본초비요》

滑石 곱돌

활석 곱돌

- 滑石沈寒, 滑能利竅,

解渴除煩, 濕熱可療.

- 활석은 성미가 침(沈)하고 차며 9규를 원활히 통하게 한다.

갈증을 해소하고 번조를 제거하며 습증과 열증을 치료한다.

곱돌. ◦入足太陽, 陽明.

◦白色佳, 雜色有毒. 《本草》

곱돌. ◦족태양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흰빛이 도는 것이 좋고 여러 색이 섞인 것은 독성이 있다. 《본초강목》

赤石脂

적석지

- 【赤石脂】溫, 保固腸胃,
潰瘍生肌, 澀止瀉利.⁸
- 【적석지】는 성질이 따뜻하며 장위(腸胃)를 튼튼하게 보한다.
궤양에 새살이 돋게 하며 잘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 설사와 이질을 멎게 한다.

火煨.

○反官桂, 畏芫花、大黃、黃芩、松脂. 《本草》

불에 달궈서 쓴다.

○관계(官桂)와 상반약이고, 원화、대황、황금、송지와 상외약이다. 《본초강
목》

〔增〕【爐甘石】

〔증보〕【노감석】

- 〔增〕【爐甘石】溫, 止血消腫,
明目去翳, 爛弦可壅.⁹
- 〔증보〕【노감석】은 성미가 따뜻하며 지혈시키고 부종을 없앤다.
눈을 밝게 하고 예막을 제거하며 난현풍을 막을 수 있다.

入陽明.

○火煨, 童便浸七次, 水飛. 《本草》

양명경에 들어간다.

◦불에 달궈서 동변에 담금질하기를 7번 하고 수비한다. 《본초강목》

石鍾乳

석종유

- 石鍾乳甘, 氣乃懷悍,¹⁰
益氣固精, 明目延筭.¹¹

- 석종유는 성미가 달며 기질이 매우 사납다.

기를 북돋우며 정(精)을 견고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수명을 늘려준다.

一云大毒.

◦可柔五金.

◦惡牧丹, 畏石英, 忌參朮, 犯者死. 《本草》

독성이 많다고도 한다.

◦5가지 금속을 부드럽게 한다.

◦목단과 상오약이고, 석영과 상외약이다. 인삼·백출을 금해야 하니 어기면 죽게 된다. 《본초강목》

陽起石

양기석

- 【陽起石】甘, 腎氣乏絕,
陰痿不起, 其效甚捷.

- 【양기석】은 성미가 달며 신기(腎氣)가 결핍되어 끊어진 것을 치료한다.

음위(陰痿)로 발기되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데 그 효능이 매우 좋다.

火煨醋淬七次.

◦惡澤瀉、桂¹², 畏兔絲. 《本草》

불에 달궈다가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7번 한다.

◦택사、계피와 상오약이고, 토사자와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磁石 지남석

자석 지남석

- 磁石味鹹, 專殺鐵毒,

若誤吞針, 繫綿卽出.

- 자석은 성미가 짜며 전적으로 쇠붙이의 독성을 없앤다.

바늘을 잘못 삼켰다면 자석을 실로 묶어 삼키면 곧 따라 나온다.

지남석. ◦入腎.

◦火煨醋淬九次.

◦惡牧丹, 伏丹砂. 《本草》

지남석. ◦신경(腎經)에 들어간다.

◦불에 달궈서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9차례 한다.

◦목단과 상오약이고, 단사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본초강목》

代赭石

대자석

- 代赭石寒, 下胎¹³崩帶,
兒疳瀉痢, 驚癇鬼怪.
- 대자석은 성미가 차며 태를 내려오게 하며 봉루와 대하를 치료한다.
아이의 감병(疳病), 설사, 이질, 경간, 귀사(鬼邪)를 치료한다.

入手少陰、足厥陰, 血分.

◦火煨醋淬七次.

◦畏附子. 《本草》

수소음경、족궐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불에 달궂었다가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7번 한다.

◦부자와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増〕【禹餘糧】

〔증보〕【우여량】

- 〔増〕【禹餘糧】寒, 除煩固腸,
血閉腹疼, 下痢亦當.¹⁴
- 〔증보〕【우여량】은 성질이 차며 번조를 없애고 대장을 견고하게 한다.
혈폐, 복통, 설사, 이질에도 적당하다.

入手足陽明血分.

○伏五金, 制三黃. 《本草》

수양명경, 족양명경에 들어간다.

○5가지 금속의 약성을 굴복시키고 황금, 황련, 황백의 약성을 억제한다. 《본초강목》

礞霜 人言, 信石

비상 인언, 신석

- 礞霜有毒, 風痰可吐,
截瘧除哮, 能消沈痼.
- 비상은 독성이 있으며 풍담(風痰)을 토하게 한다.
학질을 멎게 하고 효천을 제거하며 심한 고질병을 잘 낫게 한다.

一名人言, 又名信石.

○醋煮.

○畏菉豆、冷水. 《本草》

인언(人言), 또는 신석(信石)이라고도 한다.

○식초에 삶아서 쓴다.

○녹두, 냉수와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青礞石

청몽석

- 【青礞石】寒, 硝煨金色¹⁵,

墜痰消食, 神妙莫測.

- 【청몽석】은 성질이 차며 염초와 함께 불에 달구면 금빛이 돈다.

담을 잘 내리며 또한 먹은지 오래된 음식을 소화시킨다.

用焰硝同入鍋內, 火煨如金色者佳. 《本草》

청몽석을 염초와 함께 구리냄비에 넣고 불에 달궈보아 금빛이 도는 것이 좋다.

《본초강목》

花藥石

화예석

- 【花藥石】寒, 善止諸血,

金瘡血流, 產後血洩.¹⁶

- 【화예석】은 성질이 차며 여러 출혈증을 잘 멎게 한다.

쇠붙이에 다쳐 피가 흐르는 것을 치료하고 산후 패혈이 다 나오지 않은 것을 끌어낸다.

火煨研.

불로 달궈서 갈아서 쓴다.

食鹽 소금

식염 소금

- 食鹽味鹹, 能吐中痰¹⁷,

心腹卒痛, 過多損顏.

- 식염은 성미가 짜며 가슴 속의 담(痰)을 토하게 한다.

명치가 갑자기 아픈 것을 치료하며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색이 손상된다.

소금. ○病嗽及水腫, 全禁.

○明目固齒. 每朝用鹽揩齒吐水洗目, 夜見細字.

○ { 靑鹽 } 卽戎鹽. 止心腹痛, 明目, 除諸血. 《本草》

○ { 鹽鹵 } 간수. 婦人服之垂死, 取活鴨或雞刺頭, 將塞口中以熱血灌之. 若飲鹵多, 必盡數隻收毒. 《景岳》

소금. ○기침과 수종(水腫)에는 소금을 일절 금한다.

○눈을 밝게 하고 치아를 단단하게 한다. 매일 아침 치아를 문지르고 토해낸 물로 눈을 씻어주면 밤에 작은 글씨도 잘 보인다.

○ { 청염 } 곧 용염(戎鹽)이다. 명치가 아픈 것을 멎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여러 혈증을 없앤다. 《본초강목》

○ { 염로 } 간수. 부인이 먹고 거의 죽으려 할 때는 살아있는 오리나 닭의 대가리를 잘라 달힌 입안에 뜨거운 피를 흘려 넣어준다. 만약 간수 중독이 심하면 반드시 독이 나갈 때까지 여러 마리를 쓴다. 《경악전서》

〔增〕【凝水石】

〔증보〕【응수석】

- 〔增〕【凝水石】寒, 壓丹石毒,

除熱止渴, 堅牙明目.

- 〔증보〕【응수석】은 성질이 차며 단석의 독성을 억누른다.

열을 내리고 갈증을 멎게 하며 치아를 단단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一名寒水石.

○火煨.

○鮮巴豆毒, 畏地榆. 《本草》

한수석(寒水石)이라고도 한다.

○불에 달궂어서 쓴다.

○파두독을 해독하고 지유와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芒硝

망초

- 芒硝苦寒, 實熱積聚,

蠲痰潤燥, 疏通便閉.

- 망초는 성미가 쓰고 차며 실열과 적취를 없앤다.

담증을 낮게하고 마른 것을 자윤하며 막힌 변을 소통시킨다.

卽朴硝用再煎煉, 傾入盆內結成, 芒硝也.

○ { 朴硝 } 初得一煎而成者.

○ { 風化硝 } 取朴硝, 以沸湯浸化, 結成, 牙子瑩白者.

○ { 焰硝 } 煉朴硝, 結如石者.

○反三稜、硫黃. 《本草》

곧, 박초를 다시 끓여 녹여서 그릇 안에 비스듬히 부어 결정이 생긴 것이 망초이다.

○ { 박초 } 처음에 한 번 끓여서 만들어 진 것이다.

○ { 풍화초 } 박초를 끓는 물에 담가서 녹은 후 결정이 생긴 것으로 치아처럼 하얗게 빛난다.

○ { 염초 } 박초를 녹여 돌처럼 결정이 생긴 것이다.

○삼릉、유황과 상오약이다.《본초강목》

玄明粉

현명분

- 玄明粉辛, 善除宿垢,
化積消痰, 諸熱可療.
- 현명분은 성미가 매우며 묵은 때를 잘 제거한다.
적(積)을 녹이고 담(痰)을 없애며 여러 열증을 치료할 수 있다.

用朴硝一斤, 蘿蔔一斤, 同煮, 蘿蔔熟爲度, 綿紙濾過, 甕盆內, 露一宿收之, 宜冬月製.《本草》

박초 1근과 나복 1근을 넣고 나복이 익을 때까지 함께 삶은 후, 천이나 종이에 여과하여 항아리에 담아 하룻밤 밖에 두었다가 거두어 쓴다. 겨울에 제조해야 한다.《본초강목》

礞砂 礞砂, 北亭砂

망사 요사, 북정사

- 【礞砂】有毒, 潰癰爛肉,
除翳生肌, 破癥消毒.

- 【망사】는 독성이 있으며 웅창을 터뜨린다.

독을 없애며 살찌게 하고 예막을 없애는 데 좋다.

一名礞砂, 又名北亭砂.

○柔金銀, 可爲鐸藥. 《本草》

요사(礞砂)라고도 한다. 또한 북정사(北亭砂)라고도 한다.

○금과 은을 무르게 하며 땀질하는 약으로 쓴다. 《본초강목》

礞砂 蓬砂, 盆砂

봉사 봉사, 분사

- 【礞砂】味辛, 療喉腫痛,
膈上熱痰, 噤化立中.

- 【봉사】는 성미가 매우며 인후가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흉격 위의 열담열을 없애며 녹여서 먹으면 바로 적증된다.

一名蓬砂. 又名盆砂.

봉사(蓬砂)라고도 한다. 또한 분사(盆砂)라고도 한다.

硫黃 석유황

유황 석유황

- 硫黃性熱, 掃除疥癩,
壯陽逐冷, 寒邪敢當.
- 유황은 성질이 뜨거우며 개창(疥癩)을 제거한다.
양(陽)을 튼튼하게 하고 냉기를 몰아내고 한사(寒邪)를 감당한다.

석류황. ◦熔化入麻油, 或童便浸七日, 研細水飛.

◦反朴硝. 《本草》

석유황. ◦녹여서 마유(麻油)를 넣고 쓰거나 동변에 7일간 담갔다가 곱게 갈아서 수비한다.

◦박초와 상반약이다. 《본초강목》

白礬 빙번

백반

- 白礬味酸, 善解諸毒,
治證多能, 難以盡述.
- 백반은 성미가 시며 여러 독을 잘 풀어준다.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 많아 다 서술하기 어렵다.

백번. ◦ { 枯礬 } 卽火煨如粉者.

◦ { 綠礬 } 火煨用, 治咽喉口齒瘡惡瘡, 及治痘.

◦ { 皁礬 } 染髮. 《本草》¹⁸

백반. ◦ { 고백반 } 곧, 백반을 불에 달궂고 고운 가루처럼 만든 것이다.

◦ { 녹반(綠礬) } 불에 달궂서 쓴다. 인후、입、잇몸에 생긴 창이나 악창을 치료하고 황달을 치료한다.

◦ { 조반(皁礬) } 머리를 염색하는 데 쓴다. 《본초강목》

1. : 療折傷, 散血, 止痛 ※《본초강목》↩

2. 積消瘡治 : 消渴.....治瘡及久積. ※《본초강목》↩

3. 驅邪殺鬼 : 殺精魅邪惡鬼 ※《본초강목》↩

4. 治疥殺蟲 : 治惡瘡癩疥, 殺蟲 ※《본초강목》↩

5. 斷絕胎孕 : 婦人多服絕娠 ※《본초강목》↩

6. 喉風 : 纏喉風痺 ※《본초강목》↩

7. 發渴頭痛 : 除時氣頭痛身熱.....解肌發汗, 止消渴煩逆 ※《본초강목》↩

8. : 澀止瀉利. : 下痢赤白, 小便利.....其性澀. 澀而重, 故能收濕止血而固下
※《본초강목》↩

9. 爛弦可壅. : 治風眼流淚, 爛弦. ※《본초강목》↩

10. 氣乃慄悍, 石鍾乳爲剽悍之劑 ※《본초강목》↩

11. 筭. : 算

増延壽算 ※《경악전서》↩

12. 惡澤瀉、桂 : 惡澤瀉、茵桂、雷丸、石葵、蛇蛻皮 ※《본초강목》↩

13. 下胎 : 産難胞不出, 墮胎.....安胎健脾. ※《본초강목》↩

14. : 煩固腸, 咳逆寒熱煩滿.....固大腸 ※《본초강목》↩

15. 硝煨金色 : 青礞石同焰硝煨如金色 ※《제증신편》

以礞石四兩打碎, 入消石四兩拌勻. 炭火十五斤簇定, 至消盡, 其石色如金爲度. ※《본초강목》↩

16. : 産後血洩. : 婦人産後敗血不盡 ※《본초강목》↩

17. 能吐中痰 : 吐胸中痰癖 ※《본초강목》

西北方人食不耐鹹, 而多壽少病好顔色. 東南方人食絶欲鹹, 而少壽多病, 便是損人傷肺之效. ※《본초강목》↩

18. 《방약합편》에는 밑에 石油가 추가되어 있다. ↩

해제

저자

저자 혜암(惠庵) 황도연(黃道淵)은 1808년 출생하여 내의원 의관을 지낸 인물로 《부방편람附方便覽》(1855), 《의종손익醫宗損益》(1868), 《의방활투醫方活套》(1869) 등 활용성이 높은 의서들을 저술하였다. 《의종손익부여》는 황도연이 《의종손익》을 간행한 다음 해(1867년)에 틈틈이 자료를 모아 《의종손익》 뒤에 붙인 가결로 된 본초서이다. 황도연은 《수세보원》의 가결(歌訣)을 위주로 문장을 뽑고, 《제중신편》의 〈약성가〉에서 적합한 구절을 보입한 후 여기에 자신의 의론을〔증보〕하여 간편하게 암송할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완성하고 《의종손익부여》라고 이름지었다.

구성 및 특징

《의종손익부여》는 〈강령〉과 〈약성가〉로 구성되어 있다.

〈강령綱領〉

였다. 《의종손익부여》는 황도연이 《의종손익》을 간행한 다음 해(1867년)에 틈틈이 자료를 모아 《의종손익》 뒤에 붙인 가결로 된 본초서이다. 황도연은 《수세보원》의 가결(歌訣)을 위주로 문장을 뽑고, 《제중신편》의 〈약성가〉에서 적합한 구절을 보입

한 후 여기에 자신의 의론을〔증보〕하여 간편하게 암송할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완성하고 《의종손익부여》라고 이름지었다.

〈약성가藥性歌〉

주요 내용인 〈약성가〉는 8언구로 된 약성가 구절과 주(註)로 이루어져 있다. 구절에는 기미(氣味), 경락(經絡), 효능, 금기 등의 내용이 2구의 약성가로 요약되게 담겨 있다. 황도연은 범례에서 암송하기 쉽도록 하였지만 자구의 제한으로 요약하면서 생긴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를 달아 상세히 밝혀 놓았다고 하였다. 향약과 구분하기 위해 외국 본초명의 경우는 【음각】으로 표기되어 있고 향약에는 언해로 속명(俗名)이 부기되어 있다. 각 본초명 하위의 세부 약용부위는 {양각}으로 기재하여 약재 활용에 도움을 주었다. 《수세보원》에서 가절을 가져온 경우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출처를 중복해서 밝혀두지 않았고 《제중신편》에서 인용한 것과 새로 증보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衆〕,〔增〕자를 표기하여 검색하고 열람하는 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본 서적의 범례에는 황도연이 《의종손익부여》를 간행하게 된 이유와 출전, 본문의 구성과 주(註)의 역할, 발췌한 것과 증보한 것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서문에서 그는 1856년에 찬집한 《부방편람附方便覽》 14권과 1867년에 완성한 《의종손익》 6권, 《의종손익부여》를 언급하면서 이 세 권을 통해 동료 의사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의서 간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래 살도록 도우려 했던 자신의 뜻과 사사로운 명성을 얻고자 하지 않았던 의지를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작성자 구현희



일러두기

- 본 국역서는 무교 찬화당본(武橋 贊化堂本)을 저본으로 삼았다. 글자가 마멸되거나 의미가 통하지 않는 부분은 한국의학대계 영인본과 대교하여 교감하고 《제중신편》, 《본초강목》, 《본초강목습유》를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따랐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약성가〉에 각 본초명으로 표시없이 소제목을 달아두었다.
- 교감기를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㉞로 표시하였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속자, 이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시 없이 정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 湿 => 濕, 宜 => 宜
- 글자는 다르나 당시 통용되었던 글자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 예시) 歛=斂, 莛=莛, 褰=褰, 郤=卻
- 입력이 어려운 글자는 파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口+八/豕】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 기호 및 표기가 사용되었다.

- ㉠ : 판독 안되는 글자
- 작은 글씨 : 작은 글씨
- 【 】 : 음각
- { } : 양각
- 주석 : 주석에 해당되는 문구



출판사항

서명 : 국역 의종손익부여 醫宗損益附餘

원저자 : 황도연 黃度淵

국역·해제 : 구현희

발행인 : 이진용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1년 12월 10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 (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하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이정현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편집하여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21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
연구원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학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KSN2013110]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
랫폼 구축

